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2021-01

기초연구

A Study on Eco-Friendly Perspectives
of Culture and Arts

노영순
장 훈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기초연구 2021-0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A Study on Eco-Friendly Perspectives of Culture and Arts

노영순·장훈·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① 환경의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및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강화

-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가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음은 그간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가 기후변화와 지구의 온난화 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새로운 변화와 실효적인 실천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임.
- 특히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 19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이 정한 ‘추가기온 상승 섭씨 1.5도 이하’를 유지하고 유해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필연적 시점임을 제시

② 문화예술에서 친환경적 관점(eco-friendly perspectives)의 필요성

-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이슈는 다름 아닌 인간의 행위이자 ‘삶의 방식’(way of life), 즉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
 - 많은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은 이러한 환경이슈가 과학적 조치만이 아닌 ‘문화적 전환’을 성취할 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및 소비활동으로 인해 다소간의 ‘탄소’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이 훼손되기도 함.
- 이에 문화예술 활동의 창조, 매개,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관점에 도입이 필요하며, 이의 실천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홍보·교육 사업 등과 같은 정책 프로그램, 환경을 비롯한 관련 부문 간의 협력체계 마련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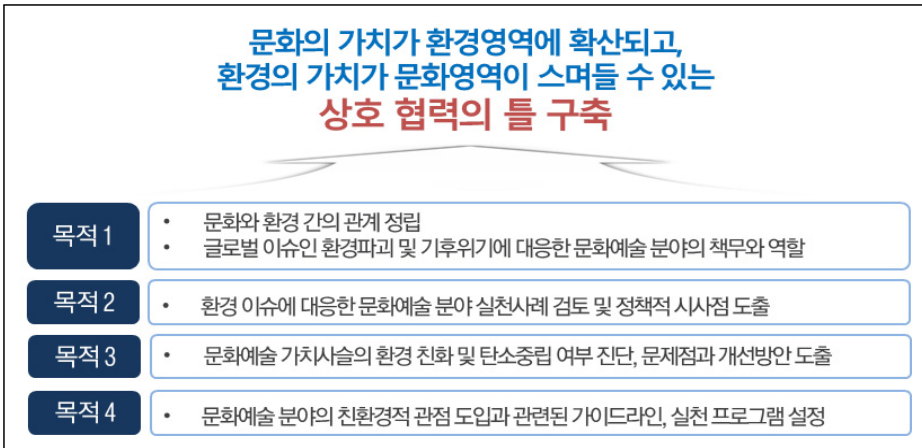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문화와 환경이슈간의 관계 정립과 현황 진단 및 사례 분석, 주요 실천과제 도출 등을 통해 문화의 가치가 환경영역에 확산되고 동시에 환경의 가치가 문화영역

에 스며들 수 있는 상호 협력의 틀과 관련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첫째, 글로벌 이슈인 환경파괴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문화예술분야의 관계를 정립하고 책무 및 역할에 대하여 조명
- 둘째, 환경이슈에 대응한 문화예술분야의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셋째, 우리 국민과 문화시설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중립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 넷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실천적 프로그램 등을 설정

[그림 1] 연구의 목적



가.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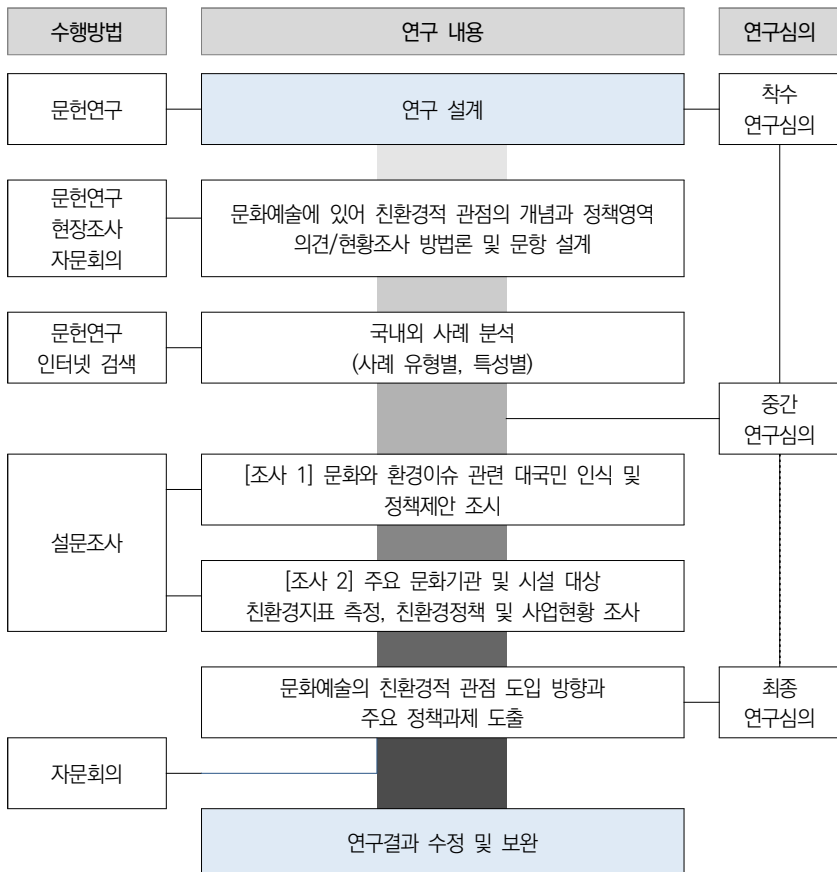
-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체를 연구범위로 설정함. 정책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이지만,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은 우리나라보다 영국이나 유럽 주요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많아 국외의 사례가 중요하게 분석
- (시간적 범위) 연구에서 제시되는 사례의 경우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가 글로벌 이슈가 된 이후를 검토. 특히 2016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발표, 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기점으로 환경 및 기후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므로 이 시기가 중요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됨.

- (내용적 범위) 첫째, 친환경적 관점의 개념적 및 행위적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국가 및 글로벌 사회의 주요 의제, 제도 및 계획 등을 검토함. 둘째, 환경이슈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설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과 환경이슈 간의 관계에 대한 국민 및 문화예술계 인식 파악, 현장상황 진단함. 끝으로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등을 추진

2) 연구 수행방법 및 과정

[그림 2]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2. 환경 이슈와 문화

가.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노력 강화

-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기점으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음. 실제로도 기후환경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더 이상 환경이슈 해결에 주저할 여유가 없어진 상황에 놓여 있음.
- 우리 정부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의 전환을 검토한 것 또한 기후변화의 위기적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이나 광공업 등과는 달리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공연·전시 및 기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의 결과를 다량의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어 기후환경변화 등 환경이슈에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실제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계획(법정·비법정)에 환경 관련 정책이 일부 언급되어 있고 유네스코(UNESCO),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경우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적 관점을 도입하고 세부 정책방향을 설정 필요

나. 문화예술 연계 주요 환경정책 분야 검토

- 기후변화 대응(문화기관 및 시설, 주요 이벤트 등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관리)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기타 영역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
- 그 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의 자원순환, 자연환경 보전의 순이었다. 국토·해양·대기환경 보전의 경우, 도시 유희시설의 문화 예술적 활용,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공간 조성 등이 주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1〉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과 주요 환경정책 영역 간 연관성 분석

계획 및 정책		자연환경 보전	국토·해양· 대기환경 보전	물·수자원·상 수도 이용 및 관리	자원순환	기후변화	기타 (커뮤니케이션, 협력체계 등)
국 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문화체육관광, 2008)	●	●		●	●	●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문화체육관광부, 2017)		●		●	●	●
	자원순환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		
	환경 분야 주요 문화예술 관련 계획	●	●			●	●
국 외	Culture 2030 Indicator (UNESCO, 2019)					●	●
	Culture: Urban·Future (UNESCO, 2016)	●					
	Culture 21: Agenda 21 for Culture(UCLG, 2015)	●			●	●	●
	Culture,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CLG, 2017)					●	●
	Environmental Reports 2018 -2022(Arts Council England, 2020)				●	●	●

자료: 저자 작성

3. 주요 사례 분석

가. 주요 사례에서 나타난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적 실천

- ‘친환경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실현’과 ‘문화시설(행사장)의 친환경성 제고 사례’는 도시 전체, 시설 혹은 이벤트 등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친환경가이드 제시에 관한 것으로 기후변화, 자원순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한 내용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시드니항 보호와 같은 국토·해양·대기환경 영역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문화시설의 친환경 계획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임.
- ‘환경이슈극복의 동인으로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친환경적 관점 확

산이 주된 목적이므로 기후환경변화 및 탄소중립은 물론 자연환경, 국토·해양·대
기환경 영역의 환경이슈를 고루 다루고 있음.

- 축제, 전시는 물론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예술적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예술창작활동과 교육 영역에 걸쳐 친환경적 관점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음.

〈표 2〉 국내외 주요 사례들의 환경정책 영역 간 연관성 분석

사례		자연환경 보전	국토·해양· 대기환경 보전	물·수자원· 상수도 이용 및 관리	자원 순환	기후 변화	기타 (커뮤니케이션, 협력체계 등)
• 친 환경 적 관 점 에 서 문 화 예 술 실 현	•문화를 위한 친환경가이드와 이벤트 지속가능성(영국)	△	△	△	●	●	●
	•Green Arts Initiative(영국)	△	△	△	●	●	●
	•Manchester Art Sustainability Team(영국)	△	△	●	●	●	●
	•Materials for the Arts(미국)	△	△	△	●	△	●
• 문 화 시 설 (행사장)의 친 환 경 성 제 고	•ACC 그린뉴딜가이드 (한국)	△	△	△	●	△	●
	•Cultural Venues Sustainability Action Plan(네덜란드)	△	△	●	●	●	●
	•Australian Museum 'Sustainability Action Plan(호주)	△	△	●	●	●	●
	•Museum of London 'Sustainability Policy'(영국)	△	△	△	●	●	△
	•Sydney Opera House 'Environmental Action Plan'(호주)	●	●	●	●	●	●
• 환 경 이 슈 극 복 의 동 인 으 로 서 문 화 예 술	•기후시민 3.5(한국)	●	△	△	●	●	●
	•CURRENT: LA Water(미국)	●	△	●	△	△	●
	•Refuge(호주)	△	△	△	△	○	●
	•유럽녹색수도의 문화전략(노르웨이)	●	●	△	△	○	●
	•문화예술을 통한 해양 환경오염문제 인식(한국)	△	●	△	●	△	●

자료: 각 사례를 토대로 저자 작성

주: △: 연계 약함, ○: 간접 연계, ●: 직접 연계

가. 주요 사례의 시사점

- (친환경 기준, 모니터링 및 저감 방식 마련) 정부의 환경 기준이나 이의 변형기준을 적용하여 문화예술시설 및 기관 환경모니터링, 시설의 경우, 시설 경영 전반(운영, 조달, 창작프로그래밍, 교육 및 홍보 등)에 환경요소 결합
- (홍보 및 교육 활성화) 이해관계자 대상 친환경 여론 환기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추진, 친환경성의 브랜드 가치상승 효과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도입
- (연대와 협력)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연합을 구성, 공동대응 추진 / 정부 및 예술위원회 적극 지원(펀딩, 컨설팅 등), 문화와 환경부문간의 적극적 협의
- (환경을 넘어 지속가능발전) 환경이슈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을 두루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문화예술' 결합

4. 친환경 문화정책 인식 및 수요 조사

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 기후변화 및 친환경 전환에 대한 공감

- (인식 및 태도)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으며, 삶 전반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공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영역의 전략적 친환경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약 요인) 친환경 실천에 제약이 되는 요인으로 친환경적 생활 전환의 어려움, 개인의 실천으로 환경이 변화할지에 대한 의구심 등이 나타나고 있음.

2)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 배출

- (추정 방식)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배출은 교통영역을 중심으로 이동수단, 이동거리, 방문 빈도를 파악하여 추정하였음.

- (이동 수단) 문화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탄소배출을 산출하기 위해 이동 수단과 관련된 부분 살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축제(56.1%), 박물관(51.9%), 미술관(43.3%), 공연장(41.1%) 등에 접근하기 위해 자가용을 사용하고 있음.
- (이동 거리) 주요 문화서비스 및 시설의 왕복거리를 추정해본 결과, 축제(93.30km), 미술관(77.28km), 박물관(71.28km), 공연장(64.28km), 도서관(19.52km) 순으로 나타났음.
- (방문 빈도) 방문빈도는 코로나 이전인 19년 중위 값 기준으로 도서관은 연간 33.56회, 박물관(13회), 미술관(9.42회), 축제(5회), 공연장(4회) 등으로 나타났음.
- 문화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교통 탄소배출량은 다음과 같음.
 - (추정방식) 이동거리(방문횟수 * 평균 이동거리)*이동수단*이동수단별 탄소배출계수
 - (탄소 배출량 추정결과) 박물관 이용의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았고, 공연장 이용의 탄소 배출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3〉 연간 문화서비스 이용의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단위: kgCO₂)

구분	2019년 이용자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2020년 이용자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최소	최대	중위	최소	최대	중위
도서관	19.8732	35.4849	28.7391	14.7259	28.1546	21.4404
박물관	28.8577	48.4315	37.0832	20.3020	41.9307	31.1157
미술관	17.5041	38.5100	28.0071	17.8595	35.4310	26.6453
공연장	7.2487	21.7462	14.4974	16.1904	32.4900	24.3398
축제	16.1167	34.5612	25.3390	22.8902	45.3500	34.1198
전체 평균	19.8829	37.9304	28.8820	17.5656	34.7871	26.1762

3) 친환경 문화정책 수요

- (환경과 문화) 환경과 문화의 관련성은 문화예술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
- (친환경 문화 향유 의향) 문화서비스 이용 시 환경 이슈를 고려할 의향은 80.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실천 가능 영역) 문화향유 시 실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문화시설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76.6점), 도보 및 대중교통이용(76점)으로 나타났고, 예상 밖으로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참여는 65.7점으로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음.

- (문화서비스 기관 친환경 평가) 주요 문화서비스 시설 및 기관에서 친환경 책임 이행을 물은 결과, 29%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 (문화서비스 기관 실천영역) 국민들은 문화서비스 기관에서 우선 쓰레기 절감, 수질 오염 저감, 자원 절약,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중앙정부 역할) 문화서비스와 친환경 정책이 융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표준 및 가이드 마련, 관련 법제도 정비, 문화 분야와 환경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나. 문화시설 설문조사 결과

1) 친환경 문화서비스 준비도

- (인식) 문화 분야와 환경 분야의 관련성 인식은 70.5%가 관련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 (조직 준비도) 기관장의 친환경 관심도는 65.3%가 관심이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관련 담당자는 26%만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계획 수립) 응답 시설 중 현재 전략적으로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31.3%로 낮게 나타났으나, 개별 실천 영역에서는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50.4%), 저탄소 제품 구매확대(50%)는 어느 정도 실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 준비도) 응답 시설의 전반적인 친환경 준비도 인식은 18.7% 만이 문화시설 운영의 친환경 전환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함.

2) 문화시설의 탄소배출

- (추정 방식) 문화서비스 기관의 탄소배출량을 추정해보기 위해 기관의 전력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유류 사용량, 수도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의 정보를 수집 하였음.

$$\text{문화시설 운영 탄소발자국} = (\text{연간 전력 사용량} * \text{전력 탄소배출 계수}) + (\text{연간 도시가스 사용량} * \text{도시가스 탄소배출 계수}) + (\text{연간 유류 사용량} * \text{유류 탄소배출 계수}) + (\text{연간 수도 사용량} * \text{수도 탄소배출 계수}) + (\text{연간 폐기물 배출량} * \text{폐기물 탄소배출 계수})$$

■ 탄소 배출량 추정 결과

- (시설별 탄소배출) 탄소 배출과 관련된 문항에 응답한 시설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추정결과 공연장의 탄소배출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미술관의 탄소배출량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연간 문화서비스 기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kgCO₂)

구분	사례 수	2019년 1관 평균 탄소배출량	2020년 1관 평균 탄소배출량	증감
도서관	79	504,583.78	419,831.97	-17%
박물관	46	457,197.94	357,704.95	-22%
미술관	4	322,532.50	258,390.28	-20%
공연장	57	786,941.21	541,699.82	-31%
전체 평균	186	575,478.51	438,341.96	-24%

- (시설 노후도와 탄소배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30년 이상의 탄소 배출량이 19%~33%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재건축 연한 기준(30년)에 따른 1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kgCO₂)

구분	사례 수	'19년 1관당 평균 탄소배출량		'20년 1관당 평균 탄소배출량	
		30년 미만	3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도서관	79	517,241.62	392,245.42	433,838.83	295,521.15
박물관	46	299,037.24	1,511,602.58	213,767.83	1,317,285.79
미술관	4	322,532.50	-	258,390.28	-
공연장	57	883,199.50	425,972.61	592,304.38	351,932.72
전체 평균	186	560,748.45	666,125.01	419,003.30	557,349.10

■ 탄소저감 노력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시설을 비율은 21.5%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4% 수준으로 나타났음.
- (녹색제품) 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은 '18년 12%에서 '20년 18%로 증가하고 있었음.

3) 친환경 문화시설 정책 수요

- (친환경 문화정책 필요성)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은 응답 기관의 6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제약 사항) 친환경 정책 도입의 제약사항으로는 관련 인력의 부족, 추가적 비용초래, 문화분야 친환경 제도 및 가이드의 미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기관 실천 영역별 중요도) 문화시설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는 에너지 및 자원 절약(73.2점), 쓰레기 배출 저감 노력(73.1점), 수질오염 저감 노력(72점), 직원의 친환경 인식 향상 노력(71.7점) 순으로 나타났음.
- (이용자 동참 가능성 인식)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동참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1회용품 절약이 7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기 혹은 물 절약'(67.3점), '친환경문화 프로그램 참여'(6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앙정부의 역할) 문화시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문화 분야에 특화된 표준 및 가이드 마련'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환경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53.1%), '문화서비스 이용객의 친환경 인식 확대'(49.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5. 정책 방향과 과제

가. 정책 방향

1)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관점

- 대상(對象)으로서 문화예술 :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후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 동인(動因)으로서 문화예술 : “환경이슈에 관한 소통과 해결, 연대의 동인(driver)으로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문화와 환경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

2) 기본방향: 문화예술 분야의 적극적 환경적응 정책과 환경위험 저감 강화

- 문화예술은 기후환경 변화 등 환경이슈에 있어 ‘저감’과 ‘적응’의 대상
 -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수용력 확보를 전제로 환경이슈에 ‘적응’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 ‘저감’의 효과 획득
- 문화예술이 가진 창의성에 환경이슈 접목으로 사회 전 영역의 환경문제 수용력과 적응력 강화
 - 기후환경변화 적응의 촉매로서 문화예술의 역할 부여와 관련 정책 발굴은 환경이슈 해결 ‘동인(動因)’으로서 문화예술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

3) 기본원칙: 책임성·합리성·공정성·창의성

〈표 6〉 문화예술부문 친환경정책의 기본원칙

원칙	내용
책임성 (Responsibility)	• 문화예술분야 각 영역에서 친환경적 관점을 접목하여 모두가 책임성 있게 환경 문제에 대응
합리성 (Rationality)	• 합리성에 의거한 객관적 현황 분석과 실천력 있는 친환경 정책 발굴
공정성 (Equity)	• 모두의 참여를 전제하되 차등적 기준의 적용 혹은 예산 등의 지원으로 상대적 취약주체의 참여 유도
창의성 (Creativity)	• 문화예술의 창의적 속성과 환경이슈를 결합, 직관적으로 환경문제를 인식·실천 하고 적용하는데 기여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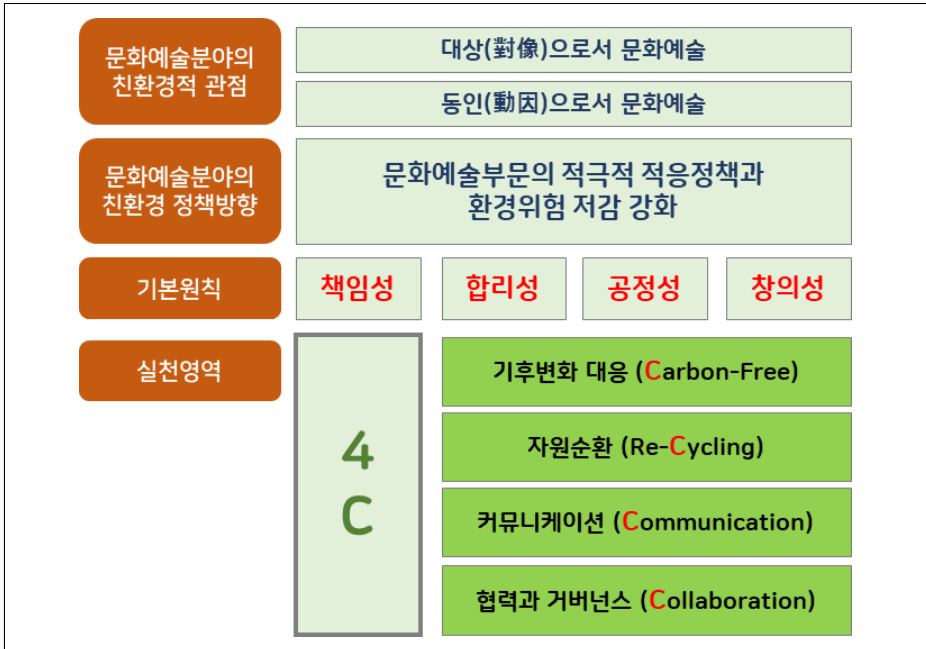
4)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적 실천 영역

〈표 7〉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한 문화예술 분야 실천영역 및 주요 내용(예시)

친환경적 실천 영역 및 주요 내용		
영역	내용 (예시)	
4 C	기후변화 대응 (Carbon-Free)	• 문화예술 활동 및 관련사업의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한 측정 지표 및 가이드 개발 • 관련 제도적 여건, 추진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추진
	자원순환 (Re-Cycling)	• 문화예술 활동 및 관련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과 오염물질의 친환경적 처리, 재활용 방안 • 폐기물 및 폐·유류시설의 문화적 활용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 환경 관련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 환경이슈와 결합된 문화예술교육 진흥 • 그린생활문화 확산 및 정책화
	협력 및 거버넌스 (Collaboration)	• 부처 간,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 구축 • 환경 관련 문화예술 분야 국내외 협력사업 추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및 실천영역



나. 정책 과제

1) (정책과제 제안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연동하는 목표 설정

- 문화예술은 비록 高溫실가스 배출 영역은 아니지만, 문화 관련 시설, 축제 및 이벤트 등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공연장·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주요 문화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2) (정책과제 제안 2) 탄소배출 감축목표 이행 조치

- 탄소배출량, 녹색 경영시스템, 자원/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 방안, 녹색제품 서비스, 사회·윤리적 책임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친환경 지표'를 활용, 주기적으로 시설 및 기관의 이행 상황 점검
-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의 환경보고서 발간 유도 및 경영평가에 환경지표 반영
-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 추진

3) (정책과제 제안 3) 자원순환과 문화예술의 결합

- 에너지사용량 저감,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용 못지않게 환경이슈 및 탄소중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폐기물처리와 재활용 등의 ‘자원순환’임.
-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이슈는 재활용, 1회용품 사용저감 등의 자원순환에 관한 것으로,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자원순환과 연계한 정책사업 개발이 요구

4) (정책과제 제안 4) 문화예술을 통한 환경이슈 대응 및 적응 강화

- 환경이슈에 대한 ‘적응’이란 궁극적으로 생활 방식의 친환경적 변화, 사회적 자본의 형성, 나아가 경제사회 시스템을 ‘정의롭게 전환(just transition)’하는 것으로, 국민과 사회 각 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선결조건
- 문화예술을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환경적 실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소통

5) (정책과제 제안 5)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소통과 협력

- 환경이슈, 특히 탄소중립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의 수립 및 이행계획, 모니터링, 교육 및 협력방안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 특히 ‘현장’에서 친환경적 관점을 확산하고 환경이슈의 해결책을 공유하는 ‘민관 공동 참여와 협력의 장’ 마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환경 이슈와 문화	13
제1절 환경이슈와 공공정책	15
1. '친환경'의 개념과 실천영역	15
2. 환경 이슈에 대한 국내외 대응	21
제2절 환경이슈와 문화: 개념과 동향	40
1. 환경이슈와 문화의 관계에 관한 개념과 주요 쟁점	40
2. 환경이슈와 연계된 문화정책의 국내외 동향	48
제3절 소결	71
1.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노력 강화	71
2. 문화예술 연계 주요 환경정책 분야 검토	72
제3장 주요 사례 분석	73
제1절 친환경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실현 사례	75
1. 문화를 위한 친환경가이드와 이벤트 지속가능성 정책 (런던, UK)	75

2. Green Arts Initiatives (에든버러, UK)	77
3. Manchester Art Sustainability Team (맨체스터, UK)	79
4. Materials for the Arts (뉴욕, 미국)	81
제2절 문화시설(행사장)의 친환경성 제고 사례	84
1. ACC 그린뉴딜가이드 (한국)	84
2. Cultural Venue Sustainability Action Plan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86
3. Australian Museum ‘Sustainability Action Plan’ (호주)	88
4. Museum of London ‘Sustainability Policy’ (UK)	92
5. Sydney Opera House ‘Environmental Action Plan’ (호주)	94
제3절 환경이슈 극복의 동인으로서 문화예술 사례	100
1. 기후시민 3.5 (한국)	100
2. CURRENT: LA Water (LA, 미국)	103
3. Refuge (멜버른, 호주)	105
4. 유럽녹색수도(European Green Capital)의 문화전략(오슬로, 노르웨이)	106
5. 문화예술을 통한 해양 환경오염문제 인식 (부산, 한국)	108
제4절 소결	110
1. 주요 사례에서 나타난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적 실천	110
2. 시사점	112
제4장 친환경 문화정책 인식 및 수요 조사	113
제1절 대국민 설문 조사 개요	115
1. 조사 개요	115
2. 조사 항목	116
제2절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117
1. 응답자 특성	117
2. 일반적 환경 인식	118
3.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발자국	126
4. 친환경 문화정책 수요	132
5. 시사점	142
제3절 문화시설 설문 조사 개요	146
1. 조사 개요	146
2. 조사 항목	147

제4절 문화시설 설문 조사 결과	148
1. 응답기관 특성	148
2. 문화서비스 기관 운영방향	149
3.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준비도	151
4. 문화서비스 기관의 탄소 발자국 현황	161
5.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정책 수요	179
6. 시사점	194
제5장 정책 방향과 과제	199
제1절 정책 방향	201
1.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 관점과 정책 방향	201
2.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적 실천 영역	205
제2절 정책 과제	207
1. 문화예술분야의 기후변화 및 자원순환 대응	207
2. 문화예술을 통한 환경이슈 대응 및 적응 강화	223
3.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소통과 협력	229
제6장 결론	233
제1절 정책 제언	235
1. 문화예술분야의 적극적인 환경이슈 대응과 참여	235
2. 환경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실효적 정책 추진	236
제2절 향후 과제	237
1. 상충된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조정 필요	237
2. 문화예술을 넘어 여가 및 일상생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성 제고	237
3. 구체적인 친환경 실행정책, 가이드라인 및 지표 개발	238
4. 친환경을 이끄는 효과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추진	238
참고문헌 /	239
ABSTRACT /	243
부록 /	247

표 목차

〈표 1-1〉 연구 관련 자문 및 관련 토론회	8
〈표 1-2〉 선행연구 검토	11
〈표 2-1〉 문화예술분야 관련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법령	15
〈표 2-2〉 환경, 환경정책, 친환경적 관점 및 행동에 대한 법률적 정의 (「환경정책기본법」)	18
〈표 2-3〉 환경정책 영역 (「환경정책기본법」)	18
〈표 2-4〉 분야별 '친환경'의 개념 및 실천영역	21
〈표 2-5〉 자연환경 관련 보호지역 현황 (2014년 기준)	25
〈표 2-6〉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1 실행전략	32
〈표 2-7〉 분야별 '친환경'의 개념 및 실천영역	33
〈표 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내용과 환경 의제	37
〈표 2-9〉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발전	39
〈표 2-10〉 문화와 지속가능발전간의 관계	41
〈표 2-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네 가지 전략	42
〈표 2-1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네 가지 전략	45
〈표 2-13〉 기후환경 문화서비스 제공 전략	46
〈표 2-14〉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평균 오염도	50
〈표 2-15〉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2020년)	52
〈표 2-1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현황 (2021. 8월 현재)	53
〈표 2-17〉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전략 및 추진과제 (2008)	54
〈표 2-18〉 '문화비전 203-사람이 있는 문화' 내 환경 관련 계획 (2018)	57
〈표 2-19〉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예산 (2014~2021)	57
〈표 2-20〉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현황 (2014~2021)	58
〈표 2-21〉 환경 분야 주요 계획 내 '문화예술' 관련 정책 내용	61
〈표 2-22〉 기후환경 적응 및 회복력 지표(유네스코, 2019)	64
〈표 2-23〉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 환경부문 주제 및 권고사항 (유네스코, 2017)	66

〈표 2-24〉 Culture 21 Action 중 환경 부문 (UCLG,2015)	66
〈표 2-25〉 문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연결하는 원칙과 접근방식 (UCLG, 2017)	67
〈표 2-26〉 Accelerator Programme의 주요 내용 (Art Council England, 2020)	69
〈표 2-27〉 영국예술위원회 ‘환경프로그램’ 성과(2018~19)	69
〈표 2-28〉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과 주요 환경정책 영역 간 연관성 분석	72
〈표 3-1〉 Great London Authority (GLA)의 이벤트 지속가능성 정책 주요 내용	76
〈표 3-2〉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창·제작 실천 법	85
〈표 3-3〉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내 ‘박물관 운영에 미치는 환경영향 감소’ 내용	90
〈표 3-4〉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내 ‘박물관 운영에 미치는 환경영향 감소’ 내용	91
〈표 3-5〉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내 ‘참여와 교육’ 내용	91
〈표 3-6〉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 목적 및 임무	95
〈표 3-7〉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Environmental Action Plan 2020-23의 목표 및 성과지표	97
〈표 3-8〉 기후행동 3.5의 주요 프로그램	101
〈표 3-9〉 연도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주요 내용	108
〈표 3-10〉 국내외 주요 사례들의 환경정책 영역 간 연관성 분석	111
〈표 4-1〉 조사대상 및 방법	115
〈표 4-2〉 대국민 설문 문항	116
〈표 4-3〉 응답자 특성	117
〈표 4-4〉 기후변화 체감과 기후변화 영향 인식	119
〈표 4-5〉 기후변화 체감과 기후변화 영향 인식	120
〈표 4-6〉 본인의 친환경 태도 인식	121
〈표 4-7〉 친환경 행동의 제약 요인(1순위 기준)	122
〈표 4-8〉 탄소중립 개념 인지	123
〈표 4-9〉 탄소중립 개념 인지 경로	124
〈표 4-10〉 탄소중립정책 공감 정도	125
〈표 4-11〉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인식	126
〈표 4-12〉 공공 문화서비스 방문율(2019년~2020년)	127
〈표 4-13〉 문화서비스 방문 빈도	127
〈표 4-14〉 공공 문화서비스 이동 수단	128
〈표 4-15〉 자가용 연료	128

〈표 4-16〉 문화서비스 1회 이동 소요 시간 및 이동 거리	129
〈표 4-17〉 연간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거리	129
〈표 4-18〉 이동 수단별 탄소배출 계수	130
〈표 4-19〉 연간 문화서비스 이용의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131
〈표 4-20〉 도시규모별 1인당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배출량	131
〈표 4-21〉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132
〈표 4-22〉 문화향유 시 친환경 이슈 고려 의향	133
〈표 4-23〉 친환경 이슈를 고려하는 이유	134
〈표 4-24〉 친환경적 문화향유의 걸림돌(1순위 기준)	135
〈표 4-25〉 친환경적 문화서비스 이용 실천 가능성	136
〈표 4-26〉 문화서비스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137
〈표 4-27〉 친환경 전환에 문화분야 참여 필요성	138
〈표 4-28〉 문화서비스 기관 친환경 책임이행 수준 평가	139
〈표 4-29〉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실천 영역별 중요성 인식	140
〈표 4-30〉 친환경 문화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142
〈표 4-31〉 조사대상 및 방법	146
〈표 4-32〉 문화서비스 시설 조사항목	147
〈표 4-33〉 응답시설 특성	148
〈표 4-34〉 시설 유형별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필요사항 인식(1순위 기준)	150
〈표 4-35〉 시설 유형별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필요사항 인식(1순위 기준)	151
〈표 4-36〉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과 친환경의 관련성 인식	152
〈표 4-37〉 시설 유형별, 압박 주체별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박 인식	153
〈표 4-38〉 시설 유형별 기관장의 친환경 관심도	154
〈표 4-39〉 문화시설의 친환경 담당자 여부	154
〈표 4-40〉 기관의 친환경 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155
〈표 4-41〉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실행 현황	157
〈표 4-42〉 친환경 기술 및 장비 사용 현황	157
〈표 4-43〉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실행 현황	158
〈표 4-44〉 저탄소 제품 구매 실행 현황	158
〈표 4-45〉 자원의 재활용 현황	159
〈표 4-46〉 친환경 공간 확대 실행 현황	160
〈표 4-47〉 사업의 환경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 현황	160
〈표 4-48〉 기관의 개관년도 분포	162

〈표 4-49〉 응답시설의 연면적 분포	163
〈표 4-50〉 응답시설의 건축물 면적	164
〈표 4-51〉 응답시설의 조경 면적	164
〈표 4-52〉 문화시설의 연면적 대비 조경면적 비율	165
〈표 4-53〉 기관의 연간 개관 일수(2019~2020년)	166
〈표 4-54〉 기관의 주당 평균 개관 시간(2019~2020년)	167
〈표 4-55〉 기관의 연간 이용객(2019~2020년)	168
〈표 4-56〉 문화시설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의 필요성 인식	169
〈표 4-57〉 기관의 연간 전력 사용량(2019~2020년)	170
〈표 4-58〉 기관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2019~2020년)	170
〈표 4-59〉 기관의 연간 유류 사용량(2019~2020년)	171
〈표 4-60〉 기관의 연간 유류 사용량(2019~2020년)	172
〈표 4-61〉 기관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2019~2020년)	172
〈표 4-62〉 자원별 탄소배출 계수	174
〈표 4-63〉 연간 문화서비스 기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174
〈표 4-64〉 개관 년도에 따른 1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175
〈표 4-65〉 재건축 연한에 기준(30년)에 따른 1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175
〈표 4-66〉 신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176
〈표 4-67〉 202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176
〈표 4-68〉 신재생에너지 유형	177
〈표 4-69〉 기관의 연간 녹색제품 구입현황(2018~2020년)	178
〈표 4-70〉 총 제품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입액 비율	178
〈표 4-71〉 시설 유형별 친환경 정책 동참 필요 인식	180
〈표 4-72〉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제약사항(1순위 기준)	181
〈표 4-73〉 시민 신뢰도 향상	182
〈표 4-74〉 비용 절감	182
〈표 4-75〉 시민 방문 감소	182
〈표 4-76〉 관련 법/제도 준수의 중요성 인식	183
〈표 4-77〉 지속가능한 경영방식 도입의 중요성 인식	183
〈표 4-78〉 기관 종사자의 친환경 의식향상의 중요성 인식	184
〈표 4-79〉 방문객 대상 친환경 정책 홍보의 중요성 인식	184
〈표 4-80〉 친환경 주제 문화프로그램 확대의 중요성 인식	185
〈표 4-81〉 친환경적 공간 확대의 중요성 인식	185

〈표 4-82〉 신재생 에너지 도입 노력의 중요성 인식	186
〈표 4-83〉 쓰레기 배출 관리 노력의 중요성 인식	186
〈표 4-84〉 수질 오염 저감 노력의 중요성 인식	187
〈표 4-85〉 에너지 낭비 저감 노력의 중요성 인식	187
〈표 4-86〉 친환경적 제품 구매/사용의 중요성 인식	188
〈표 4-87〉 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인식	188
〈표 4-88〉 이용자의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동참 가능성 인식	190
〈표 4-89〉 이용자의 1회용품 절약 동참 가능성 인식	190
〈표 4-90〉 자원 에너지(전기, 물 등) 절약 동참 가능성 인식	191
〈표 4-91〉 친환경 캠페인 참여 동참 가능성 인식	191
〈표 4-92〉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인식	192
〈표 4-93〉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93
〈표 5-1〉 문화예술에 있어 친환경적 관점	201
〈표 5-2〉 기후변화 ‘적응’의 정의	202
〈표 5-3〉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적응 및 완화 전략(예시)	203
〈표 5-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의 원칙	204
〈표 5-5〉 문화예술부문 친환경정책의 기본원칙	205
〈표 5-6〉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한 문화예술 분야 실천영역 및 주요 내용(예시)	206
〈표 5-7〉 국립 문화시설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208
〈표 5-8〉 문화예술분야 기관 및 시설 친환경성 측정 지표 (예시)	209
〈표 5-9〉 실내행사(전시·공연)분야 친환경 체크리스트 (예시)	210
〈표 5-10〉 실외행사(축제 및 이벤트) 분야 친환경 체크리스트 (예시)	211
〈표 5-11〉 도서관 분야 친환경 체크리스트 (예시, 공통항목 제외)	213
〈표 5-12〉 문화예술분야 주요 국립기관 친환경경영 현황(2019)	214
〈표 5-13〉 공공기관 경영공시 추가 항목 (2021년 3월 이후)	215
〈표 5-1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안(예시)	216
〈표 5-15〉 탄소중립 공연장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17
〈표 5-16〉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 (예시)	218
〈표 5-17〉 업(리)사이클링 관련 문화시설 사례	220
〈표 5-18〉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업사이클링 사업	221
〈표 5-19〉 주요 생활문화시설 현황 (2021년 6월 기준)	222
〈표 5-20〉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보조사업 현황	223
〈표 5-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주요 정책사업과 환경경합 여부 (예시)	224

〈표 5-22〉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 주요 내용	227
〈표 5-23〉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순환랩 프로젝트 주요 내용	22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목적	5
[그림 1-2]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9
[그림 2-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유형별 비중 (1990-2018)	22
[그림 2-2] OECD 국가의 GDP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18)	22
[그림 2-3]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3
[그림 2-4]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변화 (2015.1-2020.5)	23
[그림 2-5] 폐기물 유형별 발생량 (2009-2018)	24
[그림 2-6] OECD 국가의 산림면적 연간 순 변화율 (2015-2020)	25
[그림 2-7]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	28
[그림 2-8]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29
[그림 2-9]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	30
[그림 2-10] 제로에너지 건축(Zero Energy Building) 개념도	31
[그림 2-11] 교토의정서(1997)와 파리협정(2016) 비교	36
[그림 2-12] 문화서비스(arts, sport, recreation and other)의 에너지 투입액 (2015)	48
[그림 2-13] 문화서비스(arts, sport, recreation and other)의 폐기물 발생량 (2019)	49
[그림 2-14] 정부기관별 총 제품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 비교(2020년)	51
[그림 2-15] 유네스코 'Culture 2030 Indicators'	63
[그림 3-1] Green Arts Initiatives의 Annual Report	78
[그림 3-2] Manchester Art Sustainability Team(MAST)의 Report	80
[그림 3-3] Materials for the Arts 홈페이지	83
[그림 3-4]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 제작 경과	84
[그림 3-5] 아시아문화전당(ACC) 창·제작 폐기물 처리비용	85
[그림 3-6] ACC 소셜디자인프로젝트 중 폐방화복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예시)	86
[그림 3-7]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89
[그림 3-8] 런던박물관 전경(Museum of London)	92
[그림 3-9]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환경정책 성과(2017-2019)와 향후 목표(2020-2023)	96
[그림 3-10] 기후행동 3.5	100

[그림 3-11] CURRENT LA Water 2016 사이트 맵	104
[그림 3-12] 호주 멜버른 'Refuge' 2017년 브로슈어	106
[그림 3-13] 비치코밍 결과물을 이용한 작품 (해운대구)	109
[그림 4-1] 기후변화체감정도	118
[그림 4-2] 기후변화가 삶에 영향	118
[그림 4-3] 기후변화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인식	119
[그림 4-4] 친환경 태도	120
[그림 4-5] 친환경 실천	121
[그림 4-6] 친환경 행동의 제약요인	122
[그림 4-7] 탄소중립 개념 인지	123
[그림 4-8] 탄소중립 개념 인지 경로	124
[그림 4-9] 탄소중립정책 공감 정도	125
[그림 4-10]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인식	126
[그림 4-11]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132
[그림 4-12] 문화향유 시 친환경 이슈 고려 의향	133
[그림 4-13] 친환경 이슈 고려 이유	134
[그림 4-14] 친환경적 문화향유의 걸림돌	135
[그림 4-15] 친환경적 문화서비스 이용 실천 가능성	136
[그림 4-16] 문화서비스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137
[그림 4-17] 친환경 전환에 문화분야 참여 필요성	138
[그림 4-18] 문화서비스 기관 친환경 책임이행 수준 평가	139
[그림 4-19]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실천영역 중요성 인식	140
[그림 4-20] 친환경 문화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141
[그림 4-21]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에 요구되는 사항	149
[그림 4-22]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에 요구되는 사항	150
[그림 4-23] 문화예술과 환경부문의 관련성 인식	151
[그림 4-24] 기관의 친환경 전환의 압박 주체	152
[그림 4-25] 기관장의 친환경 관심도	153
[그림 4-26] 친환경 책임 이행 고려	155
[그림 4-27] 전반적인 기관의 친환경 준비도	156
[그림 4-28] 기관의 친환경 실행 및 계획 현황(종합)	161
[그림 4-29] 기관의 개관년도 분포	162
[그림 4-30] 응답시설의 연면적 분포	163

[그림 4-31] 기관의 연간 개관 일수	166
[그림 4-32] 기관의 주당 평균 개방 시간	167
[그림 4-33] 기관의 연간 이용객	168
[그림 4-34] 문화시설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의 필요성 인식	169
[그림 4-35] 신재생에너지 도입유형 현황	177
[그림 4-36]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동참 필요 인식	179
[그림 4-37]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제약사항	180
[그림 4-38]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영향 인식	181
[그림 4-39]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189
[그림 4-40] 문화서비스 이용자의 친환경 실천 가능성 인식 종합	192
[그림 4-41] 친환경 정책을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93
[그림 5-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및 실천영역	206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환경의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및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강화

오늘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유해폐기물 등의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의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박종원, 2017:101),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는, 이른바 인간안보(human security)¹⁾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유엔(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공동의 노력을 도모한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초래된 ‘생태위기-경제위기-기후위기’로 중첩된 3각의 위기는 우리 인류에게 자연생태계, 코로나 19 그리고 기후변화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추장민·명수정·김춘이, 2020:1). 기후변화가 코로나 19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홍윤철, 2020:89),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음은 그간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가 기후변화와 지구의 온난화 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새로운 변화와 실효적인 실천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 19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이 정한 ‘추가기온 상승 섭씨 1.5도 이하’를 유지하고 유해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필연적 시점임을 제시하고 있다.

1) ‘인간안보’의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HDR)에서 공식 제기되었는데,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 경제적 불평등, 인권유린, 질병과 더불어 환경파괴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위협으로부터 개인과 인간집단으로서 인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박한규, 2008; 노영순, 2017:15 재인용).

나. 문화예술에서 친환경적 관점(eco-friendly perspectives)의 필요성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분야 또한 이러한 전 지구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이런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도대체 문화와 예술이 기후변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본격 사용하게 되고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포디즘적 생산체계는 막대한 자연자원의 소비와 폐기물의 배출을 가져온다. 이로 인해 기후환경 변화, 자연환경 오염과 파괴, 질병 확산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이슈는 다름 아닌 인간의 행위이자 ‘삶의 방식’(way of life), 즉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이러한 환경이슈가 과학적 조치만이 아닌 ‘문화적 전환’을 성취할 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광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및 소비활동으로 인해 다소간의 ‘탄소’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이 훼손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2012년부터 800여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환경프로그램(Environmental Programme)을 운영하면서 예술 활동에서의 환경적 관점을 제공하고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발효된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고려할 때,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 자원을 소비하는 문화예술에서도 이러한 관점과 정책 도입, 그리고 실천적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를 보면,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도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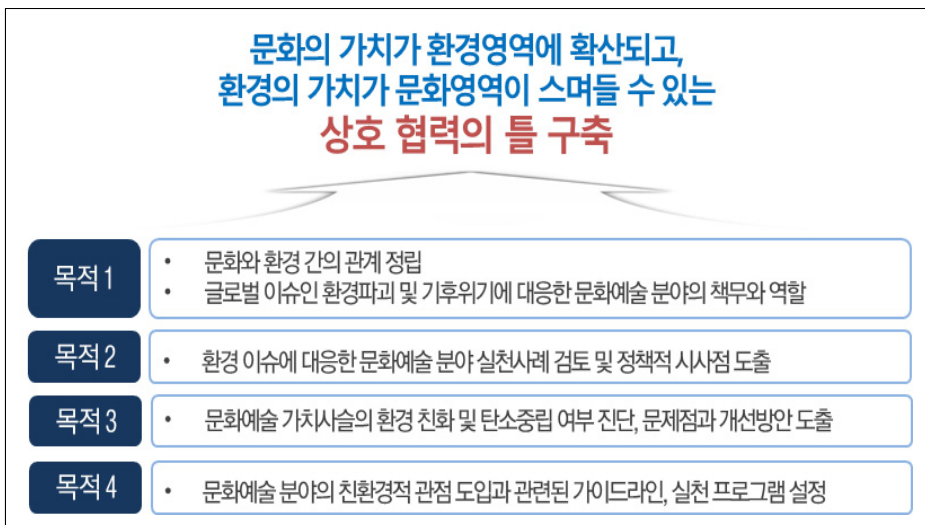
이에 문화예술 활동의 창조, 매개,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관점에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을 실천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홍보·교육 사업 등과 같은 정책 프로그램, 환경을 비롯한 관련 부문 간의 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문화와 환경이슈간의 관계 정립과 현황 진단 및 사례 분석, 주요 실천과제 도출 등을 통해 문화의 가치가 환경영역에 확산되고 동시에 환경의 가치가 문화영역에 스며들 수 있는 상호 협력의 틀과 관련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2020년 7월에 발표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한국판 뉴딜’에 발맞추어 탄소중립(Net-zero)형 문화예술정책의 가능성과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보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이슈인 환경파괴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문화예술분야의 관계를 정립하고 책무 및 역할에 대하여 조명한다. 둘째, 환경이슈에 대응한 문화예술분야의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우리 국민과 문화시설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환경친화적이고 탄소중립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끝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실천적 프로그램 등을 설정한다. 특히 주요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등) 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 및 환경 관련 예술프로그램, 타 분야 간(부처 간) 그리고 공공분야의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민관 교류 분야 정책을 통하여 친환경적 관점과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전체를 연구범위로 설정한다. 정책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이지만,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은 우리나라보다 영국이나 유럽 주요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많아 국외의 사례가 매우 중요하게 조사 및 분석되었다.

나. 시간적 범위

연구에서 제시되는 사례의 경우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가 글로벌 이슈가 된 이후를 검토할 것인데, 이 시기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친환경적 관점들이 도입된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2016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발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기점으로 환경 및 기후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므로 이 시기가 중요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될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990년대 이전 학계 및 국제사회 논의도 함께 검토한다.

다.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적 관점의 개념적 및 행위적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국가 및 글로벌 사회의 주요 의제, 제도 및 계획 등을 검토한다. 둘째, 환경이슈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설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과 환경이슈 간의 관계에 대한 국민 및 문화예술계 인식 파악, 현장상황 진단,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등을 추진한

다. 끝으로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 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설 운영, 문화프로그램 기획·추진, 기타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친환경적 관점 도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성 측정 지표 설정과 가이드라인 구축, 세부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및 관련 정책자료 분석’으로 개념정립, 정책현황파악 및 조사 설계

개념정립 및 동향 분석을 위해 친환경적 관점, 기후변화 및 온난화 등과 관련된 논문과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유엔(UN), 유엔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네스코(UNESCO), 세계지방도시연합(UCLG),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y Culture Forum), 영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등 국제기구 및 단체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및 문화예술 활동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 및 문화예술 관련 주요 기관들의 정책보고서, 백서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외 관련 사례를 수집하였고 설문 및 조사의 방법론 설정과 문항 설계(친환경성 지표 포함)를 진행하였다.

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 개최, 관련 세미나 참여를 통한 친환경 인식과 정책 방향 의견 수렴

본 연구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은 총 4차례 진행되었다. 환경 분야의 연구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자문을 통해 환경영역에서 인식하는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 두 영역간의 협업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의 관련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2차 자문회의에서는 현장의 친환경성에 관한 인식과 활동 사례 등에 관한 사례,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차 전문가 자문은 연구보고서의 1차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방향과 과제, 지역 및 민간의 여건, 정책제언 등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해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4차 자문은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의 현장 적용가

능성과 실효적 추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공동 개최한 ‘미래문화정책협의회’(토론)와 ‘예술의 가치 포럼’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여 의견청취와 함께 문화예술의 친환경 관점을 공유하고자 했다.

〈표 1-1〉 연구 관련 자문 및 관련 토론회

구분	일시	주요내용	참석자	비고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자문	2021. 4.15	•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접근 연구방향과 분석 방법 등	•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상헌 한신대 교수 • 이병민 건국대 교수	대면
	2021. 5.25	• 문화예술 분야 현장의 친환경성에 관한 인식과 활동 사례, 관련 정부 정책 방향 등	• 성지수 예술 감독 • 허바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대면
	2021. 11.1.~ 11.17.	• 문화예술의 친환경 관점에 입각한 정책방향과 과제, 지역 및 민간의 여건, 정책 제언 등	• 김영현 전 지역문화진흥원장 •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 이병민 건국대 교수 •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팀장 • 나혜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 박지선 프로젝트 도트 대표	서면
	2021. 11.24.	• 문화시설의 탄소중립 관련 현황과 과제	• 이철재 호서대 교수 •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운영과장 • 최미숙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조정실장 • 이선중 국립생태원 전시교육실장 • 박민우 아시아문화원 혁신평가팀	비대면
세미나 등 발제·토론	2021. 10.8.	• (토론문) 문화예술과 환경이슈: 현황과 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정책협의회 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정책팀 등	노영순 토론
	2021. 11.23.	• (발제문) 문화예술과 환경이슈: 현황과 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 외부 토론회	노영순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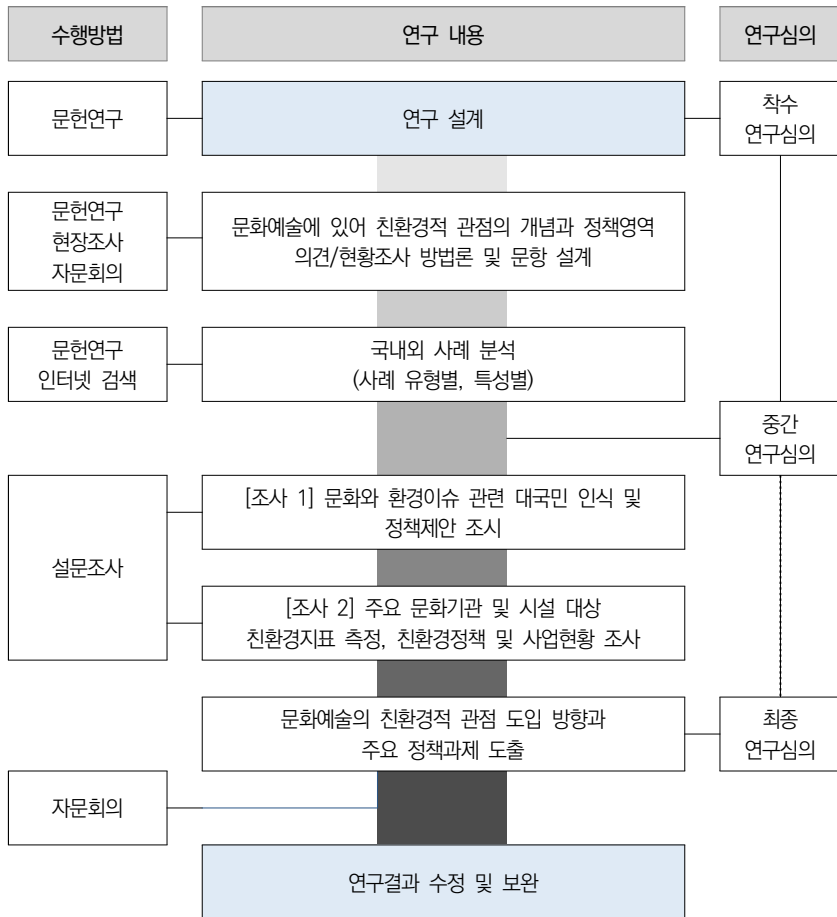
다.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로 현황 파악 및 현장사례 수집·분석

설문조사의 경우 일반인(문화예술향유자, 문화산업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친환경적 관점의 필요성 및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항으로 진행한다. 문화시설은 문헌 및 정책 조사를 통해 도출된(가칭) 친환경성 지표(예. 탄소발자국 지표 carbon footprint)를 활용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는데, 설문대상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을 토대로 국공립 문화시설(국공립도서관·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립 문예회관, 총 1861개)이며 총 유효설문

은 262개(도서관 120, 박물관 및 미술관 77, 공연장 55)이다.

주요 기관 및 시설의 현장조사에서는 친환경적 관점 적용이 우수한 문화시설의 운영 사례와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추천과 언론보도 검색을 통해 선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이슈와 예술이 결합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현황, 성과 및 정책제언을 청취해 연구에 반영한다.

[그림 1-2]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문화예술과 환경이슈를 연계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연구수행 시기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이는 그간 문화예술분야가 환경이슈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선입견과 더불어 유용하고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과 이의 근거가 부족한데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로는 ‘녹색성장시대의 문화정책 방향’(김세훈, 2009), ‘문화기반시설 탄소배출량 산정 및 절감 목표 관리방안’(진영효, 2010)이 있으며, 환경을 비롯한 포괄적 영역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다룬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노영순, 2017)이 있다.

‘녹색성장시대의 문화정책 방향’(김세훈, 2009)에서는 당시 정부의 국정과제인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과 맞물려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책영역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녹색성장과 문화정책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관련 국내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 정책 과제로는 ① 저탄소 문화환경 조성 ② 녹색문화사회 지원시스템 강화 ③ 문화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④ 녹색 생활·문화 활동 확산 등의 범주 하에 세부과제가 제안되었다. 사실상 최초로 문화예술과 환경이슈를 연계한 정책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기반시설 탄소배출량 산정 및 절감목표 관리 방안’(진영효, 2010)은 문화기반시설 대상 조사를 통해 당시 시설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탄소 저감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정책과제로는 저탄소 녹색문화정책을 위한 예산할당, 문화행사·시설관리-탄소배출-녹색기술-에너지 분야를 종합할 문체부 내 전문인력 확보, 관련 부처(문화·환경·지식경제) 등의 외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노영순, 2017)은 2016년에 발효된 유엔 SDGs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빈곤퇴치·교육·국토계획·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영역에 비해 환경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2.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접근할 것이며, 이들 연구에서 다룬 주요 영역을 종합하고 현시점 전개되고 있는 주요 환경이슈를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친환경에 관한 개념 정립과 이와 관련된 논의의 전개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을 추적해 진행할 것이고, 국민들의 인식과 주요기관·시설의 현황은 설문 및 현장조사와 같은 실증과정 통해 파악할 것이다. 연구내용은 친환경적 관점과 그 영역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표 1-2〉 선행연구 검토

과제 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녹색성장시대의 문화정책 방향 (김세훈,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성장 시대에 따른 문화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영역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사례조사 및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논의 배경 및 관련 정책분석 녹색성장과 문화정책의 관련성 검토 주요 국외사례 분석 녹색성장시대 주요 정책방향제시 및 사업안 발굴
문화기반시설 탄소배출량 산정 및 절감목표 관리 방안 (진영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문화시설의 탄소배출량 추정, 이를 토대로 에너지절감목표관리제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 산정 문화시설의 탄소배출 절감 목표 관리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연구 샘플조사 및 통계분석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특성 분석 문화시설 탄소배출 절감목표 관리 방안 정책제언 및 결론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노영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실천의제들과 문화 간의 관계 설정 SDGs에 연계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가치·목표·정책지표 및 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및 각종 자료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라운드테이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SDGs와 문화정책: 문화와 발전의 관계 설정 SDGs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 SDGs에 대응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SDGs에 대응한 문화정책의 이행 및 관리방안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제2장

환경 이슈와 문화

제1절 환경이슈와 공공정책

1. ‘친환경’의 개념과 실천영역

1-1. 우리나라 환경 관련 주요 법률과 이에 명시된 ‘친환경’ 개념

가. 환경 분야 법령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령은 헌법을 위시하여 2020년 현재 총 94개에 달하며, 이러한 법률에 의거, 정부는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은 총 16개 정도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일반 분야에 「지속가능발전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3개, 자연환경 분야 중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2개, 자원순환 분야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3개, 환경경제 분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 2개, 대기·기후 분야의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3개, 환경보전 분야 중 「석면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보전법」 등 3개이다.

이 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공공시설의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연계된 법령이라 할 수 있다.

〈표 2-1〉 문화예술분야 관련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법령

분야	법령	목적
환경일반	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

분야	법령	목적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자연환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
자원순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자원순환기본법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환경경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 범위,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대기·기후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
환경보건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분야	법령	목적
에너지	실내공기질관리법	•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
	환경보전법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자: 2021.9.29.)

나. 법률에 명시된 ‘환경’, ‘환경정책’ 및 ‘친환경’ 개념

‘환경’이란 법률(「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이때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를 의미하며, 생활환경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우리나라 환경 및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환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의거하면, ‘환경정책’이란 첫째, 환경의 질적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하고, 둘째,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의 목표는 이상의 정책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편 법률에 명시된 ‘친환경적 관점 및 실천’이란 첫째,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둘째,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셋째,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환경 관련 법령, 제도 제정 및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참여 보장, 환경 관련 정보의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정성 확보, 환경오염 및 훼손에 의한 피해의 공정한 구제 보장 등이 있다.

〈표 2-2〉 환경, 환경정책, 친환경적 관점 및 행동에 대한 법률적 정의 (「환경정책기본법」)

범주	내용
환경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 :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 생활환경: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환경정책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의 질적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이를 통해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
환경정책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것
친환경적 관점과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각 조별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환경정책의 영역, 즉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영역은 총 13개로, 자연환경 보전, 국토·해양·대기환경 보전, 물·수자원·상하수도 이용 및 관리, 자원순환(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오염물질 관리(화학물질·방사능), 기후변화 대응 등이 이에 포함된다(표 2-3 참조).

〈표 2-3〉 환경정책 영역 (「환경정책기본법」)

범주	내용
자연환경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생태계·생태축·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해양·대기환경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의 보전

범주	내용
물·수자원·상하수도 이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의 보전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상하수도의 보급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 • 화학물질의 관리 •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커뮤니케이션 • 환경정의 실현 및 협력체계 구축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를 토대로 저자 작성

1-2. 분야별 ‘친환경’의 개념과 실천영역

‘친환경’ 혹은 ‘환경친화’의 개념과 실천영역은 「헌법」과 환경 분야 최상위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지만, 국토계획, 건축, 생산 및 소비 등 분야별로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친환경농업’의 정의 재설정을 포함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한다(2019.8.27. 공포).²⁾ 이때 법률에 명시된 ‘친환경농어업’의 개념은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이 분야의 ‘친환경성’이란 육지 및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토양·해양환경의 ‘건강성’ 확보를 의미한다.

「국토기본법」 제5조를 보면, ‘친환경적 국토관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호천(1996)은 대기·토양·물 등 무생물 환경요소와 생물체, 그리고 인간 등 세 가지 구성원들의 생존과 상호공존 보장이 건축 분야 ‘환경친화’ 혹은 ‘친환경’의 원리이며, 이 원리에 입각하여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자원절약, 순환가능 설계, 인간적 디자인의 건축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8.26.)

‘친환경’은 생산 및 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비단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와 사회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10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잘 사는 것”을 의미하며, 핵심 원리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체제의 구축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의 촉진”이라 할 수 있다(오민주·남영숙, 2019:135). 허민영·황미진(2020)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관점에서 소비자 정책에 있어 ‘친환경’의 개념과 실천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환경정책’의 영역을 환경 관련 법률 및 정부계획을 종합하여 ① 환경보전 ② 기후변화 ③ 녹색생활 ④ 환경정의로 설정하고, 이를 소비자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이 때 ‘환경보전’은 유해물질·화학물질 관리와 자원순환(recycling), ‘기후변화’는 에너지 문제 해결 및 친환경교통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녹색생활’은 친환경제품의 생산 및 소비,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와 같은 친환경경영, ‘환경정의’는 환경 취약계층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며, 이들 영역과 소비자정책간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허민영·황미진, 2020).

한편 환경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환경커뮤니케이션(environmental communication) 영역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커뮤니케이션’이란 환경적 지속 가능성 실현을 목표로 정책 수립, 공중 참여, 프로젝트 집행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과정 및 미디어를 계획적·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1999; 김혜인·김영옥, 2018: 139). ‘환경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친환경 혹은 환경 친화에 대한 별도의 가치부여 혹은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⁴⁾ 다만 각 분야별 환경이슈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알고 이해하고, 미디

- 3) ‘환경정의’란 “모든 사람이 환경적 위험과 건강 위험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사회 구성원 간의 환경 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향유와 비용의 부담이 일치될 수 있도록 편익과 비용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상태이자, 이러한 의사결정이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실현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윤순진, 2006; 이종혁, 2019, ‘환경정의 관점에서 정립한 언론의 환경보도 규명, 커뮤니케이션 이론, 15(4), p.50 재인용). OECD는 환경정의를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절차적 정의는 모두가 공정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경정보에 접근하고,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환경 사건의 사법적, 행정적 소송에 접근하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는 천연자원, 환경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과 환경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의 측면에서 현재대 간에 그리고 현재대와 미래세대 간에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교정적 정의는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환경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즉각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환경부, 2020 환경백서, pp.620-621. 재인용).
- 4) 채영길은 환경커뮤니케이션이 사회문화적이거나 사회심리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기후변화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이슈에 대한 재현과 그것의 ‘위험’과 ‘재앙’이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시선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지극히 인간적·사회적인 반면에 자연은 외면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한다(채영길, 2019:145).

어커뮤니케이션이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갈등하며 해결하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에 주안점을 가진다(채영길, 2019:122).

〈표 2-4〉 분야별 '친환경'의 개념 및 실천영역

영역	친환경 혹은 환경친화 개념 및 실천영역
농어업	• 육지 및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호, 토양·해양환경의 건강성 확보
국토계획 및 건축	• 계획 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검토를 통해 환경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 실현 • 인간,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 무생물 환경(대기·토양·물) 간 생존과 상호공존
산업 (생산 및 소비)	•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촉진 • 자연 및 생활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활용, 기후변화에 능동 대응, 적극적인 친환경제품 생산과 소비, 환경정의 실현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케이션	• 환경적 지속가능성, 친환경적 삶의 방식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해 미디어를 계획적·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료: 법률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환경 이슈에 대한 국내외 대응

2-1. 한국의 주요 환경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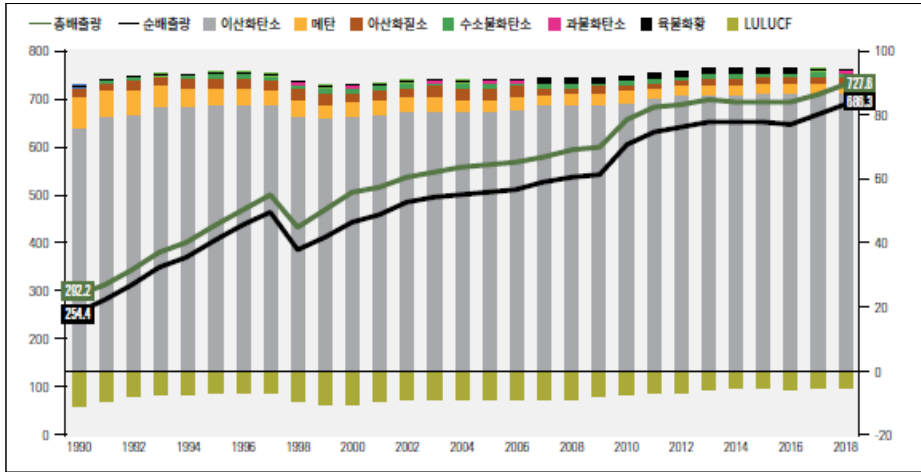
가. 대기

1) 온실가스 배출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 톤CO₂eq인데, 이는 1990년(292.2백만 톤CO₂eq.)의 약 2.5배에 달하는 양이다(그림 2-1 참조). 온실배출량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2018년 OECD 기준(한국은 2016년) 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33개국 중 한국이 6번째(0.387 kgCO₂eq/달러)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⁵⁾(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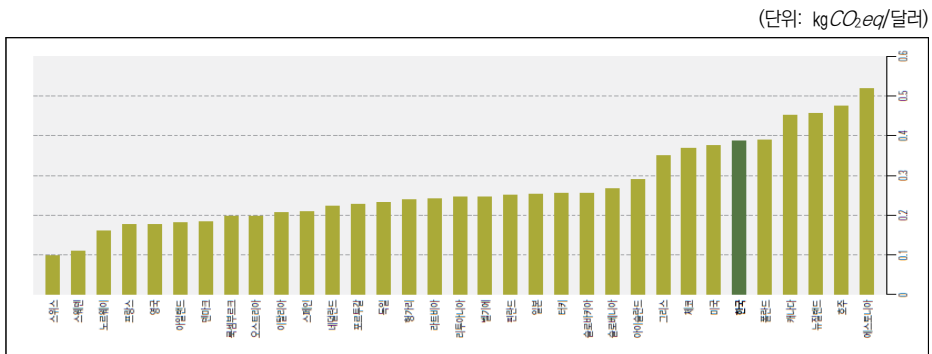
5) 배출량 상위 5개국은 에스토니아(0.517), 호주(0.475), 뉴질랜드(0.456), 캐나다(0.450), 폴란드(0.391)이며, 배출량 하위 5개국은 스위스(0.097), 스웨덴(0.111), 노르웨이(0.161), 프랑스(0.175), 영국(0.177)이었다(OECD,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71)

[그림 2-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유형별 비중 (1990-2018)



출처: 환경부·온실가스 정보센터(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6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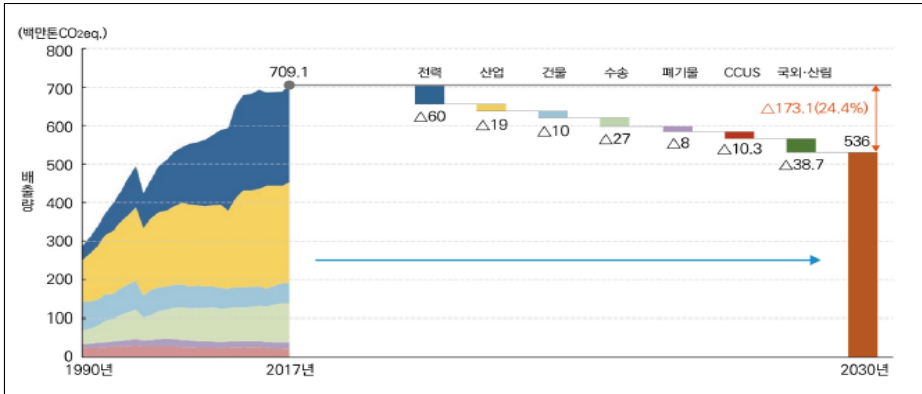
[그림 2-2] OECD 국가의 GDP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18)



출처: OECD (stats.oecd.org);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71 재인용
 주: 한국 데이터는 2016년 기준임.

이렇듯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에 대비 24.4% 감축으로 설정하였으나,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2050탄소중립위원회, 2021.10.8.). 당초 24.4% 감축을 감안하여 감축 후 2030년의 예상 탄소배출량은 536백만 톤CO₂eq이며, 발전·산업·건축·수송 등 주요 탄소배출 부문의 감축과 더불어 산림흡수원 확보 등 저감 방안을 활용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대한민국 정부, 2020).

[그림 2-3]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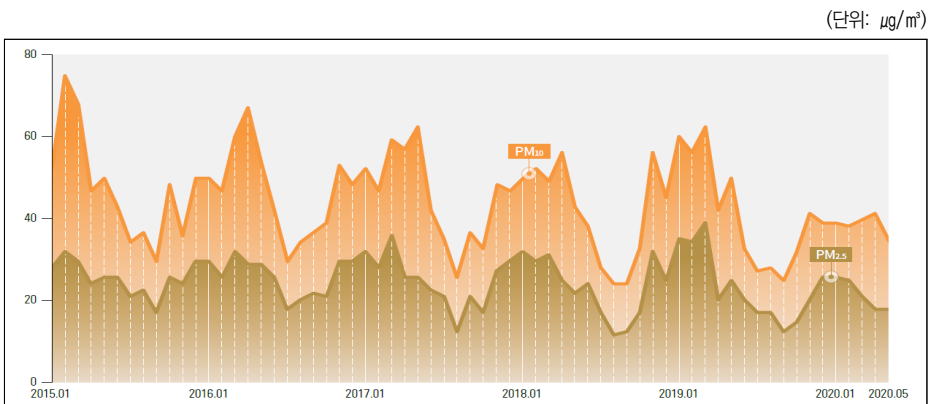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0),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 p.32

2)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2년 $64 \mu\text{g}/\text{m}^3$ 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 또한 2015년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꾸준히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20).

특히 2020년의 경우 2019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농도가 높은 1~5월 중심으로 보면, 미세먼지 범위는 2019년 $42\sim 62 \mu\text{g}/\text{m}^3$ 에서, 2020년 $34\sim 41 \mu\text{g}/\text{m}^3$ 로 감소하였으며, 초미세먼지 범위는 2019년 $20\sim 39 \mu\text{g}/\text{m}^3$ 에서 2020년은 $18\sim 26 \mu\text{g}/\text{m}^3$ 로 떨어졌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그림 2-4]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변화 (2015.1~2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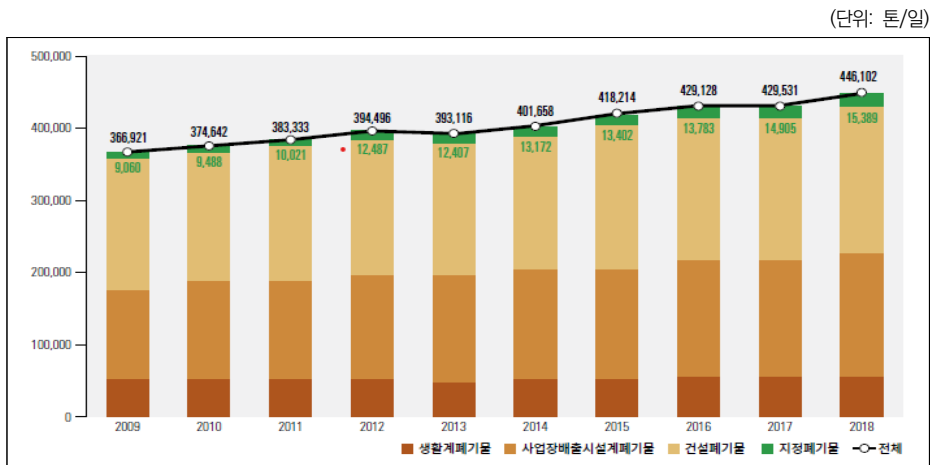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도 현황(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62 재인용

나. 폐기물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일 평균 44만 6102톤으로, 10년 전(2009년) 36만 6921톤에 비해 21.6% 증가하였으며(그림 2-5 참조), 2019년 일 평균 배출량은 49만 7238톤으로 2018년에 비해 1년 사이 11.5%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정폐기물은 같은 기간 동안 9060톤(2009년)에서 1만5556톤(2019년)으로 7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를 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산업폐기물은 물론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 및 자원순환(재활용)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7.8%는 매립, 5.8%는 소각, 86.4%는 재활용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등 자원 순환형으로의 전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그림 2-5] 폐기물 유형별 발생량 (2009-2018)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65
재인용

주 1: 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을 모두 포함한 데이터임.

주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데이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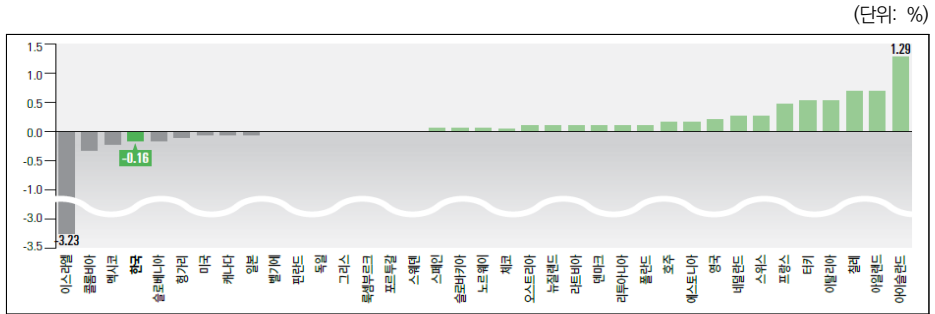
다. 자연·자원 분야

1) 친환경용지 면적

2018년 현재 삼림, 하천, 농경지 등 국토의 친환경용지 면적은 1985년 기준(100%)

대비 평균 5.4%가 감소하였으며, 이들 친환경용지는 대부분 도시용지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관계부처합동, 2019). 삼림면적의 경우 2015~2020년간 삼림면적 연간 순 변화율은 -0.16%로, OECD 37개국 중 삼림면적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 포함 9개국에 불과하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그림 2-6] OECD 국가의 삼림면적 연간 순 변화율 (2015-2020)



출처: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78 재인용

2) 보호지역 지정

정부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확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각종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토 전역에 걸쳐 3,392개소(2018년 현재)의 보호지역을 지정·관리 중이며, 육상은 국토면적 대비 15.6%(15,646.3km²)를, 해양은 해양면적 대비 2.1%인 7,859.9km²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 또한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5대 강 수(水)생태 축을 핵심 생태 축으로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8년 현재 5만 800종을 국가생물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자연환경 관련 보호지역 지정 현황은 <표 2-5>와 같다.

<표 2-5> 자연환경 관련 보호지역 현황 (2014년 기준)

근거법	보호지역	지정목적
자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생태계보전
습지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지보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지보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 우수 무인도서 보전

근거법	보호지역	지정목적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자연풍경지보존 및 적정한 이용 도모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야생생물 보호구역	• 멸종위기 종 보호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명승	• 문화재 보존으로 국민의 문화향상 도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보전 해역	• 해양환경 보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 보전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구역 • 산림유전자원,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 재해방지	• 산림보호

자료: 환경부,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2015.12월, p.17 표의 내용을 저자 재구성

2-2. 한국의 환경 분야 주요 계획 및 정책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경제성장 및 도시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환경보전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이념과는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환경정책의 팽창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진다(허장, 1999). 197~80년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80년 중앙행정기관인 환경청이 발족하였고, 1995년 환경부로 승격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환경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 분야의 시민사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자 개선의 계기가 된 것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이라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으로서 준수하도록 권고되는 규범⁶⁾은 2016년 현재 220개인데 이 중 환경 분야가 가장 많을 정도로 환경 이슈는 경제 선진국의 최우선적 해결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과 정책은 이에 발맞추어 혁신을 요구받는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

6) OECD 규범은 회원국들이 정한 일정한 기준으로, 크게 OECD 운영에 관한 규범과 OECD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규범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OECD의 근간이 되는 규범은 1960년 체결된 OECD 협약과 부속 의정서가 있으며, OECD 규범의 두 번째 범주는 이사회에서 OECD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되는 규범들인바, 이를 통합하여 OECD 법률도구(Legal Instrument)라고 칭하며, 이에는 결정, 권고, 선언 및 협정·양해 등 총 220개 규범이 이에 해당한다(대한민국 외교부, OECD 개황, 2016).

성장(green growth), 그린뉴딜(green new deal)과 같은 다양한 정책 의제와 유인수단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배운, 2009).

가. 환경 분야 법정계획

이상의 16개 문화예술 관련 환경법령과 관련 계획 중 본 연구에서는 물·대기·토양 등 대상별 환경계획이 아닌 종합적·지침적인 대표적 환경 분야 법정계획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관계부처 합동),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환경부), ‘환경교육종합계획’(「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관계부처 합동) 등과 함께, 대표적인 생활환경인 건축물의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 국토교통부)을 검토한다.

1) 국가환경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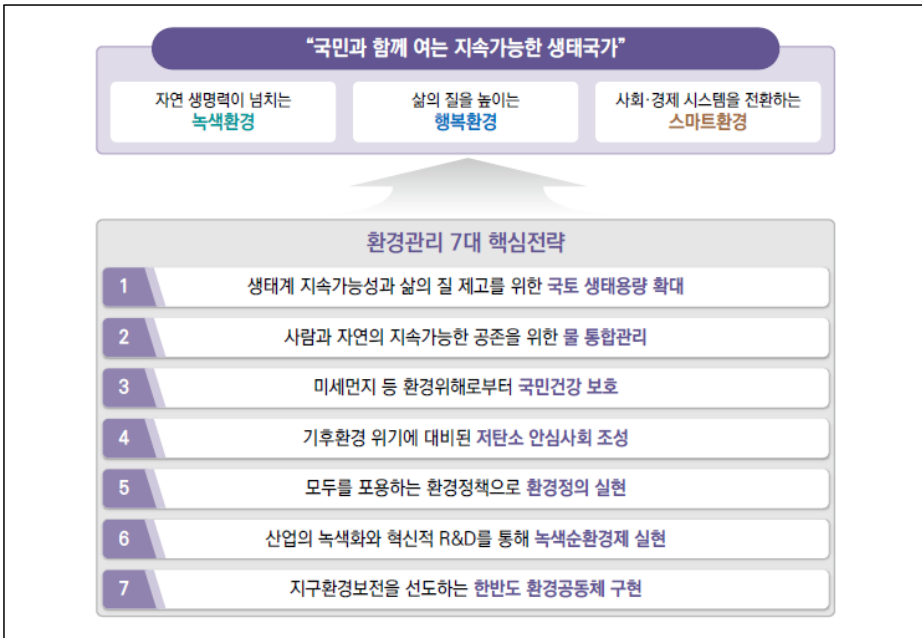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분야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14조에 따라 환경현황과 전망, 각 환경 분야별 대책 및 계획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1987년 제1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총 4번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9년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발표되었다. 1차와 2차 계획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오염물질 저감 및 청정지역 확대 등 환경관리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제3차 계획부터 환경정의의 실현, 기후환경 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등 미래 지향적이고 글로벌 의제에 능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계획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된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① 자연공간의 건강성 증대 ② 환경정의 및 환경민주주의 실현 ③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 ④ 계획의 이행 기반 강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각 방향별 정책과제를 보면 첫째, 자연공간의 건강성 증대는 자연공간 축소에서 자연공간 확대로 전환하여 국토 생태용량 확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지역으로 발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통합 물 관리 등이 있다. 둘째, 환경정의 및 환경민주주의 실현은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를 관리하고 기후환경위기 대응 및 안전 강화 등 환경권 및 인간안보 보장에 관한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은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 지구환경보전과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이며, 끝으로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강화, 환경교육 등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제시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계획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하에 3대 목표와 7개 핵심전략을 채택하였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



출처: 관계부처합동,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2019

2)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제8조에 근거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종합계획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환경분야 부문계획이자 자연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의 비전은 ‘풍요로운 자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며, ① 자연·인간의 공존으로 풍요로운 자연의 현명한 이용 ② 생물안전 위협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생태계 ③ 자연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비전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계획의 가치로 제시되어 있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①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② 야생생물 보호·복원 ③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④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⑤ 자연환경보전 기반 강화 ⑥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 등이 있다.

3) 환경교육 종합계획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제5조 제1항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본 계획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인식 개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의 방향 제시에 수립 목적이 있다.

[그림 2-8]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출처: 환경부,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2015

결국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직접적 조치라기보다는 인식개선, 홍보 등 ‘환경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정부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는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하에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과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교육 협력 체계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추진과제로는 ① 환경교육 기반 구축 ②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③ 사회 환경교육 강화 ④ 환경교육 협력 확대의 영역 아래 15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4)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에 따라 수립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장기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전 인류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므로 이 계획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개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합리적 규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와 의무 명확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보호 등이 그것이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20-2040)’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고, 핵심 4대 배출원(전환·산업·건물·수송)에서 집중 감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일상화하여 2℃ 온도상승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며,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프랑스 파리)에서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이후 파리협정의 적극적 이행과 이를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 설정하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탄소배출원의 관리와 통제 등 전통적인 환경정책과 더불어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과 같은 삶의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5)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물은 온실가스의 핵심 4대 배출원으로 국가 총 에너지소비량 중 건물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현재 17%에 달한다(국토교통부, 2019). 이에 정부(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계획 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건축

[그림 2-9]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

비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목표	온실가스 배출 709.1백만톤('17) ⇨ 536백만톤('30)
	적용력 제고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로 2℃ 온도상승에 대비
	기반 조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부문 역량 강화
핵심 전략	중점 추진과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문 대책 추진 ②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 ③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대 부문(국토·물·생태계·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②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 강화 ③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후변화대응 新기술·新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② 국제에 맞는 신 기후체제 국제 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③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④ 제도·조직·거버넌스 등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9.10

물의 에너지 사용 감축과 녹색건축산업 활성화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선제적 달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대폭 확대, 둘째, 그린리모델링의 이차지원과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 추진, 셋째, 녹색건축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넷째, 녹색건축 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참여의 적극적 유도, 다섯째, 지자체 중심의 특성화 및 녹색건축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Zero Energy Building, ZEB)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2030년부터는 민간·공공 건축물 전체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의무화(연면적 500㎡ 이상)할 예정이다.

[그림 2-10] 제로에너지 건축(Zero Energy Building) 개념도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0),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 p.39

나. 비법정계획 및 관련 정책사업

1)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 추진을 선언(2020.12.7.)한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든다는 것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적응력(adaptation)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설정하였다. 이때 ‘능동적 대응’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신 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전하에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방향에 탄소중립제도 기반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제시한다.

〈표 2-6〉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1 실행전략

전략	내용
[적응]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低탄소화 추진	•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
[기획]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맞게 기존 혁신 생태계를 점검·보완하고 저탄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육성하는 체계 구축
[공정] 공정(公正) 전환을 통해 전 국민 참여 유도	•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산업이 없도록 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역·민간 등이 주도하는 Bottom-up 방식 추진
[기반]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	• 재정제도 개선 및 녹색금융 활성화, 기술개발 확충, 국제협력 등을 통해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및 효과적인 탄소감축 이행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2020.12.7.

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그린뉴딜

코로나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020.7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한다.7) 이 중 그린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린뉴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개념으로, 여전히 성장주의적이고 홀로세(Holocene)적 사고를 가진 ‘지속가능발전’(SDG) 개념을 극복하고 인간이 경험하는 ‘재난’(질병, 경제위기, 불평등, 기후위기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류세(Anthropocene)적인 사고와 친화력을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린뉴딜과 성장 그리고 탈성장 간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박범순·김용진·조승희, 2020)8),

그린뉴딜 정책은 크게 ①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과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분야별 ‘친환경’의 개념 및 실천영역

전략	과제	세부과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리모델링)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디지털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와이파이(WiFi)구축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그린시티) 도시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환경·정보통신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 등을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 녹지 조성 • (생태계 복원)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 소·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갯벌 4.5km² 복원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상수도) 전국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대상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수도를 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하수도)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 추진 • (먹는 물 관리) 수질개선 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

7) 관계부처합동-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누리집(<http://www.knewdeal.go.kr/>)에서 발췌(2021.6.3.접속)

8) 예를 들어 로버트 풀린(2018)은 탈성장의 가정에 따른 GDP를 10%로 축소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경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세기 초 대공황에 견줄만한 침체가 올 것이라 우려하는 반면, 탈성장주의자인 요르고스 칼리스는 여전히 그린뉴딜을 경제성장과 엮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범순·김용진·조승희(2020), 그린뉴딜의 정치적·정책적·법적 함의,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020, 01호, 법제연구원, p.30)

전략	과제	세부과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전력망) 전력수요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 (전선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전선 공동 지중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13개 권역의 풍향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태양광)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사업 도입, 농촌·산단 용자리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 (공정전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승용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 (수소차) 승용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충전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 (노후차량) 노후경유차의 엘피지(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 폐차 지원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업)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R&D·실증·사업화)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 •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 (스마트그린 산업)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 (친환경 제조공정) 스마트 생태공장·클린팩토리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 연구개발(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통합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이산화탄소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 •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등 개발 추진 • (자원순환 촉진) 노후 전력기자재, 특수차 엔진·배기장치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 개발 • (녹색금융)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용자 1.9조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 조성

자료: 관계부처합동-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누리집(<http://www.knewdeal.go.kr/>)에서 발췌 (2021.6.3.접속)

2-3. 환경 이슈에 관한 국제사회 대응

국제사회 환경 이슈 중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이다.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 추세라면 21세기 말의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EP, 2019; 이상훈 외, 2020).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훼손과 재난이 현실화되고 있어 이러한 리스크(risk)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환경 리스크(risk)’란 기후 또는 기상 관련 재해(태풍, 가뭄, 극한기후)의 발생확률과 위험에 노출된 정도, 영향에 따른 사회경제적 시스템 또는 계층의 변동성 및 민감도에 따른 취약성의 역학관계로 정의(이수재 외, 2013; 신용승 외, 2016 재인용)될 수 있다. 한편 경제개발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야생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각종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서식지 파편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될 전망이다(환경부, 2015).

유엔인권고등판무관(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이 작성한 2009년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에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홍수, 가뭄, 혹서,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자연 상황 및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근, 전염병 전파의 기여 등은 생명권, 건강권, 식량 및 물에 대한 권리, 주거에 관한 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여성 및 원주민과 같은 취약 집단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김성원, 2015:130-131).

이러한 기후변화를 위시한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 유엔(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시작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7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프랑스 파리)에서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 이후 파리협정’ 등이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대응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의 문제와 더불어 빈곤, 경제 격차, 교육 불평 등 인간안보의 위협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 2015년 말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역, 공공과 민간, 개인할 것 없이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과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가. 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Climate Change Accord)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가 모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한다(2015.12. 발표-2016.11). 본 협정의 목표는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 상승 이내로 유지하는 데 노력’하는 것으로, 기존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1997~2020) 체제를 넘어서서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를 마련한 데 있다. 교토의정서가 주로 선진국의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고 국가 중심의 대응이었다면, 파리협정은 “195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었다는 점, 감축노력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들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95%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신기후체제의 서막”(박시원, 2016:285)이라 평가된다. 그리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넘어 적응, 투명성, 이행수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지자체·NGO 등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된다.

[그림 2-11] 교토의정서(1997)와 파리협정(2016) 비교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감축 의무국	주요 선진국	모든 당사국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투명성, 이행수단 등 포괄
지속가능성	공약기간 설정 (1차 : 2008-2012) (2차 : 2013-2020)	종료 시점 미규정 (5년마다 점검)
목표 설정	의정서에서 규정	자발적으로 설정
행위자	국가 중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9

파리협정의 핵심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즉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 목표 설정의 합의라 할 수 있다. 모든 당사국은 NDC 감축목표와 관련된 수량적 정보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NDC 이행 및 달성에 관한 진전 추적 정보, 자원·기술·역량배양 지원 및 수혜 정보 등 2024년부터 매 2년마다 격년투명성보고서 또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까지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709.1MtCO₂eq) 대비 22.4% 감축을 목표로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20:1).

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유엔(UN)은 2015년 9월 25일 160여 개국 정상들을 포함해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승인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들을 의미한다.

SDGs는 2000년에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가져가야 할 새로운 개발 목표, 즉 ‘Post-2015 개발의제’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의 목표와는 달리 선진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발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개의 목표(goal)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환경 분야는 목표 6, 7, 13, 14, 15 등 5개로, 에너지·기후변화·산림·사막화·토지황폐화·해양자원 및 오염문제 등 MDGs에서는 다루지 않는 글로벌 환경의제를 수용하였다(노영순, 2018).

〈표 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내용과 환경 의제

SDGs	부문	목표	주제
총괄		(목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빈곤
부문별	사회 발전	(목표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 증진	식량/농업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보건/건강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보장	교육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젠더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주거
	환경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물/위생
		(목표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에너지
(목표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기후변화	

SDGs	부문	목표	주제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해양
		(목표 15) 육지 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과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환경
	경제 발전 목표 (1,2,17도 관련)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노동
		(목표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경제
		(목표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불평등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소비
	이행 기제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거버넌스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 활성화	이행수단, 글로벌 파트너십

자료: 황세영 외(2016); 노영순(2018), p.26-27. 재인용

다.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의 신도시의제(the New Urban Agenda, NUA) 중 환경의제

유엔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은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도시발전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III)를 개최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연계된 향후 20년간 글로벌 도시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한다. 이 신도시의제의 핵심 개념은 ‘도시로의 권리(The Right to the City)’이며, 3대 원칙은 첫째, 누구도 뒤에 남겨 놓지 않는다 - 도시의 형평성과 빈곤 퇴치, 둘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의 번영과 모두를 위한 기회, 셋째, 생태적이고 복원력 있는 도시의 조성이다(노영순, 2017:184).

사실 현세대에 직면한 기후변화와 환경이슈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기인하고 있어서 해비타트III에서도 환경 부문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환경 부문은 전통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이외에 기후변화 도시계획, 부문별 관리방향(물, 폐기물, 에너지)을 담고 있으며(박세훈, 2017: 35), 총 9개 부문 18개 조항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다.

〈표 2-9〉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발전

부문	주요내용	조항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 직면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인적 재난 등의 위협 인식 • 기후변화 적응, 자원과 생태계의 활용 측면에서의 도시계획 관리 필요 • 샌다이 체계 의거 도시회복력 강화 	63, 64, 65, 77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도시삼각주, 해안지역 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 인식, 도시 및 국토계획에 적절한 조치 필요 • 토지의 생태적·사회적 기능 보존 및 활성화(생태계의 재생능력 고려) • 계획된 도시 확장, 생태계 손실 방지 등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증진 	68, 69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보건기구(WHO)의 세부지침(대기 질 지침 등)을 고려한 청정한 환경 조성 •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증진 	55
물 관리,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에 통합적 수자원 계획과 관리 포함 •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집행 역량을 갖춘 공공 수자원 및 위생설비 구축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 및 공중·개인위생의 평등한 접근 제공) 	71, 72, 120
폐기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발생 감소 • 폐기물 배출에 관한 분권화된 의사결정 • 확장된 폐기물 배출자 책임체계(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 체계의 재원 조달 	75, 122
회복력 및 재해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향상을 위한 공공공간의 배치 • 사후대응에서 사전대응으로 재해예방, 재해복구체계의 개선복구(Build Back Better) 	67, 78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활성화 / 공공건물, 기반시설에 이를 적용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 스마트그리드, 지역 에너지시스템 및 지역사회 에너지 계획 추진 	121
건설자재 및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원자재 및 건설자재의 자원효율성 제고 • 재활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물질 사용,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 개발 	76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차원의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기후변화 조치 활성화 • 파리협약의 목표와 일관성 유지 • 중장기 적응계획 프로세스와 도시차원의 기후취약성 및 영향평가 지원 	79, 80

자료: 박세훈(2017), 해비타트Ⅲ 의제(The New Urban Agenda) 이행방안 연구, 국토교통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pp.36-37 내용을 저자 정리

제2절 환경이슈와 문화: 개념과 동향

1. 환경이슈와 문화의 관계에 관한 개념과 주요 쟁점

1-1. 환경이슈와 문화의 관계

환경이슈는 정치, 경제 및 산업, 국토 및 도시계획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의 대응은 다분야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화 분야는 환경이슈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실제 민간영역은 물론 공공정책에서도 활발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등장하는 환경이슈와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간에게서 비롯되었고 인간의 행동과 생활방식(way of life)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문화와 환경과의 관계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김화임(2016)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자연과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신과학 및 문화학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y Culture Forum)이 2017년에 발간한 “Culture and Climate Change: Handbook for City Leaders”을 보면 “기후변화는 글로벌 경제, 사회, 문화시스템에 뿌리를 둔 제도적인 문제로, 이의 근본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소비, 불평등, 자연과의 단절 속에 갇힌 가치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이며 결국 기후변화는 문화적 도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nifi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이하 UCLG)은 2017년 발표한 ‘Culture,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riefing’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게 ‘기술’과 ‘기술적 조치’에 의존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의 신념, 가치 및 행동을 에워싸고 있는 것들(예, 생활방식, 소비행태 등)에 대한 접근, 즉 문화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문화는 환경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문화적 실천과 가치, 세계관을 통해 생태계를

변형한다. 이의 결과로 사람과 공동체의 지식, 전통 및 실천 등의 문화적 요인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전략에 통합한다(UCLG, 2017:1).” 그리고 기후환경뿐만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 간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간은 문화적 실천, 가치,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통해 주위의 생태계를 변형한다. 자연과 문화는 상호 의존하며 진화하며, 균형을 이루면서 형성된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렇듯 문화와 환경,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학계는 물론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를 전개해왔다. 1998년 유네스코(UNESCO)의 ‘문화와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회의’를 기점으로 2010년 UN 총회에서는 ‘문화와 발전에 관한 결의안’을 발표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문화와 지속가능발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노영순, 2017:6). 문화, 특히 문화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Dessein, Soini, Fairclough and Horlings(2015; 노영순, 2017)는 문화와 지속가능발전 간의 관계를 ① 지속가능발전의 한 기둥(pillar)으로서 ‘문화’ (‘Culture’ In SD)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Culture’ For SD) ③ 지속가능발전 그 자체로서 ‘문화’ (‘Culture’ As SD)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표 2-10 참조).

〈표 2-10〉 문화와 지속가능발전간의 관계

문화와 지속가능발전간 관계	내용
지속가능발전의 한 기둥(pillar)로서 문화	•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환경, 경제, 사회 부문과 나란히 독립적이고 자율적 역할. 독자적인 문화와 예술영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 문화는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조정 •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부여
지속가능발전 그 자체로서의 문화	• 문화는 사회적 가치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창조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상적 비전 제공

자료: Dessein, Soini, Fairclough and Horlings(2015); 노영순(2017), pp.37-38 내용을 재구성

Duxbury, Kangas & Beukelaer(2017)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한 최근 논의를 종합하여 문화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핵심 목표를 (1) 문화적 실천 및 권리의 보호와 지속화 (2) 문화 관련 조직과 산업의 운영 및 영향의 녹색화(greening) (3)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강화와 행동 촉진 (4) 생태시민권(ecological citizenship) 증진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표 2-11 참조).

첫째, ‘문화적 실천 및 권리 보호와 지속화’는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다양성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즉 시간을 초월한 문화의 지속성과 글로벌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중요시

함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문화의 위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관계, 문화권). 이때 문화정책은 조절자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문화 관련 조직과 산업의 운영 및 영향의 녹색화(greening)’ 측면에서, 문화정책은 명확히 환경적 측면과 연계되어 있고, 환경규제, 계획 및 제약을 문화 영역에 적용(translate)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접근이 확인 가능한 주요 영역은 녹색건축디자인(green building design)의 원리에 입각한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과 문화정책을 결합한 예는 드문 것(Moore & Tickell, 2014)으로 평가된다. 셋째,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강화와 행동촉진’은 ‘지속가능한 삶’에 관한 인식과 태도로의 문화적 변화와 ‘삶의 방식’ 전환 과정에서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때 지속가능한 삶의 지향이란 기후변화 및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및 사회적 위기, 불평등 이슈 등의 극복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 문화정책은 애니메이터(animator) 혹은 촉매 역할인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예술프로젝트의 지원 등과 같은 지원정책 개발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끝으로 ‘생태시민권’은 환경위기의 대응에 있어 공공 공간(public space)의 회복과 인간의 책임성에 보다 많은 신뢰를 두는 것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은 시장(market)도 국가기구도 아닌 시민권에 의해 적절히 대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문화정책의 역할은 예를 들어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Anderson, 1983)의 형성과 같은 것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이슈로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다루고 글로벌 시민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2-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네 가지 전략

핵심목표	문화정책의 역할	문화의 개념	지속가능성의 개념
문화적 실천 및 권리의 보호와 지속화	Regulator & Protector	집단의 문화적 실천과 권리	•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환경을 지속하기
문화 관련 조직과 산업의 운영 및 영향의 녹색화(greening)	Translator & Politicking	이벤트, 창작, 서비스 등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생산과 유통 / 문화소비양식과 형태	• 환경적 지속가능성, 가능한 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연계(예, 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비용 절감)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강화와 행동 촉진	Animator & Catalyst	창작활동 그 자체 혹은 수단으로서 예술적, 창의적 표현	• 환경적 지속가능성, 가능한 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연계
생태시민권(ecological citizenship) 증진	Educator & Promoter	정체성과 창조적 표현	• 사회, 경제, 문화 및 환경적 차원을 통합하기

자료: Duxbury, Kangas & Beukelaer(2017), p.222

1-2. 환경이슈와 연계되는 문화예술 분야의 쟁점

환경이슈와 연계되는 문화예술 분야의 쟁점은 크게 ①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관련 사업 추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이의 대응 ②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에 능동 대응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 및 기능 강화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 문화예술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이의 대응

분명 문화예술 분야 또한 창작-매개-향유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발생하며,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탄소발자국을 가지고 있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란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⁹⁾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보고에 따르면¹⁰⁾, 위원회의 환경프로그램에 가입한 747개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기관이 201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량은 379,000,000Kw/h로, 이는 영국 내 122,000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72억 리터의 물을 사용하였고 154,400톤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종합한 기관들의 전체 탄소발자국은 114,547톤 CO₂eq로, 115,000개의 나무가 100년간 없어야 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화기관 및 시설의 탄소발자국 관리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영국(United Kingdom, UK)이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는 예술위원회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기관들을 대상으로 연간 ‘탄소발자국’ 보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2011년 스코틀랜드 문화와 예술 부문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설립된 ‘Creative Carbon Scotland’¹¹⁾는 120여 개 참여조직에서 탄소발자국 보고서를 받고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창제작·전시 사업 추진 시 수많은 폐기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콘텐츠 창제작·전시 관련 사업 7종에 총 2,323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공간 구축·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으로 예산 대비 21.3%인 약 494백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2020).

9) <http://www.epd.or.kr/epd/carbonIntro.do>(검색일자: 2021. 5.20)

10) Arts Council England, 2020, Sustaining Great Art and Culture: Environmental Report 2018/19,

11) <https://www.creativecarbonscotland.com>(검색일자: 2021.6.8.)

비단 문화 관련 시설만이 탄소발자국 관리의 대상은 아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서 사용되는 전력, 사용 후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는 환경을 훼손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그린피스(Greenpeace)의 연구에 따르면 음원이나 비디오 스트리밍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하여 서버에 전원을 공급하지만, 이러한 전력의 17%만이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나온다고 비판한다.¹²⁾ 결국 문화예술 분야의 환경저해 요소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이를 최소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나.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대응에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능

최근 환경생태 관련 이슈에 능동 대응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으며 유인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과 문화예술 간 적극적인 결합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환경이슈에 있어 문화가 지향하는 지점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등과는 다소 차별성을 가지는데, 이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포지셔닝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상적 삶의 변화를 추구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¹³⁾. 1992년에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원칙 10(Principle 10)에도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기후변화는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 특히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관련된 실천과 행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이익을 절실히 발하는 공공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는 이러한 공공의 참여를 이끄는 강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예술프로젝트, 즉 환경예술(environmental art)을 추진하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환경예술은 정확히 정착된 개념이 아니다. 생태예술(eco art)¹⁴⁾, 대지예술(land

12) Christiaan De Beukelae, What can the arts do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PURSUI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1 October 2019 (<https://pursuitunimelb.edu.au/articles/what-can-the-arts-do-in-the-face-of-climate-change>, 검색일자: 2021.6.8.)

13) 사회신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전략을 세워라!, 2019.4.20. (http://www.newhwasunnews.com/sub_read.html?uid=2146§ion=sc8§ion2=%EA%B8%B0%ED%9A%8D%C2%B7%ED%8A%B9%EC%A7%91, 검색일자: 2021.6.8.)

14) 1980년대 캐나다의 사진작가이자 예술이론가 캐루서(B. Carruther)가 유네스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조경만, 2015)한 개념으로, 환경과의 생태적인 상호존성에 중점을 둔 예술형태를 말한다. 오염되고 파괴된 생태계와 경관을 복원하는 환경복원예술(Restoration Art), 과학자, 도시계획가, 건축가 등

art)¹⁵⁾ 같은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보다 환경예술은 이들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신용승 외, 2016). Reid et al(2005; 신용승 외, 2016)에 따르면, 환경예술(environmental art)은 환경을 매개로 예술가와 소비자가 소통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의 자연환경과의 관계성을 제고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자극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1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네 가지 전략

경로	내용	대상규모
1. 정보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에 교육, 개념 확장,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수단이 됨 	개인
2. 지역의 자연환경과의 관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규모의 환경예술 사업은 지역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기념비적인 역할이 가능 • 지역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음. 	개인, 지역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자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비도시지역의 지역계획, 경관디자인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비도시 지역의 예: 예술과 농촌임업(Farm Forestry), 농촌재건사업과 통합하여 지역 부흥 유도 ✓ 도시지역의 예: 도시설계와 공공예술의 협업으로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을 위한 시설과 대중교통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발생 감소 유도 	지역

자료: Reid et al (2005); 신용승 외(2016), p.24 재인용

최근 들어서는 예술인과 예술공동체의 환경 연계 창작활동을 넘어 환경 관련 문화서비스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용승 외(2016)는 기후환경과 관련하여 문화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때 ‘기후환경 문화서비스’는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화 향유를 통하여 기후변화 혹은 생태적 문화의식을 증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환경서비스”로 정의된다. 그리고 기후환

협업을 통해 환경파괴를 중단하는 결과를 내는 예술행위(Ecological Art), 지역 생태계를 물리적으로 전환하는 예술프로젝트(Ecovention)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생태예술가들은 “지속가능성, 적용가능성(adaptability), 상호의존성, 재생 가능 자원, 생물다양성의 이슈를 고려하는 예술적 실천을 보여준다.(Spaid, S, 2002:윤현주, 2020.:40)

15) 대지예술(Land Art, Earthworks) 또는 대지 미술이란 지구 표면 위나 표면 자체, 또는 표면 내부에 어떤 형상을 디자인하여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을 지칭한다. 대지 예술이 발전하고 있던 당시에는 환경 보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발전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작품을 만들어 내는 대지 예술가들의 작업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A7%80_%EC%98%88%EC%88%A0), 검색일자: 2021.6.8.)

경 문화서비스는 문화서비스에 생태적 원리를 반영하고, 부문 간 협력과 융합을 피해야 하며, 반드시 시민참여와 체험을 전제해야 한다.

〈표 2-13〉 기후환경 문화서비스 제공 전략

전략	내용
생태적 원리 반영	생태적 원리를 반영한 문화서비스 체험기회 확대 • 생태적 원리를 미술,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체험할 수 있는 생태문화콘텐츠 개발 • 생태적 원리를 내포한 권역별 생태예술체험시설 설치 • 예술가가 생태적 지식을 채득할 수 있는 생태예술가 전문교육 실시
부문간 협력 및 융합	생태 과학 예술의 융합, 상호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마련 • 지역 내 환경복원 사업, 도시공원 조성, 환경영향 완화시설 설치 사업 등 관련 융합 사업기회 발굴 지원
시민참여 및 체험	생태 과학과 문화예술이 협력한 시민참여 교육 추진 •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료: 신용승 외(2016), p.70

나아가 문화예술은 전 지구적 생태시민권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생태시민권’(ecological citizenship)이란 우리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고 지구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와 예술이 19세기 근대 민족국가의 출현이 국가 정체성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듯이 21세기 세계 생태시민권이 출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¹⁶⁾.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가 ArtCOP21¹⁷⁾이다. ArtCOP21은 프랑스 파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앞서 결성된 전 세계 54개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등의 모임으로, COP21 총회장인 파리에 모여 기후변화를 주제로 설치미술, 연극, 전시회 콘서트 등 550개가 넘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강력한 기후행동을 지원하고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알리기도 했다.

16) Christiaan De Beukelae, What can the arts do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PURSUI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1 October 2019 (<https://pursuitunimelb.edu.au/articles/what-can-the-arts-do-in-the-face-of-climate-change>, 검색일자: 2021.6.8.)

17) <http://www.artcop21.com/about>(검색일자: 202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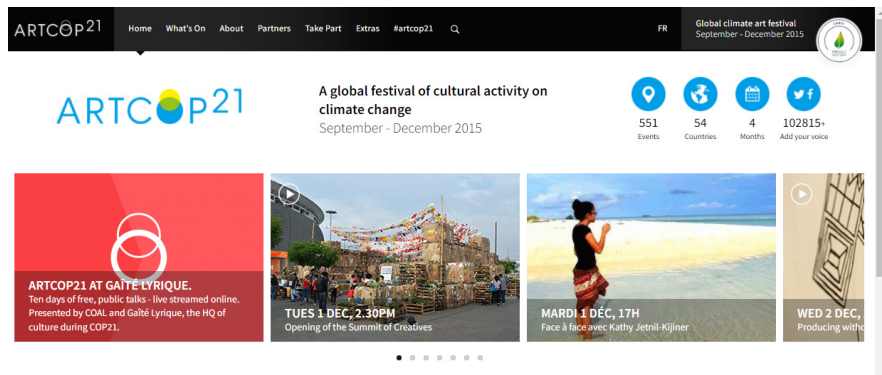
ArtCOP21

- ▷ (목적)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회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OP21)와 병행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자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4개월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함
- ▷ (주최) 프랑스의 Coalition for Art and Sustainable Development(COAL)와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Cape Farewell이 공동 주최
 - COAL은 현대미술(contemporary art) 및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 분야의 프랑스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2008년 발족됨. 사회·환경적 이슈들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가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여 생태적 문화(culture of ecology)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활동목표로 함.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현대미술 전시회 및 행사(예: ArtCOP21)를 개최하고 매년 Art and Environment Prize를 수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음
 - Cape Farewell은 예술가 David Buckland이 2001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술 프로젝트인 Cape Farewell Project를 기획한 것을 시초로 발족됨. 영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행사 및 전시회 개최, 과학자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 추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세부목적

- 기후변화라는 정치적 아젠다에 예술·문화를 접목함
- 기후와 관련된 담론이 벌어지는 데 있어 예술가들을 관계자(stakeholder)로 참여시킴
- 생태적 변화(ecological transition)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단합하게 함
- 예술가들에게 COP21을 활용하여 행동(action)과 표현(expression)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시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천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도함
- 페스티벌 참여자들이 예술·문화 분야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더 나은 융합에 대해 교육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함

- ▷ (후원) 파리 시청(mairie de paris), 영국 예술 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협업에 참여함
- ▷ (결과) 전 세계 54개국, 25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설치, 연극, 전시, 콘서트, 퍼포먼스, 토크(talks), 가족행사 및 영화상영, 키퍼런스, 워크숍 등 총 551가지의 이벤트가 개최



〈그림 출처: www.artcop21.com (검색일자: 2021.11.21.)〉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사업혁신TF 보고서

2. 환경이슈와 연계된 문화정책의 국내외 동향

2-1. 문화 분야 환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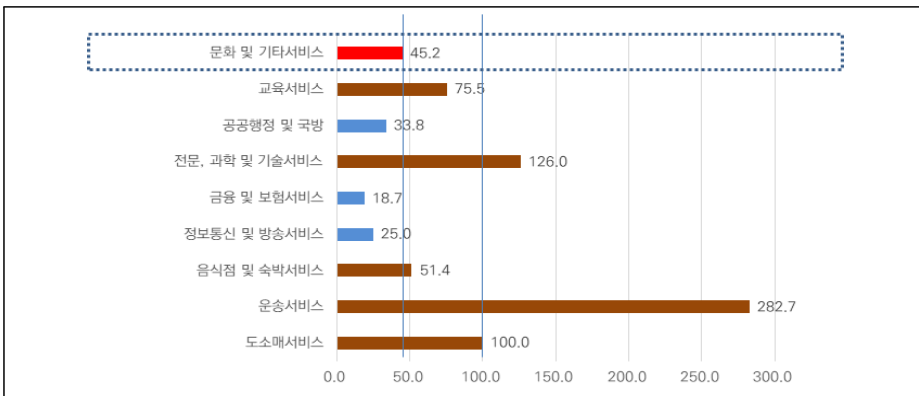
문화와 같은 서비스 관련 '환경' 관련 통계는 제조업, 광업 등에 비해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본 절에서는 에너지 투입액, 폐기물, 실내공기질과 함께 녹색상품 구매율,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가. 에너지 투입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 에너지 소비는 필수적이다. 전기 및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양·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탄소배출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에너지 투입과 소비 정도는 해당 산업의 탄소배출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 등을 포함하는 '문화 및 기타 서비스' 분야의 에너지 투입액을 보면,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인 '도소매서비스'와 비교해 45.2%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많이 에너지가 투입되는 서비스 분야는 이동이 전제되는 '운송서비스'이며, 실험 등으로 인해 많은 전력소모가 예상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가 도소매서비스보다 높은 에너지 투입액을 보였다. 그 외 문화 및 기타서비스보다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분야는 '교육서비스'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12] 문화서비스(arts, sport, recreation and other)의 에너지 투입액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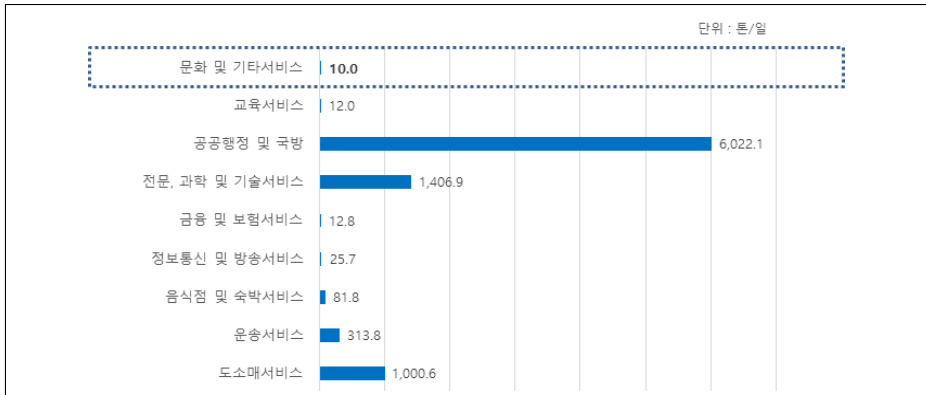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19), 2019 에너지 통계연보 내용을 저자 정리
주: 본 자료는 2015년 기준임. 각 서비스별 값은 도소매 서비스를 100으로 둘 때 값임.

나. 폐기물 발생

서비스산업별 폐기물 발생량(2019년 기준)을 보면,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이 하루 6천 톤 이상의 폐기물 발생으로 가장 많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도소매서비스’ 순으로 많이 배출되었다. ‘문화 및 기타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적은 하루 10톤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문화서비스(arts, sport, recreation and other)의 폐기물 발생량 (2019)



자료: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 본 자료는 2019년 기준임.

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직접적으로 기후환경변화 및 탄소중립과 연관성이 낮아 보이지만, 시설의 이용자 관점에서는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이슈라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평균오염도 결과(환경부 환경통계포털)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등 5개 유형이며 이들 모두 기준 이하의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다¹⁸⁾. 다만 미세먼지(PH10)는 도서관, 미술관과 영화상영관, 이산화탄소(CO₂)는 도서관,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5개 유형 모두에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용자들의 건강한 관람을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⁹⁾

18)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을 보면 2007년부터 실내공기질 평균 오염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₂),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CFU), 일산화탄소(CO) 등이다.

19) 다만 문화시설의 표본수가 많지 않아 이 결과로 전체 문화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판단하기 어렵다.

〈표 2-14〉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평균 오염도

	측정개소수	유지기준				
		PM10 ($\mu\text{g}/\text{m}^3$)	CO ₂ (ppm)	HCHO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 (CFU/ m^3)	CO (ppm)
		100~200	1000	100	800	10~25
전체평균	2,235	42.6	599	20.8	385.5	0.7
지하역사	140	49.1	523.5	4.4	-	0.7
지하도상가	18	38.4	592.6	24.4	-	0.7
여객자동차터미널	5	43.4	606.8	-	-	-
공항시설	2	65.8	783.2	28.1	-	-
항만시설	1	25.8	616.5	10.1	-	1.1
철도역사	6	57	527.2	7	-	1.8
도서관	30	52.04	600.1	26.6	-	0.6
박물관	12	26.8	535	51.4	-	-
미술관	3	82.3	518	59.7	-	2
장례식장	14	42.3	508.7	2.9	-	0.5
목욕장	68	45.1	554.5	21.4	-	1.6
대규모점포	90	42.7	542	23	-	0.8
학원	33	33.7	674	23.4	-	-
영화상영관	73	42	572.8	25.7	-	0.8
전시시설	7	34.1	512.4	22.2	-	5
PC영업시설	85	46.5	659.1	30.2	-	1
실내주차장	192	46.2	558.8	9.7	-	1.6
의료기관	407	38.9	639.6	20.7	294.2	1.1
어린이집	763	43.7	620.5	20.3	486	0.8
노인요양시설	228	41	567.4	17.9	284	0.9
산후조리원	58	33.9	653	42.1	233.1	1.4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stat.me.go.kr, 검색일자: 2021.10.12.)

주: PM10: 미세먼지, CO₂: 이산화탄소, HCHO: 포름알데히드, CO: 일산화탄소

라. 녹색제품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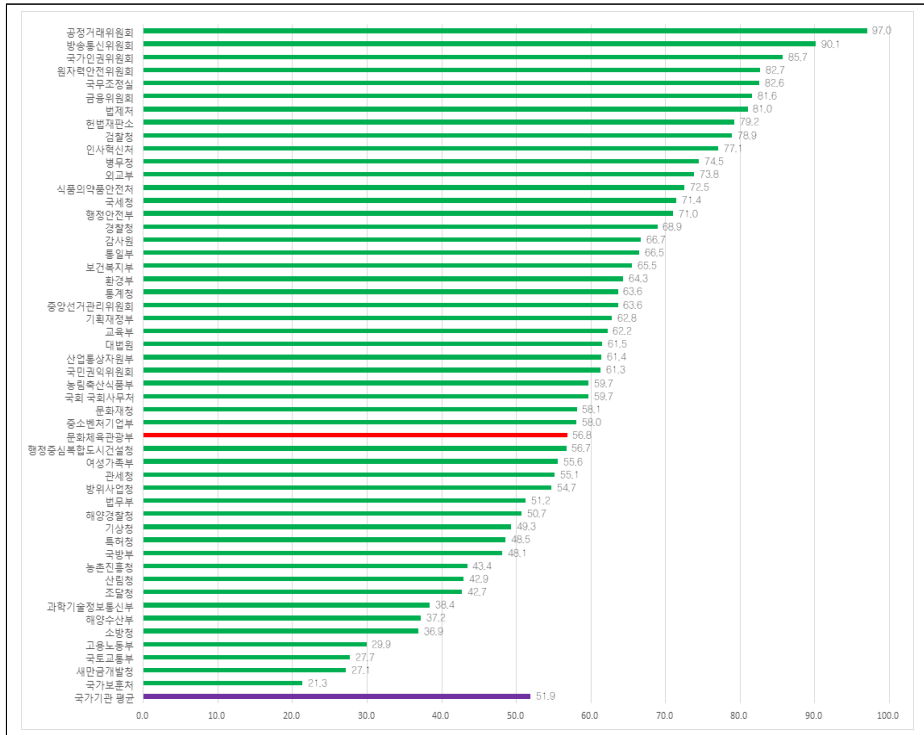
‘녹색제품’이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하며, 녹색제품 구매 현황을 통해 조달 영역에서 친환경적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정부기관별 총 제품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제품구매액 대비 56.8%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기관 평균 구매율이 51.9%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 이상이지만 구매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4] 정부기관별 총 제품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 비교(2020년)

(단위: %)



자료: 환경부 내부 자료를 저자 정리

주: 녹색제품이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현황을 살펴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10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96.1%, 5개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평균 녹색제품 구매율은 94.6%로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균에 비해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문체부 산하 25개 기타공공기관의 평균 녹색제품 구매율은 79.3%로, 이 또한 전체 기타공공기관 평균 녹색제품 구매율인 6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달과정에서의 친환경적 실천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5〉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2020년)

(단위: 백만 원, %)

분류	기관 명	총구매액(A)	녹색제품 구매액(B)	비율(B/A)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07	107	100.0%
	문체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107	107	100.0%
	준시장형 공기업 전체	401529	344128	85.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380	365	96.1%
	문체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380	365	96.1%
	준시장형 공기업 전체	27063	23181	85.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아시아문화원	108	106	98.1%
	한국관광공사	836	781	93.4%
	한국콘텐츠진흥원	322	308	95.7%
	국제방송교류재단	54	54	100.0%
	문체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20	1249	94.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체	227562	185032	81.3%
기타공공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9	1	3.4%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6	6	100.0%
	게임물관리위원회	64	62	96.9%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7	16	94.1%
	대한장애인체육회	227	178	78.4%
	대한체육회	1136	997	87.8%
	세종학당재단	329	202	61.4%
	영상물등급위원회	21	17	81.0%
	영화진흥위원회	356	335	94.1%
	예술의전당	15	11	73.3%
	재단법인 국악방송	11	3	27.3%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186	60	32.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8	28	100.0%
	한국문학번역원	45	42	9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	14	1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8	48	7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	146	96.1%
	한국문화정보연구원	10.87	10.62	97.7%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0	0	0.0%
	한국영상자료원	0.77	0.74	96.1%
	한국저작권보호원	79	66	83.5%
	한국저작권위원회	110	109	99.1%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253	176	69.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81	67	82.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88	42	47.7%
	문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3326.64	2637.36	79.3%
	기타 공공기관 전체	75743	46225	61.0%

자료 : 환경부 내부 자료를 저자 정리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Zero Energy Building, ZEB) 인증은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해 단위 면적 당 1차 에너지 생산량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인증하고 있으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²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30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민간과 공공 건축물 전체에 대해 ZEB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 분야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ZEB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크게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이며 20%씩 자립률이 낮아짐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최하 5등급은 자립률이 20~40%일 경우 인증된다. 인증은 본인증과 예비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예비인증의 경우 본인증에 앞서 설계도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한 규칙」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2021년 8월 현재 본인증을 완료한 건축물은 59개, 예비인증 건축물은 1,181개이며 이 중 문화 관련 건축물은 각각 17개, 121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문화 관련 본인증 건축물 17개 중 1등급은 3개이며 5등급이 11개로 가장 많았다. 예비인증 건축물의 경우 121개 중 5등급이 72.7%인 88개이며 1등급은 5개인 것으로 확인된다.²¹⁾

〈표 2-1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현황 (2021. 8월 현재)

	본인증	예비인증
전체	59	1181
문화	17	121
	(등급) ① 3, ② 0, ③ 2, ④ 1, ⑤ 11	(등급) ① 5, ② 0, ③ 9, ④ 19, ⑤ 88

자료: 제로에너지건축물 홈페이지 (zeb.energy.or.kr, 검색일시: 2021.8.3. 검색)

(※) 문화시설은 도서관, 전시관, 복합문화시설 등이 포함됨.

2-2. 국내 환경이슈 연계 문화·예술분야 계획 및 관련 정책

가. 문화체육관광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2008)

이명박 정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글로벌 에너지·자원의 고갈 위기 심화라

20)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_efficiency/building_08.asp

21) 제로에너지건축물 홈페이지 (zeb.energy.or.kr, 검색일시: 2021.8.3. 검색)

는 환경적 도전과 함께 당시 직면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변환(Green Conversion)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인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국정과제로 제시한다.

2008년 1월 환경부의 조사결과, 국민 88.2%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생활양식 변화 등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승재, 2009:87).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근본적으로 국민생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10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문화체육관광부)을 발표한다.

본 계획의 문제의식은 앞에서 언급한 환경이슈에 있어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과 대동소이하다. 즉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 생활문화의 지속으로 기후변화가 급속히 전개될 것이며, 에너지 사용비용 증가로 인해 환경친화적 여가 활동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이슈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생활문화 전반의 변화를 꾀하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은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의 비전 아래 6대 전략 16대 과제 4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표 2-17 참조). 그리고 사회문화적·도덕적 접근으로 근본적인 인식변화에 초점을 두고, 탄소발생 산업의 국제적 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문화와 환경이슈를 본격적으로 연결한 최초의 정부계획이자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체 소관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구서올역사 문화공간 조성, 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예술 공간화, 슬로시티 인증도시 관련 사업, 도보 및 자전거 여행 육성 정책 등 완료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으나,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분야 다중이용시설 탄소배출 및 에너지 효율 관리 등과 같은 제도로 안착하여 지속되어야 할 중요 사업의 추진이 다소 미흡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표 2-17〉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전략 및 추진과제 (2008)

전략	추진과제	
녹색 생활문화 기반 조성	녹색여가문화 확산 및 정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형 전통문화 보급 • 녹색여가문화리더 발굴
	환경 친화적 도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제로놀이터 조성

전략	추진과제		
	문화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그린디자인 가이드북 발간 • 그린디자인 인증제 도입 	
	유휴·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서울역사 문화공간 조성 •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 	
	에너지 절감형 문화·체육·관광시설 모델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에너지 고효율 매뉴얼 개발 • 박물관 온실가스 저감 캠페인 추진 • 친환경 레저도시개발 매뉴얼 제작 	
	생태문화관광 등 녹색관광산업 육성	탄소제로도시, 생태마을 등 녹색관광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해안을 탄소제로 시범도시로 지정·육성 • '3Re' 생태예술문화 마을 조성 • 선 마을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생태문화연구 및 아시아문화지도 제작 • 슬로시티 인증도시 확대 추진 • 슬로시티 통합홍보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관광시범단지 실시 • 탄소중립형 숙박시설 개선 추진 • 도보 및 자전거 여행프로그램 발간사업 추진 • 도보 및 자전거 여행길 잇기 추진
		녹색관광산업 도입 및 인센티브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시설물의 녹색인증제 도입 • 여행상품 탄소중립프로그램 도입 • 친환경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미디어와 교육을 통한 녹색문화 사회 전환	기후변화 주제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녹색문화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환경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국제영화제 저탄소 녹색영화제 추진 • 환경을 주제로 제작된 공연예술 콘텐츠 지원 • 환경 친화적 지역 축제 지원 확대 		
저탄소 스포츠 활동 확산	걷기, 자전거 등 저탄소 스포츠 활동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생활문화 공간 확충 • 체육시설 자전거 발전기 설치 	
	환경 친화적 국제 및 국내 체육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대구세계육성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친환경적 대회 준비 • 녹색체전 환경가이드라인 마련 	
그린코리아로 국가이미지 제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그린코리아 홍보로 신한류 이미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 • 국가 환경비전 브랜드화 작업 추진 • 국제방송 협력 프로그램 확대 • Korea.net 활용, 기후변화 정부시책 홍보 	
	외신 대상 전략적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사 브리핑 실시 • 프레스투어 실시 	

전략	추진과제	
자발적 탄소제로 업무관리시스템 정착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교육 실시 • 에너지 저감체험 워크숍
	개인 업무별 탄소배출량 산출, 절감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저감 목표 수립 • 성공사례 발굴: 소속·유관기관 전파
	관련 기관 간 녹색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환경부간 MOU 체결 추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기획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2008.10.1. 내용을 저자 정리

나.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내 환경 관련 계획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비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새문화정책준비단’을 구성하였으며, 분과회의, 워크숍 및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5월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이하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였다.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과 ‘자율성’·‘다양성’·‘창의성’ 등 3대 가치 하에 9대 의제, 47대 정책과제로 구성되며, 하위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제안되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법정계획과 업무계획 등이 이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다.

문화비전 2030 중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대응 문화정책은 ‘의제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내 ‘05.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04.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공간 재생’ 또한 자원순환 및 재생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의제 9-05 계획의 기본 개념은 첫째, 환경·에너지·생태 중심 문화적 전환도시 계획 수립·확대로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미래 사회 변동에 능동 대응하는 문화체계 확대, 둘째, 문화도시·문화시설, 문화행사 등 문체부 추진사업에 에너지 전환 계획 추진 및 사회 의제 참여 확대이다. 의제 9-04의 경우, 지역 및 공간 재생 과정에 문화적 프로세스를 확대 적용하여 사회적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2018).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문화비전 203-사람이 있는 문화’ 내 환경 관련 계획 (2018)

전략	추진과제		내용
〈의제 9-05〉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	환경·에너지·생태 중심 문화전환도시 계획 도입	• 환경·에너지·생태 중심 문화 도시 전환모델 계획 수립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 전반에 에너지 전환도시 확산 캠페인 도입 • 문화지구·관광단지 등에 무동력 교통체계·생태 친화기술 적용 • 환경·에너지를 고려한 문화적 전환도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너지 관련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 • 생태친화 문화예술교육 캠퍼스 조성 및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기술, 제작문화 기반 활동을 수용하는 생태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에너지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문화시설과 행사에 에너지 전환 개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문화시설 등 문체부 추진사업에 에너지 전환 계획 추진 • 문화행사 개최 시 환경·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문화시설 등 문체부 추진사업에 에너지 전환 계획 추진 • 공공지원 지역 축제와 경기·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때 환경·에너지 중심의 전환계획 포함 의무화
〈의제 9-04〉 문화공유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공간 재생	지역 주민 주도 문화자원의 활용계획 마련·운영	• 지역·공간 재생 과정에서 문화적 프로세스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생 사업 시행 이전 단체에서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촉진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공동의 문화토대 구축 • ‘거버넌스’ 주도 문화재생 실행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제반 환경 조성(관계부처 협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내용 중 저자 정리

다. 자원순환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능을 상실한 폐산업시설 및 유휴공간의 재생(재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능을 잃고 쇠락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recycling)과 ‘재생’(regeneration)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역사회 내 창작과 소통의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7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표 2-19 참조), 2014년에 4곳으로 시작하여 2021년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다(표 2-20 참조).

〈표 2-19〉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예산 (2014-2021)

(단위: 백만 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2,500	9,330	10,972	8,116	3,900	8,054	14,843	10,69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년도

〈표 2-20〉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현황 (2014~2021)

사업년도	사업위치	사업주체	사업명(대상시설)
2014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광명시	광명 문화공간 조성 (폐 자원회수시설)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53	부천시	부천문화콘텐츠플랫폼 (폐 조각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7길 75	담양군	예술로 “남송창고” 재창조 (폐 양곡저장창고)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천1길 93	나주시	나주 나비(羅飛)센터 (구 나주잠사)
2015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53	부천시	부천문화콘텐츠플랫폼 (폐 조각장)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 (구 군사시설)
	전라북도 완도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완주군	다목적에코에너지 복합문화센터 (구 호남잠사)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68	완주군	책마을 문화센터 (구 농협비료창고)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77	영주시	영주아트센터 (경북전문대 식품과학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구 제주대병원)
2016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27	대구광역시	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구 연초제조창 사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도	청년문화공간 조성 (구 서울농대교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	경기도	eco_newseum 고색 (구 하수처리시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전주시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 (주 쏘렉스 공장)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완주군	로컬디자인:Art&Craft (구 호남잠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자침1길 6	담양군	문화를 빛다 “해동술공장” (구 양조장)
201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덕벌로 30	청주시	동부창고 문화재생 (동부창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부산광역시	복합문화공간 조성 (구 고려제강 공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도	융복합 문화창조 공유 플랫폼 (구 서울농대교사)
	전라북도 남원시 만안로 92 일원	남원시	남원 아트센터 조성 (구 방송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64	광양시	광양 문화융광로 조성 (폐 창고)

사업년도	사업위치	사업주체	사업명(대상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길 75-2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정수장 문화재생 (구 정수장)
20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일원	경기도	제2 청년문화창작소 조성 (구 서울대 농생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6길 14외 1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유희부지활용 문화재생사업 (폐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10	울산광역시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 (구 냉동창고)
2019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산143-3번지 일원	동해시	무릉3지구 폐쇄식장 문화재생사업 (폐 쇄석장)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100-0	삼척시	삼척항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세광엠텍 폐 공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일원	경기도	창생공간 조성 (경기상상캠퍼스 입학임산학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1길 6 일원	담양군	문화를 빛다 "해동술공장 조성(2단계 사업)" (폐 주조장, 폐 교회)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산64-3번지 일원	서천군	심동마을 열차터널 판교도토리를 품다 (금암 폐 터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27-27 일원	논산시	연산 행복드림타운 (유휴 농협창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덕벌로 30	청주시	청주 동부창고 창작플랫폼 아카이빙 플랫폼 (동부창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6길 14외 1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유희부지활용 문화재생사업 (폐 공장)
2020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57	강화군	강화 폐교시설 문화재생사업 (폐 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6길 14외 1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유희부지활용 문화재생사업 (폐 공장)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53	부천시	부천시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폐 소각장)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14	시흥시	시흥시 맑은물창의문화타운 커뮤니티블록 조성 (폐 하수처리시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675	화성시	화성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누림터 조성 (폐 119 차고)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산143-3번지 일원	동해시	무릉3지구 폐쇄식장 문화재생사업 (폐 쇄석장)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100-0	삼척시	삼척항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세광엠텍 폐 공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덕벌로 30	청주시	청주 동부창고 창작플랫폼 아카이빙 플랫폼 (동부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27-27 일원	논산시	연산 행복드림타운 (유휴 농협창고)

사업년도	사업위치	사업주체	사업명(대상시설)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산64-3번지 일원	서천군	심동마을 열차터널 판교도토리를 품다 (금암 폐 터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일원	서천군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 (폐 극장, 폐 사진관 등 근대건축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일원	전주시	예술교육 체험공간 조성 (폐 공장)
	전라북도 순창군 순화리 94-1 일원	순창군	소극장 및 창작공간 조성 (폐 농협창고)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1길 6 일원	담양군	문화를 빛다 “해동술공장 조성(2단계 사업)” (폐 주조장, 폐 교회)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98	장흥군	(옛)장흥교도소를 활용한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폐 교도소)
2021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아리 236-1번지 일원	옹진군	소아도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폐 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57	강화군	강화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폐 교)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폐 소각장)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산157-4번지 일원	화성시	매항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폐 군사시설)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147-12번지 일원	서천군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 (폐극장 등 근대건축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632-29 일원(구 장항화물역 일원)	서천군	장항 Re 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 (폐 철도시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 121-1번지 일원	전주시	문화공간 완산벙커 1973 조성 (폐 벙커시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98	장흥군	(옛)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폐 교도소)
	전라남도 나주시 과월길 5	나주시	(구)나주정미소 문화재생사업 (폐 정미소)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205-1번지	무안군	(옛)무안고 문화재생사업 (폐 교)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600-1번지	담양군	봉안정미소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폐 정미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향교길 57-4	의성군	유휴공간(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 (폐 공장)
	경상남도 양산시 학동길 10	양산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폐 교)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송길 18	세종특별자치시	(구)연동면사무소 활용 문화재생 (폐 면사무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다. 환경 분야 주요 계획 내 ‘문화·예술’ 관련 정책

환경 분야 법정계획과 관련 국가정책에는 문화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혹은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해야 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는 국토 생태벨트지역 조성 및 생태기반 문화서비스 증진, 환경기반정비의 생태휴양 및 여가공간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제2차 자연환경보전계획(2016-2025)’의 경우 예술과 결합된 생태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이,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에는 문화예술교육과 환경교육의 연계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계획들은 국가 및 지역의 환경문제 대응에 있어 문화예술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과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 비법정계획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案)’,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문화시설 및 서비스 또한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정책적 조치들이 제시되어 있어 친환경 관점의 문화정책 수립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련 계획과 내용은 <표 2-21>과 같다.

<표 2-21> 환경 분야 주요 계획 내 ‘문화·예술’ 관련 정책 내용

계획 명	근거법령	비전	문화예술 관련 계획	영역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	「헌법 제3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생태벨트지역 등의 생태경제지역 형성 촉진과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마을의 전통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복원을 결합하여 체류형의 휴양치유마을로 복원·전환하고 자연친화적 생활 기반을 강화 • 생태자원을 음악·미술·영상·시 등 예술과 접목하여 생태기반의 문화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생태예술체험공간 도입 및 생태디자인 상품 개발 □ 노후 환경기초시설의 자산관리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반시설 정비 시 지하화, 공원화, 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생태휴양 및 여가공간,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전환 	환경보존 자원순환 커뮤니 케이션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풍요로운 자연, 자연과 공존하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어우러지는 자연해택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이 접목된 생태콘텐츠 개발) 생태학자와 예술가들이 협업을 통한 생태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 (생태예술체험시설 설치) 음악·미술·영상·시 등 예술과 접목한 “생태예술체험시설” 건립 	커뮤니 케이션

계획 명	근거법령	비전	문화예술 관련 계획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맞춤형 생태계서비스 발굴) IT, 생태·환경, 스토리텔링 전문가와 협업하여 자연 체험 콘텐츠 발굴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021-2025)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협업과제 및 연구과제 발굴·추진 •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구사업 내 환경교육 강좌 지원 • (독서진흥) 환경도서 전자출판 지원 사업 협력 □ 타 분야 시설 및 단체와 연계 강화 • 교육기능을 가진 기존 시설에서 해당 시설의 고유 목적과 접목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예술교육 연계 등) 	커뮤니케이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20-204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부분·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시장 육성을 미래 시장 창출 •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 제도·조직·거버넌스 등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020-20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의무, 2025년 이후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 □ 그린리모델링 공공부문 선도 추진 방안 마련 • (공공 표준모델) 용도·규모·노후도 등의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진단 의무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진단 의무화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대상 발굴 및 단계적 성능개선 유도 	탄소중립 자원순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案)	〈비법정계획〉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 •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에너지 성능 개선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탄소중립의 의미에 대한 對국민 인식공유 및 실천력 담보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에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선언)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2040년대 탄소중립 달성)을 발표하여 탄소중립 모멘텀 확산 	탄소중립

계획 명	근거법령	비전	문화예술 관련 계획	영역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비법정계획>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탄소중립(Net -zero) 사회 지향	□ (그린리모델링)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조명 등 에너지 저감 설비 설치(1,148개소) □ (도시 숲) 도서관, 역사, 대학교 등 생활권 주변 생활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개 소 조성	탄소중립

자료: 각 계획의 내용을 저자 정리

*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환경부, 2021.3)에 수록된 내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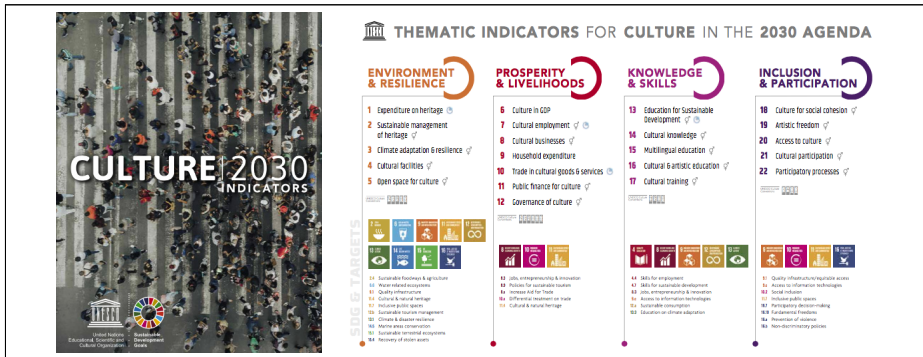
2-2. 국외 환경이슈 연계 문화·예술분야 계획 및 정책

가. 유네스코(UNESCO)

1) Culture 2030 Indicator(2019)

유네스코는 비록 SDGs의 17개 의제에 문화 분야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유네스코 주요 문화협약과 프로그램의 핵심에 있으며,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19년 'Culture 2030 Indicators'를 발표하고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5] 유네스코 'Culture 2030 Indicators'



유네스코 문화 주제별 지표(thematic indicators)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문화 분야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표의 주제는 크게 1) 환경과 회복력(resilience) 2) 경제발전과 일상생활 3) 지식과 기술 4) 포용과 참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요 SDGs의 목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이다. 특히 이들 중 환경이슈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는 ‘환경과 회복력’이라 할 수 있다.

‘환경과 회복력’ 주제는 문화 및 자연유산, 도시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거주환경에 대한 문화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그 자체 목적으로서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함께 다루고 있다. 제안된 지표는 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대한 국가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공공공간과 문화 인프라를 포함하여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물리적/공간적 측면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이 주제의 세부지표로는 ① 문화유산에 대한 지출 ②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③ 기후환경 적응 및 회복력 ④ 문화시설 ⑤ 문화 관련 오픈스페이스 등이 있다.

첫째, ‘문화유산에 대한 지출’은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 있어 공공부문의 재정적 조치가 문화 및 자연유산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둘째,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지표는 문화 및 자연유산, 관습, 전통지식 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평가를 위한 것이다. 셋째, 환경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후환경 적응 및 회복력’ 지표는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유무형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촉진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정책적 조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주요 질의에 대한 체크리스트(YES/NO) 방식으로 지표조사가 설계되어 있다(표 2-22 참조).

〈표 2-22〉 기후환경 적응 및 회복력 지표(유네스코, 2019)

	YES/NO	Number	Evidence
•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재난위험 저감 계획 수립 여부			
• 문화유산에 대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영향 대응 정책추진 여부			
→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사람 및 생태계 노출과 취약성을 저감하는, 국가 및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특별 조치			
• 최근 5년 간 문화유산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력 검토 여부			
• 최근 5년 간 기후변화 저감에 있어 국가 삼림 및 해양의 기여도 모니터링 여부			
• 유무형 문화유산의 기후적 영향 평가에 지역공동체 지식을 고려하는 정책 혹은 방법 설계 여부			
•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여부			
• 문화유산 site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정책 혹은 관련 조치 추진 여부			

자료: UNESCO(2019), Indicator 2030, p.45 내용을 저자 정리

넷째, ‘문화시설’ 관련 지표는 지역 차원에서 문화시설의 다양성 및 분포를 평가하여, 도시환경에 문화시설이 통합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실천하기에 유용한 환경인지를 측정하는데, 특히 공간 매핑을 통해 확인한다. 끝으로, ‘문화 관련 오픈스페이스’ 지표는 공공개방공간의 범위, 공간의 성격 및 이용정도를 평가한다.

본 지표는 유엔 SDGs의 문화적 관점에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환경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 관련 환경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문화예술이 아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Culture: Urban·Future –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2016)

유네스코는 도시발전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조명하고, 도시 차원의 ‘지속가능목표(SDGs)’의 실천과 문화 간 연결을 모색하고자 “Culture·Urban·Future: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2016)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문화’에 뿌리를 둔 도시발전의 새로운 지침과 권장사항을 제시하여 미래의 도시를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을 가진 곳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사람(people), 환경(environment), 정책(policies)의 범주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환경’ 분야의 경우 주제로 ① 휴먼스케일에 맞는 도시환경 및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조성 ②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춘 그린시티 ③ 포용적인 공공 공간 ④ 도시정체성 보호를 제시하였으며, 세부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은 ① 도시 보전 실천으로 학습된 교훈으로부터 휴먼스케일 복합용도도시 육성 ② 생동감 넘치는 건조·자연환경 촉진 ③ 문화를 통한 공공공간의 질 향상 ④ 문화에 기반한 해법을 통한 도시회복력 개선 등이 있다. 이 보고서 또한 직접적인 환경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도시 내 자연·생활환경의 건강성 유지, 문화유산과 전통지식을 활용한 인간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등 도시계획에 문화를 결합하는 것으로 문화부문의 친환경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표 2-23〉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 환경부문 주제 및 권고사항 (유네스코, 2017)

범주	주제	권고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먼스케일&컴팩트시티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춘 그린시티 • 포용적인 공공공간 • 도시정체성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보전 실천으로부터 학습된 교훈으로부터 휴먼스케일, 복합용도도시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유산은 문화와 자연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을 알릴 수 있는 휴먼스케일, 복합용도 도시구성의 예시를 제공할 것임. 지방정부는 역사적 문화자산의 지식 강화에 의해 그들의 도시 개발전략을 검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동감 넘치는 건조·자연환경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문화/자연유산은 사람과 공동체를 도시환경과 연결시켜줄 수 있기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통한 공공공간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의 계획, 설계 및 이용은 유산, 문화·창조적 활동에 기반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문화적 접근과 통합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 해법을 통한 도시 회복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는 유산과 전통적 지식을 도시전략에 통합해야 함.

자료: UNESCO(2017), Culture: Urban·Future -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의 내용을 저자 정리

나. 세계지방도시연합 (UCLG)

1) Culture 21: Agenda 21 for Culture (2015)

세계지방도시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UCLG)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지방도시가 추진해야 할 문화적 실천의제를 제1차 UCLG 문화정상회의(스페인 빌바오)에서 채택한다. 이른바 'Culture21 Action'은 크게 문화권, 문화유산, 문화와 교육 등 총 9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는데, 환경 분야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표 2-24〉 Culture 21 Action 중 환경 부문 (UCLG,2015)

범주	'문화와 환경' 주요 의제
(1) 문화권(cultural rights) (2) 문화유산, 다양성과 창조성 (3) 문화와 교육 (4) 문화와 환경 (5) 문화와 경제 (6) 문화,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포용 (7) 문화, 도시계획 그리고 공공공간 (8) 문화, 정보 그리고 지식 (9) 문화의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전통 및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의 실천 활동을 포함한, 문화적 요인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통합되어야 함. •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 연계를 인식해야 함. (e.g. 기후변화와 회복력, 위기방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중요성, 에코시스템의 풍요로움과 파괴에 관한 인식 증대 등) • 문화와 환경에 관한 지방정부 부서의 업무를 연계하기 위한 워킹그룹 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함. • 역사와 문화는 지역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판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함. • 지역생산물에 기반한 음식은 지역문화의 필수요소로 인정되어야 함. • 지방정부는 공공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는 단계를 취해야 함.

범주	'문화와 환경' 주요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는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 지방정부는 정책 내 자연공간의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공공자원을 전달하는 문화조직은 그들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생태적 인식확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문화와 환경 영역에서 복무하는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조직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함.

자료: UCLG(2015), Culture 21: Agenda 21 for Culture의 내용을 저자 정리

2) Culture,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riefing (2017)

UCLG 문화위원회(UCLG The Committee on Culture)는 문화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2017년 'Culture,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riefing, 이하 Briefing'을 발표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첫째, 문화적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 주변 생태계를 보전·관리해야 하고, 둘째,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전통지식과 문화, 관습 등을 환경에 통합해야 하며,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인간의 신념, 가치 및 행동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Briefing은 문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7대 원칙과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표 2-25 참조).

〈표 2-25〉 문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연결하는 원칙과 접근방식 (UCLG, 2017)

원칙과 접근방식	주요 내용
지역 단위에서 실천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은 전 지구적 과제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는 지역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함.
전통지식의 활용	• 토착민(indigenous people)들이 보유한 전통지식은 문화와 생태계 간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상호관계의 기본이 될 수 있음.
창의성과 기후변화 연계	• 창의적인 예술프로젝트는 기후문제에 대한 적절하고 혁신적인 대응을 제공할 수 있음 (예. 주요 문화시설 대상 탄소발자국 측정 지표 개발, 문화예술을 통한 환경커뮤니케이션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혁신적 활동 지원	• 사회 및 문화혁신, 환경 간의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
공공 및 민간 문화 활동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계	• 공공과 민간의 문화정책 프로그램은 기후 변화를 다루는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함 (문화예술교육, 공개토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지방정부의 역할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화와 환경을 연결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해야 함.
파트너십의 구축	• 공공과 민간 간 공동의 의제설정 및 실천을 위한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 필요

자료: UCLG(2017), Culture,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riefing 내용을 저자 정리

다. 영국예술위원회 (Art Council England)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문화와 탄소발자국(Carbon Foot Print) 간에는 깊이 연계되어 있고 문화 분야의 탄소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문화예술을 통해 탄소 저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2년부터 환경리포트의 발간과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국가예술기구로서 환경보고서 작성, 정책사업 및 거버넌스 구축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자평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첫째, 환경리포트, 정책개발 및 실천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는 비영리기구(NPO)를 지원하고, 둘째, 문화부문이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 환경변화와 이의 가치를 입증하며, 셋째, 긍정적 환경변화를 지원하고 추동할 수 있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자체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ACE의 'Environmental Reports 2018-22'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Beyond Carbon ② Spotlight Programme ③ Accelerator Programme로 구성된다. 'Beyond Carbon'은 탄소발자국(Carbon Foot Print,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을 극복하는 환경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혁신을 겸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로드맵 구축이라 할 수 있다. 'Spotlight Programme'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소속 30개 NPO의 에너지 관리 및 탄소저감 구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이의 추진으로, 실제 기관과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지표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건물의 에너지 관리 및 모니터링 평가 강화, ②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에너지 및 탄소저감 목표 선정, ③ 어떻게 목표치를 달성할지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 ④ 정보교류 및 상호 학습 추진, ⑤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에너지 관리/친환경 전기 이용 등 탄소저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Accelerator Programme'은 10개로 구성된 2단계 프로그램 혹은 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참신하고 야심찬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탐색·개발하고 결과물과 해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6>과 같다.

〈표 2-26〉 Accelerator Programme의 주요 내용 (Art Council England, 2020)

영역	내용
이해증진 및 기술개발	• 예술위원회 환경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발전된 환경영향에 관한 확고한 이해 / 환경교육과 전문성 개발 증진 / 참여활동 및 창의적 결과물에 반영된 환경지식
실천	• 광범위한 친환경 실천 / 개선된 건물 에너지 관리(저(무)탄소대안을 포함한 화석연료 대체, 플라스틱 저감 정책, 음식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협력	• 협업 필요성 및 가치에 관한 인식 증진 / 도시 간 협력 증진
새로운 환경 대응	• 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창의적 실천, 투자 및 스폰서십
창의적 기회제공	• 기후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전환을 지원, 긍정적인 환경 변화를 동원하고 작품 활동, 창의적 대응 증가 및 이해 구축

자료: Art Council England(2019), Environmental Reports 2018-22 내용을 저자 정리

ACE는 환경컨설팅 사회적 기업 'Julie's Bicycle'에 의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기구²²⁾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2018, 2019년의 환경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2-27〉과 같다.

〈표 2-27〉 영국예술위원회 '환경프로그램' 성과(2018~19)

영역	성과요약	세부 내용
이해증진 및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발자국 보고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 기관 스태프들이 친환경 실천을 위한 훈련과 전문성 개발 가능. 지역 커뮤니티에서 친환경 활동이나 캠페인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기관은 각 기관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순환경제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또는 폐기물 감사(audit) 기능을 별도 신설 전체 기관의 80%는 탄소발자국 보고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답변함. 전체 기관의 53%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데이터를 참고하여 향후 계획 수립
적극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설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단계적 감축 식재료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조달방법 모색. 통행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격 통신 기술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기관의 54%: 전기절약 전등 설치 응답기관의 32%: 물 절약 기구 설치 응답기관의 64%: 일회용 플라스틱 근절 시도 응답기관의 29%: 지속가능한 식량공급체계 지지 응답기관의 20%: 생물 종 다양성 보존 참여 응답기관의 70%: 출장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통신 기술 도입 응답기관의 66%: 방문객에게 친환경 교통 옵션 안내.

22) 심층조사의 대상은 ① 온라인상에서 탄소발자국 저감 외에 친환경 실천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한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옵션을 택한 352개의 비영리기구 ② Julie's Bicycle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탄소발자국을 보고한 747개의 비영리기구 ③ 연간 평가조사에 참여한 168개의 비영리기구들 ④우수한 활동을 한 개별 비영리기구 등이다.

영역	성과요약	세부 내용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관협력기관과 협업 • 이웃 또는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관의 35%: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관협력기관들과 협업 • 응답기관의 25%: 지역주민 또는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환경적인 이슈에 관해 토론
새로운 환경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리더 또는 이사로 선임하는 기관 증가 • 지속가능한 생산과 전시를 위한 방법 훈련 • 스폰서십 또는 파트너십 지원을 받는 기관의 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관의 38%: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리더 또는 이사 선임 • 응답기관의 78%: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적인 비즈니스 전략 상정 • 응답기관의 10%: 환경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상당히 높은 강도의 탄소 저감 시도 • 응답기관의 47%: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작품 생산 및 전시 방법 수용

자료: Art Council England(2019), Environmental Reports 2018-22 내용을 저자 정리

제3절 소결

1.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노력 강화

그간 기후변화를 위시한 환경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2016년 파리기후 변화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기점으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²³⁾를 비롯하여 민간 환경운동가와 환경단체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고 실제 기후환경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더 이상 환경이슈 해결에 주저할 여유가 없어진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정부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의 전환을 검토한 것 또한 기후변화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이나 광공업 등과는 달리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공연·전시 및 기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의 결과를 다량의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분야 또한 기후환경변화 등 환경이슈에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계획(법정·비법정)에 환경 관련 정책이 일부 언급되어 있고 유네스코(UNESCO),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경우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기반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 관점을 도입하고 세부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3)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로, 2019년 16세의 나이로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에서 연설하여 유명해졌으며, 역대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최연소로 선정되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7%B8%EB%A0%88%ED%83%80%20ED%88%B0%EB%B2%A0%EB%A6%AC>, 검색일자: 2021.10.17.)

2. 문화예술 연계 주요 환경정책 분야 검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주요 환경정책 영역(표 2-28 참조)에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에서 제시한 ‘환경’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분석하면 <표 2-28>과 같다.

종합하면 기후변화 대응(문화기관 및 시설, 주요 이벤트 등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관리)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기타 영역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 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의 자원순환, 자연환경 보전의 순이었다. 국토·해양·대기환경 보전의 경우, 도시 유희시설의 문화예술적 활용,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공간 조성 등이 주요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8>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과 주요 환경정책 영역 간 연관성 분석

계획 및 정책	자연환경 보전	국토·해양· 대기환경 보전	물·수자원·상 수도 이용 및 관리	자원순환	기후변화	기타 (커뮤니케이션, 협력체계 등)	
국 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문화체육관광부, 2008)	●	●		●	●	●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문화체육관광부, 2017)		●		●	●	●
	자원순환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		
	환경 분야 주요 문화예술 관련 계획	●	●			●	●
국 외	Culture 2030 Indicator (UNESCO, 2019)				●	●	
	Culture: Urban·Future (UNESCO, 2016)	●					
	Culture 21: Agenda 21 for Culture(UCLG, 2015)	●			●	●	●
	Culture,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CLG, 2017)					●	●
	Environmental Reports 2018 -2022(Arts Council England, 2020)				●	●	●

자료: 저자 작성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제3장

주요 사례 분석

제1절 친환경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실현 사례

1. 문화를 위한 친환경가이드와 이벤트 지속가능성 정책 (런던, UK)

1-1. 배경

2007년, 영국 런던은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60%까지 줄이는 야심찬 목표로 런던 기후 변화 행동 계획(London 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시작하고, 이를 위한 10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당초 예술(art) 및 창조분야(creative sector)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도시의 기후 정책과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 분야의 기후 변화 대응책을 연계하기 위해 런던시는 ‘문화를 위한 친환경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특히 런던 극장 컨소시엄(London Theatre Consortium)은 그들 극장의 배출량을 런던의 도시 목표치와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런던의 ‘문화를 위한 친환경가이드’는 또한 국가 정책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편 Great London Authority(GLA)는 지속가능성 정책의 일환으로 이벤트(events) 개최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정책’(Sustainability Policy)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의 목표는 국제이벤트 관리표준(ISO20121)²⁴⁾의 실천을 통해 이벤트와 관련된 제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1-2. 프로젝트 내용

가. 문화를 위한 친환경 가이드(Green Guide for Culture)

24) ISO20121은 규모와 소재지에 상관없이 모든 이벤트 관련 조직이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이벤트를 관리하는 국제표준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하고 긍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툴이다. 이 국제표준은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적용되어 널리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다(KSA한국표준협회 누리집 검색 인용, https://www.ksa.or.kr/ksa_kr/985/subview.do, 검색일자: 2021.6.22.).

‘문화를 위한 친환경 가이드’는 음악, 연극, 영화, 패션 및 시각 예술 부문을 런던 기후 변화 실행 계획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런던시는 문화 및 환경 자선 단체인 ‘Julie’s Bicycle’과 협력하여 일련의 친환경 가이드(Green Guides)를 의뢰했다. 이 가이드는 런던 기후 변화 행동 계획에 따라 각 부문의 배출 감소를 위한 경로를 제공하고 창조 산업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런던의 미래 의제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창조적 커뮤니티(예술계)의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에 도시 기후 정책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그린가이드는 친환경적으로 활동하는 데 관심이 있는 조직과 개인을 위한 ‘방법(how-to)’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Green Music Guide에는 여행, 사무실, 녹음실 및 축제에 대한 친환경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연극과 시각 예술이었다. 예를 들어 런던의 14개 주요 극장들로 구성된 런던 극장 컨소시엄(London Theater Consortium)은 그들의 (탄소)배출량을 유지하기 런던의 도시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런던 극장 컨소시엄은 2025년까지 탄소 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시장의 목표에 따라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에너지 사용에 따른 절대 배출량 15% 감소를 달성했다. 컨소시엄은 환경을 자본 투자에서 캠페인, 에너지 공급, 조달, 문화 프로그램 위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핵심적이고 집단적인 가치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나. 이벤트 지속가능성 정책(Events Sustainability Policy)

Great London Authority(GLA)의 이벤트 지속가능성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에 의한 이벤트 개최·추진이 핵심 목적이다. 이 정책은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가능성이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하므로, 문화다양성, 동물복지, 고용안정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표 3-1〉 Great London Authority (GLA)의 이벤트 지속가능성 정책 주요 내용

	정책내용	영역
1	•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최대한 저탄소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	• 환경
2	• 소비 억제를 통해 전체 쓰레기를 줄이고, 생산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며, 재사용 및 재활용을 늘리고, 재활용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설비, 제품 등을 사용	• 환경

	정책내용	영역
3	• 지속가능한 교통이용 촉진 등을 통해 스텝, 방문객의 이동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줄임. 이러한 교통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 환경
4	•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하는데, 이를 위해 접근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
5	•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기준에 부합하는 음식 및 관련 식품 조달	• 환경
6	• 이벤트 개최장소의 시설 보호 및 문화유산 보존 준수	• 사회
7	• 이벤트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임금 지불	• 경제

자료 :Great London Authority(2019), Events Sustainability Policy의 내용을 저자 정리

2. Green Arts Initiatives (에든버러, UK)

2-1. 배경

스코틀랜드 에든버러(Edinburgh)의 그린 아트 이니셔티브(Green Arts Initiative, GAI)는 예술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스코틀랜드의 조직 공동체이다. 과거 예술단체 입장에서 환경 측면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중요 고려사항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도전적인 과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스코틀랜드 내 예술조직들은 환경이슈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조직 결성 및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2-2. 프로젝트 내용

그린 아트 이니셔티브(GAI)는 페스티벌 에든버러(Festivals Edinburgh, FE)와 FE가 주도하여 만든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Creative Carbon Scotland)가 발전하여 결성되었는데, 결성목적은 예술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힘쓰며, 예술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식과 아이디어, 경험의 공유를 지원해 스코틀랜드 예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페스티벌 에든버러(Festivals Edinburgh)는 에든버러 시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단(Sustainable Development Unit)과 협력해 왔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GAI를 주도적으로 결성한다. 페스티벌 에든버러는 2011년 스코틀랜드 연극 연맹(the

Federation of Scottish Theatre), 스코틀랜드 현대 미술 네트워크 (the Scottish Contemporary Art Network)와 함께 스코틀랜드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추진하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Creative Carbon Scotland)를 설립했다.

2011년,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겨냥해 친환경 행사장 가이드(Green Venue Guide)를 만들었으며, 이 가이드를 기반으로 다른 예술 기업, 개별 예술가, 기관 및 단체로 참여가 확대되어 2013년 스코틀랜드 전역의 그린 아트 이니셔티브 (GAI)를 창설했다.

GAI는 연중 공개 모집(open-call)과 입소문(word-of-mouth)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스코틀랜드에 본부를 둔 모든 예술 단체들은 GAI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 회원들은 (예술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법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

GAI는 국가 기관의 입장에서 도시별 탄소 및 폐기물 배출 목표 기준과 반드시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GAI는 회원 기관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기에는 해당 도시 또는 지역 당국의 지속가능성 목표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GAI에 참여하는 것은 2016-2020년 에든버러의 기후 변화 적응 행동 계획의 조치 중 하나다.

GAI 멤버십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입증된 노력을 위한 스코틀랜드의 산업 표준이 되고 있다. 2013년 GAI 회원은 20명(단체)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두 배로 증가했다. 2017년 현재 170명(단체) 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부터 친환경

[그림 3-1]Green Arts Initiatives의 Annual Report



출처: <https://www.creativecarbonscotland.com>
(검색일자: 2021.6.22)

팀(Green Teams)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했다. 회원들은 그들 업무가 미치는 핵심적인 환경 영향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다른 환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원 참여 세션 운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하는 테마 이벤트 및 프로그래밍 진행, 도시 방문객들에게 지속가능한 여행 및 행동 조언, 예술가 예약(artist booking)에 대한 저탄소 여행 의무화,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 등이 그것이다. 덧붙여 예술가, 관객, 직원 및 공급 업체와 함께 환경적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참여를 늘리는 것 역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3. Manchester Art Sustainability Team (맨체스터, UK)

3-1. 배경

맨체스터시는 영국 내에서도 기후변화에 있어 가장 선진적이고 야심찬 정책을 추진하는 시 중 하나이다. 2009년 수백 명의 주민과 기업이 모여 이 도시의 첫 기후 변화 전략인 ‘Manchester: A Certain Future(MACF)’를 만들었는데, MACF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1%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Paris Agreement)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2016년 1월, 시는 2016-25년 우리 맨체스터 전략(Our Manchester Strategy for 2016-25)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도시가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16년 말 맨체스터 기후변화청(Manchester Climate Change Agency)이 주도한 협의 과정을 거쳐 2017-50년 맨체스터 기후 변화 전략(Manchester Climate Change Strategy 2017-50)이 출범했다.

MACF 전략에 영감을 받은 맨체스터의 문화 단체들은 2011년부터 맨체스터 예술 지속가능성 팀(MAST, Manchester Art Sustainability Team)을 결성하여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MAST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약속으로, 예술의 형태, 자발적, 시민 단체를 통합해 협력적 학습 정신을 육성하는 문화 단체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맨체스터의 생태, 복원력(탄성) 및 창조 경제(creative economy)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면서 도시의 탄소 감축 목표를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 2021년 현재 맨체스터시 내 문화예술기관 및 시설, 창조산업 분야 업체 등 총 54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²⁵⁾

3-2. 프로젝트 내용

MAST의 프로젝트는 문화 단체들이 분기마다 만나 지식을 공유하고, 공통 관심사(예: 지속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유 보관 및 공동 조달)를 탐색하고, Creative IG Tools 탄소 계산기와 연간 전략 보고서를 통해 환경 조치의 영향에 대해 정량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프로젝트에는 문화 분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탄소 문맹 퇴치 트레이닝(Carbon Literacy Training), 네트워크 차원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집합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2] Manchester Art Sustainability Team(MAST)의 Report



출처: <https://www.manchesterclimate.com/involved/MAST> (검색일자: 2021.6.22.)

MAST의 회원들이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및 탄소 영향을 이해 및 측정하고, 영향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MAST 그룹 및 관련 이해 관계자와 공유해야 한다. 둘째, 연평균 7%의 CO₂e 감소(에너지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 맨체스터시의 목표와 일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기업체가 되고, 탄소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점영역은 ①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②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에너지 지원으로 이동 ③ 물 사용 감소 및 수질오염 방지 ④ 폐기물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 ⑤ 이동 및 이동의 영향 줄이기 등이다. 끝으로 친환경 조달 및 구매,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한

25) <https://www.manchesterclimate.com/involved/MAST> (검색일시: 2021.6.25.)

공급자 및 계약업체와의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의 세부 방안으로 환경 문제에 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과 국가적으로 관객, 방문객, 예술가 및 기타 관련 집단과 환경문화에 대해 소통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 환경이니셔티브의 개발 등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기관들은 그들의 업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하고 있다. 2012/13년 이후 보고한 13개 MAST 회원들은 연평균 5%의 CO₂e 저감 효과가 달성되었다. 2012/13년과 2015/16년 사이에는 총 16%인 1,400톤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고, 전체 배출량 절감은 19%의 전기 사용량 감소와 9%의 가스 사용량 감소에서 비롯된다. 총 에너지 지출액은 2012/13년 180만 파운드에서 2015/16년 150만 파운드로 30만 5천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업 영역에서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 기관들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홈 맨체스터의 직원 전체의 탄소 문해력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 Band on the Wall의 광범위한 재활용 프로그램, Walk the Plank의 윤리적 조달 정책, Whitworth의 양봉 및 지역 사회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맨체스터시 내 박물관들은 기관 운영에서의 친환경적 접근에서 나아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 및 방문객과 소통하였다. 대표적인 전시프로젝트가 '기후 컨트롤(Climate Control)'인데, 이는 맨체스터를 다시 상상하고, 시의 새로운 기후 변화 전략에 기여하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는 6개월에 걸친 일련의 전시회와 행사들을 지칭한다.

MAST의 이러한 작업은 맨체스터 시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았고, 2016년 맨체스터 기후전략협의체인 'Manchester: A Certain Future(MACF)'의 연례 보고서에서 우수 사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4. Materials for the Arts (뉴욕, 미국)

4-1. 배경

폐기물의 대부분은 '창의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지만, 재사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야만 가능하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매년 6백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나와 매립 공간이 부족하는데, 0x30 목표(2030년까지 매립지에 쓰레기를 전혀 보내지 않는 계획)를

달성하려면 재사용이 필수적이었다. 뉴욕시의 'Materials for the Arts' 프로젝트는 폐기물의 재사용(reuse)을 통해 부가적인 이익을 얻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예술 단체와 주립 학교 모두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재료가 항상 필요하다. 특히 미술교육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재료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한데, 'Materials for the Arts'는 폐기물 처리와 예술을 위한 재료 수급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고자 기획되었다.

4-2. 프로젝트 내용

Materials for the Arts(MFTA)는 1978년 이래 창의적인 재사용 실천을 이끌어 왔다. 뉴욕시의 폐기물에서 나온 재료를 예술 단체, 주립 학교 및 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미션의 목적은 뉴욕시 전역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적절한 가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Materials for the Arts'는 1978년 시 문화국(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직원에 의해 설립되었다. 1980년대 후반 시 위생국(Department of Sanitation)에서 자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7년 교육국의 파트너가 되어 시립 학교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현재는 뉴욕시 정부의 위생 및 교육국의 지원을 받아 뉴욕시 문화국의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다.

한편 2002년 설립된 Friends of Materials for the Arts는 MFTA가 개인 기금 모금을 통해 운영(창고 및 교육 프로그램 포함)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자선 파트너이다. Friends of Materials for the Arts에는 전문적인 개발 수업, 현장 학습 및 학교 내 작업 수업료에서 취득하는 수익, 개인으로부터의 모금, 기업의 'Give Back Day'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일환인 자원봉사를 위한 기업의 회비 등으로부터 출연된 보조금(재단, 기업 및 정부)을 운용하고 있다.

오늘날 MFTA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매년 1백만 파운드가 넘는 재사용 가능한 재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롱 아일랜드 시티(퀸즈)에 35,000평방피트의 창고를 임대(창고 임대료는 뉴욕시 문화국에서 지원)하여 기부받은 물품을 저장하는 데 사용한다. 회원들은 창고를 방문해 매주 두 번 '쇼핑데이'에 물품을 고를 수 있다. 기부 가능한 물품은 종이, 페인트, 직물, 기타 미술용품, 사무용품, 컴퓨터, 카메라 및 기타 전자 제품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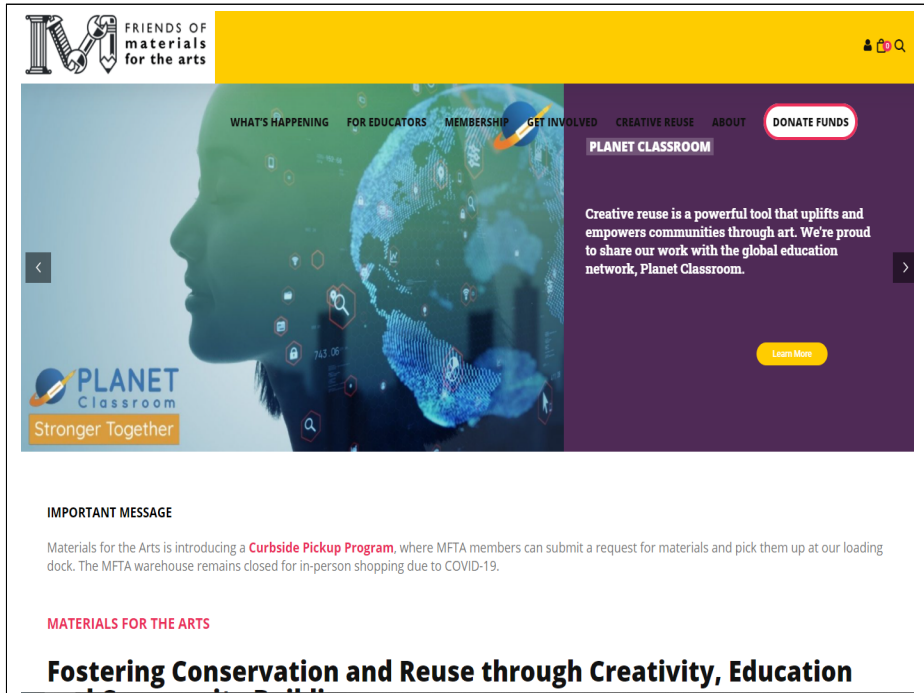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 운영 시 봉착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낮고, 창의적 재사용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점이다. MFTA는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센터, 레지던트 아티스트 프로그램, 갤러리 및 월간 무료 창의적 재사용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창립 40주년을 맞은 Materials for the Arts는 현재 뉴욕시의 5개 자치구에 걸쳐 4,700개 이상의 회원 조직을 가지고 있다. 2015년 회원들은 창고를 6,000회 이상 방문해 9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과 창작재료를 구매해 왔으며, 2015년 회계연도 동안 266만 달러 상당의 미술 창작 재료를 학교에 배포한 단일 최대 공급처가 되었다. MFTA의 혁신적인 모델은 전 세계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창조적인 지역 사회와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MFTA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료의 방문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Curbside Pickup Process를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등록된 회원업체들이 물품획득 장소와 필요물품 등을 기재한 양식을 제출하면, MFTA 직원이 해당 장소에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3-3] Materials for the Arts 홈페이지



출처: <https://www.materialsforthearts.org/> (검색일자: 202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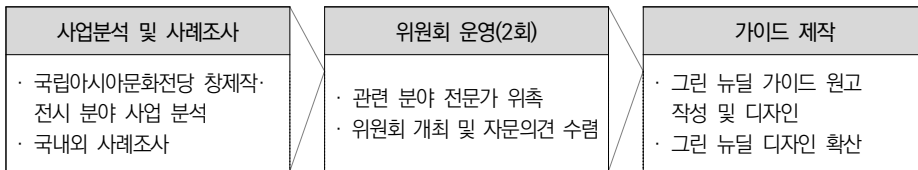
제2절 문화시설(행사장)의 친환경성 제고 사례

1. ACC 그린뉴딜가이드 (한국)

1-1. 배경

아시아문화전당(Asia Culture Center, 이하 ACC)과 아시아문화원(Asia Culture Institute, 이하 ACI)은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린뉴딜·ESG 등 경영·사업 활동의 혁신을 요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에 ‘ACC 그린뉴딜가이드’를 제작한다. 지속가능경영, 자원순환, 문화·예술 분야 콘텐츠 창제작, 업사이클링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ACC 그린뉴딜위원회’를 결성하고 既 추진된 사업 분석, 국내외 추진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이드북을 제작한다. 이와 더불어 관련된 기획 전시 및 창·제작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그림 3-4]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 제작 경과



출처: 아시아문화원 내부자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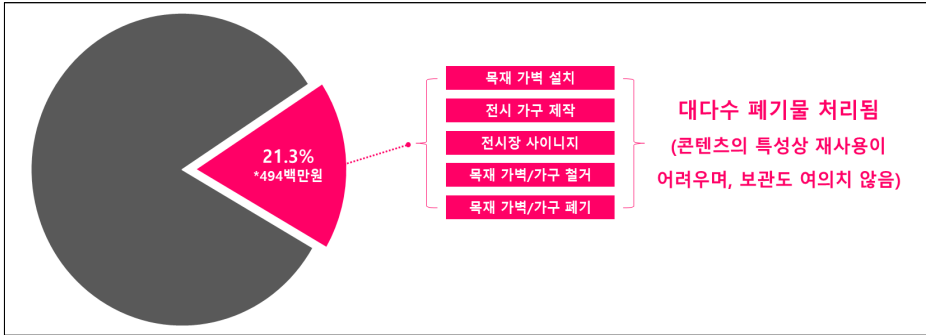
1-2. 프로젝트 내용

가.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

‘ACC 그린뉴딜가이드북’은 아시아문화전당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분야 창·제작 과정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 추정하고 관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립아시아문화전

당의 콘텐츠 창 제작·전시 관련 사업 7종에 총 2,323백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공간 구축·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으로 494백만 원(예산 대비 21.3%)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전시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목재 가벽, 전시 가구, 사이니지 등은 타 전시에 재사용이 어려운 형태이며, 규모와 양적으로도 보관이 여의치 않아 대다수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그림 3-5] 아시아문화전당(ACC) 창·제작 폐기물 처리비용



출처: 아시아문화원 내부자료 (2020)

이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에서는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창·제작 실천 법으로, 첫째 단계로 환경 친화적 소재 및 방법 적용, 2단계는 버려진 자원의 새로운 쓰임 모색, 3단계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기록·측정을 제안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창·제작 실천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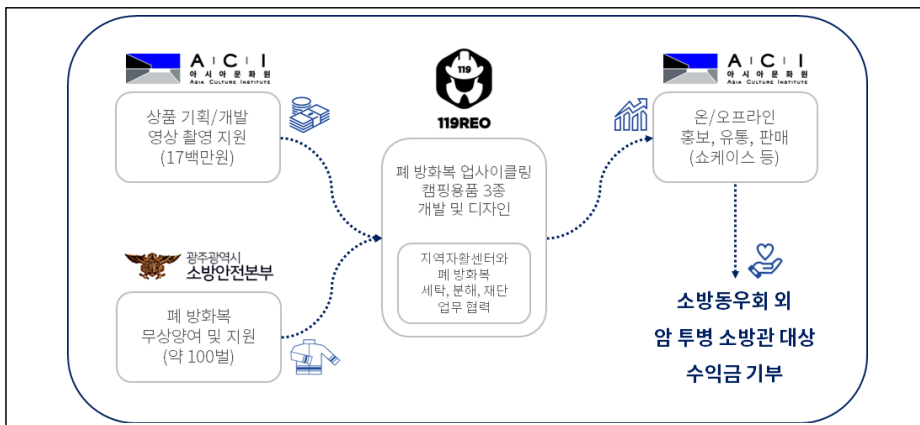
단계	실천법	주요 내용	
1단계	• 환경 친화적 소재·방법 적용	• 친환경 인쇄와 출판하기	• 친환경 인증 & 재생용지 • 친환경 잉크 • 친환경 타이벡(Tyvek) 소재 • QR코드 사용 등 기타 노력
		• 로컬 협력사·창작자와 협업	• 로컬자원의 활용으로 탄소 발자국 절감 및 동반성장
2단계	• 버려진 자원의 새로운 쓰임을 모색	• 폐자원을 분해·분류하고 소재은행에 공급하기 • 업사이클링 기법을 접목하여 콘텐츠 창·제작하기	
3단계	•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기록·측정	• 사회적 비용 및 편익 추정 방법론 개발 •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고	

자료: ACC·ACI (2021),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의 내용을 저자 정리

가. ACC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

ACC와 ACI는 2020년 그린뉴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예술을 매개로 “버려진 자원에서 쓰임을 재발견” 차원에서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CC 소셜디자인 프로젝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문화·예술 또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주제로 버려지는 자원이 새로운 가치와 쓰임을 갖게 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박민우, 2021). 이의 대표적인 예로 119REO (작가 이승우)가 기획·추진한 경우 ‘폐 방화복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코로나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캠핑용품 3종을 신규로 개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그림 3-6] ACC 소셜디자인프로젝트 중 폐방화복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예시)



출처: 아시아문화원 내부자료 (2020)

2. Cultural Venue Sustainability Action Plan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1. 배경

암스테르담시는 2020년까지 1인당 에너지 사용량 20%를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량을 20% 이상 늘리는 등 2015년에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 전역의 모든 부문에 걸쳐 지속가능성 관련 과제에 신속

하고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시에 입지한 문화 시설(주로 공연장 등 행사장)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관련 지식이나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었다. 따라서 암스테르담시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시설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실행 계획, 목표 및 실천방안 등을 모색한다. 암스테르담 문화 행사장 지속가능성 실천 계획(Cultural Venue Sustainability Action Plan)의 핵심 목표는 주요 행사 개최장소와 참여기관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을 정책의 일부로 만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2. 프로젝트 내용

2017년 암스테르담시는 문화예술분야의 기본 사업을 중심으로 이 부문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년간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시범 사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모범 사례 및 혁신수단,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지식 교환을 통해 문화예술기관 및 조직이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개별 기관 및 조직의 역량을 뛰어넘는 그룹으로서의 환경 솔루션 및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문화 분야의 능력을 증진한다. 셋째, 데이터 집계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품질 벤치마크를 개발하고, 추가 참여에 대한 욕구를 지도하고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끝으로 문화 및 예술 부문이 환경 목표와 추진 의지를 선언문(manifesto) 형태로 공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시범사업을 통한 행사장(시설)의 환경평가는 일차적으로 에너지 방출 감소에 초점을 맞추지만 물, 폐기물 및 케이터링(catering)과 같은 지속가능성의 다른 측면도 포함된다.

가. 목표설정 및 실행

20개의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이미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획득하고 있는 우수기관 및 조직은 시범사업 기간과 그 이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과 암스테르담시는 공동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 운영기간과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한 공통 목표를 정했고, 이 목표들은 참가자들과 시

모두가 서명한 선언문에 명시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맞춤형 실현 계획과 재정적 지원이 참여 기관에 제공되었고, 계획을 담당하는 지속가능성 컨설턴트로부터 실행을 위한 크고 작은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나. 자금 지원

일차적으로 개별 문화시설들이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제안된 조치들을 실현하는 책임을 지지만, 암스테르담시는 총 4천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더 큰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성 기금(Sustainability Fund)’을 통해 대출을 제공한다. 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에게는 최대 15년 기한 2% 금리로 제공되는 대출 신청 지원이 이뤄진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건물의 지속가능한 유지, 보수에 초점을 맞춘 임시 특별 보조금을 시 정부(문화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집단 조달(collective procurement)이 암스테르담의 문화 기관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검토될 예정이다.

다. 인식 개선 및 협업 강화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암스테르담시는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인식을 높이며 해당 분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회의와 워크숍을 추진한다. 또한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개별 기관의 역량 강화 이상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체의 역량 확장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요 문화예술 기관들 간의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 또한 중요한 과업 중 하나였다.

3. Australian Museum ‘Sustainability Action Plan’ (호주)

3-1. 배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주 시드니시에 위치한 호주박물관(Australian Museum)은 기후변화가 우리 시대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에 복무하는 것이 박물관의 핵심책무로 규정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이행을

목표로 ‘Sustainability Action Plan 2019-2021’을 수립한다.

호주박물관은 보다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를 존중하며, ‘Sustainability Action Plan’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0개 부문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호주박물관은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정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정부가 환경이슈 및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원효율성정책(The Government Resource Efficiency Policy, GREP)’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그림 3-7]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참고로 GREP는 NSW 정부와 산하 기관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생산성을 위하여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GREP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의 소속기관에 ‘모든 주요 결정에서 자원효율성 고려’, ‘에너지·물·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증가로 인한 문제에 기관운영 집중’, ‘자원 효율 기술 및 서비스 조달에 정책 집중’, ‘자원효율성 정책에 대한 연간 실적 발표’를 권고하고 있다.

3-2. 프로젝트 내용

호주박물관의 ‘Sustainability Action Plan 2019-2021’의 주요 목표는 ① 호주 박물관 건물의 성능을 4 Star Green Star 등급 혹은 이보다 높은 등급 이상 획득 ② 에너지, 물 및 기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③ 호주박물관 환경 실천을 모니터링, 기록 및 소통하기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실행 ④ 202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⑤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 및 실천 행동 존중 등이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모든 목표와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호주박물관 모든 직원의 성과를 최적화하는데 기관 경영의 주안점을 둔다.

‘Sustainability Action Plan 2019-2021’의 세부 계획은 크게 ① 박물관 운영에 미치

는 환경영향 감소 ② 미래 지향적 시설 ③ 모든 직원의 참여 ④ 이해관계자 교육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가. 박물관 운영에 미치는 환경영향 감소

본 계획에서는 202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에너지 사용, 탄소배출량, 폐기물, 물 사용을 줄이고, 둘째,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에 입각하여 모든 물품을 구매하며, 셋째,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장려·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영향 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목표는 <표 3-3>과 같다.

<표 3-3>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내 ‘박물관 운영에 미치는 환경영향 감소’ 내용

행동계획	목표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 탄소중립 전략 개발 및 실행	• 온실가스 배출 저감/축은 상쇄를 위한 최상의 비용효율화 방식 확인
• 국가 탄소저감기준에 입각한 탄소중립인증 획득	• 인증 획득
• 에너지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 준비. 보다 나은 에너지 소비 관리를 위해 데이터 수집	• 마스터플랜과 에너지 효율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계량의 경영사례 제시
• 조명, 난방, 환기 및 에어컨, 냉각과 관련된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 평가	• 미래 투자를 고려한 분석과 재무설계 완성
• 박물관 소장품 에너지 관리계획 개발	• 권장사항과 목표가 포함된 실행계획
• 현장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펀드/론의 확보	• 비재생 전기소비 감소
• 100%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분석	• 비용 분석 완료
폐기물	
• 폐기물 재활용 증진을 위한 폐기물 감사 수행	• 매립쓰레기 배출량 감소
•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관리 계획 실행	• 성공적 계획 완수
물	
• 물 측정 및 모니터링 사례 분석. 최상의 물 소비 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 물 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 사례 제시
조달	
• 호주박물관 전체 구매가이드가 포함된 지속가능한 조달체계 구축	• 체계 안착
• 신규 혹은 갱신된 입찰제안서와 계약서에는 지속가능성 요구사항과 결과물이 포함되어야 함.	• 모든 조달결정(평가)에 지속가능성이 10% 정도 반영되어야 함.
교통	
• 호주박물관 방문을 위한 교통이용에 있어 탄소발자국 저감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식 파악	• 투자제안 개발 고려
• 호주박물관 방문 대중교통수단 사용 촉진 및 권장	• 직원들의 자가용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함.

자료: Australian Museum, Sustainability Action Plan 2019-2021, 2018.12. 내용을 저자 정리

나. 미래지향적 건축물

호주박물관은 계획을 통해 박물관의 모든 건축물이 호주 녹색건축협의회(Australian Green Building Association)가 부여하는 4성(4 stars) 그린스타 등급 이상 획득을 목표로 설정한다. 세부 행동계획과 목표는 <표 3-4>와 같다.

<표 3-4>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내 ‘박물관 운영에 미치는 환경영향 감소’ 내용

행동계획	목표
건물과 마스터플랜	
• 입장객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실내 공기질, 온도 및 음향 관리, 조명 및 청결 개선구역을 판단하는 조사
• 호주박물관 전체를 2020년까지 4그린스타 등급 달성	• 최소 4 그린스타 인증 달성
• 현재 및 미래 건물작동에 건물신축, 유지보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원리를 결합	• 지속가능성 원리가 모든 건물관리 영역에 배태 되도록 함.
환경관리시스템	
• 환경관리시스템(EMS)을 설계 및 실행	• ISO14001을 준용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을 호주 박물관 모든 관리체계에 반영하여 실행함.
• 정책, 절차 및 계획에 지속가능성을 배태	• 지속가능성이 관련 그린스타계획에 배태

자료: Australian Museum, Sustainability Action Plan 2019-2021, 2018.12. 내용을 저자 정리

다. 참여와 교육·홍보

호주박물관의 ‘Sustainability Action Plan 2019-2021’은 박물관 건축물 및 운영상 발생하는 환경이슈 관리 못지않게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선 지속가능목표에 직원, 협력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식 및 행동구축, 기술과 교육개발, HRM(Human Resource Management) 시스템에 지속가능성 배태를 강조한다. 그리고 호주박물관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과 기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람과 자연에 있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호주박물관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 계획에 포함하였다(표 3-5 참조).

<표 3-5>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내 ‘참여와 교육’ 내용

행동계획
인식과 행동
• 호주박물관 모든 영역에 저감, 재사용, 재활용의 문화 개발

행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을 향한 인식, 태도 및 행태를 측정하기 위한 연간 직원조사 시행 • 호주박물관 직원 및 방문자들을 독려하고 참여시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실행
기술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호주박물관 직원들이 지속가능성 교육을 받음 • 계약업체 직원 대상 매주 3일 이상 AM 그린스타 인식교육 시행
HR 시스템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신입직원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교육 시행 • 관련 직원 교육과정에 지속가능성 교육 결합 • 직원 포상프로그램과 지속가능성 연계
호주박물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스토리텔링
방문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람과 자연세계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홍보
<p>자료: Australian Museum, Sustainability Action Plan 2019-2021, 2018.12.의 내용을 저자 재구성</p>

4. Museum of London ‘Sustainability Policy’ (UK)

4-1. 배경

영국 런던시는 2026년까지 쓰레기 매립 제로, 2030년까지 폐기물의 65%를 재활용, 2050년까지 탄소제로(Carbon-Free)를 목표하는데,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은 이의 이행을 위한 박물관의 중단기 목표(2018-2023)를 발표한다.

이 계획에는 특히 노후화된 런던박물관 인프라의 친환경적 개선을

당면과제로 설정했고, 런던박물관의 주요 조직 활동에 지속가능성(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기본적인 운영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나아가 본 계획은 런던시의 ‘Corporate Plan Sustainability’, Arts Council England의 환경 목표 등 우리의 파트너들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3-8] 런던박물관 전경(Museum of London)



출처 :저자 직접 촬영 (2018.7.15.)

4-2. 프로젝트 내용

런던박물관(이하 MOL)의 “Sustainability Policy 2018-2022”는 ① 고객, 협력업체 및 직원 교육과 홍보에 지속가능성 포함 ② 자원을 보호하고 폐기물 배출 최소화 ③ 건물과 소장품 관리 방식의 개선 ④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다.

자원보호와 폐기물 배출 관리, 노후건축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계획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내부 직원은 물론 방문고객과 협력업체 까지 계획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교육, 홍보 및 협력 방안이다.

가. 고객, 협력업체 및 직원 교육과 홍보에 지속가능성 포함

- MOL의 콘텐츠와 프로그래밍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탐색하고, 과거, 현재 및 미래사이의 연결하여 구상·실행
-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동의 노력임을 인식하고, 아이디어, 학습 및 지원을 교환하기 위해 파트너와 외부 네트워크와 함께 협력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업무수행은 핵심적 기관 경영 및 업무의 방침 중 하나
-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박물관 스텝과 자원봉사자들의 일-삶 균형 유지,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관한 활동 촉진
- MOL 지속가능정책의 출발점은 항상 관련 법규와 규정 준수이며, 이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
-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감축은 물론 공해와 공기·토양 혹은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데 복무할 것이며, 협력기관들과 밀접히 협력
-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기관운영 방식이 적절히 개선
- 모든 방문객과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이용을 지원

나. 자원을 보호하고 폐기물 배출 최소화

- MOL의 업무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혹은 재활용하는 더 많은 방법 모색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 제로 정책 운영, 모든 현장의 재활용 시설의 유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 박물관 직원들에게 보관 컵 및 리필 가능한 물병 제공, 전시회의 진열장과 재활용 보존 포장재와 같은 물품의 재사용)

- 구매 물품 및 서비스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협력업체와 함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달프로세스를 이용

다. 건물과 소장품 관리 방식의 개선

- 기존 건물의 리뉴얼 및 재사용은 새로운 런던의 박물관의 환경적 영향 감축
- 건물설계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다양한 기술솔루션의 환경영향을 이해하는 데 전념
- 노후화된 건물이 전력과 물 사용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에 주목함. 지속적으로 전력 및 물 사용을 관리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단계적인 건물정비 작업과 인프라 개선사업은 자원사용의 효율성과 환경성능상에 기여
- 소장품 관리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은 정밀한 모니터링, 저에너지 또는 수동환경 제어 전략을 통해 실행

라. 모니터링

- 에너지, 물 및 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의 핵심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 운영 실행계획(A operating Action Plan)의 이행 정도를 런던박물관의 전 부서와 프로젝트에 걸쳐 매년 추적 관찰

5. Sydney Opera House ‘Environmental Action Plan’ (호주)

5-1. 배경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호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연예술시설이며,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인류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2015년 현재 연간 1,700회 공연에 140만 명이 관람객으로 방문하였다. 또한

30만 명 이상이 가이드투어를 통해 건축물을 둘러보고 11개의 극장 바, 6개의 레스토랑 및 2개의 편의점에서 230만 건 이상의 식음료 및 제품 판매가 이루어졌다(Sydney Opera House, 2015). 이렇듯 많은 방문객에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시설을 보호함과 동시에 파생되는 환경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의 목적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일환으로 3년 주기의 'Environmenta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다.

〈표 3-6〉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 목적 및 임무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 호주의 상징으로서 오페라하우스 위상에 맞게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리더가 되기 •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향상하기 위해 오페라하우스 고유의 전략적 목표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기 •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영향을 미치기 •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직원, 협력업체 및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고 각 주체들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임무 (정책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마다 환경 지속 가능성 목표 및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 기관 및 각 주체별 명확한 책임을 설정. • 목표, 벤치마크 및 표준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 매년 성과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보고 • 매년 상위 관리수준에서 환경성적을 검토 • 직원 및 이해 관계자에게 오페라하우스의 약속을 전달 • 오페라하우스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조달 • 환경 법규, 정부 정책 및 산업 표준의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자료: Sydney Opera House, 2015,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olicy 내용을 저자 정리

5-2. 프로젝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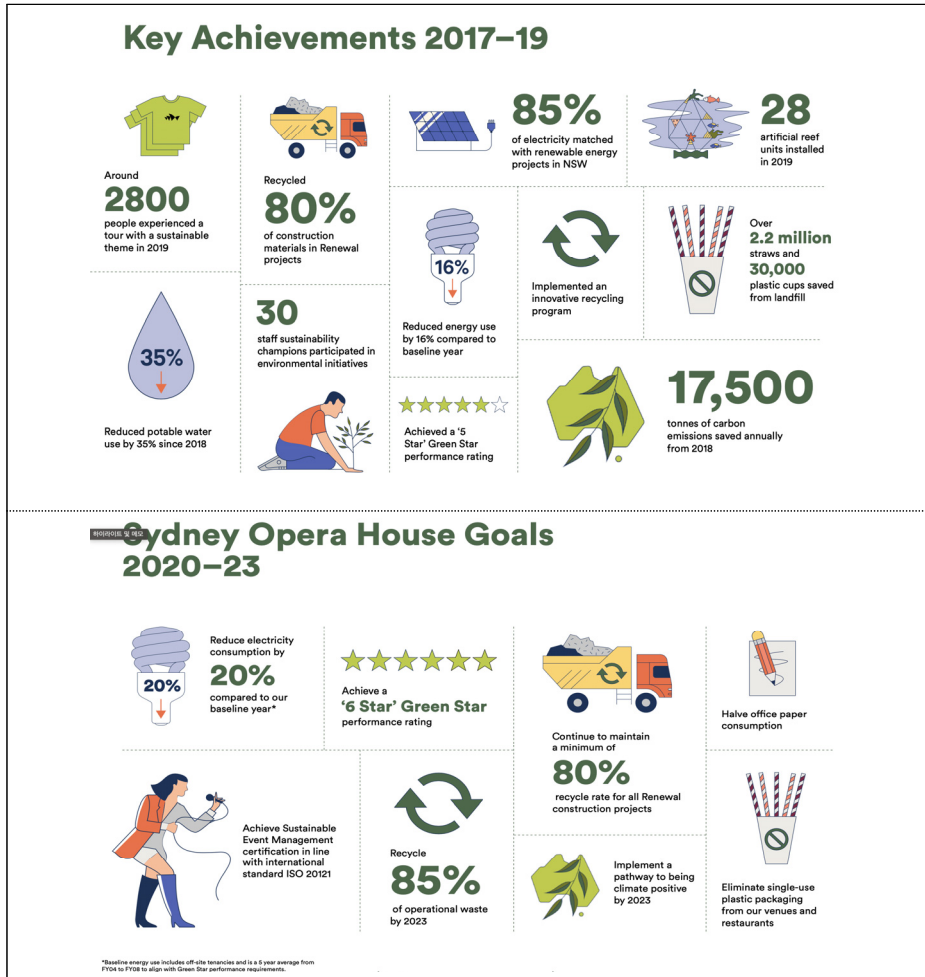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3년 주기로 환경계획을 발표·이행하고 있는데, 2019년에 지난 3년간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성과를 진단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행할 새로운 '환경행동계획(Environmental Action Plan)을 발표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80%를 재활용했으며, 전체 전력의 85%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획득했고 기준(baseline)²⁶⁾과 비교하여 약 16%가량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획득했다고

26) 기준 에너지 사용량은 현장 임대를 포함하여 2003/04부터 2007/08까지의 5년 평균

진단했다. 이에 2020년부터 2023년간의 계획에서는 ‘기준(baseline)에 비해 약 20%가량 전력사용량을 줄이고’, ‘2023년까지 모든 폐기물(쓰레기)의 85%를 재활용하며’, ‘레스토랑 등 시설 내 모든 업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3-9]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환경정책 성과(2017-2019)와 향후 목표(2020-2023)



출처: Sydney Opera House (2019), Environmental Action Plan 2020-23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물, 자원구매, 쓰레기, 교통, 기후환경변화, 지속가능한 경영은 물론 안전, 자연환경, 파트너십 및 관람객 참여 등 세부 분야의 실천목표 및 성과지표를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다(표 3-7 참조)

〈표 3-7〉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Environmental Action Plan 2020-23의 목표 및 성과지표

	방향	목표	핵심성과지표
에너지	◇2023년까지 20%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하면서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절감 추진	• 에너지 효율성을 통한 운영 절감 극대화	• 기준선에서 추가로 6%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여 기준선 이후 총 20% 절감 달성 * 기준 에너지 사용량은 현장 임대를 포함하여 2003/04부터 2007/08까지의 5년 평균
		•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에너지 효율성 포함	• 신규계약자 및 상업계약의 100% 모두에 에너지 효율성과 측정
		• 직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관행에 대한 인식 제고	• 1년에 경영진에게 2회의 성과 보고서 제출 • 에너지 참여 대시보드 구현
물	◇오페라 하우스가 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매년 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 시설 내 물 환경 이해제고 • 물 관리 능력 향상 모색	• 2023년까지 90% 이상의 부지 전체 물 사용량이 계량 및 모니터링
		• 효율성을 개선할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	• 현장 용수 사용량은 5 Green Star 성능 기준을 기준으로 10% 향상 • 개발 및 채택된 상업 및 운영 영역에 대한 성능 벤치마크
		•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작업에 물 효율성을 포함	• 2023년까지 물 효율성 요구 사항 및 성능 목표 설정
자원구매	◇오페라하우스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가장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	• 더 나은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달 프레임워크 개선	• 통합적 조달 프레임워크 구축
		• 종이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소모품 및 장비 구매를 늘리기 위한 전략 구현	• 사무용지 사용량 50% 감소 • 조달된 종이의 100%로 재활용용지 사용 • 인쇄 및 출판용지 FSC 인증 100%(종이 스톡의 최소 60%에는 재활용용지 사용) •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든 의자 및 수명이 다하면 재활용
		• 상업적 F&B 계약 요구 사항에 지속 가능성 기준 포함	• 2023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중단 등
쓰레기	◇폐기물을 재고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며 85% 재활용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환 경제의 원칙을 구현	• 운영 폐기물 관리 모범 사례 유지	• 중량별 운영 폐기물 재활용 목표 달성: 1년차: 65%, 2년차: 75%, 3년차: 85% • Gold Standard Better Buildings 파트너십 유지 운영 폐기물 지침 • 2023년까지 2개의 독립적인 폐기물 감사 완료
		• 폐기물 관리 모범 사례 유지 • 갱신을 위해 자본 작업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	• 리뉴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80% 재활용률 달성 • 기타 보수 및 소규모 작업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60% 재활용률 달성 • 재사용 가능한 사무용 가구 100% 리폼

	방향	목표	핵심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준수로 • 화학용 및 유해 물질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A(환경보호국) 라이선스 계약자를 통해 유해 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 물질 폐기 • 지속 가능한 작업 관행의 원칙에 대해 교육을 받은 100% 청소 감독관 배치
기후변화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에 대비하고 적응해야 하며 경험을 본보기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중립적 조직 상태 유지 • Climate Positive 2023 달성을 위한 계획 실행 •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대비 및 복원력 향상 • 유산(legacy)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매년 탄소중립 인증 유지 • 2021년까지 기후 향상의 경로가 개발, 2023년까지 기후에 있어 긍정적 상태 달성 • 2021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 매년 최소 1회의 사고 리더십 기회에 참여하여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오페라하우스의 모범 사례를 발굴
교통	◇능동적인 교통수단을 장려함으로써 방문자 및 직원이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고 발자국을 줄이도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에 있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및/또는 방문객을 위해 활성화된 모범 교통사례 발굴 • 2년에 한 번 교통조사 추진 • 직원의 80% 이상이 지속 가능한 운송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
지속가능한 경영	<p>◇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오페라하우스의 모든 업무에 포함.</p> <p>◇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성, 혁신 및 리더십을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에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책임 부여 • 오페라하우스의 모든 계획과 UN SDGs를 통합 • 직원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조성 • 직원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실내 환경품질 개선 • 프로그램 협업을 통한 참여 증진 • 건물관리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리더십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수행되는 공식 환경 관리 검토 •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에 최소한 분기별로 지속 가능성 성과 보고 • 2021년까지 검토된 SOH 환경 지속 가능성 정책 • 2023년까지 모든 관련 SOH 계획에 SDGs 통합 • 2020년까지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22년까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시행 • 2020년까지 임직원 표창제도 실시 • 매년 실행되는 실행 계획 • 실행 계획 결과물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4개의 성공적인 참여 활동 제공 • 연간 내부 커뮤니케이션 계획 구현 • 건물 점유 조사 완료 • 실내 환경 품질인증 획득 • 1년에 최소 하나의 협업 프로젝트 수행 • 2022년까지 6스타 그린스타 성능 인증 획득

	방향	목표	핵심성과지표
위험 및 규정 준수	◇Opera House는 효과적인 시스템, 프로세스, 규정 준수 및 최고 수준의 교육을 통해 위험을 능동적으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페라하우스 운영과정에 환경적 위기관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마다 독립적인 환경 감사 실시 ISO14001*에 따른 환경관리시스템 도입: 2023년까지 완전 시행 * 품질 환경 안전보건시스템 인증 환경 위험과 경미한 사고보고 증가 최소 12개 현장에 대해 매년 검사 완료 추진
자연으로 연결	◇오페라 하우스는 생물다양성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직원, 후원자 및 커뮤니티를 자연과 연결하는 데 전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환경(시드니)에 있어 오페라하우스의 영향을 관리하고 최소화 생물다양성(Biodiversity)에 관한 우리의 임무를 통해 오페라하우스와 자연을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한 환경사고 근절 2023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없는 시설로 만들기 2022년까지 우수관리(stormwater management) 계획 수립 매년 자연환경 혹은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한 가지 이니셔티브 추진 매년 종사자 혹은 방문자를 위한 한 가지 자연환경 연계 활동 추진
파트너 및 커뮤니티 참여	◇오페라 하우스는 현재 및 미래의 파트너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강력한 업무 관계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협력사업 추진 전략적 파트너를 경유한 더 많은 리소스를 통해 결과 향상 성과와 영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및 리더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시설 운영자들과 함께 매년 적어도 한 가지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니셔티브 추진 SOH 상주 회사, 고용인 및 파트너를 위한 지속가능성 실천 강령(Sustainability Code) 개발 매년 적어도 두 가지 이상 동료 참여 이벤트 개발 추진 뉴사우스웨일즈주 지속가능성 향상 프로그램의 중요한 파트너 유지
청중 및 방문자 참여	◇오페라 하우스는 좋은 모범을 보이고 모든 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보여줌으로써 청중과 방문객에게 영감을 주고 참여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이벤트 관리를 위한 리더십 확보 지속가능성 메시지 및 주제에 청중 참여의 수단으로서 주요 행사 이용 학생들을 위한 교육추진 공동체 인식 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까지 오페라하우스 이벤트의 ISO 인증 달성 이벤트 전체에 대한 환경리포트 작성 매년 적어도 2개 이상의 환경 관련 어린이 및 가족 참여 프로그램 개발 오페라하우스 지속가능성 원리를 전체 기획 사업에 적용 최소 65% 정도의 지속가능한 재료를 사용해 창작한 Creative Play Program 개발 2023년까지 지속가능성 투어개발, 최소 1년에 한 번 방문객 대상 서베이 실시 등 매년 한 가지 이상의 전문적 학습프로그램 운영 매년 최소 4개 이상의 미디어 제작 매년 최소 2개 이상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실시

자료: Sydney Opera House (2019), Environmental Action Plan 2020-23 일부 내용을 저자 정리

제3절 환경이슈 극복의 동인으로서 문화예술 사례

1. 기후시민 3.5 (한국)

1-1. 배경

“기후시민 3.5”는 전면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대규모의 캠페인성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지난 100년 동안 지구촌 전역에서 발생했던 각종 사회운동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을 토대로 인구의 3.5%가 행동하면 사회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회학자 에리카 체노워스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다.²⁷⁾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지원프로젝트로 선정된 ‘기후시민 3.5’는 순수 문화예술분야부터 건축, 영화, 디자인 분야 등의 다분야 작가와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예술창작활동과 더불어 연구,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3-10] 기후행동 3.5



출처: 기후행동 3.5 홈페이지 (<https://www.climatecitizens.org>, 검색일자: 2021.6.25.)

27) 기후시민 3.5 홈페이지 (<https://www.climatecitizens.org>, 검색일자: 2021.6.25.)

1-2. 프로젝트 내용

‘기후행동 3.5’는 기후변화 해결의 해법이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꿀 때만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다양한 대안적 시도를 아카이빙(archiving)하여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 캠페인은 <기후도시>, <기후교실>, <기후밥상>, <기후캠프>, <기후극장>, <기후미술관>, <기후제주>, <기후글로벌>이라는 8개의 소주제 하에 진행된다. 그리고 각각의 소주제는 개인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국가, 기업,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정책적인 제안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행동의 모델을 탐구하는 창작, 기획, 연구, 실천 프로젝트들로 구성된다(표 3-8 참조).²⁸⁾

〈표 3-8〉 기후행동 3.5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기후도시	• 시티블리츠	• 미술인, 영화인, 디자이너, 건축가, 도시이론가 및 청소년, 중노년층 등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들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기후위기 캠페인
	• 집의 체계: 기후위기 시대의 공간-사물-노동시나리오	• 기후변화와 그 대응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물리적인 거주 환경이 생산되는 현 체계를 모델링하여 일반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시각 경험을 전달하는 플랫폼을 개발
	• 도시자생프로젝트: 더 작게, 더 느리게, 더 가까이	• 7개의 건축사무소가 서울의 공적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의 공간적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
	• 반려멸종 협동조합	• 전체인구 1/4 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인 현 상황을 반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기후교실	• 오다챌린지	• 기후위기 문제를 대량생산과 소비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캠페인
	• 지구를 사수하라: 방구를 참아라	• 2개의 코믹 환경캠페인 게임. 즐겁고, 자발적이고, 중독적인 환경 운동의 가능성을 제안
	• 벌집이 예술, 새집이 예술, 지렁이가 예술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다른 생명체들의 생존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 구담 애니교실: 기후켓돈-곤충, 바다, 재난 3부작	• 일러스트 작가이자 그리는 진행자로 알려진 구담의 드로잉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기후켓돈 곤충, 바다, 영화로 보는 기후재난 3편으로 구성
	• 기후어르신: 멸종동물 뜨개공방, 멸종식물 그림방, 에코현수막 제작단	• (멸종동물 뜨개공방) 노년층 여성들의 기후시민 되기 프로젝트 • (멸종식물 그림방) 중노년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화 그리기 교실과 연계한 프로젝트 • (에코현수막 제작단)현수막 제작에 따르는 환경적인 부담을

28) 기후시민 3.5 홈페이지 (<https://www.climatecitizens.org>, 검색일시: 2021.6.25.)

구분	프로그램	내용
		줄이기 위해 버리는 옷과 흠이불, 보자기 등을 활용하여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핸드메이드 현수막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 기후어린이: 내가 사랑하는 바다_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 휴먼인러브와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내가 사랑하는 바다, 바다와 나의 꿈, 소중한 바다를 지켜요'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림에 담음
기후캠프	• 침엽수 집단 고사현장 모니터링	• 녹색연합, 그린 백패커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한국 침엽수 집단고사 현장 모니터링 프로그램
	• 침엽수 갤러리	• 지구온난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침엽수림의 파괴 현장을 기록하여 공유
	• 강 생태캠프: 한강, 동강, 강천섬, 여의샨강	•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이 주관하는 행사로 물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을 탐구하는 강 생태캠프
기후극장	•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 환경운동연합이 영화감독, 예술가 그룹, 애니메이션 제작자 등과 협업으로 제작한 영상물과 애니메이션 작품을 소개하는 프로젝트
	• 오늘의 콩, 내일의 간장	• 콩과 간장을 매개로 기후위기가 우리의 식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 한강유람극장	•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오염으로 인한 강과 해양생태계의 파괴, 수자원의 착취와 지구촌 물의 위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영화제
기후밥상	• 기후식량 아카이브	• 기후위기가 야기할 식량위기에 대한 자료와 통계를 수집, 분류, 공유하는 식량위기 온라인 아카이브
	• 내일의 씨앗	• 현지의 기후환경에 적응해온 종자를 지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존전략이다. <기후시민 3.5>의 참여자들이 토종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고, 갈무리하고, 나누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자, 수건, 채종망 등을 디자인
	• 태양열 제빵 및 요리 시연	• 태양열 오븐을 이용한 제빵 및 요리 시연과 그 과정을 기록한 영상의 공유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
기후글로벌	• 지구를 위한 세계 시민 사회 연합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산하 600여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세계시민단체연합(CSO Alliance)과 연대하여 진행하는 <기후시민3.5>의 글로벌 캠페인
	• Venice Calls	• 2018년, 30명의 베니스 청년들로 시작하여 현재 7000명이 넘는 참여회원들이 활동 중인 베니스 청년 환경단체 베니스 콜스가 진행하는 서울-베니스 릴레이 기후행동 캠페인
	• 열대림과 이탄지 그리고 기후변화	•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열대림과 이탄지의 지속가능한 방식의 이용과 개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캠페인
기후제주	• 제주33 프로젝트	• 제주도의 환경적인 변화를 목격해온 사람들이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논의, 지역민, 생태계 연구자, 예술가 등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
	• 기후스케이프	• 제주의 일상, 기후위기의 현재진행형 기록.

구분	프로그램	내용
기후미술관	•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 사람이 사는 집, 그리고 모든 사물과 생명체의 집. 살림집과 지구의 생태계는 오이코스(Oikos)라는 같은 어원을 가진 우리의 집임.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는 위기에 처한 우리의 크고 작은 집에 관한 전시

자료 :Great London Authority(2019), Events Sustainability Policy의 내용을 저자 정리

2. CURRENT: LA Water (LA, 미국)

2-1. 배경

CURRENT: LA Water는 미국 LA시 문화부(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DCA)의 공공예술팀에서 주관하여 2년에 한 번씩 7, 8월에 개최되는 LA 최초의 공공예술 비엔날레이다. 기후변화는 가뭄,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데, 특히 2011년과 2017년 사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았으며, 주정부는 1년 넘게 도시 지역의 물 사용에 제한을 두었고, 물 소비량을 25%를 줄인 바 있다. 따라서 LA시는 물 부족 문제와 수자원 보호를 대내외로 알려 나가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시를 가로지르는 LA강(The Los Angeles River) 주변 공간을 무대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1. 프로젝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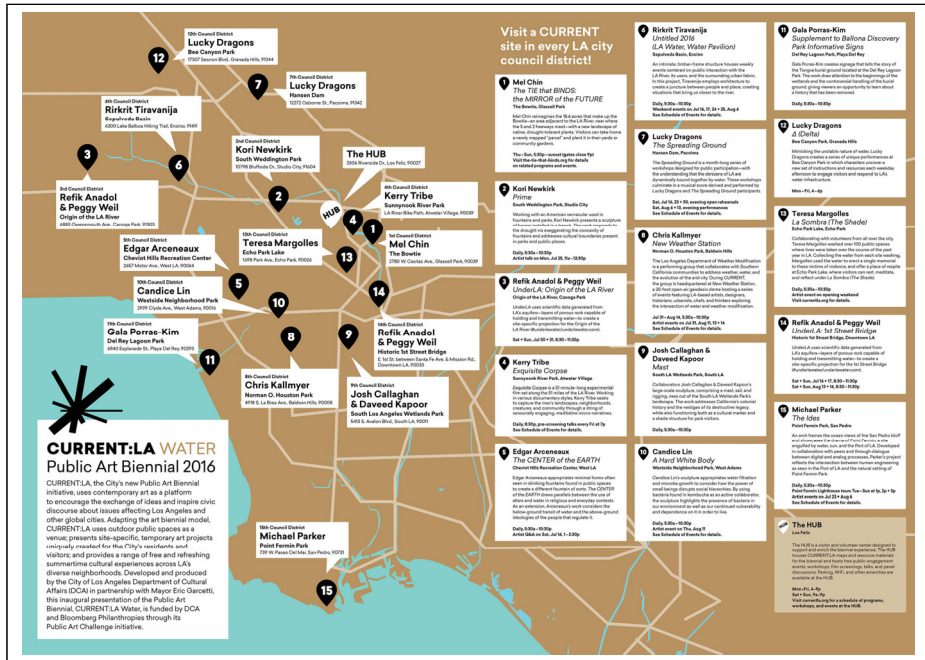
2016년에 개최된 CURRENT: LA Water는 LA 전역의 15개 지점(도시의 각 district 마다 하나씩)에서 설치되었다. 이곳은 우리와 물, 물 관련 시스템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LA 문화부(DCA)에서 선정한 곳이다. 각 장소는 LA강 물줄기를 따라, 역사적인 LA강의 지류를 따라, 또는 인공 수역에 인접해 있다.

13개 국제 및 지역 예술가(팀) (개인 10명과 2명으로 구성된 3개 팀)이 독립적인 큐레이터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장소별 임시 공공 예술위원회가 선정됐다. DCA는 각 예술가(팀)에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아티스트 토크 혹은 워크숍 등과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추진을 요청한다. DCA는 관객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술 설치물 주변에서 모바일 박물관, 공연, (식량, 인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조경을 포함한 주제에 대

한) 워크숍과 같은 프로그램을 조직하도록 13개 비영리 단체에 재정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153개의 자금 지원 행사가 30일 동안 무료로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이 중 102개는 CURRENT LA 아티스트(팀)에 의해, 51개는 CURRENT LA 공개 프로그램으로 제작·발표됐다.

469평방마일에 이르는 도시 전역의 15개 장소에 설치된 예술품에 대한 안내를 위해 실물지도와 디지털지도를 만들고, Google Map과 같은 내비게이션 앱에서 정확한 위치를,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림 3-11] CURRENT LA Water 2016 사이트 맵



출처: CURRENT: LA Water 홈페이지 (<https://www.currentla.org/archive/>, 검색일자: 2021.6.25.)

2016년 CURRENT: LA Water는 15개 지점에 총 33,000명 이상의 방문자가 다녀가고, 온라인에서 1,137,238건의 노출이 발생했으며, 80개 이상의 지역 내, 국내외 언론 뉴스 기사에 게재됐다. 행사 후 심층평가 결과, 이 프로젝트가 LA 대도시 전역의 열린 녹지 공간에서 시민 대화를 유지하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여 참여, 연결 및 새로운 관계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방문객들에게 LA 주민으로서 소속감을 불러일으켰다.

3. Refuge (멜버른, 호주)

3-1. 배경

기후변화는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대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호주 멜버른에서 2020년까지 추진된 아트프로젝트 ‘Refuge’는 재난의 영향에 대비하는 멜버른 아트하우스(Art House)와 예술가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으로, 회복력 있는 멜버른 전략(Resilient Melbourne Strategy)의 하나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제 간 프로젝트이다.

3-2. 프로젝트 내용

아트프로젝트 ‘Refuge’는 위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잘 협력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내 주민, 예술가, 과학자, 노인 및 응급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따른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현실화 되었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보통의 경우 기후변화나 재난 대응 시 행정, 과학 및 기술, 재정지원 등과 같은 대책이 중심이었다면, Refuge는 창의적인 접근(creative approach)을 통해 재난에 대응하여 형평(equity), 접근(access), 존엄(dignity) 및 희망(hope)을 전파하고 정착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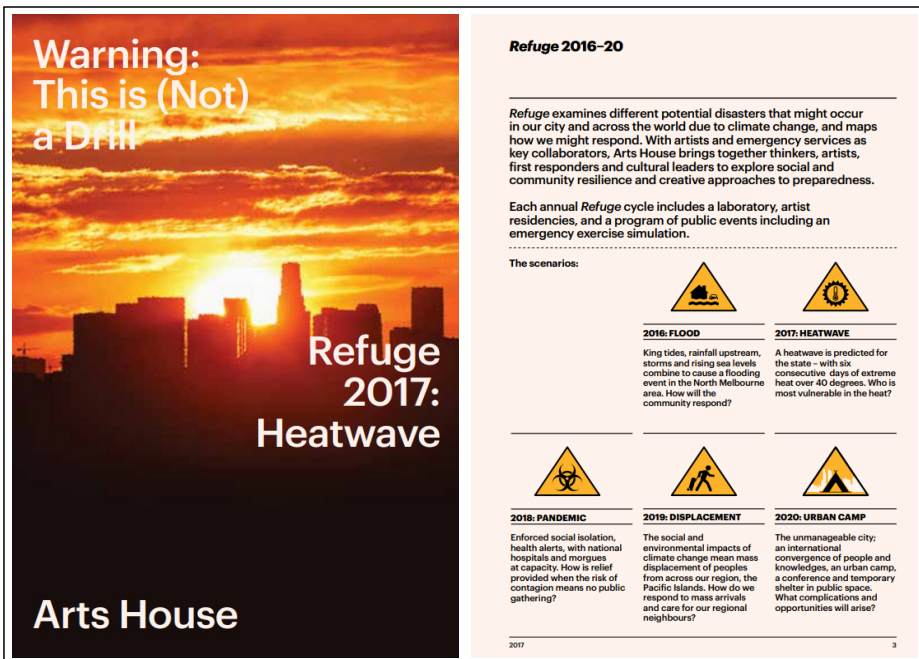
Refuge는 2016년 이래 매년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전개해왔다. 2016년에는 홍수(Flood)를 가정하여 프로젝트 기간 내 24시간 동안 North Melbourne시청을 재난 구호센터로 완전히 바꾸고 24시간 예술가가 주도하는 비상관리 훈련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만약 40°C 이상의 기온이 5일 연속 전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추진되었으며, 2018년도의 주제는 전염병의 창궐이 지역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채택하였다.

Refuge의 주관기관은 ‘멜버른 아트하우스(Art House)’이며, 호주정부로부터 예산, 자문 등의 지원을 받고 있고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적십자사(Red Cross Australia) 등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2016년 시범사업 결과, 참가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수단 획득, 지식의 교환, 새로운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Art House는 Melbourne University's Research Unit Public Culture와 협력해 시범 운영을 평가한 결과, 예술과 문화가 도시적 맥락에서의 회복력 개발과 육성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시 및 비상 상황 계획가(emergency planners)의 목표가 예술가와 협력해 만들어지고 전달될 때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림 3-12] 호주 멜버른 'Refuge' 2017년 브로셔



출처: Art House 홈페이지(<https://www.artshouse.com.au/ourprograms/refuge/>, 검색일자: 2021.6.25.)

4. 유럽녹색수도(European Green Capital)의 문화전략 (오슬로, 노르웨이)

4-1. 배경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Oslo)는 외형적으로 공원과 숲이 잘 가꾸어진 도시이기도 하지만 시민, 도시계획가, 정치인, 기업 등 모두가 도시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지속가능

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도시(green city)라 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이러한 시의 노력을 인정하여 2019년에 오슬로를 ‘유럽녹색수도’(European Green Capital)로 지정하였다. 유럽녹색수도 인준은 높은 환경기준을 달성한 도시에 부여되는데, 일종의 모범 사례로서 다른 유럽 도시들에 알려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슬로시의 유럽녹색수도 프로그램은 환경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녹색수도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한 점에서 환경이슈 해결의 동인으로서 문화·예술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3-2. 프로젝트 내용

2019년 유럽녹색수도 행사에서 오슬로는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바다를 위한 열정 축제’(Passion for Ocean Festival)는 요트, 다이빙, 서핑, 연날리기, 카누, 요리, 문화, 음악 행사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고, 노르웨이 민속박물관(Norsk Folkemuseum)의 ‘재목표 축제’(Repurpose Festival)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하고 보수한 빈티지(vintage) 의상들이 전시되었다. ‘오슬로 옥상축제’(Oslo Rooftop Festival)에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옥상을 도시 다양성, 지역 식품 생산과 기후 적응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만남의 공간으로 부각하고자 노력했다. 이렇듯 신규로 기획된 행사 이외 기존의 문화축제 또한 유럽녹색수도의 컨셉에 맞게 조정되어 개최된다. 예컨대 환경적 가치로 잘 알려진 ‘외위아축제’(Øya Festival)와 1982년 유네스코에서 만든 ‘국제댄스데이’(International Dance Day)는 도시경관을 몸짓의 역동성으로 채우려고 하였다. 오슬로의 노벨평화센터는 기후, 자연, 인간을 주제로 한 ‘클리마랩’(Klimalab) 전시를 열었다.

유럽녹색수도라는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문화예술정책이 환경이슈를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정부가 수립한 ‘2018-2019 미래를 위한 국가문화정책’에는 ‘기후를 위한 노르웨이 작가행동’(Norwegian Writers’ Climate Campaign)과 ‘기후를 위한 노르웨이 예술가행동’(Norwegian Artists’ Climate Campaign)과 관련된 ‘예술과 환경’ 부문이 비중 있게 포함되었고, 아울러 이 계획 내 ‘담대한 문화정책(bold cultural policy)’ 부문에서는 교육, 복지, 기후와 같은 분야에 문화정책이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명확히 명시하여 환경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5. 문화예술을 통한 해양 환경오염문제 인식 (부산, 한국)

5-1. 배경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재조명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가치 확산을 재단의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 도시로서 예부터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왔다. 이에 부산문화재단은 해양환경 오염 문제를 대내외로 전파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과 환경예술축제 등을 기획·추진한다.

5-2. 프로젝트 내용

해양 환경오염 문제 인식 확산을 위한 부산문화재단의 프로그램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와 생활예술프로그램인 ‘비치코밍/플로깅(Beach Combing/Plogging)’이 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인 ‘모이다아트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바다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beach combing)²⁹⁾’을 진행하면서 그림그리기, 영상제작, 모형 만들기 등의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지역 예술작가가 멘토가 되어 아이들이 자신만의 예술적 표현방법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메시지 전달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다(부산문화재단, 2021).

〈표 3-9〉 연도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주요 내용

구분	2018	2019	2020	2021(선정)
프로그램명	• 예술로 헤엄치는 바다 놀이터	• 예술로 함께 떠나는 ‘흥미진진 무한 상상 항해’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부제: 비치코밍으로 만난 바다가 준 선물)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바다를 살리는 바다공작소>

29) 해변을 빗질(combing)하듯이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로, 주워 모은 물건을 재활용한 작품을 만듦으로써 재미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1584&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자: 2021.10.13.)

구분	2018	2019	2020	2021(선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아트 부족 • 모래그림 패턴 만들기 • 바다미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프린트 접목한 배 만들기 • 1박2일 캠프 • 제2회 어린이 바다 미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치코밍 • 가족작품만들기 프로젝트 • 제3회 어린이 바다 미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치코밍 캠페인 • 스톱업션 영상 제작 • 제4회 어린이 바다 미술제

자료: 부산문화재단(2021),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p.98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일 문화학교’에 환경 이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2018년 총 50개 단체 활동 중 2개, 2019년 41개 중 6개, 2020년에는 39개 중 3개 단체가 환경을 주제로 꿈다락 토요일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부산문화재단, 2021:98)

한편 부산을 기반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및 리빙아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가치예술협동조합(GachiART)’은 ‘가치 비치코밍 플로깅³⁰⁾(Beachcombing/Plogging)’을 전개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진흥원 공모사업인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비치코밍과 플로깅으로 부산 각 구군별 포구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며 쓰레기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만들고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속 예술창작 활동을 도모했으며, 궁극적으로 해양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부산문화재단, 2021:99).

[그림 3-13] 비치코밍 결과물을 이용한 작품 (해운대구)



출처: 부산문화재단(2021),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p.101

30) 플로깅(Plogging)이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라는 신종어로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국립국어원은 2019년 11월 ‘플로깅’을 대체할 우리말로 ‘쓰담달리기’를 선정할 바 있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38665&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자: 2021.10.13.)

제4절 소결

1. 주요 사례에서 나타난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적 실천

앞에서 살펴본 사례 분류 범주 중 ‘친환경적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실현 사례’와 ‘문화시설(행사장)의 친환경성 제고 사례’는 문화예술 영역이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대상이 되어 탄소, 폐기물 등 환경저해물질의 ‘저감’과 각종 환경 규제와 정책에 적응하는 예시라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이슈 극복의 동인으로서 문화예술 사례’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을 통해 친환경적 관점을 확산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경문제에 해법을 찾는 동력으로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이다.

이 각각의 사례를 앞의 2장에서 제시한 여섯 개의 환경정책영역(자연환경 보전, 국토·해양·대기환경 보전, 물·수자원·상수도 이용 및 관리, 자원순환, 기후변화, 기타)을 적용한 결과는 <표 3-10>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환경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실현’과 ‘문화시설(행사장)의 친환경성 제고 사례’는 도시 전체, 시설 혹은 이벤트 등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친환경가이드 제시에 관한 것으로, 기후변화, 자원순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한 내용인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시드니항 보호와 같은 국토·해양·대기환경 영역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문화시설의 친환경 계획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이슈극복의 동인으로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친환경적 관점 확산이 주된 목적이므로 기후환경변화 및 탄소중립은 물론 자연환경, 국토·해양·대기환경 영역의 환경이슈를 고루 다루고 있으며 축제, 전시는 물론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예술적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예술창작활동과 교육 영역에 걸쳐 친환경적 관점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3-10〉 국내외 주요 사례들의 환경정책 영역 간 연관성 분석

사례		자연환경 보전	국토·해양· 대기환경 보전	물·수자원· 상수도 이용 및 관리	자원 순환	기후 변화	기타 (커뮤니케이션, 협력체계 등)
• 친환경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실현	•문화를 위한 친환경가이드와 이벤트 지속가능성(영국)	△	△	△	●	●	●
	•Green Arts Initiative(영국)	△	△	△	●	●	●
	•Manchester Art Sustainability Team(영국)	△	△	●	●	●	●
	•Materials for the Arts(미국)	△	△	△	●	△	●
• 문화시설 (행사장)의 친환경성 제고	•ACC 그린뉴딜가이드 (한국)	△	△	△	●	△	●
	•Cultural Venues Sustainability Action Plan(네덜란드)	△	△	●	●	●	●
	•Australian Museum 'Sustainability Action Plan(호주)	△	△	●	●	●	●
	•Museum of London 'Sustainability Policy'(영국)	△	△	△	●	●	△
	•Sydney Opera House 'Environmental Action Plan' (호주)	●	●	●	●	●	●
• 환경이슈 극복의 동 인으로서 문화예술	•기후시민 3.5(한국)	●	△	△	●	●	●
	•CURRENT: LA Water(미국)	●	△	●	△	△	●
	•Refuge(호주)	△	△	△	△	○	●
	•유럽녹색수도의 문화전략(노르웨이)	●	●	△	△	○	●
	•문화예술을 통한 해양 환경오염문제 인식(한국)	△	●	△	●	△	●

자료: 각 사례를 토대로 저자 작성

주: △: 연계 약함, ○: 간접 연계, ●: 직접 연계

2.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적 실천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 모니터링 및 저감 방식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면, 이를 근거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 표준(ISO 등),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환경기준(탄소 및 폐기물 배출, 에너지 사용과 친환경 에너지원 대체율 등)이나 이를 문화 분야에 맞게 변형한 기준을 적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연간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2023년까지 전력사용량을 기준년도 대비 최대 20% 저감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이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요 문화기관 및 시설의 경우 단편적인 환경저감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경영 전반(시설 운영, 조달, 창작 프로그래밍, 교육 및 홍보 등)에 걸쳐 환경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둘째, 순수하게 환경커뮤니케이션 목적의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도시, 시설 및 이벤트 등의 환경관리 사례에서도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 및 환경이슈의 문제가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환기하고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친환경성은 문화기관 혹은 이벤트에 있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외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분야 내, 분야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단일 기관 및 시설의 노력만으로 친환경성을 담보되기 어렵다. 영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술단체 혹은 문화예술시설 연합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정부나 예술위원회 등 공공영역에서 사업비 보조 및 기금 조성, 관련 제도적 환경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는 환경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와 환경부문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환경이슈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을 두루 고려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에 문화예술을 결합하여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2016년에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경영 전반에 결합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조직 또한 환경, 사회가치와 지배구조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ESG(Enviromental, Social & Governance) 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제4장

친환경 문화정책 인식 및 수요 조사

제1절 대국민 설문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문화예술에 친환경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의견이 중요하다. 이는 정책의 시행과정과 안착과정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공공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정책당국, 예술인, 문화시설 종사자, 국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은 정책변화로 인한 문화서비스 이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 정책을 현장에 접음 없이 안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성을 진단하고 특히, 문화정책 영역에서 친환경적 관점의 정책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국민의 동의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조사 설계

대국민 조사는 최소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4-1〉 조사대상 및 방법

구분		내용
대국민	조사대상	• 전국 17시도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
	조사기간	• 2021년 8월 25일 ~ 9월 3일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코그니티브 컨설팅 그룹

2. 조사 항목

조사 영역은 일반적 환경 인식,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발자국 현황, 친환경 문화서비스 수요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일반적 환경 인식’ 부분에서는 기후변화 지각, 기후변화의 영향 체감, 일반적인 환경태도, 친환경 실천의 제약 요건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발자국 현황’ 부분에서는 공공문화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발자국을 측정해 내기 위해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축제 등 공공문화서비스 방문여부, 방문빈도, 이동수단, 이동소요시간 조사하였다.

‘친환경 문화서비스 수요’ 부분에서는 문화서비스 분야에 친환경 정책의 접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문화서비스 이용 시 개인의 친환경 실천 의향, 문화서비스 시설이 실천해야 할 정책,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2〉 대국민 설문 문항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반적 환경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지각 여부 기후변화 영향 체감 일반적 환경태도 및 성향 친환경 실천에 대한 심리적 저항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발자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인지 여부 탄소중립 이슈 인식 경로 탄소중립 정책 공감 정도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발자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문화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2019년, 2020년 문화시설 방문 유무 2019년, 2020년 문화시설 이용 빈도 2019년, 2020년 문화시설 방문 이동 수단 2019년, 2020년 문화시설 방문 이동 소요시간
친환경 문화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와 환경 관련성 인식 친환경적 문화향유 고려 의향 친환경적 문화향유 제약 요인 친환경적 문화향유 행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문화정책의 필요성 친환경 문화서비스 평가 문화서비스 기관 친환경 실천 항목별 중요성 인식 중앙정부 친환경 문화정책 수요

제2절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499명(49.9%), 여성이 501명(50.1%), 연령은 20대가 166명(16.6%), 30대 154명(15.4%), 40대 189명(18.9%), 50대 196명(19.6%), 60세 이상 295명(29.5%) 이었다. 지역규모 별로는 대도시 438명(43.8%), 중소도시 481명(48.1%), 읍면지역 81명(8.1%) 이었고, 소재지별로는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구성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9	49.9
	여성	501	50.1
연령대	만20세~29세	166	16.6
	만30세~39세	154	15.4
	만40세~49세	189	18.9
	만50세~59세	196	19.6
	만60세 이상	295	29.5
소재지 규모	대도시(서울시, 광역시)	438	43.8
	중소도시	481	48.1
	읍면지역 이하	81	8.1
소재지	서울	190	19.0
	부산	67	6.7
	대구	46	4.6
	인천	57	5.7
	광주	28	2.8
	대전	28	2.8
	울산	22	2.2
	세종	9	0.9
	경기	257	25.7
	강원	30	3.0
	충북	31	3.1

구 분	사례수	구성비
충남	38	3.8
전북	35	3.5
전남	36	3.6
경북	51	5.1
경남	63	6.3
제주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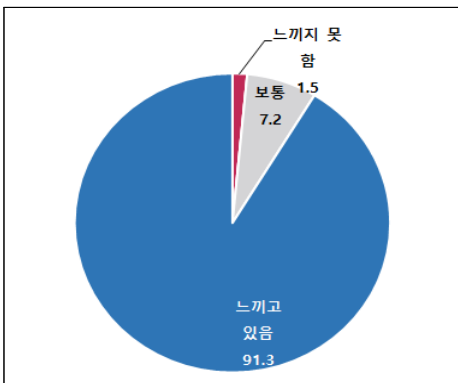
2. 일반적 환경 인식

2-1. 기후변화 인식

가. 기후변화 체감과 삶에 영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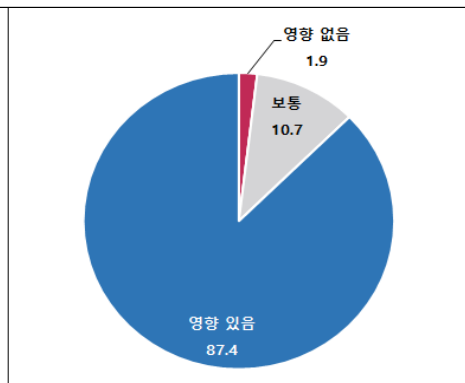
먼저 기후변화 체감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1.3%가 ‘느끼고 있음(느끼고 있다+매우 느끼고 있다)’으로 응답했으며, ‘느끼지 못 함(전혀 느끼지 못한다+느끼지 못한다)’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삶에 영향이 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87.4%가 ‘영향 있음(영향이 있다+매우 영향이 있다)’으로 응답했으며, ‘영향 없음(전혀 영향이 없다+영향이 없다)’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기후변화체감정도



자료: 설문조사

[그림 4-2] 기후변화가 삶에 영향



자료: 설문조사

세부적으로 기후변화의 체감은 여성(82.9점)이 남성(79.5점)보다 높았고, 50대의 체감이 높았으며, 소도시(읍면지역)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후변화가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여성(81.0점)이 남성(78.9점)보다 높았으며, 체감과 마찬가지로 50

대가 삶에 대한 영향 인식이 높았으며, 역시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4-4〉 기후변화 체감과 기후변화 영향 인식

(단위: 점)

구 분	사례수	기후변화 체감		기후변화 영향 인식		
		5점 평균	100점 평균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4.25	81.2	4.20	80.0	
성별	남성	(499)	4.18	79.5	4.16	78.9
	여성	(501)	4.32	82.9	4.24	81.0
연령대	만20세~29세	(166)	4.08	77.1	4.22	80.4
	만30세~39세	(154)	4.14	78.6	4.14	78.4
	만40세~49세	(189)	4.21	80.2	4.14	78.4
	만50세~59세	(196)	4.38	84.6	4.27	81.8
	만60세 이상	(295)	4.33	83.3	4.21	80.3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4.24	80.9	4.21	80.3
	중소도시	(481)	4.25	81.3	4.18	79.5
	읍면지역 이하	(81)	4.28	82.1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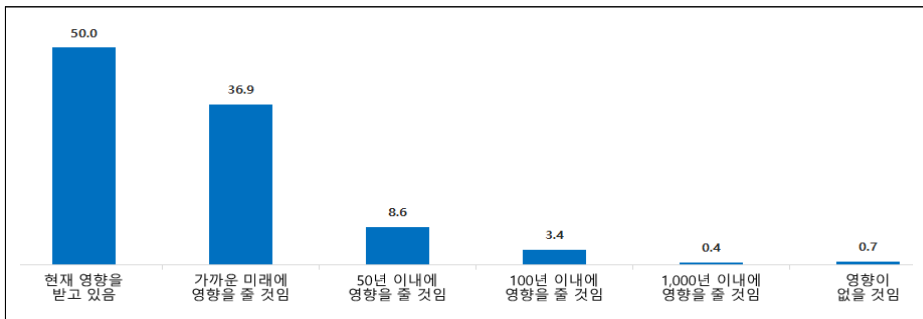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나. 기후변화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인식

기후변화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인식을 살펴보면, ‘현재 영향을 받고 있음’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줄 것임’(36.9%), ‘50년 이내에 영향을 줄 것임’(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기후변화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인식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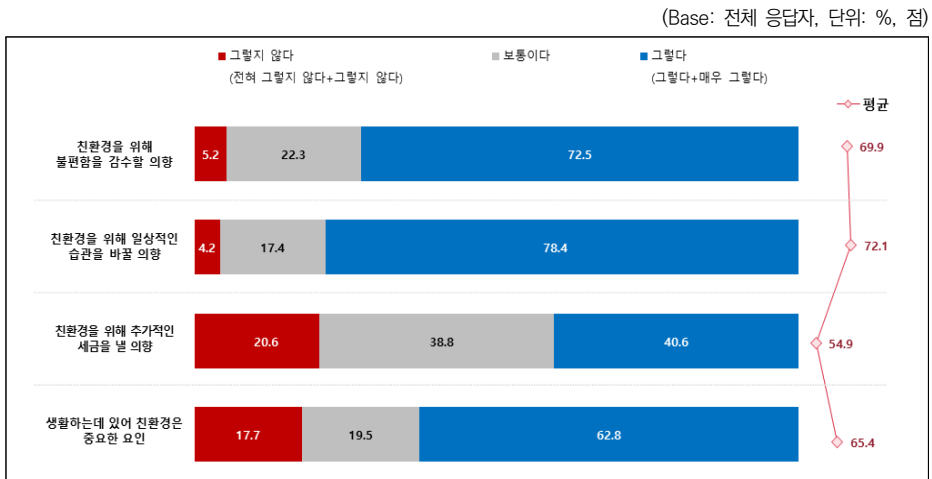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다. 친환경 태도 및 실천

친환경 태도는 4가지 문항으로 물어보았는데, 먼저 ‘친환경을 위해 일상적인 습관을 바꿀 의향에 대한 긍정 비율이 72.5%로 나타났고, 친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에 대한 긍정 비율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하는 데 있어 친환경은 중요한 요인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62.8%, 마지막으로 친환경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40.6%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 4-4] 친환경 태도



자료: 설문조사

<표 4-5> 기후변화 체감과 기후변화 영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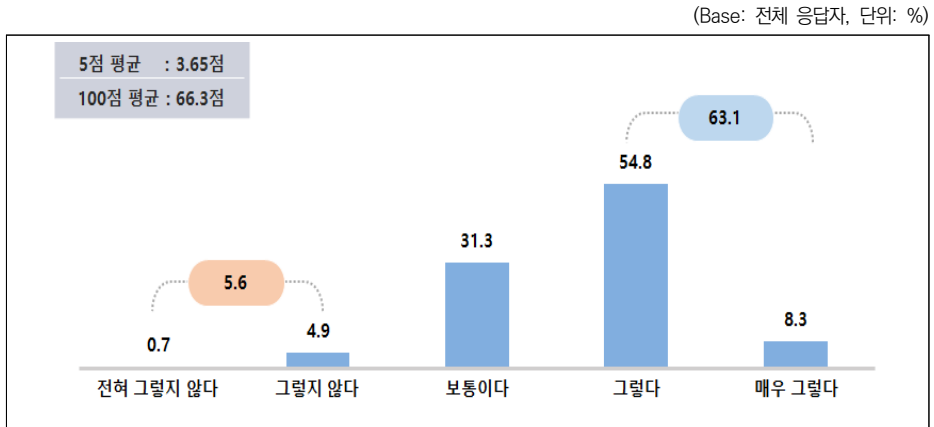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불편감수 의향	습관변화 의향	세금 지불 의향	친환경 중요성 인식
전체	(1,000)	3.79	3.88	3.19	3.62
성별	남성 (499)	3.77	3.84	3.17	3.56
	여성 (501)	3.82	3.92	3.22	3.67
연령대	만20세~29세 (166)	3.66	3.73	3.07	3.49
	만30세~39세 (154)	3.56	3.71	3.01	3.53
	만40세~49세 (189)	3.82	3.85	3.25	3.58
	만50세~59세 (196)	3.91	4.02	3.31	3.68
	만60세 이상 (295)	3.89	3.99	3.25	3.71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3.78	3.91	3.19	3.55
	중소도시 (481)	3.81	3.87	3.21	3.65
	읍면지역 이하 (81)	3.77	3.83	3.15	3.73

자료: 설문조사

친환경 생활 실천 정도에서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 비율이 63.1%로 친환경 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친환경적인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5.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5] 친환경 실천



자료: 설문조사

<표 4-6> 본인의 친환경 태도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친환경적인 편이다	매우 친환경적이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0.7	4.9	31.3	54.8	8.3	3.65	66.3
성별	남성 (499)	0.4	6.6	33.7	52.5	6.8	3.59	64.7
	여성 (501)	1.0	3.2	28.9	57.1	9.8	3.71	67.9
연령대	만20세~29세 (166)	0.6	4.8	32.5	54.2	7.8	3.64	66.0
	만30세~39세 (154)	1.3	8.4	40.9	43.5	5.8	3.44	61.0
	만40세~49세 (189)	0.0	4.8	38.6	52.4	4.2	3.56	64.0
	만50세~59세 (196)	1.0	3.6	30.1	56.1	9.2	3.69	67.2
	만60세 이상 (295)	0.7	4.1	21.7	61.7	11.9	3.80	70.0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0.0	5.5	29.2	56.2	9.1	3.69	67.2
	중소도시 (481)	1.0	4.4	32.0	55.1	7.5	3.64	65.9
	읍면지역 (81)	2.5	4.9	38.3	45.7	8.6	3.53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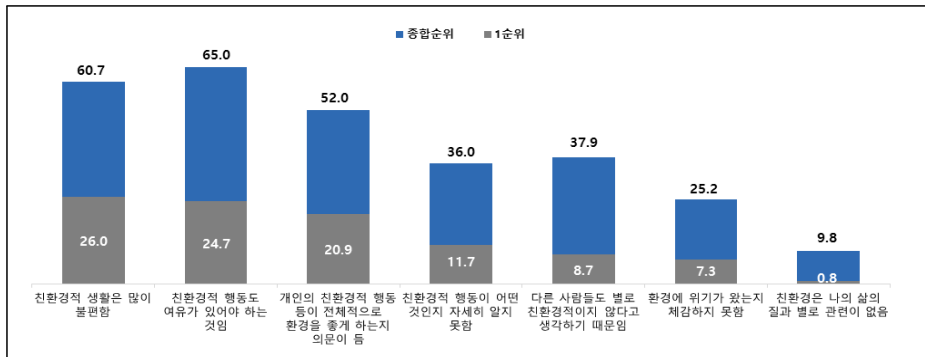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라. 친환경 행동의 제약요인

본인 생활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응답자의 친환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 보면(종합순위 기준), ‘친환경적 행동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임’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친환경적 생활은 많이 불편함’(60.7%), ‘개인의 친환경적 행동이 전체적으로 환경을 좋게 하는지 의문이 있음’(52.0%), ‘다른 사람들도 별로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임’(3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친환경 행동의 제약요인

(Base: 본인 생활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4-7> 친환경 행동의 제약 요인(1순위 기준)

(단위: %)

구 분	사례수	불편함	여유 없음	환경 영향 의문	친환경 행동 모름	타인이 행동 의심	환경위기 인지 못함	삶과 관계 없음
전체	(369)	26.0	24.7	20.9	11.7	8.7	7.3	0.8
성별	남성 (203)	24.6	25.6	18.7	8.4	11.3	10.3	1.0
	여성 (166)	27.7	23.5	23.5	15.7	5.4	3.6	0.6
연령대	만20세~29세 (63)	22.2	27.0	19.0	12.7	9.5	9.5	0.0
	만30세~39세 (78)	15.4	24.4	25.6	17.9	10.3	5.1	1.3
	만40세~49세 (82)	28.0	26.8	18.3	9.8	11.0	4.9	1.2
	만50세~59세 (68)	27.9	25.0	19.1	13.2	5.9	8.8	0.0
	만60세 이상 (78)	35.9	20.5	21.8	5.1	6.4	9.0	1.3
소재지 규모	대도시 (152)	25.7	27.0	17.8	9.9	9.2	8.6	2.0
	중소도시 (180)	28.3	21.7	23.9	12.2	6.7	7.2	0.0
	읍면지역 이하 (37)	16.2	29.7	18.9	16.2	16.2	2.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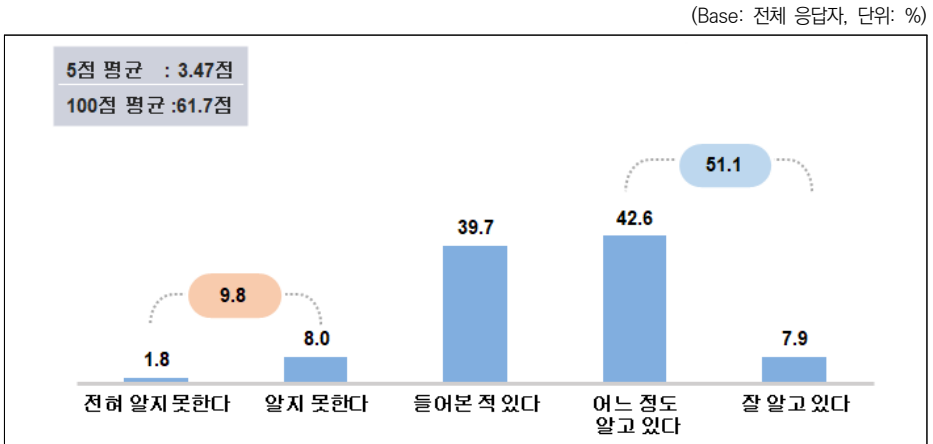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2-2. 탄소중립 인식

가. 탄소중립 개념의 인식 및 인식 경로

탄소중립 개념에 대해서, 응답자의 50.5%가 '잘 알고 있음(어느 정도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으로 응답했으며, '알지 못함(전혀 알지 못한다+알지 못한다)'은 9.8%로 나타났다.

[그림 4-7] 탄소중립 개념 인지



자료: 설문조사

<표 4-8> 탄소중립 개념 인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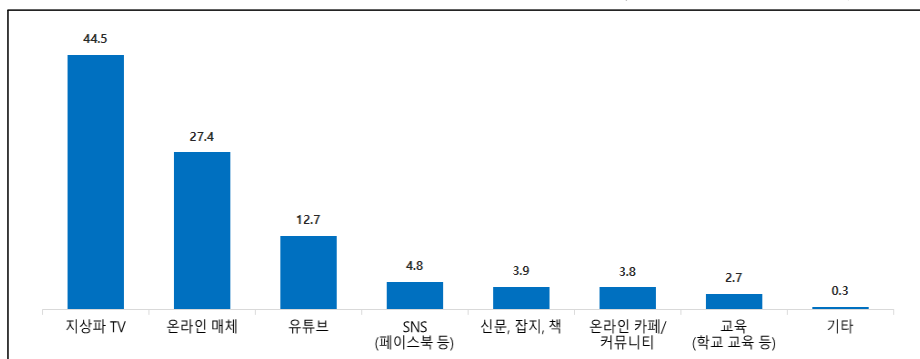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들어본 적은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1.8	8.0	39.7	42.6	7.9	3.47	61.7	
성별	남성	(499)	1.6	4.8	35.7	47.5	10.4	3.60	65.1
	여성	(501)	2.0	11.2	43.7	37.7	5.4	3.33	58.3
연령대	만20세~29세	(166)	3.6	10.8	34.9	44.6	6.0	3.39	59.6
	만30세~39세	(154)	2.6	15.6	44.2	31.2	6.5	3.23	55.8
	만40세~49세	(189)	2.6	6.3	39.2	42.3	9.5	3.50	62.4
	만50세~59세	(196)	0.0	6.1	40.8	45.4	7.7	3.55	63.6
	만60세 이상	(295)	1.0	4.7	39.7	45.8	8.8	3.57	64.2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2.3	7.5	39.0	43.2	8.0	3.47	61.8
	중소도시	(481)	1.2	8.5	39.7	42.6	7.9	3.47	61.9
	읍면지역 이하	(81)	2.5	7.4	43.2	39.5	7.4	3.42	60.5

자료: 설문조사

탄소중립 등 친환경적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지상파 TV’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온라인 매체’(27.4%), ‘유튜브’(12.7%), ‘SNS(페이스북 등)’(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탄소중립 개념 인지 경로

(Base: 탄소중립 개념 인자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4-9> 탄소중립 개념 인지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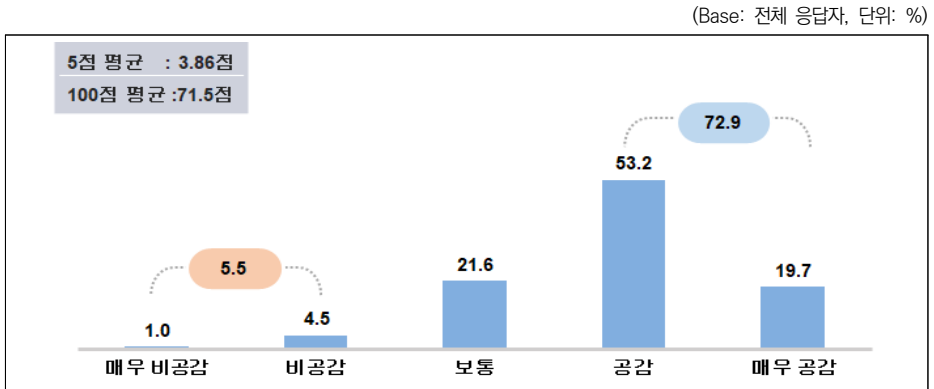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지상파 TV	온라인 매체	유튜브	SNS (페이스북 등)	신문, 잡지, 책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교육 (학교 교육 등)	기타
전체	(1,000)	44.5	27.4	12.7	4.8	3.9	3.8	2.7	0.3
성별	남성 (499)	41.1	27.4	15.6	6.4	3.4	3.2	2.4	0.4
	여성 (501)	48.0	27.4	9.7	3.0	4.4	4.4	3.0	0.2
연령대	만20세~29세 (166)	20.4	25.4	26.1	9.9	6.3	4.9	7.0	0.0
	만30세~39세 (154)	29.4	29.4	20.6	7.9	3.2	6.3	3.2	0.0
	만40세~49세 (189)	36.6	38.4	12.2	5.2	1.2	4.1	1.7	0.6
	만50세~59세 (196)	53.3	26.6	8.2	3.8	2.7	3.8	1.1	0.5
	만60세 이상 (295)	62.6	21.2	5.8	1.1	5.4	1.8	1.8	0.4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42.3	28.9	12.2	4.8	5.6	3.8	2.5	0.0
	중소도시 (481)	45.4	27.4	12.4	5.1	3.0	3.7	2.3	0.7
	읍면지역 이하 (81)	50.7	19.2	17.8	2.7	0.0	4.1	5.5	0.0

자료: 설문조사

나. 탄소중립정책 공감 정도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2.9%가 ‘공감함(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으로 응답했으며, ‘공감하지 않음(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공감하지 않는다)’은 5.5%로 나타났다.

[그림 4-9] 탄소중립정책 공감 정도



자료: 설문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71.6점), 연령대별로는 ‘만 60세 이상’(76.2%), 거주지 규모별로는 ‘중소도시’(72.4점)가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4-10〉 탄소중립정책 공감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공감한다	보통 이다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19.7	53.2	21.6	4.5	1.0	3.86	71.5
성별	남성 (499)	19.6	52.9	22.4	3.8	1.2	3.86	71.5
	여성 (501)	19.8	53.5	20.8	5.2	0.8	3.86	71.6
연령대	만20세~29세 (166)	12.7	42.8	31.3	10.2	3.0	3.52	63.0
	만30세~39세 (154)	14.3	45.5	33.8	6.5	0.0	3.68	66.9
	만40세~49세 (189)	18.0	54.5	22.8	4.2	0.5	3.85	71.3
	만50세~59세 (196)	24.0	58.7	14.3	2.0	1.0	4.03	75.6
	만60세 이상 (295)	24.7	58.6	13.9	2.0	0.7	4.05	76.2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19.9	50.7	23.3	5.3	0.9	3.83	70.8
	중소도시 (481)	19.5	56.1	19.5	4.0	0.8	3.90	72.4
	읍면지역 이하 (81)	19.8	49.4	24.7	3.7	2.5	3.80	70.1

자료: 설문조사

3.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발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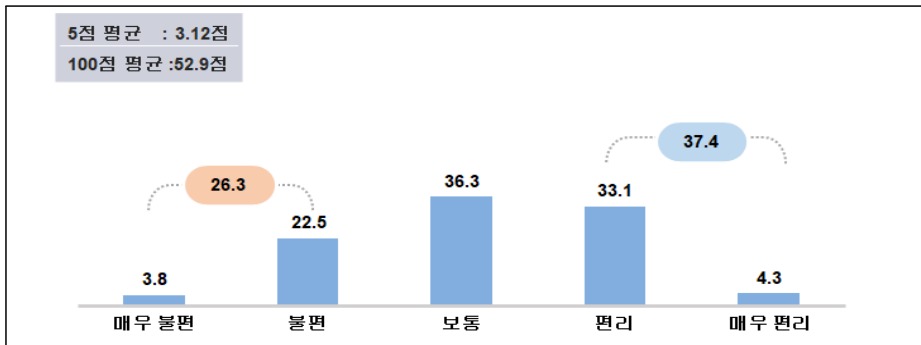
3-1. 문화서비스 이용 현황

가.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인식

공공문화시설 이용 시 접근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37.4%가 ‘편리함(편리하다+매우 편리하다)’을 응답했으며, ‘불편함(매우 불편하다+불편하다)’은 26.3%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읍면지역 이하에 거주하는 사람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인식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4-11〉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편하다	불편하다	보통이다	편리하다	매우 편리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3.8	22.5	36.3	33.1	4.3	3.12	52.9
성별	남성 (499)	3.4	22.0	38.3	32.9	3.4	3.11	52.7
	여성 (501)	4.2	23.0	34.3	33.3	5.2	3.12	53.1
연령대	만20세~29세 (166)	2.4	18.7	38.6	35.5	4.8	3.22	55.4
	만30세~39세 (154)	3.2	23.4	37.7	32.5	3.2	3.09	52.3
	만40세~49세 (189)	1.1	27.0	37.6	31.7	2.6	3.08	52.0
	만50세~59세 (196)	6.6	20.4	33.7	32.7	6.6	3.12	53.1
	만60세 이상 (295)	4.7	22.7	35.3	33.2	4.1	3.09	52.3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4.1	18.7	37.9	34.5	4.8	3.17	54.3
	중소도시 (481)	3.5	23.9	33.7	35.1	3.7	3.12	52.9
	읍면지역 (81)	3.7	34.6	43.2	13.6	4.9	2.81	45.4

자료: 설문조사

나. 공공 문화시설 방문 여부

공공문화기반시설 방문유무를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 모두 '도서관'을 각각 66.6%, 46.9%로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20년 방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영역은 축제 영역으로 -29.9%의 방문율 감소가 나타났다.

〈표 4-12〉 공공 문화서비스 방문율(2019년~2020년)

(단위: %)

구분	2019년 방문율(A)	2020년 방문율(B)	차이(B-A)
도서관	66.6	46.9	-19.7
박물관	48.6	22.0	-26.6
미술관	39.0	18.3	-20.7
공연장	44.8	18.6	-26.2
축제	47.4	17.5	-29.9

자료: 설문조사

다. 공공 문화시설 방문 빈도

문화서비스 연간 방문빈도를 살펴보면, 중위값 기준으로 도서관이 연간 33.6회로 가장 높았고, 공연장이 4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빈도도 방문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하게 공연장과 축제의 방문빈도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장 등이 영업을 못한 것을 고려하면 본 통계의 해석에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3〉 문화서비스 방문 빈도

(단위: 회)

구분	2019년 연간 방문빈도 평균				2020년 연간 방문빈도 평균			
	사례 수	최소	최대	중위	사례 수	최소	최대	중위
도서관	669	20.86	42.31	33.56	471	17.99	34.32	26.16
박물관	488	10.73	16.08	13.00	222	7.25	15.64	11.45
미술관	392	5.89	12.95	9.42	185	6.53	14.08	10.31
공연장	132	2.00	6.00	4.00	188	6.39	13.35	9.87
축제	476	3.26	6.74	5.00	177	4.78	9.39	7.09

자료: 설문조사

라. 공공 문화시설 이동 수단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수단은 시설별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서관과 축제의 경우 '19년 '20년 모두 도보를 통한 이동이 가장 높았고, 박물관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고, 미술관, 공연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표 4-14〉 공공 문화서비스 이동 수단

(단위: %)

	구분	사례수	도보 자전거	자가용 (택시)	대중교통	오토바이	온라인 등
2019년	도서관	666	49.2	28.5	21.2	0.6	0.5
	박물관	486	4.9	51.9	42.4	0.2	0.6
	미술관	390	3.8	43.3	52.6	0.5	0.0
	공연장	448	8.3	41.1	49.3	0.9	0.4
	축제	474	11.4	56.1	30.4	1.5	1.0
2020년	도서관	469	51.0	30.9	17.1	0.6	0.4
	박물관	220	4.5	58.2	35.0	1.8	0.5
	미술관	183	6.6	47.5	44.3	1.1	0.5
	공연장	186	10.2	46.8	41.4	0.5	1.1
	축제	175	10.9	65.1	21.7	1.1	1.1

자료: 설문조사

이동 관련 탄소배출과 관련성이 높은 자가용 이용자 연료를 살펴보면, 휘발유 차량이 가장 많았으며, 경유, LPG, 전기/수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4-15〉 자가용 연료

(단위: %)

	구분	사례수	휘발유	경유	LPG	전기/수소
2019년	도서관	(190)	60.5	25.3	12.1	2.1
	박물관	(252)	62.3	26.6	9.1	2.0
	미술관	(169)	67.5	23.1	6.5	3.0
	공연장	(184)	69.6	19.0	9.2	2.2
	축제	(266)	62.8	25.9	9.4	1.9
2020년	도서관	(145)	60.7	27.6	11.0	0.7
	박물관	(128)	60.9	29.7	7.8	1.6
	미술관	(87)	63.2	21.8	12.6	2.3
	공연장	(87)	65.5	14.9	14.9	4.6
	축제	(114)	63.2	21.1	13.2	2.6

자료: 설문조사

라. 이동 소요시간 및 이동 거리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하는 소요시간은 도서관이 가장 짧았고 축제, 박물관, 미술관 순으로 이동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시간과 이동 수단의 평균 시속을 활용하여 이동거리를 산출한 결과 축제의 방문을 위한 이동거리가 가장 길었고, 다음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이동시간, 이동거리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6〉 문화서비스 1회 이동 소요 시간 및 이동 거리

(단위: 분, Km)

구분	2019년 평균 이동 시간 및 거리			2020년 평균 이동 시간 및 거리		
	이동시간	이동거리	왕복거리	이동시간	이동거리	왕복거리
도서관	19.53	9.76	19.52	18.89	9.10	18.20
박물관	44.00	35.64	71.28	42.08	34.14	68.28
미술관	47.17	38.68	77.36	43.52	35.10	70.20
공연장	40.19	32.14	64.28	38.64	29.96	59.92
축제	59.06	46.65	93.30	55.58	43.92	87.84

자료: 설문조사

문화서비스 이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도출하기 1인당 연간 문화서비스 방문 이동 거리를 방문횟수와 1회 평균 이동거리를 통해 산출한 결과, 공연장 방문에 따른 이동거리가 가장 짧았고, 박물관 방문에 따른 이동거리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 방문횟수를 범위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범위로 제시하였다.

$$\text{연간 문화서비스 이용 이동거리 산출} = \text{방문횟수} \times \text{1회 평균 이동거리}$$

〈표 4-17〉 연간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거리

(단위: Km)

구분	2019년 연간 방문거리 평균(편도)			2020년 연간 방문거리 평균(편도)		
	최소	최대	중위	최소	최대	중위
도서관	203.59	412.95	327.55	163.71	312.31	238.06
박물관	382.42	573.09	463.32	247.52	533.95	390.90
미술관	227.83	500.91	364.37	229.20	494.21	361.88
공연장	64.28	192.84	128.56	191.44	399.97	295.71
축제	152.08	314.42	233.25	209.94	412.41	311.39

자료: 설문조사

3-2.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발자국 추정

가.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발자국 추정 방식

탄소발자국을 추정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탄소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의 다양한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추정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 문화시설을 방문하게 되고, 방문 시 이동수단이 다르고, 이동 거리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교통의 탄소발자국 배출량 추정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환경부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의 탄소 발자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020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에 따르면, 도심기준으로 휘발유차의 2019년 평균 CO₂ 배출량은 161.5g/km, 경유차의 평균 CO₂ 배출량은 190.2g/km, LPG차의 2019년 평균 CO₂ 배출량은 174.4g/km 으로 나타났다. 한편, 루프트한자 이노베이션 허브와 TNMT(Travel and Mobility Tech) 등의 조사에 따라 오토바이의 2019년 평균 CO₂ 배출량은 145g/km을 사용하였으며, 대중교통은 지하철 60g/km, 버스 58g/km의 평균값인 60g/km을 사용하여 탄소배출을 추정하였다.

$$\text{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발자국(1년)} = \text{이동거리(방문횟수 * 평균 이동거리)} * \text{이동수단} * \text{이동수단별 탄소배출계수}$$

〈표 4-18〉 이동 수단별 탄소배출 계수

(단위: kg/km)

구분	자가용(택시포함)					대중 교통	오토 바이	도보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탄소 배출계수	0.16	0.19	0.17	0.13	0.13	0.06	0.15	0

나.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발자국

1)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발자국

〈표 4-19〉 연간 문화서비스 이용의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단위: kgCO₂)

구분	2019년 이용자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2020년 이용자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최소	최대	중위	최소	최대	중위
도서관	19.8732	35.4849	28.7391	14.7259	28.1546	21.4404
박물관	28.8577	48.4315	37.0832	20.3020	41.9307	31.1157
미술관	17.5041	38.5100	28.0071	17.8595	35.4310	26.6453
공연장	7.2487	21.7462	14.4974	16.1904	32.4900	24.3398
축제	16.1167	34.5612	25.3390	22.8902	45.3500	34.1198
전체 평균	19.8829	37.9304	28.8820	17.5656	34.7871	26.1762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저자 분석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으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는 1인당 최소 19.8829 kgCO₂ 에서 최대 37.9304 kgCO₂ 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문화서비스는 박물관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서관, 미술관, 축제, 공연장 순이었다.

2) 도시규모별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발자국

도시규모별로 문화시설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발자국을 추정해 보면, 중위값 기준으로 2019년은 중소도시가 33.45kgCO₂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은 대도시가 29.3533.45kgCO₂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도시규모별 1인당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배출량

(단위: kgCO₂)

구분	19년 이용자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20년 이용자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최소	최대	중위	최소	최대	중위
대도시	17.22	32.45	24.65	19.68	39.02	29.35
중소도시	22.91	43.78	33.45	16.57	32.74	24.66
읍면지역	13.60	28.16	20.94	10.89	21.79	16.34
전체 평균	19.88	37.93	28.88	17.57	34.79	26.18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저자 분석

4. 친환경 문화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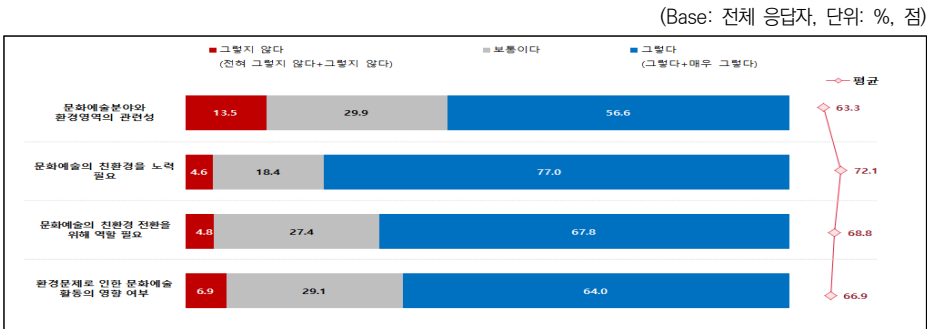
4-1. 친환경 문화향유 수요

가.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문화예술분야와 환경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4가지 문항을 질문하였다. 먼저 환경과 문화가 관련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6%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활동을 함에 있어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4가지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은 국가 전체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8% 이었다. 역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문화예술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응답은 64%였다.

[그림 4-11]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자료: 설문조사

<표 4-21>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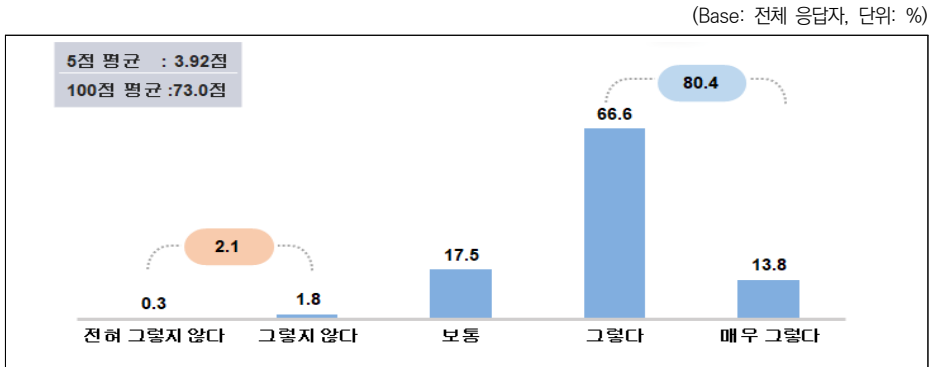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문화와 환경 관련 있음	문화의 친환경 노력 필요	친환경을 위한 문화역할 필요	환경이 문화활동에 영향
전체	(1,000)	3.53	3.89	3.75	3.67
성별	남성 (499)	3.40	3.81	3.70	3.61
	여성 (501)	3.66	3.96	3.80	3.74
연령대	만20세~29세 (166)	3.43	3.74	3.61	3.53
	만30세~39세 (154)	3.32	3.75	3.61	3.44
	만40세~49세 (189)	3.50	3.93	3.68	3.68
	만50세~59세 (196)	3.53	3.98	3.88	3.83
	만60세 이상 (295)	3.72	3.95	3.87	3.77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3.55	3.89	3.76	3.68
	중소도시 (481)	3.53	3.89	3.76	3.68
	읍면지역 이하 (81)	3.46	3.81	3.65	3.63

자료: 설문조사

나. 친환경적 문화향유 고려 의향

문화서비스 이용 시 환경 이슈 고려 의향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0.4%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했으며, 부정적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문화향유 시 친환경 이슈 고려 의향



자료: 설문조사

〈표 4-22〉 문화향유 시 친환경 이슈 고려 의향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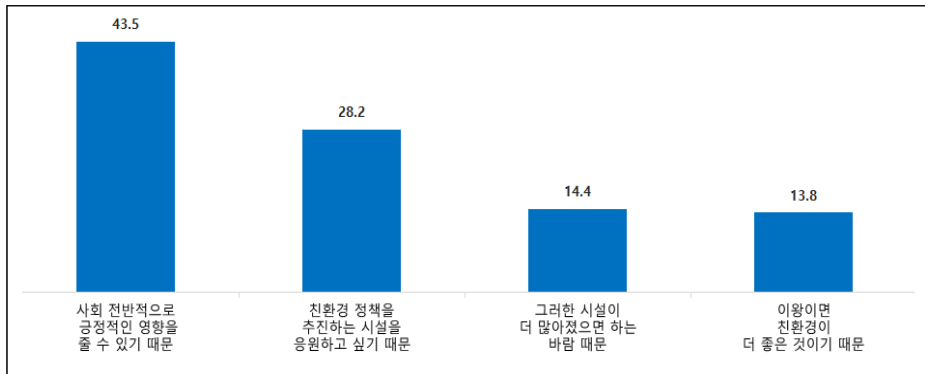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0.3	1.8	17.5	66.6	13.8	3.92	73.0	
성별	남성	(499)	0.6	2.6	18.6	64.3	13.8	3.88	72.0
	여성	(501)	0.0	1.0	16.4	68.9	13.8	3.95	73.9
연령대	만20세~29세	(166)	1.2	4.2	26.5	55.4	12.7	3.74	68.5
	만30세~39세	(154)	0.0	3.2	29.9	55.8	11.0	3.75	68.7
	만40세~49세	(189)	0.0	0.5	14.8	72.5	12.2	3.96	74.1
	만50세~59세	(196)	0.5	0.0	9.7	72.4	17.3	4.06	76.5
	만60세 이상	(295)	0.0	1.7	12.9	70.8	14.6	3.98	74.6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0.5	2.1	17.8	66.2	13.5	3.90	72.5
	중소도시	(481)	0.0	1.9	15.6	68.0	14.6	3.95	73.8
	읍면지역 이하	(81)	1.2	0.0	27.2	60.5	11.1	3.80	70.1

자료: 설문조사

문화향유 시 환경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사람(n=804)들에게 문화서비스 이용 시 환경 이슈를 고려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시설을 응원하고 싶기 때문'(28.2%), '그러한 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친환경 이슈 고려 이유

(Base: 환경 이슈를 고려하는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4-23> 친환경 이슈를 고려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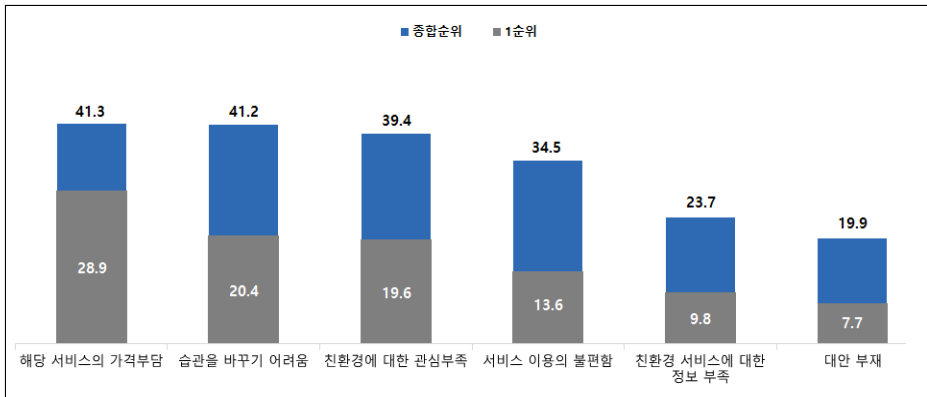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	친환경 추진 시설 응원	친환경 시설 증가 바람	친환경의 비교우위	
전체	(804)	43.5	28.2	14.4	13.8	
성별	남성	(390)	46.7	24.4	14.4	14.6
	여성	(414)	40.6	31.9	14.5	13.0
연령대	만20세~29세	(113)	36.3	32.7	9.7	21.2
	만30세~39세	(103)	40.8	22.3	22.3	14.6
	만40세~49세	(160)	41.3	30.0	18.1	10.6
	만50세~59세	(176)	50.0	26.7	11.4	11.9
	만60세 이상	(252)	44.8	28.6	13.1	13.5
소재지 규모	대도시	(349)	44.1	24.9	15.8	15.2
	중소도시	(397)	45.1	30.7	13.1	11.1
	읍면지역 이하	(58)	29.3	31.0	15.5	24.1

자료: 설문조사

친환경적 문화향유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물어본 결과는 1+2순위 합산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의 가격부담’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습관을 바꾸기 어려움’(41.2%), ‘친환경에 대한 관심부족’(39.4%),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3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친환경적 문화향유의 걸림돌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4-24> 친환경적 문화향유의 걸림돌(1순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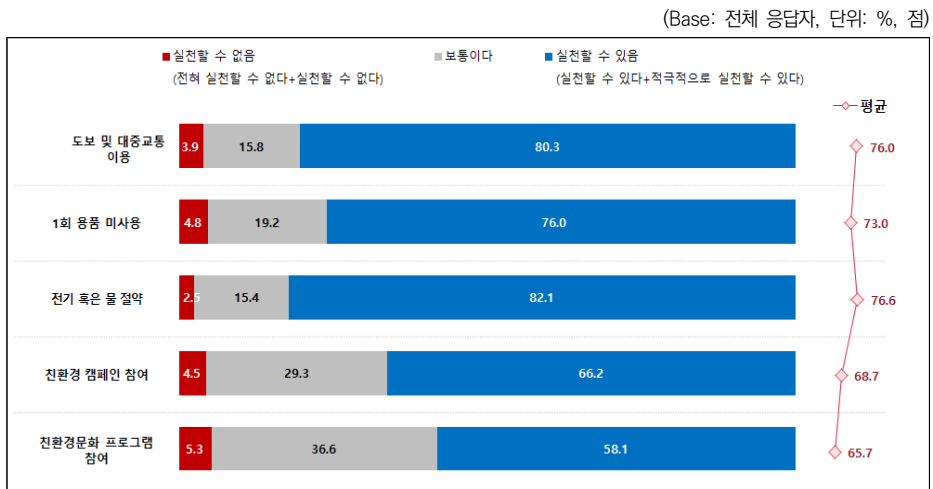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해당 서비스의 가격부담	습관을 바꾸기 어려움	친환경에 대한 관심부족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	친환경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대안 부재
전체	(1,000)	28.9	20.4	19.6	13.6	9.8	7.7
성별	남성 (499)	25.3	18.2	20.8	16.2	9.8	9.6
	여성 (501)	32.5	22.6	18.4	11.0	9.8	5.8
연령대	만20세~29세 (166)	34.3	17.5	15.1	18.1	4.8	10.2
	만30세~39세 (154)	28.6	23.4	16.9	13.6	4.5	13.0
	만40세~49세 (189)	25.9	24.3	16.4	14.8	13.2	5.3
	만50세~59세 (196)	34.7	20.4	17.3	13.3	8.2	6.1
	만60세 이상 (295)	24.1	18.0	27.1	10.5	14.2	6.1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27.2	23.1	18.9	14.6	9.4	6.8
	중소도시 (481)	29.5	18.7	19.3	12.5	11.0	8.9
	읍면지역 이하 (81)	34.6	16.0	24.7	14.8	4.9	4.9

자료: 설문조사

다.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적 문화서비스 이용 행동

구체적인 수준에서 문화향유 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적 행동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문화서비스 이용 시 실천 의향 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기 혹은 물 절약 정도'가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80.3%), '1회 용품 미사용 정도'(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적 프로그램 참여'가 5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5] 친환경적 문화서비스 이용 실천 가능성



자료: 설문조사

<표 4-25> 친환경적 문화서비스 이용 실천 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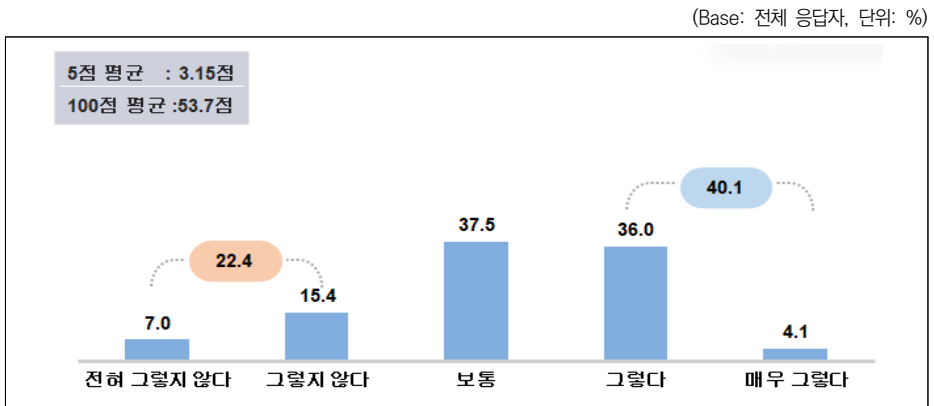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도보 대중교통 이용	1회용품 미사용	전기 물 절약	캠페인 참여	친환경 문화 프로그램 참여	
전체	(1,000)	4.04	3.92	4.06	3.75	3.63	
성별	남성	(499)	4.00	3.87	4.02	3.73	3.63
	여성	(501)	4.08	3.98	4.11	3.76	3.62
연령대	만20세~29세	(166)	4.06	3.70	3.85	3.65	3.55
	만30세~39세	(154)	3.92	3.73	3.81	3.62	3.42
	만40세~49세	(189)	3.91	3.85	4.05	3.76	3.69
	만50세~59세	(196)	4.10	3.99	4.17	3.82	3.70
	만60세 이상	(295)	4.14	4.14	4.24	3.82	3.68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4.10	3.97	4.10	3.75	3.62
	중소도시	(481)	4.02	3.90	4.05	3.75	3.63
	읍면지역 이하	(81)	3.85	3.78	3.91	3.67	3.64

자료: 설문조사

라. 문화서비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문화서비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환경비용 등의 명목으로 세금 부과 시 부담 의향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0.1%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했으며, 부정적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은 22.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환경 인식이나 습관 변화 의향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 세금부담에는 여전히 중립적인 인식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림 4-16] 문화서비스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자료: 설문조사

<표 4-26> 문화서비스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7.0	15.4	37.5	36.0	4.1	3.15	53.7	
성별	남성	(499)	7.8	13.4	35.9	38.1	4.8	3.19	54.7
	여성	(501)	6.2	17.4	39.1	33.9	3.4	3.11	52.7
연령대	만20세~29세	(166)	6.6	22.9	36.7	28.9	4.8	3.02	50.6
	만30세~39세	(154)	11.0	16.9	34.4	30.5	7.1	3.06	51.5
	만40세~49세	(189)	4.8	14.3	35.4	42.9	2.6	3.24	56.1
	만50세~59세	(196)	7.1	9.7	40.3	38.3	4.6	3.23	55.9
	만60세 이상	(295)	6.4	14.9	39.0	36.9	2.7	3.15	53.6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8.0	15.3	36.1	35.2	5.5	3.15	53.7
	중소도시	(481)	6.2	13.7	39.5	37.8	2.7	3.17	54.3
	읍면지역 이하	(81)	6.2	25.9	33.3	29.6	4.9	3.01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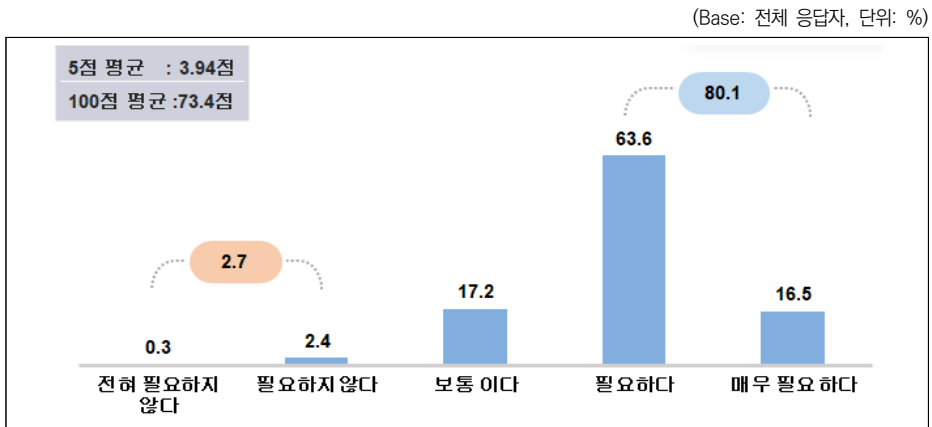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4-2. 친환경 문화정책 수요

가. 친환경 전환에 문화분야 참여 필요성

향후 국가 친환경 정책의 확대에 대응해 문화 분야의 동참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1%가 '필요함(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으로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음(전혀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다)'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친환경 전환에 문화분야 참여 필요성



자료: 설문조사

<표 4-27> 친환경 전환에 문화분야 참여 필요성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0.3	2.4	17.2	63.6	16.5	3.94	73.4	
성별	남성	(499)	0.6	3.0	17.6	63.3	15.4	3.90	72.5
	여성	(501)	0.0	1.8	16.8	63.9	17.6	3.97	74.3
연령대	만20세~29세	(166)	0.6	6.0	24.1	54.8	14.5	3.77	69.1
	만30세~39세	(154)	0.6	2.6	29.9	52.6	14.3	3.77	69.3
	만40세~49세	(189)	0.0	3.2	14.3	68.8	13.8	3.93	73.3
	만50세~59세	(196)	0.5	0.5	11.2	65.3	22.4	4.09	77.2
	만60세 이상	(295)	0.0	1.0	12.5	69.8	16.6	4.02	75.5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0.5	3.4	18.0	61.6	16.4	3.90	72.5
	중소도시	(481)	0.0	1.7	15.4	65.9	17.0	3.98	74.6
	읍면지역 이하	(81)	1.2	1.2	23.5	60.5	13.6	3.84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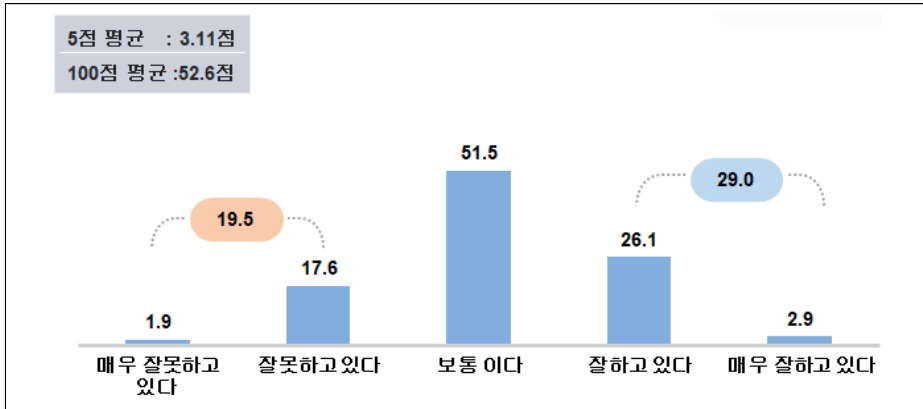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나. 문화서비스 친환경 책임이행 수준 평가

공공문화시설의 친환경 책임 이행 평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9.0%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으로 응답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하고 있다+잘못하고 있다)'는 19.5%로 나타났다. 다만, '보통'이라는 응답이 51.5%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도 낮지 않았다.

[그림 4-18] 문화서비스 기관 친환경 책임이행 수준 평가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4-28> 문화서비스 기관 친환경 책임이행 수준 평가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보통 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1.9	17.6	51.5	26.1	2.9	3.11	52.6	
성별	남성	(499)	2.2	16.2	47.7	30.1	3.8	3.17	54.3
	여성	(501)	1.6	19.0	55.3	22.2	2.0	3.04	51.0
연령대	만20세~29세	(166)	3.0	16.9	46.4	30.7	3.0	3.14	53.5
	만30세~39세	(154)	1.3	11.7	54.5	30.5	1.9	3.20	55.0
	만40세~49세	(189)	1.6	15.3	52.4	28.6	2.1	3.14	53.6
	만50세~59세	(196)	1.0	20.9	48.0	26.0	4.1	3.11	52.8
	만60세 이상	(295)	2.4	20.3	54.6	19.7	3.1	3.01	50.2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1.8	16.9	48.9	28.8	3.7	3.16	53.9
	중소도시	(481)	1.7	18.1	52.8	25.2	2.3	3.08	52.1
	읍면지역 이하	(81)	3.7	18.5	58.0	17.3	2.5	2.96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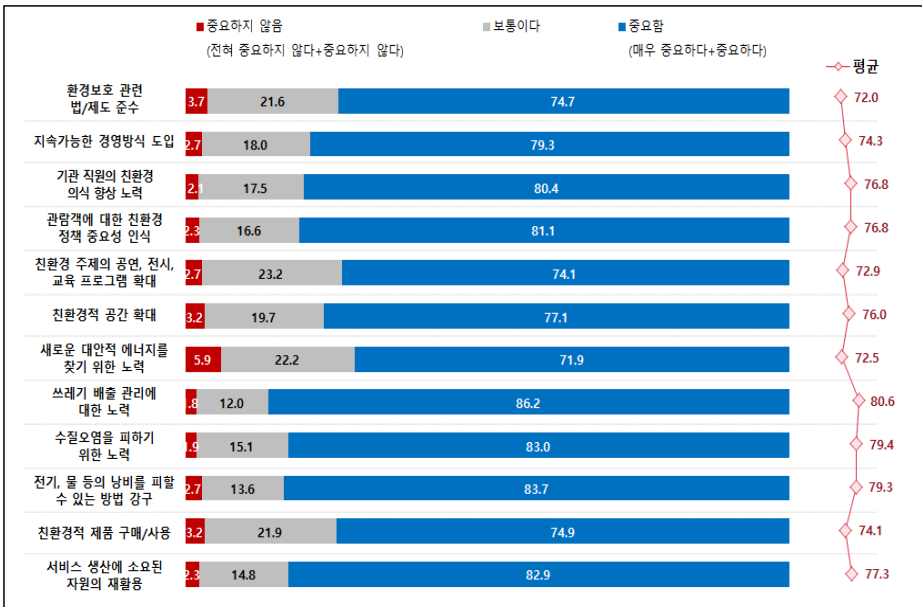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다.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실천영역 중요성 인식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실천영역의 중요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쓰레기 배출 관리에 대한 노력’ 영역이 86.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질오염을 피하기 위한 노력’(83%), ‘전기, 물 등의 낭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강구’(83.7%), ‘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자원의 재활용’(82.9%), ‘관람객에 대한 친환경 정책 중요성 제공(81.1%)’, ‘기관 직원의 친환경 의식 향상 노력(8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실천영역 중요성 인식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점)



자료: 설문조사

<표 4-29>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실천 영역별 중요성 인식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법/제도	지속가능경영	종사자 인식 개선	관람객 인식 개선	친환경 프로그램	친환경 공간 확대	대안 에너지 도입	쓰레기 절감	수질오염 저감	자원 절약	친환경 제품	재활용
전체	(1,000)	3.88	3.97	4.07	4.07	3.92	4.04	3.90	4.22	4.18	4.17	3.96	4.09
성별	남성 (499)	3.87	3.96	4.08	4.02	3.88	4.03	3.82	4.17	4.13	4.10	3.98	4.05
	여성 (501)	3.89	3.99	4.07	4.12	3.95	4.05	3.98	4.27	4.22	4.25	3.94	4.13
연령대	만20세~29세 (166)	3.66	3.88	3.91	3.81	3.70	3.91	3.85	4.03	3.96	3.98	3.78	3.91
	만30세~39세 (154)	3.67	3.77	3.83	3.89	3.77	3.81	3.78	4.05	3.95	4.01	3.78	3.97

구분	사례수	법/제도	지속가능경영	종사자 인식 개선	관람객 인식 개선	친환경 프로그램	친환경 공간 확대	대안 에너지 도입	쓰레기 절감	수질 오염 저감	자원 절약	친환경 제품	재활용	
	만40세-49세	(189)	3.87	3.99	4.10	4.07	3.95	4.02	3.97	4.23	4.20	4.11	3.95	4.10
	만50세-59세	(196)	4.06	4.02	4.15	4.21	4.06	4.16	4.11	4.35	4.30	4.22	4.08	4.14
	만60세 이상	(295)	4.00	4.09	4.22	4.22	4.00	4.17	3.81	4.33	4.32	4.37	4.09	4.23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3.86	3.95	4.07	4.07	3.92	4.08	3.85	4.24	4.18	4.20	3.98	4.09
	중소도시	(481)	3.90	4.00	4.06	4.07	3.92	4.00	3.94	4.20	4.17	4.15	3.95	4.11
	읍면지역 이하	(81)	3.90	3.96	4.17	4.06	3.86	4.04	3.90	4.25	4.20	4.14	3.91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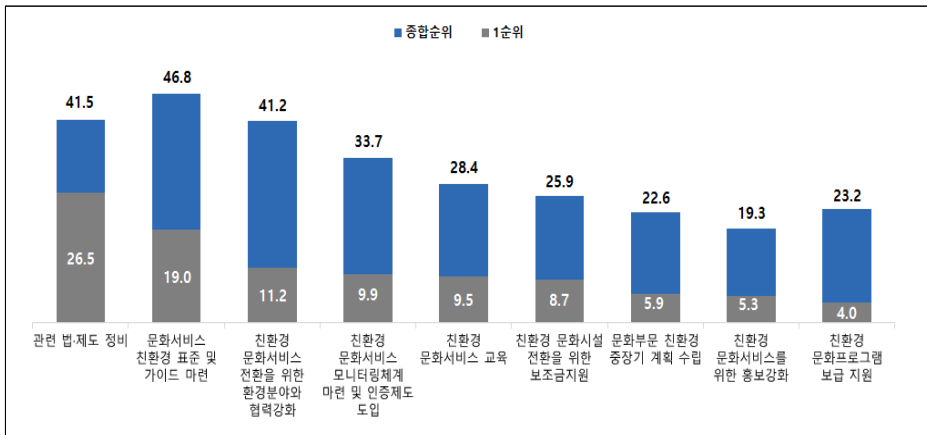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라. 문화서비스 친환경 정책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종합순위 기준), ‘문화서비스 친환경 표준 및 가이드 마련’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41.5%), ‘친환경 문화서비스 전환을 위한 환경분야와 협력 강화’(41.2%), ‘친환경 문화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3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0] 친환경 문화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4-30〉 친환경 문화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단위: 점)

구분	사례수	표준 및 가이드 마련	관련 법·제도 정비	환경 분야와 협력강화	모니터링 체계 마련	친환경 문화 서비스 교육	보조금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홍보 강화	친환경 프로그램 지원	
전체	(1,000)	26.5	19.0	11.2	9.9	9.5	8.7	5.9	5.3	4.0	
성별	남성	(499)	27.1	19.6	9.8	9.2	8.4	10.6	5.6	5.2	4.4
	여성	(501)	25.9	18.4	12.6	10.6	10.6	6.8	6.2	5.4	3.6
연령대	만20세-29세	(166)	30.7	15.1	8.4	11.4	11.4	10.8	5.4	2.4	4.2
	만30세-39세	(154)	29.2	21.4	9.1	10.4	11.7	5.8	4.5	3.2	4.5
	만40세-49세	(189)	24.3	18.5	10.6	12.2	9.0	8.5	5.3	5.8	5.8
	만50세-59세	(196)	26.0	20.4	8.7	7.7	9.2	12.2	6.6	6.1	3.1
	만60세 이상	(295)	24.4	19.3	15.9	8.8	7.8	6.8	6.8	7.1	3.1
소재지 규모	대도시	(438)	26.7	19.9	12.8	10.0	7.8	8.2	6.4	4.8	3.4
	중소도시	(481)	25.4	18.7	9.8	9.8	11.0	9.4	5.6	5.6	4.8
	읍면지역 이하	(81)	32.1	16.0	11.1	9.9	9.9	7.4	4.9	6.2	2.5

자료: 설문조사

5. 시사점

5-1. 대국민 설문결과 종합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환경 분야 관련 기후변화, 탄소중립관련 체감, 인지 및 공감, 실천 의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문화시설 이용으로 인한 탄소배출 관련하여 도서관은 탄소배출이 적은 자전거/도보 등 그리고 이동 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의 이용에는 접근성 요인 등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탄소배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문화 활동과 친환경의 관련성은 문화 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문화 활동 참여에 있어 환경적 이슈를 고려하려는 의향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다만, 친환경적 문화향유의 방해 요인은 친환경 비용 등으로 인한 가격 부담, 이전의 친환경적이지 않은 습관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장에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문화서비스 시설 등의

전기 및 물 절약, 문화서비스 시설 방문 시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징적으로 친환경적 문화프로그램 참여는 예상과 달리 가장 실천하고 싶지 않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의제인 친환경 전환에 문화정책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현재 문화서비스 분야는 친환경 전환에 동참하여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적었다. 문화서비스 시설 등에서 당장에 실천해야 하는 친환경 실천영역으로는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수질오염을 완화 노력, 문화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자원의 재활용, 기관 직원 및 관람객에 대한 친환경 중요성 인식 개선 노력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 정책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 문화서비스 친환경 표준 및 가이드 마련, 친환경 문화서비스를 위해 문체부와 환경부의 협력 강화 등을 꼽고 있었다.

5-2.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환경인식 정책 시사점

기후변화 및 친환경에 대한 인지 및 시급성 공감도가 높은 점은 향후 공공문화시설 및 문화정책에서도 충분히 이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친환경 문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다만, 탄소중립정책의 공감정도가 연령에 비례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젊은 층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친환경 전환을 위해 필수적으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의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친절하고 다양한 홍보와 인식 제고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불편함, 여유 없음, 개인 친환경적 행위의 결과 모호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환경 전환을 위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전략, 개인의 친환경 실천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주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서비스 이용의 친환경 실천이 무엇인지 간략한 방식을 지속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발자국 현황 정책 시사점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한 탄소배출량은 탄소배출량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예시로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의 표본이 승인 통계와 같이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산출하는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배출량을 정교한 값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배출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정교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환경부 등과 협업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본 문화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요한 탄소배출원은 교통과 관련된 것이다. 문화시설이 멀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해당 시설 이용에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구조다. 박물관 같은 경우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시설 이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시설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다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설의 수요 측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친환경적 관점을 도입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대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작은 박물관을 폐·유휴 공간을 활용하거나 공공시설을 일부 활용하여 새로 건설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 지역 공급망이 화두다. 물론 일시적인 상황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공급망의 지역화는 외부적 충격을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접성이 높은 작은 규모의 인구 단위 행사, 축제를 보다 많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시민 직접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 및 공연시설, 축제 등의 이동에 있어서 셔틀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새로 짓거나 계속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전기 등을 활용한 공공이동 수단을 적극 확대하고 나아가 새로 구비하는 것보다 시간대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감이 되도록 한 후 공공문화시설의 주차 유료화 및 주차대수 축소 등의 강력한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공공문화시설을 신설할 때 대중교통 및 접근성을 부지 선정의 최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관련 준비 및 계획이 건립 사전 평가제에 주요 항목으로 반영되도록 하면 시설 접근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공문화시설관련) 친환경 문화서비스 관련 정책 시사점

우선 기존 공공문화시설의 친환경 책임 이행정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눈에 고객/시민의 눈에 문화서비스 시설이 친환경적 책임을 지고 이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재활용, 쓰레기 관리, 수질오염 대책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환경서비스의 가격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역시 적극적인 문화 서비스와 연계된 적극적 프로그램이 심리적 접근성이 높도록 개발되고 홍보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모니터링, 법제도 정비 등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도 있다.

제3절 문화시설 설문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문화예술 부분에 친환경적 관점이 가장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영역은 문화서비스 공급영역이다. 공공 문화예술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생산(창·제작), 공급(매개), 소비(향유)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산과 소비 영역은 상대적으로 비체계화되어 있어 현재 수준에서 정책의 추진 여건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문화서비스의 공급 및 매개 영역은 행정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현황 및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비교적 정책 추진의 용이성이 담보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였다.

나. 조사 설계

문화시설 조사 대상은 국공립 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문예회관으로 하였으며, 대국민 조사는 최소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4-31〉 조사대상 및 방법

구분		내용
대국민	조사대상	• 전국 국공립 도서관(1,113개), 박물관(430개), 미술관(76개), 문예회관(103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1년 9월 16일 ~ 10월 13일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코그니티브 컨설팅 그룹

2. 조사 항목

현재 문화서비스 기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친환경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조사영역은 크게 문화서비스 운영방향, 친환경 준비도, 탄소발자국 현황, 친환경 정책 수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문화서비스 운영 방향’에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관 운영방향, 현재 시설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친환경 준비도’ 문화예술과 환경의 관련성,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박감, 기관의 친환경 책임이행 관심도, 친환경 관련 조직의 준비 및 이행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탄소발자국 현황’ 공공문화서비스 시설의 탄소배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녹색제품 구매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친환경 정책 수요’에서는 문화서비스 분야의 친환경 전환에 동참 의향, 친환경 정책추진의 제약사항, 문화서비스 이용자들이 참여 예상, 친환경 전환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32〉 문화서비스 시설 조사항목

구분	주요 조사내용
문화서비스 운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에 필요한 운영방향 • 현재 기관의 운영 방향
친환경 문화서비스 준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서비스와 친환경 관련성 인식 • 친환경 문화서비스에 대한 압박감 • 친환경 문화서비스 리더십 • 친환경 문화서비스 담당자 여부 • 친환경 문화서비스 관련 계획 수립 여부 • 친환경 문화서비스 실행 영역 • 친환경 문화서비스 준비도 인식
시설 현황 및 탄소발자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일반 현황 • 2019년, 2020년 기관의 운영 현황(개관일수 등) •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의 필요성 인식 • 2018~2020년 탄소발자국 현황(에너지, 물, 폐기물, 신재생 에너지) • 2018~2020년 녹색제품 구매 현황
친환경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문화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 친환경 문화서비스 제약요인 • 친환경 문화서비스 실천영역별 중요성 인식 • 친환경 문화서비스의 중장기적 영향 인식 • 문화서비스 이용자의 친환경 실천 가능성 인식 • 친환경 문화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제4절 문화시설 설문 조사 결과

1. 응답기관 특성

우선 전체 모집단 중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15.2%(262개) 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국립 문화시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기관의 유형에 따라 도서관이 120개(45.8%), 박물관/미술관이 77개(29.4%), 문예회관이 65개(24.8%) 이었다. 소재지의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89개(34%), 중소도시가 111개(42.4%), 읍면지역이하가 62개(23.7%)로 나타났고, 운영주체별로는 국립이 18개(6.9%), 공립이 233개(88.9%), 민간이 11개(4.2%)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33〉 응답시설 특성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구성비
전체		262	100.0
시설 소재지	서울/인천/경기	95	36.3
	부산/울산/경남	41	15.6
	대구/경북	47	17.9
	광주/전라	43	16.4
	대전/충청/세종	28	10.7
	강원/제주	8	3.1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34.0
	중소도시	111	42.4
	읍면지역 이하	62	23.7
시설 유형	도서관	120	45.8
	박물관/미술관	77	29.4
	공연장	65	24.8
시설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6.9
	지방정부	233	88.9
	민간	11	4.2

2. 문화서비스 기관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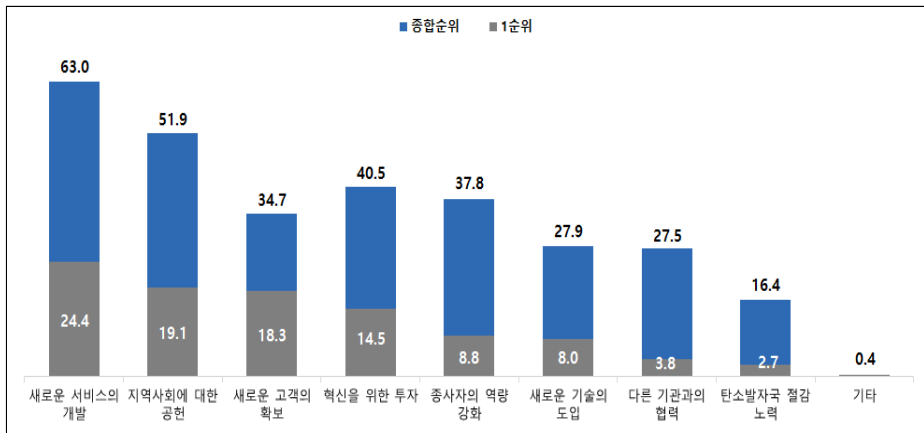
2-2.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에 요구되는 운영방향

가. 시설 종합

다양한 대·내외의 변화 대응 시 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종합순위 기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51.9%), '혁신을 위한 투자'(40.5%), '종사자의 역량 강화'(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4-21]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에 요구되는 사항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나. 시설 유형별

시설 유형별로 1순위 기준 도서관(27.5%)과 박물관/미술관(29.9%)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응답하였고, 공연장은 지역사회 공헌(30.8%)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탄소발자국 저감 노력은 가장 후순위로 인식하고 있었고, 도서관(4.2%)이 박물관/미술관(1.3%)과 공연장(1.5%)에 비해서는 대응에 필요성 인식을 다소 높게 하고 있었다. 1~3순위 응답 값을 기준으로 하면 탄소발자국 저감 노력이 16.4%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4-34〉 시설 유형별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필요사항 인식(1순위 기준)

(단위: %)

구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새로운 고객의 확보	혁신을 위한 투자	종사자의 역량 강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다른 기관과의 협력	탄소 발자국 절감 노력	기타
도서관	27.5	20.8	17.5	6.7	10.8	4.2	7.5	4.2	0.8
박물관/미술관	29.9	6.5	22.1	20.8	6.5	11.7	1.3	1.3	0
공연장	12.3	30.8	15.4	21.5	7.7	10.8	0	1.5	0

자료: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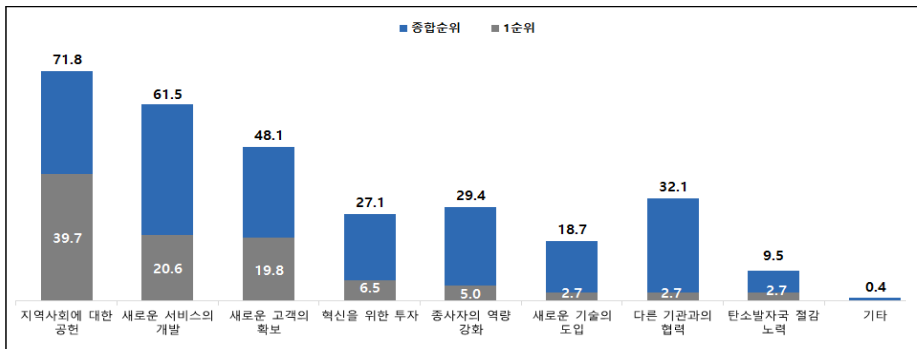
2-2. 해당 기관의 운영 우선순위

가. 시설 종합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의 운영방침을 살펴보면(종합순위 기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61.5%), ‘새로운 고객의 확보’(48.1%), ‘다른 기관과의 협력’(3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에 요구되는 사항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나. 시설 유형별

시설 유형별로 운영방침 1순위는 도서관(41.7%), 박물관/미술관(29.9%), 공연장(47.7%) 모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었다. ‘탄소발자국 저감 노력’은 도서관의 4.2%, 공연장의 3.1%만이 운영방침의 1순위로 응답하였고, 1~3순위 기준으로도 현재의 운영방침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시설 유형별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필요사항 인식(1순위 기준)

(단위: %)

구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새로운 고객의 확보	혁신을 위한 투자	종사자의 역량 강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다른 기관과의 협력	탄소 발자국 절감 노력	기타
도서관	41.7	21.7	18.3	4.2	5	0.8	4.2	4.2	0
박물관/미술관	29.9	24.7	27.3	9.1	2.6	5.2	1.3	0	0
공연장	47.7	13.8	13.8	7.7	7.7	3.1	1.5	3.1	1.5

자료: 설문조사

3.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준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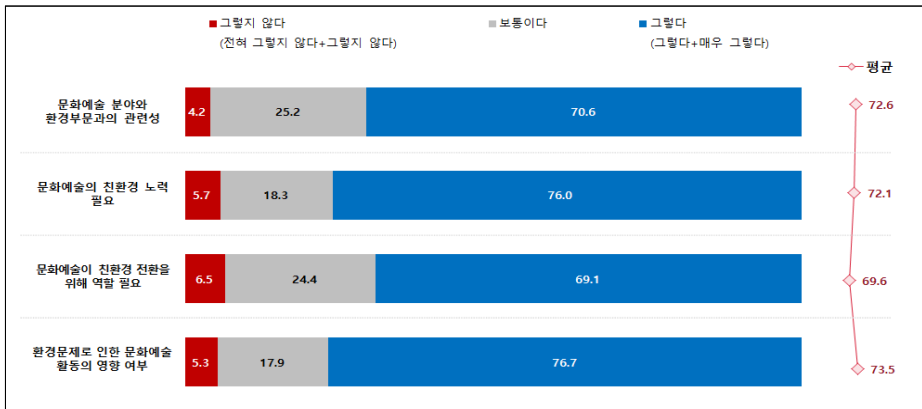
3.1. 문화예술과 환경부문과의 관련성 인식

가. 시설 종합

문화예술과 환경부문 간의 관련성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예술 분야와 환경부문과의 관련성’은 70.6%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여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 노력’은 7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가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문화예술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9.1%, 기후변화 등이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76.7%로 나타났다.

[그림 4-23] 문화예술과 환경부문과의 관련성 인식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점)



자료: 설문조사

나. 시설 유형별

시설 유형별로 '문화예술 분야와 환경부문의 관련성' 인식은 '도서관'(74.8점)이 타 시설 유형 대비 관련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문화예술의 친환경 노력 필요'는 '박물관/미술관'(75.6점)이 타 시설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이 친환경 전환을 위해 역할 필요' 인식은 '박물관/미술관'(71.4점)이 타 시설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로 인한 문화예술 활동에 영향' 인식은 '박물관/미술관'(74.4점)이 타 시설 유형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로 인한 문화예술 활동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4-36〉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과 친환경의 관련성 인식

(단위: %)

구분	문화예술 분야와 환경부문의 관련성	문화예술의 친환경노력 필요	문화예술이 친환경 전환을 위해 역할 필요	환경문제로 인한 문화 예술 활동의 영향 여부
도서관	74.8	69.8	68.5	72.5
박물관/미술관	69.8	75.6	71.4	74.4
공연장	71.9	72.3	69.2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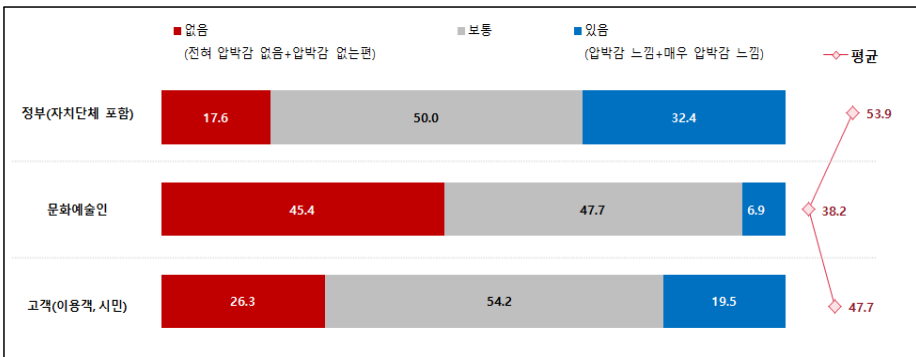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3-2. 기관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박

가. 시설 종합

[그림 4-24] 기관의 친환경 전환의 압박 주체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점)



자료: 설문조사

기관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박 주는 주체를 살펴보면,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친환경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고 느끼는 기관이 32.4%, 문화예술인이 압박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6.9%, 고객(이용객, 시민)이 압박하고 있다고 느끼는 기관은 19.5%로 나타났다.

나. 시설 유형별

문화시설에 친환경 전환 압박을 주는 주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지자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시설 유형별, 압박주체별 압박의 강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정부(지자체)로부터 친환경 전환에 대해 가장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시설은 공연시설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시설도 공연시설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관은 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시설 유형별, 압박 주체별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박 인식

(단위: %, 점)

구분	정부(지자체)	문화예술인	고객(이용객)
도서관	53.5	36.7	49.2
박물관/미술관	52.6	38	46.1
공연장	56.2	41.2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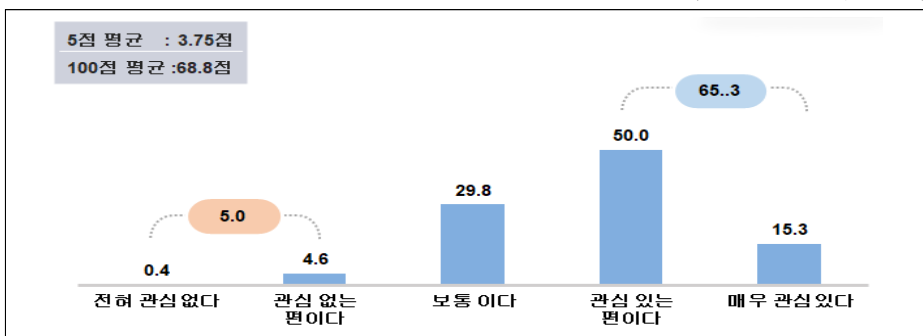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3-3. 기관의 친환경 준비도

가. 기관장의 친환경 관심도

〔그림 4-25〕 기관장의 친환경 관심도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기관장의 친환경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 기관의 65.3%가 '관심 있음(관심이 있는 편이다+매우 관심이 있다)'으로 응답했으며, '관심 없음(전혀 관심이 없다+관심이 없는 편이다)'은 5.0%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박물관/미술관 기관장의 관심이 6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연장 기관장의 관심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시설 유형별 기관장의 친환경 관심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보통 이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전혀 관심이 없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도서관	14.2	53.3	27.5	4.2	0.8	3.76	69.0
박물관/미술관	19.5	46.8	27.3	6.5	0.0	3.79	69.8
공연장	12.3	47.7	36.9	3.1	0.0	3.69	67.3

자료: 설문조사

나. 기관의 친환경 담당자 유무

기관의 친환경 관련 담당자 유무를 살펴보면, 응답 기관 중 74.0%는 친환경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환경 관련 담당자가 있는 기관은 26.0% 이었다.

〈표 4-39〉 문화시설의 친환경 담당자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262)	26.0	74.0	
시설 유형	도서관	(120)	22.5	77.5
	박물관/미술관	(77)	28.6	71.4
	공연장	(65)	29.2	70.8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22.5	77.5
	중소도시	(111)	27.9	72.1
	읍면지역 이하	(62)	27.4	72.6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33.3	66.7
	지방정부	(233)	25.8	74.2
	민간	(11)	18.2	81.8

자료: 설문조사

기관 유형별로는 친환경 업무 담당자가 있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시설은 박물관/미술관(28.6%) 이었고, 도서관은 담당자가 없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소재지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이하의 시설에 친환경 담당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 기관의 친환경 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기관의 친환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 기관 중 68.7%는 친환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31.3%가 친환경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박물관/미술관의 친환경 계획 수립 및 시행이 32.5%로 높게 나타났고, 소재지 규모별로는 대도시의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비율이 32.6%로 다소 높았다.

〈표 4-40〉 기관의 친환경 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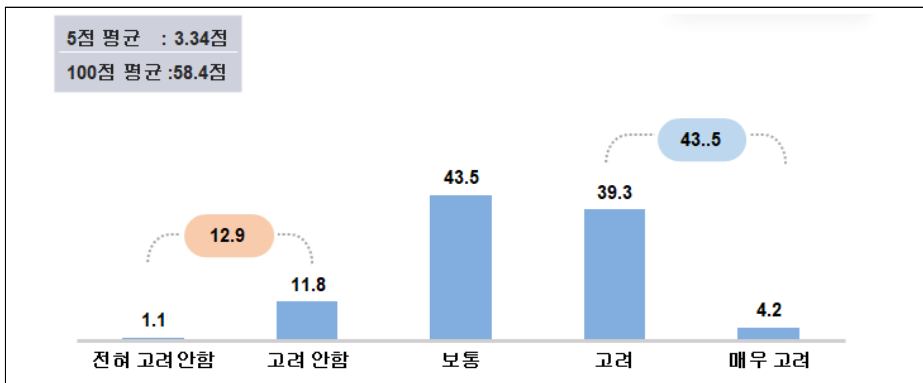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수립 및 실행하고 있음	수립 및 실행하고 있지 않음	
전체	(262)	31.3	68.7	
시설 유형	도서관	(120)	31.7	68.3
	박물관/미술관	(77)	32.5	67.5
	공연장	(65)	29.2	70.8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32.6	67.4
	중소도시	(111)	31.5	68.5
	읍면지역 이하	(62)	29.0	71.0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33.3	66.7
	지방정부	(233)	30.9	69.1
	민간	(11)	36.4	63.6

자료: 설문조사

라. 기관의 사업 수행 시 친환경 책임 이행 고려

[그림 4-26] 친환경 책임 이행 고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기관의 사업수행 시 친환경 책임 이행 고려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 기관의 43.5%가 ‘고려하고 있음(고려하는 편이다+매우 고려하고 있다)’으로 응답했으며, ‘고려하지 않음(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려하지 않는 편이다)’은 13.0%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공연장의 친환경 이행 고려 정도가 100점 만점에 5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은 57.9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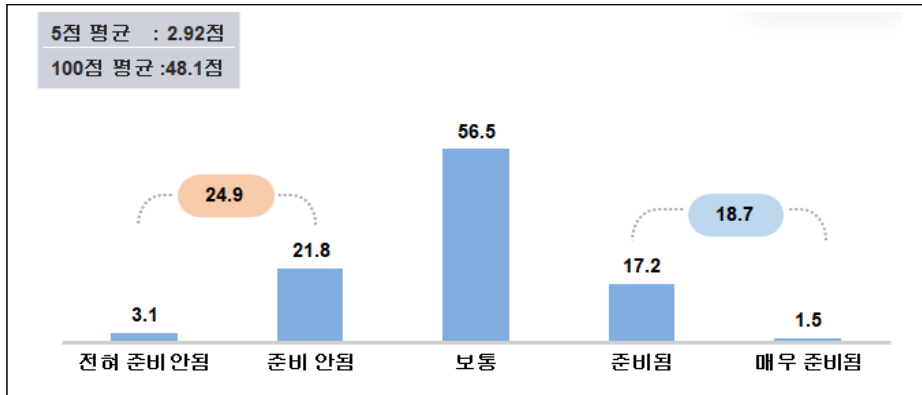
마. 전반적인 기관이 친환경 준비도

기관의 친환경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 기관의 18.7%만 ‘준비되어 있음(일부 준비되어 있다+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으로 응답했으며, ‘준비되어 있지 않음(준비되어 있지 않다+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은 24.8%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서관원 친환경 준비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재지 규모 별로는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들이 친환경 준비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4-27] 전반적인 기관의 친환경 준비도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3-4. 기관의 친환경 사업 실행 및 계획 현황

가.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기관이 실천 할 수 있는 친환경 관련 실행에 대해서 묻은 결과, 먼저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과 관련해서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 50.4%, 실행예정인 기관이 31.7%, 계획이 없는

기관이 17.9%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서관과 공연장이 친환경 실천 실행이 높았고, 박물관/미술관의 친환경 실천 실행이 다소 낮았다.

〈표 4-41〉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실행 현황

(단위: %)

구 분	사례수	실행	실행예정	계획 없음	
전체	(262)	50.4	31.7	17.9	
시설 유형	도서관	(120)	54.2	25.8	20.0
	박물관/미술관	(77)	42.9	39.0	18.2
	공연장	(65)	52.3	33.8	13.8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57.3	28.1	14.6
	중소도시	(111)	46.8	34.2	18.9
	읍면지역 이하	(62)	46.8	32.3	21.0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72.2	22.2	5.6
	지방정부	(233)	49.4	31.8	18.9
	민간	(11)	36.4	45.5	18.2

자료: 설문조사

나. 친환경 기술 및 장비 사용

친환경 기술 및 장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실행하고 있는 기관은 33.2% 이었고, 실행예정인 기관이 30.5%, 계획이 없는 기관도 36.3%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박물관/미술관의 친환경 기술 및 장비 사용 실행률 다소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의 실행률은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 기술 및 장비 사용과 관련해 실행계획은 공연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친환경 기술 및 장비 사용 현황

(단위: %)

구 분	사례수	실행	실행예정	계획 없음	
전체	(262)	33.2	30.5	36.3	
시설 유형	도서관	(120)	28.3	27.5	44.2
	박물관/미술관	(77)	39.0	29.9	31.2
	공연장	(65)	35.4	36.9	27.7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36.0	25.8	38.2
	중소도시	(111)	34.2	29.7	36.0
	읍면지역 이하	(62)	27.4	38.7	33.9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44.4	38.9	16.7
	지방정부	(233)	32.2	29.6	38.2
	민간	(11)	36.4	36.4	27.3

자료: 설문조사

다.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개발은 전체적으로 15.3%가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실행계획을 가진 기관은 40.5%로 나타났으며, 계획이 없는 기관도 44.3%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서관의 실행비율과 실행예정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박물관/미술관은 실행예정비율이 낮고, 실행계획 없음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친환경 관련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실행 현황

(단위: %)

구 분		사례수	실행	실행예정	계획 없음
전체		(262)	15.3	40.5	44.3
시설 유형	도서관	(120)	25.0	44.2	30.8
	박물관/미술관	(77)	9.1	29.9	61.0
	공연장	(65)	4.6	46.2	49.2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25.8	39.3	34.8
	중소도시	(111)	9.9	40.5	49.5
	읍면지역 이하	(62)	9.7	41.9	48.4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27.8	72.2
	지방정부	(233)	16.3	42.1	41.6
	민간	(11)	18.2	27.3	54.5

자료: 설문조사

라. 저탄소 제품 구매 확대

저탄소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50%의 시설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행예정비율이 37.8%로 나타났고, 계획 없음도 12.2%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의 실행률이 높게 나타났고, 박물관/미술관의 실행률, 실행 예정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저탄소 제품 구매 실행 현황

(단위: %)

구 분		사례수	실행	실행예정	계획 없음
전체		(262)	50.0	37.8	12.2
시설 유형	도서관	(120)	52.5	34.2	13.3
	박물관/미술관	(77)	46.8	37.7	15.6
	공연장	(65)	49.2	44.6	6.2

구 분		사례수	실행	실행예정	계획 없음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56.2	29.2	14.6
	중소도시	(111)	48.6	40.5	10.8
	읍면지역 이하	(62)	43.5	45.2	11.3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72.2	16.7	11.1
	지방정부	(233)	48.9	39.5	11.6
	민간	(11)	36.4	36.4	27.3

자료: 설문조사

마. 자원의 재활용

자원의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23.3%의 문화시설이 실행하고 있었고, 33.2%가 실행 예정, 계획이 없는 곳은 43.5%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박물관/미술관의 실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연장의 실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자원의 재활용 현황

(단위: %)

구 분		사례수	실행	실행예정	계획 없음
전체		(262)	23.3	33.2	43.5
시설 유형	도서관	(120)	23.3	35.0	41.7
	박물관/미술관	(77)	26.0	31.2	42.9
	공연장	(65)	20.0	32.3	47.7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25.8	30.3	43.8
	중소도시	(111)	21.6	36.0	42.3
	읍면지역 이하	(62)	22.6	32.3	45.2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22.2	33.3	44.4
	지방정부	(233)	24.5	33.0	42.5
	민간	(11)	0.0	36.4	63.6

자료: 설문조사

바. 친환경 공간의 확대

탄소 상쇄와 관련된 친환경 공간의 확대의 경우, 30.9%의 문화시설이 실행하고 있었고, 27.9%가 실행 예정, 41.2%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박물관/미술관의 실행이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공연장의 실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연장의 실행 예정은 30.8%로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친환경 공간 확대 실행 현황

(단위: %)

구 분	사례수	실행	실행예정	계획 없음	
전체	(262)	30.9	27.9	41.2	
시설 유형	도서관	(120)	29.2	26.7	44.2
	박물관/미술관	(77)	37.7	27.3	35.1
	공연장	(65)	26.2	30.8	43.1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28.1	25.8	46.1
	중소도시	(111)	36.9	23.4	39.6
	읍면지역 이하	(62)	24.2	38.7	37.1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38.9	38.9	22.2
	지방정부	(233)	31.8	26.6	41.6
	민간	(11)	0.0	36.4	63.6

자료: 설문조사

사. 사업의 환경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

해당 시설에서 문화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환경위험 등을 평가하거나 모니터링 하고 있는 기관은 9.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고, 실행 예정이 18.3%, 계획이 없는 경우가 72.1%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서관의 실행률이 그나마 11.7%로 높게 나타났고, 공연장의 실행률이 7%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박물관/미술관이 22.1%, 공연장이 20%로 도서관 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박물관/미술관, 공연장의 환경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4-47〉 사업의 환경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구 분	사례수	실행	실행예정	계획 없음	
전체	(262)	9.5	18.3	72.1	
시설 유형	도서관	(120)	11.7	15.0	73.3
	박물관/미술관	(77)	7.8	22.1	70.1
	공연장	(65)	7.7	20.0	72.3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0.1	16.9	73.0
	중소도시	(111)	9.0	18.9	72.1
	읍면지역 이하	(62)	9.7	19.4	71.0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11.1	22.2	66.7
	지방정부	(233)	9.4	18.9	71.7
	민간	(11)	9.1	0.0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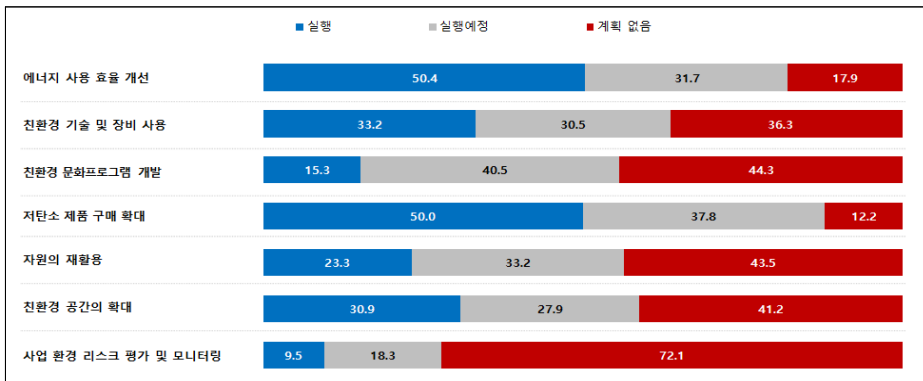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아. 종합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수준에서는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저탄소 제품 구매를 실행하는 문화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까운 미래에는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확대, 저탄소 제품구매 확대,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 사용효율 개선, 친환경 기술 및 장비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았다. 다만, 여전히 문화사업 진행에 있어 환경 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은 실행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실행될 예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기획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의 재활용, 친환경 공간의 확대에도 다소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그림 4-28] 기관의 친환경 실행 및 계획 현황(종합)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

4. 문화서비스 기관의 탄소 발자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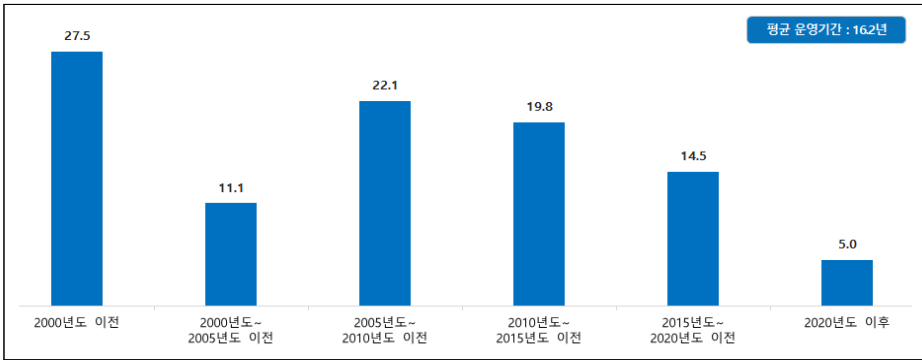
4-1. 기관의 일반 현황

가. 시설의 개관연도

시설의 노후도와 관련 있는 기관의 개관연도를 살펴보면, '2000년도 이전'이 2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5년도~2010년도 이전'(22.1%), '2010년도~2015년도 이전'(19.8%)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관의 평균 운영 기간은 16.2년 이었다.

[그림 4-29] 기관의 개관년도 분포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년)



자료: 설문조사

<표 4-48> 기관의 개관년도 분포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2000년도 이전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	2020년도 이후	평균 운영 기간	
전체	(262)	27.5	11.1	22.1	19.8	14.5	5.0	16.2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9.1	9.0	28.1	22.5	18.0	3.4	14.8
	중소도시	(111)	36.9	10.8	17.1	15.3	14.4	5.4	18.0
	읍면지역 이하	(62)	22.6	14.5	22.6	24.2	9.7	6.5	15.0
시설 유형	도서관	(120)	21.7	8.3	27.5	20.0	15.8	6.7	14.5
	박물관/미술관	(77)	23.4	11.7	20.8	24.7	15.6	3.9	15.8
	공연장	(65)	43.1	15.4	13.8	13.8	10.8	3.1	19.9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72.2	5.6	5.6	5.6	11.1	0.0	29.5
	지방정부	(233)	24.5	11.6	23.6	19.7	15.0	5.6	15.2
	민간	(11)	18.2	9.1	18.2	45.5	9.1	0.0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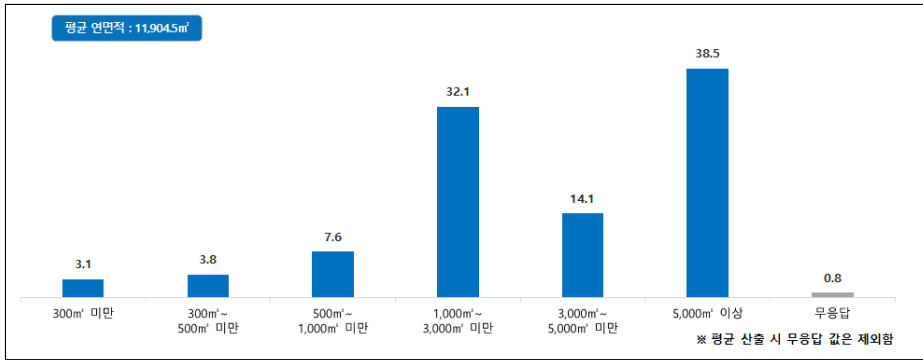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나. 시설의 면적

에너지 및 자원 사용 면적과 관련 있는 기관의 연면적을 살펴보면, '5,000㎡ 이상'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00㎡~3,000㎡미만'(32.1%), '3,000㎡~5,000㎡ 미만'(14.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 기관의 평균 연면적은 11,904.5㎡으로 나타났다.

[그림 4-30] 응답시설의 연면적 분포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m²)



자료: 설문조사

<표 4-49> 응답시설의 연면적 분포

(단위: 개, %, m²)

구분	사례수	300m ² 미만	300~500m ² 미만	500~1,000m ² 미만	1,000~3,000m ² 미만	3,000~5,000m ² 미만	5,000m ² 이상	무응답	평균 연면적	
전체	(262)	3.1	3.8	7.6	32.1	14.1	38.5	0.8	11,904.5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4.5	9.0	7.9	32.6	7.9	37.1	1.1	15,140.0
	중소도시	(111)	0.9	1.8	8.1	23.4	18.9	46.8	0.0	11,847.5
	읍면지역 이하	(62)	4.8	0.0	6.5	46.8	14.5	25.8	1.6	7,340.8
시설 유형	도서관	(120)	3.3	5.8	9.2	42.5	13.3	24.2	1.7	4,097.7
	박물관/미술관	(77)	5.2	3.9	10.4	31.2	13.0	36.4	0.0	11,356.0
	공연장	(65)	0.0	0.0	1.5	13.8	16.9	67.7	0.0	26,726.8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5.6	5.6	0.0	5.6	0.0	83.3	0.0	28,013.2
	지방정부	(233)	3.0	3.9	7.7	34.8	15.9	33.9	0.9	10,654.7
	민간	(11)	0.0	0.0	18.2	18.2	0.0	63.6	0.0	11,790.2

자료: 설문조사

시설 소재지 규모별로는 '대도시'(15,140.0m²)가 타 규모 소재지 대비 연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 유형별로는 '공연장'(26,726.8m²)이 타 시설 대비 연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할 주체별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28,013.2m²)이 타 관할 주체 시설 대비 연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건축물면적을 살펴보면, '1,000m²~3,000m² 미만'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0m²~1,000m² 미만'(17.9%), '5,000m² 이상'(15.6%)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 기관의 평균 건축물면적은 3,364.0m²으로 나타났다.

시설 소재지 규모별로는 ‘중소도시’(4,408.6㎡)가 타 규모 소재지 대비 건축물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 유형별로는 ‘공연장’(7,228.4㎡)이 타 시설 유형 대비 건축물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할 주체별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8,841.0㎡)이 타 관할 주체 시설 대비 건축물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응답시설의 건축물 면적

(단위: 개, %, ㎡)

구 분	사례수	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3,000㎡ 미만	3,000~5,000㎡ 미만	5,000㎡ 이상	무응답	평균 건축물 면적	
전체	(262)	4.6	10.3	17.9	36.3	11.5	15.6	3.8	3,364.0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6.7	18.0	21.3	29.2	5.6	15.7	3.4	2,803.1
	중소도시	(111)	2.7	4.5	14.4	37.8	16.2	18.9	5.4	4,408.6
	읍면지역 이하	(62)	4.8	9.7	19.4	43.5	11.3	9.7	1.6	2,356.7
시설 유형	도서관	(120)	5.0	15.0	25.8	41.7	4.2	2.5	5.8	1,423.7
	박물관/미술관	(77)	7.8	9.1	16.9	33.8	11.7	18.2	2.6	2,989.8
	공연장	(65)	0.0	3.1	4.6	29.2	24.6	36.9	1.5	7,228.4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11.1	5.6	0.0	5.6	16.7	61.1	0.0	8,841.0
	지방정부	(233)	4.3	10.7	19.3	38.6	11.2	11.6	4.3	2,936.3
	민간	(11)	0.0	9.1	18.2	36.4	9.1	27.3	0.0	3,072.7

자료: 설문조사

탄소상쇄와 관련 있는 기관의 조경면적을 살펴보면, ‘무응답’을 제외하고 ‘5,000㎡ 이상’이 1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0㎡ 미만’(8.8%), ‘1,000㎡~3,000㎡ 미만’(8.0%)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 기관의 평균 조경면적은 8,761.9㎡ 이었다.

시설 소재지 규모별로는 ‘중소도시’(14,286.9㎡)가 타 규모 소재지 대비 조경면적이 넓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박물관/미술관’(16,401.6㎡)이 타 시설 유형 대비 조경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할 주체별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18,066.5㎡)이 타 관할 주체 시설 대비 조경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응답시설의 조경 면적

(단위: 개, %, ㎡)

구 분	사례수	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3,000㎡ 미만	3,000~5,000㎡ 미만	5,000㎡ 이상	무응답	평균 조경 면적	
전체	(262)	8.8	3.1	5.3	8.0	3.8	13.0	58.0	8,761.9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4.6	4.5	4.5	9.0	1.1	5.6	60.7	3,068.9
	중소도시	(111)	4.5	1.8	6.3	7.2	5.4	18.9	55.9	14,286.9
	읍면지역 이하	(62)	8.1	3.2	4.8	8.1	4.8	12.9	58.1	6,013.2

구 분		사례수	300㎡ 미만	300~ 500㎡ 미만	500~ 1,000㎡ 미만	1,000~ 3,000㎡ 미만	3,000~ 5,000㎡ 미만	5,000㎡ 이상	무응답	평균 조경 면적
시설 유형	도서관	(120)	12.5	4.2	5.8	5.0	1.7	1.7	69.2	1,564.9
	박물관/미술관	(77)	6.5	2.6	2.6	5.2	5.2	29.9	48.1	16,401.6
	공연장	(65)	4.6	1.5	7.7	16.9	6.2	13.8	49.2	7,571.0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5.6	0.0	0.0	5.6	5.6	38.9	44.4	18,066.5
	지방정부	(233)	9.4	3.4	5.2	8.2	3.4	11.6	58.8	8,086.0
	민간	(11)	0.0	0.0	18.2	9.1	9.1	0.0	63.6	1,721.3

자료: 설문조사

탄소 상쇄와 관련된 조경 면적이 기관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본 결과, 조경 면적이 74%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설 소재지 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조경면적 비율이 121%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박물관/미술관의 조경면적 비율이 141%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할 주체별로는 지방정부 관할의 시설의 조경 면적 비율이 76%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경면적 비율이 100%를 넘는 이유는 시설 중에 조경면적이 아예 없는 시설도 있고, 시설의 규모자체가 작은 시설의 경우까지 평균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문화시설을 모두 포괄해서 보면 특정 시설의 탄소배출을 다른 시설의 조경 면적으로 일 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2〉 문화시설의 연면적 대비 조경면적 비율

(단위: %, ㎡)

구 분		사례수	평균 연면적	평균 건축물 면적	평균 조경 면적	조경면적/연면적
전체		(262)	11,904.5	3,364.0	8,761.9	74%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5,140.0	2,803.1	3,068.9	20%
	중소도시	(111)	11,847.5	4,408.6	14,286.9	121%
	읍면지역 이하	(62)	7,340.8	2,356.7	6,013.2	82%
시설 유형	도서관	(120)	4,097.7	1,423.7	1,564.9	38%
	박물관/미술관	(77)	11,356.0	2,989.8	16,401.6	144%
	공연장	(65)	26,726.8	7,228.4	7,571.0	28%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28,013.2	8,841.0	18,066.5	64%
	지방정부	(233)	10,654.7	2,936.3	8,086.0	76%
	민간	(11)	11,790.2	3,072.7	1,721.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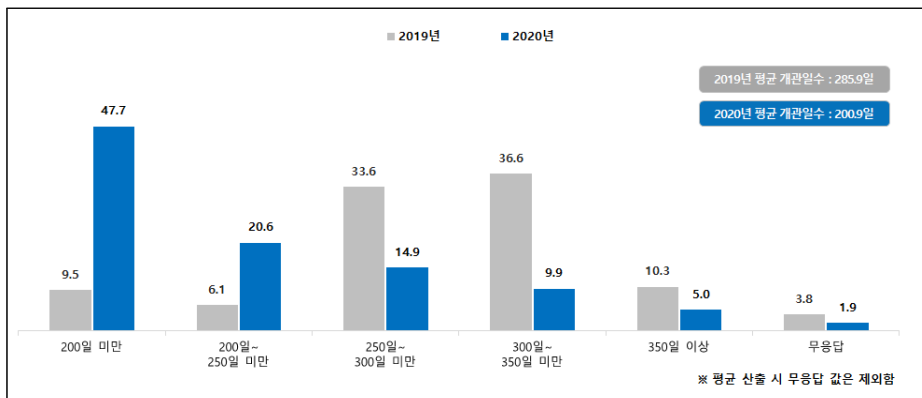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다. 기관의 연간 개관 일수

기관의 연간 개관일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300일~350일 미만’ 개관한 문화시설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50일~300일 미만’(33.6%), ‘350일 이상’(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에는 ‘200일 미만’ 개관한 시설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0일 ~250일 미만’(20.6%), ‘250일~300일 미만’(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연간 평균 개관일수는 2019년(평균 285.9일) 대비 2020년(평균 200.9일)에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 기관의 연간 개관 일수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일)



자료: 설문조사

<표 4-53> 기관의 연간 개관 일수(2019~2020년)

(단위: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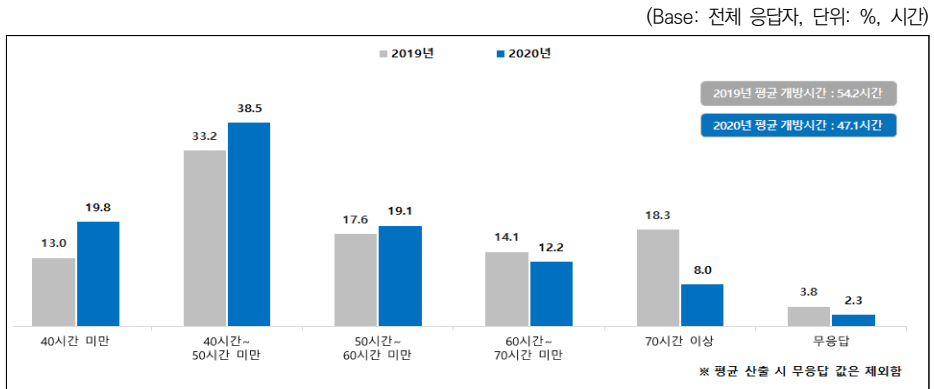
구 분	2019년 평균 개관 일수(A)	2020년 평균 개관 일수(B)	감소율	
전체	285.9	200.9	-30%	
소재지 규모	대도시	289.3	203.9	-30%
	중소도시	282.7	193.3	-32%
	읍면지역 이하	286.6	210.3	-27%
시설 유형	도서관	288.7	205.5	-29%
	박물관/미술관	308.7	227.6	-26%
	공연장	254.2	160.8	-37%
관할 주체	중앙정부	298.9	212.9	-29%
	지방정부	285.4	199.3	-30%
	민간	274.0	213.6	-22%

자료: 설문조사

라. 기관의 주당 평균 개관 시간

응답 기관의 주당 평균 개방시간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주당 평균 ‘40시간~50시간 미만’을 운영한 시설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70시간 이상’(18.3%), ‘50시간~60시간 미만’(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에는 ‘40시간~50시간 미만’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0시간 미만’(19.8%), ‘50시간~60시간 미만’(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2019년(평균 54.2시간) 대비 2020년(평균 47.1시간)에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기관의 주당 평균 개관 시간



자료: 설문조사

[표 4-54] 기관의 주당 평균 개관 시간(2019~2020년)

(단위: 시간, %)

구분	2019년 주당 평균 개관 시간(A)	2020년 주당 평균 개관 시간(B)	변화율
전체	54.2	47.1	-13%
소재지 규모	대도시	49.8	-16%
	중소도시	45.8	-13%
	읍면지역 이하	45.4	-8%
시설 유형	도서관	52.9	-15%
	박물관/미술관	44.8	-7%
	공연장	39.2	-16%
관할 주체	중앙정부	45.7	-11%
	지방정부	46.9	-13%
	민간	52.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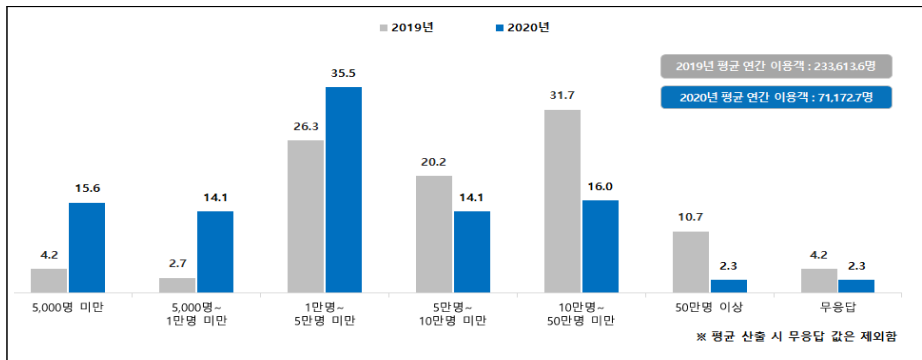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마. 기관의 연간 이용객

응답 기관의 연간 이용객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기관의 연간 이용객이 '10만 명~50만 명 미만'인 시설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만 명~5만 명 미만'(26.3%), '5만 명~10만 명 미만'(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에는 '1만 명~5만 명 미만'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만 명~50만 명 미만'(16.0%), '5,000명 미만'(15.6%)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연간 평균 이용객은 2019년(평균 233,613.6명) 대비 2020년(평균 71,172.7명)에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3] 기관의 연간 이용객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명)



자료: 설문조사

<표 4-55> 기관의 연간 이용객(2019~2020년)

(단위: 시간, %)

구분	2019년 관당 연간 이용객(A)	2020년 관당 연간 이용객(B)	변화율	
전체	233,613.6	74,172.7	-68%	
소재지 규모	대도시	373,422.5	86,267.5	-77%
	중소도시	218,056.9	87,816.6	-60%
	읍면지역 이하	60,445.3	31,874.8	-47%
시설 유형	도서관	287,424.3	105,942.9	-63%
	박물관/미술관	214,352.4	55,250.4	-74%
	공연장	160,875.0	38,267.5	-76%
관할 주체	중앙정부	794,814.0	162,378.8	-80%
	지방정부	182,450.2	66,432.3	-64%
	민간	347,856.8	89,570.8	-74%

자료: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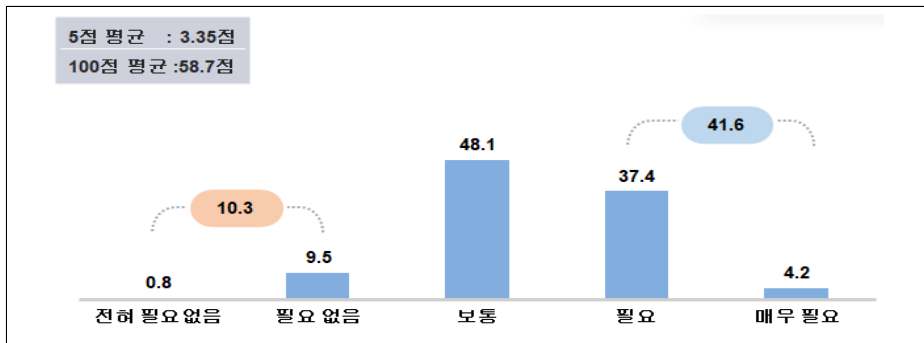
4-2. 기관의 탄소발자국관련 기본 현

가.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의 필요성 인식

공공문화시설의 탄소발자국 모니터링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 기관의 41.6%가 '필요함(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으로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음(전혀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다)'은 10.3%로 나타났다.

[그림 4-34] 문화시설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의 필요성 인식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시설 소재지 규모별로는 '대도시'(59.8점)의 모니터링 필요성 인식이 타 규모 소재지 대비 높게 나타났고, 시설 유형별로는 '도서관'(60.2점)이 타 시설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관할 주체별로는 '민간에서 관리하는 시설'(61.4점)이 타 관할 주체 시설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4-56] 문화시설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의 필요성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4.2	37.4	48.1	9.5	0.8	3.35	58.7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5.6	40.4	41.6	12.4	0.0	3.39	59.8
	중소도시	(111)	3.6	37.8	52.3	6.3	0.0	3.39	59.7
	읍면지역 이하	(62)	3.2	32.3	50.0	11.3	3.2	3.21	55.2
시설 유형	도서관	(120)	7.5	37.5	44.2	10.0	0.8	3.41	60.2
	박물관/미술관	(77)	1.3	36.4	49.4	11.7	1.3	3.25	56.2
	공연장	(65)	1.5	38.5	53.8	6.2	0.0	3.35	58.8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38.9	50.0	11.1	0.0	3.28	56.9
	지방정부	(233)	4.3	37.3	48.1	9.4	0.9	3.35	58.7
	민간	(11)	9.1	36.4	45.5	9.1	0.0	3.45	61.4

자료: 설문조사

나. 기관의 전력 사용량

기관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2019년에 844,461.0KWh 이었고, 2020년 692,573.50KWh로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 규모별로는 대도시의 시설의 전력 사용량 감소가 높았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공연장의 전력 사용량 감소가 높았다.

〈표 4-57〉 기관의 연간 전력 사용량(2019~2020년)

(단위: kWh)

구 분		2019년 연간 전력 사용량	2020년 연간 전력 사용량	증감
전체		844,461.0	692,573.50	-18%
소재지 규모	대도시	1,312,305.8	1,106,040.98	-16%
	중소도시	717,503.3	554,224.80	-23%
	읍면지역 이하	224,896.7	195,304.09	-13%
시설 유형	도서관	827,424.5	698,256.36	-16%
	박물관/미술관	555,670.8	478,524.98	-14%
	공연장	1,121,397.6	872,459.10	-22%
관할 주체	중앙정부	2,226,608.8	1,930,703.63	-13%
	지방정부	737,588.5	594,681.18	-19%
	민간	299,138.9	242,638.00	-19%

자료: 설문조사

다. 기관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

기관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을 살펴보면, 2019년에 75,581.95m³, 2020년 44,011.33m³으로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 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이하의 감소폭이 컸으며, 시설유형별로는 공연장, 관할 주체별로는 지자체 소관 시설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8〉 기관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2019~2020년)

(단위: m³)

구 분		2019년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	2020년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	증감
전체		75,581.95	44,011.33	-42%
소재지 규모	대도시	69,830.63	49,757.61	-29%
	중소도시	73,452.05	35,048.01	-52%
	읍면지역 이하	165,524.00	70,607.50	-57%

구 분		2019년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	2020년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	증감
시설 유형	도서관	25,293.18	20,066.39	-21%
	박물관/미술관	79,587.61	67,297.89	-15%
	공연장	126,936.32	60,024.48	-53%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1,990.42	147,369.75	-19%
	지방정부	62,035.11	29,096.38	-53%
	민간	36,376.95	24,497.90	-33%

자료: 설문조사

라. 기관의 연간 유류 사용량

기관의 연간 유류 사용량을 살펴보면, 2019년 6,106.3 ℓ 에서 2020년 12,496.1 ℓ 로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소재지 규모별로는 대도시의 유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의 유류 사용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서관의 유류 사용량이 증가했고 다른 시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시설의 유류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9〉 기관의 연간 유류 사용량(2019~2020년)

(단위: m³)

구 분		2019년 연간 유류 사용량	2020년 연간 유류 사용량	증감
전체		6,106.3	12,496.1	105%
소재지 규모	대도시	2,891.6	25,436.6	780%
	중소도시	4,546.4	3,485.3	-23%
	읍면지역 이하	14,736.6	12,550.8	-15%
시설 유형	도서관	1,736.6	21,568.3	1,142%
	박물관/미술관	8,974.1	7,924.4	-12%
	공연장	7,964.2	6,245.5	-22%
관할 주체	중앙정부	15,587.0	12,725.5	-18%
	지방정부	4,045.6	12,960.2	220%
	민간	3,623.0	2,144.0	-41%

자료: 설문조사

마. 기관의 연간 수도 사용량

기관의 연간 수도 사용량은 2019년이 7,234.4m³에서 2020년 4,162.7m³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및 도서관의 수도 사용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다.

〈표 4-60〉 기관의 연간 유류 사용량(2019~2020년)

(단위: m³)

구 분		2019년 연간 수도 사용량	2020년 연간 수도 사용량	증감
전체		7,234.4	4,162.7	-42%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46.6	4,799.6	-46%
	중소도시	7,047.5	4,345.4	-38%
	읍면지역 이하	4,445.3	2,628.8	-41%
시설 유형	도서관	4,786.1	1,960.1	-59%
	박물관/미술관	6,664.1	4,800.3	-28%
	공연장	10,447.1	6,163.0	-41%
관할 주체	중앙정부	19,169.7	12,555.9	-35%
	지방정부	5,902.4	3,238.2	-45%
	민간	6,666.0	3,565.1	-47%

자료: 설문조사

바. 기관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

기관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9년 924.4톤에서 2020년 917.4톤으로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 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이하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중소도시의 쓰레기 배출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설 유형별로는 박물관 미술관의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연장의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할 주체별로는 지자체의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량이 크게 차이가 없었고, 중앙정부 및 민간시설의 쓰레기 배출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문객이 많이 줄었음에도 감소량이 크지 않은 점은 방문객과 상관 없는 쓰레기 배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민간 시설은 쓰레기 배출의 상대부분이 방문객과 연동되어 방문객 감소가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론되었다.

〈표 4-61〉 기관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2019~2020년)

(단위: 톤)

구 분	2019년 연간 수도 사용량	2020년 연간 수도 사용량	변화율
전체	924.4	917.4	-1%

구 분		2019년 연간 수도 사용량	2020년 연간 수도 사용량	변화율
소재지 규모	대도시	2,270.7	2,100.0	-8%
	중소도시	69.2	40.7	-41%
	읍면지역 이하	505.4	663.4	31%
시설 유형	도서관	2,128.4	1,969.5	-7%
	박물관/미술관	565.7	737.4	30%
	공연장	240.6	207.1	-14%
관할 주체	중앙정부	66.6	53.2	-20%
	지방정부	1,056.2	1,061.9	1%
	민간	382.8	226.0	-41%

자료: 설문조사

4-3. 기관의 탄소발자국 추정

가. 문화시설의 탄소발자국 추정 방식

문화시설의 탄소발자국을 추정은 기본적으로 문화시설 운영에서 배출될 수 있는 탄소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문화시설의 운영과정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배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자원 사용 및 폐기물 배출량을 중심으로 하여 탄소발자국을 추정하였다.

문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에너지원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고려하고,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검토하여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자원 투입에 대한 탄소발자국 계산식을 구성하였다. 환경부(201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전력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0.469kgCO₂/kWh, 도시가스는 2.258kg CO₂/m³, 실내등유 2.452kggCO₂/L, 으로 나타났다.

수도는 한국환경공단(2012)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에 따르면, 332gCO₂eq/m³ 이었다.

폐기물은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연간발생량 (tWaste/yr)*dm(0.75%)*CF(0.42)*FCF(0.28%)*OF (1.0)을 계산하여 추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문화시설 운영 탄소발자국} &= (\text{연간 전력 사용량} * \text{전력 탄소배출 계수}) \\
 &+ (\text{연간 도시가스 사용량} * \text{도시가스 탄소배출 계수}) \\
 &+ (\text{연간 유류 사용량} * \text{유류 탄소배출 계수}) \\
 &+ (\text{연간 수도 사용량} * \text{수도 탄소배출 계수}) \\
 &+ (\text{연간 폐기물 배출량} * \text{폐기물 탄소배출 계수})
 \end{aligned}$$

〈표 4-62〉 자원별 탄소배출 계수

(단위: kgCO₂)

구분	전력	도시가스	유류	수도	폐기물
탄소 배출계수	0.469	2.258	2.452	0.332	0.0882

나. 문화시설 운영 탄소 발자국

문화시설의 탄소발자국을 추정하기 위해 전체 응답 262개소 중 2개년(2019~2020년) 동안 주요 에너지 사용에 대해 전부 무응답한 시설을 제외하고 186개소에 대하여 탄소발자국을 추정하였다. 186개 기관 중 유류를 제외한 전력, 도시가스, 수도, 폐기물값이 연도에 따라 누락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누락처리를 하여 탄소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활용하여 문화서비스 기관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한 결과, 2019년은 문화시설 1관당 평균 탄소배출량은 575,478.51kgCO₂, 2020년은 438,341.96kg CO₂로 나타났다. 문화시설별로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 모두 ‘공연장’이 각각 786,941.21kgCO₂, 541,699.82kgCO₂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연장의 건축물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의 운영일수, 운영시간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문화서비스 기관의 2020년의 탄소배출량은 2019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4-63〉 연간 문화서비스 기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kgCO₂)

구분	사례 수	2019년 1관 평균 탄소배출량	2020년 1관 평균 탄소배출량	증감
도서관	79	504,583.78	419,831.97	-17%
박물관	46	457,197.94	357,704.95	-22%
미술관	4	322,532.50	258,390.28	-20%
공연장	57	786,941.21	541,699.82	-31%
전체 평균	186	575,478.51	438,341.96	-24%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저자 분석

다. 시설 노후도에 따른 문화시설 탄소 발자국

시설 노후도 등이 탄소배출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시설의 개관일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U 자형 탄소배출이 나타나고 있었다. 최근에 지어진 시설과 노후한 시설의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5~45년 사이에 지어진 시설의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시설면적, 시설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표 4-64〉 개관 년도에 따른 1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kgCO₂)

구분	사례 수	2019년 1관당 평균 탄소배출량	2020년 1관당 평균 탄소배출량
14년 미만	95	642,998.42	511,330.35
15~ 30년 미만	65	440,536.96	284,063.76
30~45년 미만	20	391,276.80	303,647.29
45~60년 미만	4	616,102.90	559,433.14
60년 이상	2	3,514,651.28	3,090,199.11
전체 평균	186	575,478.51	438,341.96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저자 분석

재건축 연한 기준(30년)으로 평균 문화시설 운영 탄소 발자국을 추정해보면, '30년 이상'이 2019년과 2020년 모두 666,125.01kgCO₂, 557,349.10kgCO₂로 '30년 미만' 시설 보다 19% ~ 33%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결과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앞서 시설 노후도 구간별로 나누어 본 결과와 결합해서 해석해보면 45년 이상 된 시설의 탄소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표 4-65〉 재건축 연한에 기준(30년)에 따른 1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kgCO₂)

구분	사례 수	2019년 1관당 평균 탄소배출량		2020년 1관당 평균 탄소배출량		
		30년 미만	3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도시규모	대도시	72	692,051.70	1,511,566.03	568,733.78	1,299,302.79
	중소도시	75	567,024.32	310,895.85	382,916.16	245,328.92
	읍면지역	39	323,621.87	126,194.16	217,554.39	85,695.79
시설유형	도서관	79	517,241.62	392,245.42	433,838.83	295,521.15
	박물관	46	299,037.24	1,511,602.58	213,767.83	1,317,285.79
	미술관	4	322,532.50	-	258,390.28	-
	공연장	57	883,199.50	425,972.61	592,304.38	351,932.72
전체 평균	186	560,748.45	666,125.01	419,003.30	557,349.1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저자 분석

4-4. 기관의 탄소저감 노력

가. 기관 신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탄소배출량을 분석한 시설(186개)을 대상으로 탄소상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을 살펴본 결과, 응답시설 중 21.5%인 40개 기관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의 규모별로 도입비율의 차이는 없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도서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연장의 도입비율이 낮았다. 관할 주체별로는 국립기관이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6〉 신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단위: 개)

구 분		응답 시설수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설 수	도입 비율
전체		186	40	21.5%
소재지 규모	대도시	72	14	19.4%
	중소도시	75	17	22.7%
	읍면지역 이하	39	9	23.1%
시설 유형	도서관	79	15	19.0%
	박물관	46	7	15.2%
	미술관	4	2	50.0%
	공연장	57	16	28.1%
관할 주체	중앙정부	16	3	18.8%
	지방정부	161	36	22.4%
	민간	9	1	11.1%

자료: 설문조사

전체 소비하는 전력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전력사용량의 4% 수준의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 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점유 비율이 높았으며, 시설유형별로는 박물관의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점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67〉 202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단위: 톤)

구 분		사례수	2020년 전력 사용량(A)	2020년 재생에너지 사용량(B)	재생에너지 비율(B/A)
전체		40	1,670,557.71	67,206.76	4.0%
소재지 규모	대도시	14	3,913,949.51	85,688.54	2.2%
	중소도시	17	561,200.65	73,463.94	13.1%
	읍면지역 이하	9	276,289.33	26,638.22	9.6%

구 분		사례수	2020년 전력 사용량(A)	2020년 재생에너지 사용량(B)	재생에너지 비율(B/A)
시설 유형	도서관	15	2,934,124.15	49,451.47	1.7%
	박물관	7	339,939.43	61,529.43	18.1%
	미술관	2	368,365.00	7,225.00	2.0%
	공연장	16	1,230,883.75	93,833.91	7.6%
관할 주체	중앙정부	3	4,119,992.00	194,129.33	4.7%
	지방정부	36	1,512,772.03	54,846.74	3.6%
	민간	1	2,539.00	131,400.00	5,1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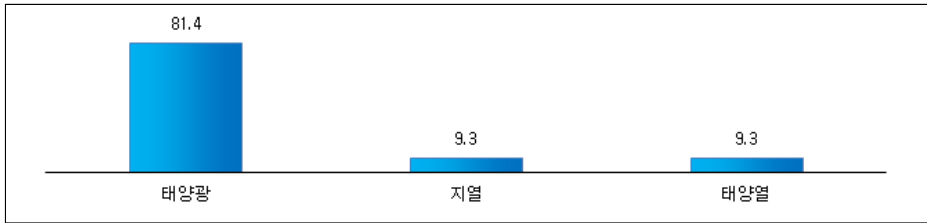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나. 신재생에너지 도입유형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응답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유형을 살펴보면, ‘태양광’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열’(22%), ‘태양열’(8.0%),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4-35] 신재생에너지 도입유형 현황

(BASE: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소재지 규모별로 읍면지역 이하, 시설 유형별로 박물관은 태양광 외에도 지열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68〉 신재생에너지 유형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태양광	지열	태양열
전 체		40	81.4	9.3	9.3
소재지 규모	대도시	14	86.7	6.7	6.7
	중소도시	17	77.8	5.6	16.7
	읍면지역 이하	9	80.0	20.0	0.0
시설 유형	도서관	15	75.0	6.3	18.8
	박물관	7	62.5	25.0	12.5
	미술관	2	100.0	0.0	0.0
	공연장	16	94.1	5.9	0.0

	구분	(사례수)	태양광	지열	태양열
시설 관할 주체	중앙정부	3	100.0	0.0	0.0
	지방정부	36	79.5	10.3	10.3
	민간	1	100.0	0.0	0.0

자료: 설문조사

다. 기관의 녹색제품 구입 현황

녹색제품 구매 금액을 보면, 2019년이 1,224.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20년(1,103.8만원), 2018년(787.5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8% 수준이었다.

〈표 4-69〉 기관의 연간 녹색제품 구입현황(2018~2020년)

(단위: 만원)

구분		2018년 연간 녹색제품 구입액	2019년 연간 녹색제품 구입액	2020년 연간 녹색제품 구입액	연평균 증가율
전체		787.5	1,224.5	1,103.8	18%
소재지 규모	대도시	1,732.0	2,802.9	2,547.4	21%
	중소도시	385.9	504.2	457.6	9%
	읍면지역 이하	153.1	250.7	191.0	12%
시설 유형	도서관	884.3	958.3	1,119.1	12%
	박물관/미술관	445.2	429.5	380.8	-8%
	공연장	1,019.0	2,645.4	1,932.8	38%
관할 주체	중앙정부	6,673.1	12,712.8	10,862.2	28%
	지방정부	361.2	379.1	388.9	4%
	민간	70.7	101.7	82.5	8%

자료: 설문조사

총 제품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의 비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7%, 2020년 18%로 증가하고 있었다.

〈표 4-70〉 총 제품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입액 비율

구분		2018년 총 제품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입액 비율	2019년 총 제품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입액 비율	2020년 총 제품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입액 비율
전체		12%	17%	18%
소재지 규모	대도시	31%	45%	43%
	중소도시	4%	6%	6%
	읍면지역 이하	4%	5%	4%

구 분		2018년 총 제품 구매비 대비 녹색제품 구입액 비율	2019년 총 제품 구매비 대비 녹색제품 구입액 비율	2020년 총 제품 구매비 대비 녹색제품 구입액 비율
시설 유형	도서관	27%	43%	44%
	박물관/미술관	7%	5%	6%
	공연장	-	-	-
관할 주체	중앙정부	8%	18%	16%
	지방정부	23%	37%	39%
	민간	7%	7%	8%

자료: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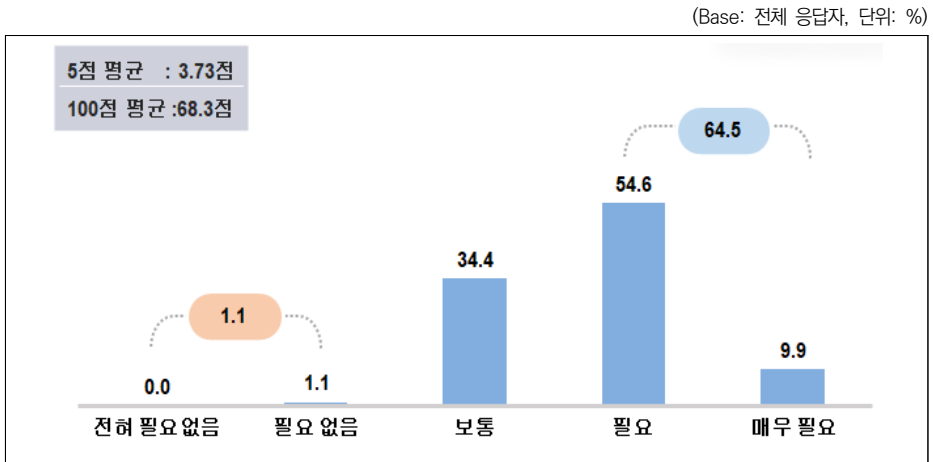
5.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정책 수요

5-1.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관련 인식

가.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전환 동참 필요성

문화서비스분야의 향후 친환경 정책 동참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 기관의 64.5%가 ‘필요함(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으로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음(전혀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다)’은 1.1%로 나타났다.

[그림 4-36]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동참 필요 인식



자료: 설문조사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의 동참 필요 인식이 7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1〉 시설 유형별 친환경 정책 동참 필요 인식

(단위: %,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0.0	1.1	34.4	54.6	9.9	3.73	68.3
도서관	0.0	0.8	30.8	55.0	13.3	3.81	70.2
박물관/미술관	0.0	1.3	41.6	49.4	7.8	3.64	65.9
공연장	0.0	1.5	32.3	60.0	6.2	3.71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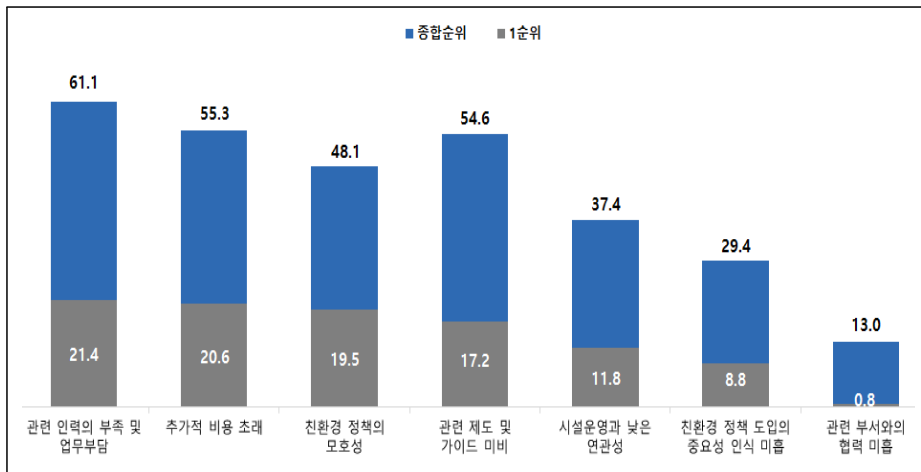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나.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제약 사항

문화서비스분야에서 친환경 정책 추진 시 제약 사항을 살펴보면(종합순위 기준), ‘관련 인력의 부족 및 업무부담’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관련 제도 및 가이드 미비’(54.6%), ‘추가적 비용 초래’(55.3%), ‘친환경 정책의 모호성’(4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7]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제약사항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4-72〉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제약사항(1순위 기준)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관련 인력의 부족 및 업무부담	추가적 비용 초래	친환경 정책의 모호성	관련 제도 및 가이드 미비	시설 운영과 낮은 연관성	친환경 정책 도입의 중요성 인식 미흡	관련 부서와의 협력 미흡	
전체	(262)	21.4	20.6	19.5	17.2	11.8	8.8	0.8	
시설 유형	도서관	(120)	21.7	18.3	23.3	15.0	11.7	9.2	0.8
	박물관/미술관	(77)	24.7	22.1	14.3	18.2	11.7	7.8	1.3
	공연장	(65)	16.9	23.1	18.5	20.0	12.3	9.2	0.0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23.6	19.1	19.1	16.9	12.4	9.0	0.0
	중소도시	(111)	18.0	17.1	19.8	19.8	12.6	10.8	1.8
	읍면지역 이하	(62)	24.2	29.0	19.4	12.9	9.7	4.8	0.0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11.1	27.8	22.2	5.6	22.2	11.1	0.0
	지방정부	(233)	21.5	20.2	18.9	18.5	11.2	9.0	0.9
	민간	(11)	36.4	18.2	27.3	9.1	9.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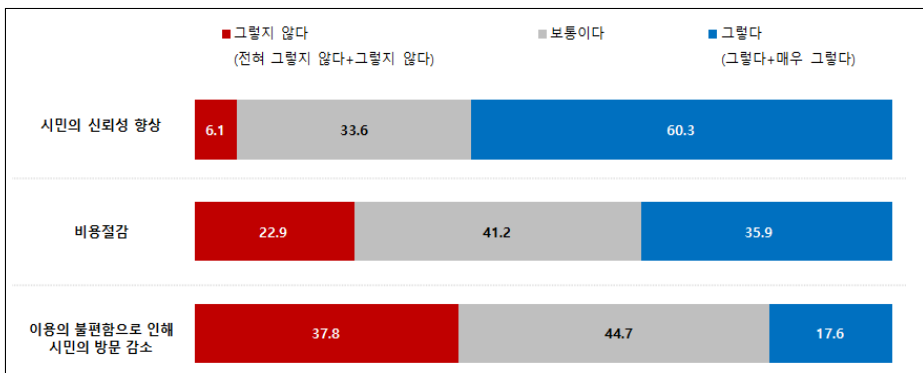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다.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영향 인식

친환경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영향 인식을 살펴보면, '시민의 신뢰성 향상' 긍정 비율이 60.3%, '비용절감' 긍정 비율이 35.9%, '시민의 방문감소'에 대한 긍정 비율이 17.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친환경 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4-38〉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영향 인식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4-73〉 시민 신뢰도 향상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8	1.5	38.5	49.2	9.9	3.66	66.5
도서관	(120)	0.8	2.5	40.0	45.8	10.8	3.63	65.8
박물관/미술관	(77)	1.3	0.0	42.9	45.5	10.4	3.64	65.9
공연장	(65)	0.0	1.5	30.8	60.0	7.7	3.74	68.5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74〉 비용 절감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1.9	21.0	41.2	29.0	6.9	3.18	54.5
도서관	(120)	3.3	20.0	35.8	31.7	9.2	3.23	55.8
박물관/미술관	(77)	1.3	27.3	42.9	22.1	6.5	3.05	51.3
공연장	(65)	0.0	15.4	49.2	32.3	3.1	3.23	55.8

자료: 설문조사

〈표 4-75〉 시민 방문 감소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3.8	34.0	44.7	14.5	3.1	2.79	44.8
도서관	(120)	4.2	33.3	42.5	15.8	4.2	2.83	45.6
박물관/미술관	(77)	5.2	32.5	48.1	13.0	1.3	2.73	43.2
공연장	(65)	1.5	36.9	44.6	13.8	3.1	2.80	45.0

자료: 설문조사

5-2. 문화기관 친환경 실천 영역별 중요성 인식

가. 관련 법/제도 준수

문화기관이 실천해야 하는 친환경 실천 영역을 살펴보면, 관련 법/제도 준수 영역은 평균 66.5점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시설에서 법/제도 준수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표 4-76〉 관련 법/제도 준수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8	1.5	38.5	49.2	9.9	3.66	66.5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1	2.2	31.5	53.9	11.2	3.72	68.0
	중소도시	(111)	0.0	0.9	45.9	45.0	8.1	3.60	65.1
	읍면지역 이하	(62)	1.6	1.6	35.5	50.0	11.3	3.68	66.9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8	2.5	40.0	45.8	10.8	3.63	65.8
	박물관/미술관	(77)	1.3	0.0	42.9	45.5	10.4	3.64	65.9
	공연장	(65)	0.0	1.5	30.8	60.0	7.7	3.74	68.5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0.0	16.7	55.6	27.8	4.11	77.8
	지방정부	(233)	0.9	1.7	40.3	48.1	9.0	3.63	65.7
	민간	(11)	0.0	0.0	36.4	63.6	0.0	3.64	65.9

자료: 설문조사

나. 지속가능한 경영방식 도입

문화기관이 실천해야 하는 영역 중 지속가능한 경영방식 도입의 중요성 인식은 공연장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국립시설에서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7〉 지속가능한 경영방식 도입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8	2.7	32.8	51.5	12.2	3.72	67.9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0.0	2.2	29.2	55.1	13.5	3.80	69.9
	중소도시	(111)	0.0	1.8	38.7	49.5	9.9	3.68	66.9
	읍면지역 이하	(62)	3.2	4.8	27.4	50.0	14.5	3.68	66.9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0	2.5	36.7	48.3	12.5	3.71	67.7
	박물관/미술관	(77)	1.3	3.9	33.8	46.8	14.3	3.69	67.2
	공연장	(65)	1.5	1.5	24.6	63.1	9.2	3.77	69.2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5.6	22.2	50.0	22.2	3.89	72.2
	지방정부	(233)	0.9	2.6	33.5	51.9	11.2	3.70	67.5
	민간	(11)	0.0	0.0	36.4	45.5	18.2	3.82	70.5

자료: 설문조사

다. 기관 종사자의 친환경 의식 향상

문화기관이 실천해야 하는 영역 중 기관 종사자의 친환경 의식향상의 중요성 인식은 71.7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도 국립시설의 중요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78〉 기관 종사자의 친환경 의식향상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4	0.8	26.3	56.9	15.6	3.87	71.7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0.0	2.2	22.5	56.2	19.1	3.92	73.0
	중소도시	(111)	0.0	0.0	28.8	55.9	15.3	3.86	71.6
	읍면지역 이하	(62)	1.6	0.0	27.4	59.7	11.3	3.79	69.8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0	1.7	27.5	54.2	16.7	3.86	71.5
	박물관/미술관	(77)	1.3	0.0	29.9	54.5	14.3	3.81	70.1
	공연장	(65)	0.0	0.0	20.0	64.6	15.4	3.95	73.8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0.0	11.1	66.7	22.2	4.11	77.8
	지방정부	(233)	0.4	0.9	27.5	55.8	15.5	3.85	71.2
	민간	(11)	0.0	0.0	27.3	63.6	9.1	3.82	70.5

자료: 설문조사

라. 방문객 대상 친환경 정책 홍보

방문객 대상 친환경 정책 홍보의 중요성 인식은 69.4점이었고, 공연장이 타 시설에 비해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79〉 방문객 대상 친환경 정책 홍보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4	1.9	31.7	51.9	14.1	3.77	69.4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0.0	2.2	24.7	59.6	13.5	3.84	71.1
	중소도시	(111)	0.0	0.9	40.5	45.0	13.5	3.71	67.8
	읍면지역 이하	(62)	1.6	3.2	25.8	53.2	16.1	3.79	69.8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0	0.8	35.0	50.8	13.3	3.77	69.2
	박물관/미술관	(77)	1.3	3.9	32.5	50.6	11.7	3.68	66.9
	공연장	(65)	0.0	1.5	24.6	55.4	18.5	3.91	72.7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11.1	22.2	38.9	27.8	3.83	70.8
	지방정부	(233)	0.4	1.3	32.6	52.8	12.9	3.76	69.1
	민간	(11)	0.0	0.0	27.3	54.5	18.2	3.91	72.7

자료: 설문조사

마. 친환경 주제 문화프로그램(공연, 전시, 교육 등) 확대

친환경 주제 문화프로그램 확대의 중요성 인식은 67.3점으로 예상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다만, 도서관에서는 친환경 주제 문화프로그램 확대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80〉 친환경 주제 문화프로그램 확대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8	2.3	35.9	49.2	11.8	3.69	67.3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1	2.2	30.3	55.1	11.2	3.73	68.3
	중소도시	(111)	0.9	0.0	41.4	45.0	12.6	3.68	67.1
	읍면지역 이하	(62)	0.0	6.5	33.9	48.4	11.3	3.65	66.1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8	0.8	28.3	55.0	15.0	3.83	70.6
	박물관/미술관	(77)	0.0	3.9	44.2	42.9	9.1	3.57	64.3
	공연장	(65)	1.5	3.1	40.0	46.2	9.2	3.58	64.6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5.6	44.4	38.9	11.1	3.56	63.9
	지방정부	(233)	0.9	2.1	35.6	48.9	12.4	3.70	67.5
	민간	(11)	0.0	0.0	27.3	72.7	0.0	3.73	68.2

자료: 설문조사

바. 친환경적 공간 확대

탄소상쇄와 관련되는 친환경 공간 확대의 중요성은 68.1점으로 나타났고, 국립시설의 친환경적 공간 확대의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81〉 친환경적 공간 확대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8	2.7	36.3	43.9	16.4	3.73	68.1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0.0	3.4	27.0	48.3	21.3	3.88	71.9
	중소도시	(111)	0.0	2.7	42.3	39.6	15.3	3.68	66.9
	읍면지역 이하	(62)	3.2	1.6	38.7	45.2	11.3	3.60	64.9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8	2.5	33.3	45.0	18.3	3.78	69.4
	박물관/미술관	(77)	1.3	2.6	39.0	42.9	14.3	3.66	66.6
	공연장	(65)	0.0	3.1	38.5	43.1	15.4	3.71	67.7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5.6	5.6	61.1	27.8	4.11	77.8
	지방정부	(233)	0.9	2.6	38.6	42.1	15.9	3.70	67.4
	민간	(11)	0.0	0.0	36.4	54.5	9.1	3.73	68.2

자료: 설문조사

사. 신재생 에너지 도입 노력

새로운 대안적 에너지를 찾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6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국립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 인식이 높았다.

〈표 4-82〉 신재생 에너지 도입 노력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1.1	8.8	34.7	41.2	14.1	3.58	64.6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2.2	12.4	28.1	43.8	13.5	3.54	63.5
	중소도시	(111)	0.0	8.1	35.1	44.1	12.6	3.61	65.3
	읍면지역 이하	(62)	1.6	4.8	43.5	32.3	17.7	3.60	64.9
시설 유형	도서관	(120)	2.5	11.7	31.7	40.8	13.3	3.51	62.7
	박물관/미술관	(77)	0.0	3.9	41.6	36.4	18.2	3.69	67.2
	공연장	(65)	0.0	9.2	32.3	47.7	10.8	3.60	65.0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0.0	38.9	38.9	22.2	3.83	70.8
	지방정부	(233)	1.3	9.4	34.8	40.3	14.2	3.57	64.2
	민간	(11)	0.0	9.1	27.3	63.6	0.0	3.55	63.6

자료: 설문조사

아. 쓰레기 배출 관리 노력

쓰레기 배출 관리 노력의 중요성 인식은 73.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든 시설에서 쓰레기 배출 저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83〉 쓰레기 배출 관리 노력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0	1.1	26.0	52.3	20.6	3.92	73.1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0.0	2.2	22.5	49.4	25.8	3.99	74.7
	중소도시	(111)	0.0	0.0	29.7	51.4	18.9	3.89	72.3
	읍면지역 이하	(62)	0.0	1.6	24.2	58.1	16.1	3.89	72.2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0	1.7	23.3	50.0	25.0	3.98	74.6
	박물관/미술관	(77)	0.0	1.3	29.9	50.6	18.2	3.86	71.4
	공연장	(65)	0.0	0.0	26.2	58.5	15.4	3.89	72.3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0.0	16.7	61.1	22.2	4.06	76.4
	지방정부	(233)	0.0	1.3	26.2	51.9	20.6	3.92	73.0
	민간	(11)	0.0	0.0	36.4	45.5	18.2	3.82	70.5

자료: 설문조사

자. 수질 오염 저감 노력

수질 오염 저감 노력의 중요성 인식은 72점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쓰레기 배출 관리와 마찬가지로 수질 오염 저감 노력은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4-84〉 수질 오염 저감 노력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4	1.9	27.1	50.4	20.2	3.88	72.0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1	3.4	28.1	41.6	25.8	3.88	71.9
	중소도시	(111)	0.0	0.9	27.0	54.1	18.0	3.89	72.3
	읍면지역 이하	(62)	0.0	1.6	25.8	56.5	16.1	3.87	71.8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0	2.5	24.2	53.3	20.0	3.91	72.7
	박물관/미술관	(77)	0.0	1.3	28.6	51.9	18.2	3.87	71.8
	공연장	(65)	1.5	1.5	30.8	43.1	23.1	3.85	71.2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5.6	0.0	27.8	33.3	33.3	3.89	72.2
	지방정부	(233)	0.0	2.1	27.5	50.2	20.2	3.88	72.1
	민간	(11)	0.0	0.0	18.2	81.8	0.0	3.82	70.5

자료: 설문조사

카. 에너지(전기, 물 등) 낭비 저감 노력

전기, 물 등 자원 절약 노력의 중요성은 73.2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기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높았으나, 국립시설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5〉 에너지 낭비 저감 노력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0	1.1	25.6	52.7	20.6	3.93	73.2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0.0	3.4	23.6	50.6	22.5	3.92	73.0
	중소도시	(111)	0.0	0.0	29.7	49.5	20.7	3.91	72.7
	읍면지역 이하	(62)	0.0	0.0	21.0	61.3	17.7	3.97	74.2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0	1.7	22.5	52.5	23.3	3.98	74.4
	박물관/미술관	(77)	0.0	0.0	32.5	49.4	18.2	3.86	71.4
	공연장	(65)	0.0	1.5	23.1	56.9	18.5	3.92	73.1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0.0	16.7	55.6	27.8	4.11	77.8
	지방정부	(233)	0.0	1.3	25.8	52.8	20.2	3.92	73.0
	민간	(11)	0.0	0.0	36.4	45.5	18.2	3.82	70.5

자료: 설문조사

타. 친환경적 제품 구매/ 사용

녹색 제품 등 친환경적 제품 구매/ 사용의 중요성 인식은 평균 68.7점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중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86〉 친환경적 제품 구매/사용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8	1.9	34.0	48.5	14.9	3.75	68.7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1	2.2	22.5	57.3	16.9	3.87	71.6
	중소도시	(111)	0.0	1.8	42.3	40.5	15.3	3.69	67.3
	읍면지역 이하	(62)	1.6	1.6	35.5	50.0	11.3	3.68	66.9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8	1.7	30.0	51.7	15.8	3.80	70.0
	박물관/미술관	(77)	1.3	2.6	39.0	44.2	13.0	3.65	66.2
	공연장	(65)	0.0	1.5	35.4	47.7	15.4	3.77	69.2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0.0	22.2	72.2	5.6	3.83	70.8
	지방정부	(233)	0.9	2.1	35.2	46.4	15.5	3.73	68.3
	민간	(11)	0.0	0.0	27.3	54.5	18.2	3.91	72.7

자료: 설문조사

파. 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자원의 재활용

마지막으로 문화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자원의 재활용의 중요성 인식은 70.2점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시설 유형 등과 관련해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87〉 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4	1.5	30.5	51.9	15.6	3.81	70.2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0.0	2.2	29.2	50.6	18.0	3.84	71.1
	중소도시	(111)	0.0	1.8	31.5	52.3	14.4	3.79	69.8
	읍면지역 이하	(62)	1.6	0.0	30.6	53.2	14.5	3.79	69.8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0	1.7	34.2	45.8	18.3	3.81	70.2
	박물관/미술관	(77)	1.3	1.3	29.9	54.5	13.0	3.77	69.2
	공연장	(65)	0.0	1.5	24.6	60.0	13.8	3.86	71.5
관할 주체	중앙정부	(18)	0.0	0.0	33.3	50.0	16.7	3.83	70.8
	지방정부	(233)	0.4	1.7	29.6	51.9	16.3	3.82	70.5
	민간	(11)	0.0	0.0	45.5	54.5	0.0	3.55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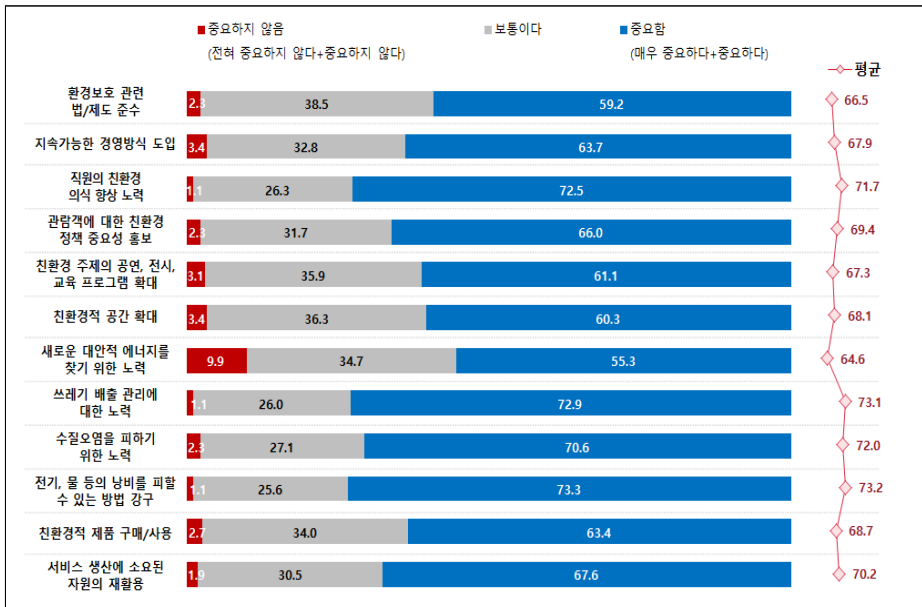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하. 종합

문화예술 기관의 친환경 실천 영역별 중요성을 종합해보면, ‘전기, 물 등의 낭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강구’가 7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쓰레기 배출 관리에 대한 노력’(73.1점), ‘수질오염을 피하기 위한 노력’(72.0점), ‘직원의 친환경 의식 향상 노력’(7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도시에 소재한 기관과 국립기관에서 친환경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4-39]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점)



자료: 설문조사

5-3. 문화서비스 이용자의 친환경 실천 가능성 인식

가.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기관이 친환경 정책 추진하고자 할 때 서비스 이용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영역별 가능성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동참 가능성은 63.2점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도보 이용이 많은 도서관의 가능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에서 동참 가능성 인식이 높았다.

〈표 4-88〉 이용자의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동참 가능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동참 안함	동참 안함	보통	동참함	많이 동참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1.9	12.6	27.9	46.2	11.5	3.53	63.2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1	12.4	20.2	53.9	12.4	3.64	66.0
	중소도시	(111)	1.8	9.0	42.3	35.1	11.7	3.46	61.5
	읍면지역 이하	(62)	3.2	19.4	12.9	54.8	9.7	3.48	62.1
시설 유형	도서관	(120)	2.5	13.3	20.8	49.2	14.2	3.59	64.8
	박물관/미술관	(77)	2.6	10.4	35.1	39.0	13.0	3.49	62.3
	공연장	(65)	0.0	13.8	32.3	49.2	4.6	3.45	61.2

자료: 설문조사

나. 1회 용품 절약

1회 용품 절약에 동참 가능성 인식은 71.3점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 소재의 시설에서 동참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공연장에서 동참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89〉 이용자의 1회 용품 절약 동참 가능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동참 안함	동참 안함	보통	동참함	많이 동참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4	4.6	20.6	58.4	16.0	3.85	71.3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1	5.6	15.7	58.4	19.1	3.89	72.2
	중소도시	(111)	0.0	5.4	24.3	56.8	13.5	3.78	69.6
	읍면지역 이하	(62)	0.0	1.6	21.0	61.3	16.1	3.92	73.0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8	5.0	16.7	57.5	20.0	3.91	72.7
	박물관/미술관	(77)	0.0	3.9	22.1	59.7	14.3	3.84	71.1
	공연장	(65)	0.0	4.6	26.2	58.5	10.8	3.75	68.8

자료: 설문조사

다. 자원 및 에너지(전기, 물) 절약

이용자의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동참 가능성은 67.3점 이었다. 소재지 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시설에서 동참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시설 유형별로는 도서관의 동참 가능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90〉 자원 에너지(전기, 물 등) 절약 동참 가능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동참 안함	동참 안함	보통	동참함	많이 동참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1.1	5.3	30.5	49.2	13.7	3.69	67.3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2.2	5.6	31.5	49.4	11.2	3.62	65.4
	중소도시	(111)	0.9	7.2	31.5	48.6	11.7	3.63	65.8
	읍면지역 이하	(62)	0.0	1.6	27.4	50.0	21.0	3.90	72.6
시설 유형	도서관	(120)	1.7	9.2	25.8	50.0	13.3	3.64	66.0
	박물관/미술관	(77)	1.3	2.6	32.5	48.1	15.6	3.74	68.5
	공연장	(65)	0.0	1.5	36.9	49.2	12.3	3.72	68.1

자료: 설문조사

라. 친환경 캠페인 참여

문화시설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할 가능성은 64.3점으로 나타났다. 소재지 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이하에 소재한 시설에서 이용자의 참여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시설 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91〉 친환경 캠페인 참여 동참 가능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동참 안함	동참 안함	보통	동참함	많이 동참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4	6.9	37.0	46.6	9.2	3.57	64.3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0.0	10.1	37.1	48.3	4.5	3.47	61.8
	중소도시	(111)	0.9	5.4	41.4	44.1	8.1	3.53	63.3
	읍면지역 이하	(62)	0.0	4.8	29.0	48.4	17.7	3.79	69.8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0	6.7	40.0	44.2	9.2	3.56	64.0
	박물관/미술관	(77)	1.3	5.2	36.4	48.1	9.1	3.58	64.6
	공연장	(65)	0.0	9.2	32.3	49.2	9.2	3.58	64.6

자료: 설문조사

마.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참여

이용자의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은 65.8점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도시에 있는 시설에서 동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공연장에서 동참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표 4-92〉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인식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동참 안함	동참 안함	보통	동참함	많이 동참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262)	0.4	5.3	37.0	45.0	12.2	3.63	65.8	
소재지 규모	대도시	(89)	1.1	5.6	33.7	46.1	13.5	3.65	66.3
	중소도시	(111)	0.0	5.4	43.2	43.2	8.1	3.54	63.5
	읍면지역 이하	(62)	0.0	4.8	30.6	46.8	17.7	3.77	69.4
시설 유형	도서관	(120)	0.8	1.7	40.0	45.0	12.5	3.67	66.7
	박물관/미술관	(77)	0.0	5.2	32.5	49.4	13.0	3.70	67.5
	공연장	(65)	0.0	12.3	36.9	40.0	10.8	3.49	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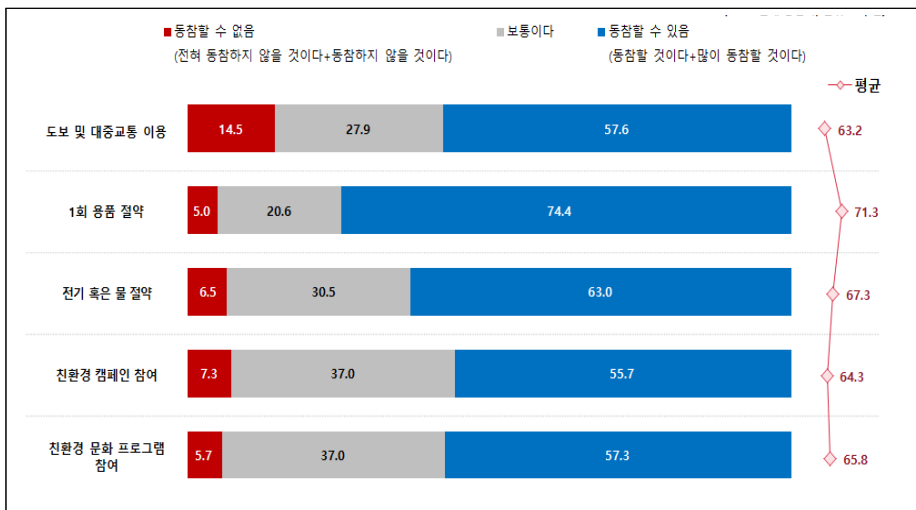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바. 종합

이용자의 친환경 활동 동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1회용품 절약'이 7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기 혹은 물 절약(67.3점)', '친환경문화 프로그램 참여'(6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외로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참여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 4-40〉 문화서비스 이용자의 친환경 실천 가능성 인식 종합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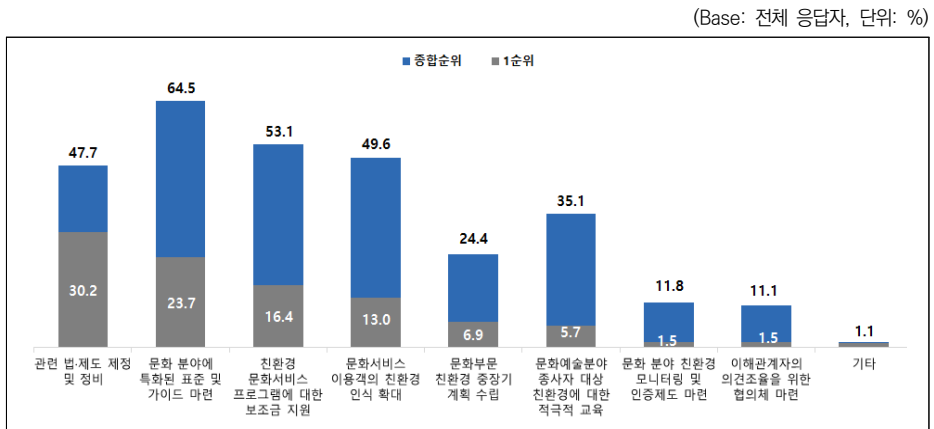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5-4. 문화서비스의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친환경 정책의 문화서비스 기관 정착을 위해 정부의 할 일을 살펴보면(종합순위 기준), ‘문화 분야에 특화된 표준 및 가이드 마련’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환경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53.1%), ‘문화서비스 이용객의 친환경 인식 확대’(4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는 관련 법/제도 제정 및 정비, 문화분야에 특화된 표준 및 가이드 마련, 친환경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1] 친환경 정책을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자료: 설문조사

<표 4-93>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단위: %, 점)

구분	전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사례수	262	120	77	65
관련 법·제도 제정 및 정비	30.2	32.5	31.2	24.6
문화 분야에 특화된 표준 및 가이드 마련	23.7	20.8	24.7	27.7
친환경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	16.4	16.7	16.9	15.4
문화서비스 이용객의 친환경 인식 확대	13	11.7	11.7	16.9
문화부문 친환경 중장기 계획 수립	6.9	6.7	6.5	7.7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대상 친환경에 대한 적극적 교육	5.7	5.8	9.1	1.5
문화 분야 친환경 모니터링 및 인증제도 마련	1.5	2.5	0	1.5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율을 위한 협의체 마련	1.5	0.8	0	4.6
기타	1.1	2.5	0	0

자료: 설문조사

6. 시사점

6-1. 문화시설 설문결과 종합

설문의 응답 값이 다소 불안정하여 설문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전에 미리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조사는 문화예술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문화시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공립문화시설(담당자)의 인식과 탄소발자국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다만 대상 국공립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문예회관)으로 한정하였으며 전국 1,722기관 중 262기관(약 15%) 정도만 응답하였다. 이 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순으로 전체의 약 10%, 16%, 10.5%, 63%이었다.³¹⁾ 이러한 응답률이 의미하는 바는 문화시설의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전수에 가까운 데이터가 필요한 영역은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시설 탄소발자국은 전수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황이 파악되고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 하는 영역인데, 본 조사에서는 일부 시설의 응답값만으로 시범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문화시설의 운영방향에 탄소발자국 저감 노력 등 그린 전환의 준비는 적극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문화시설의 친환경 관련 준비도와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 사회적 요구와 기관장의 관심도는 낮지 않은 편이나, 실제 친환경 관련 계획의 수립이 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친환경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친환경 관련 준비가 약하다는 인식도 높아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친환경 전환을 위한 시스템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력 등에 의해 친환경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 관리와 저탄소 제품 구매 등 환경부 영역의 사업 실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도입과 자원의 재활용과 관련한 실행률이 낮았고, 향후 실행계획 비율도 높지 않았다.

문화시설의 탄소발자국과 관련해서 먼저 문화시설의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의 필요성

31) 문체부, 시설관련 협회, 단체의 독려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시설별 응답률 차이가 발생하였음.

인식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환경부 등에서 제공하는 탄소배출량 추정 방식을 통해 문화시설의 탄소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공연장의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다음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순이었다. 시설 노후도는 탄소배출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반적인 재건축 연한 30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시설의 탄소배출량이 19%~3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인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녹색제품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 도입 비율은 21.5% 수준이었고,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의 4%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녹색제품 구입은 연평균 18%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 현재 전체 제품 구매액 대비 18% 수준이었다.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관련 인식은 문화기관도 친환경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동참의 걸림돌은 관련 인력의 부족, 추가적 비용 발생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시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문화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문화시설 친환경 정책은 전기/물 에너지 자원의 절약, 쓰레기 배출 관리, 수질오염 저감 노력, 직원의 친환경 의식 향상, 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자원의 재활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해당 시설 방문객이 호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은 1회용품 절약, 전기/물 에너지 절약,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도보를 이용한 기관 방문의 동참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이 그린 전환을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관련 법제도 정비, 문화 분야에 특화된 표준 및 가이드 마련, 친환경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화서비스 이용객의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2. 정책적 시사점

가. 운영 방향 및 친환경 준비도

종합적으로 현재 시설에 있어 반영해야 하는 내·외부 환경 변화 대응에 있어 '탄소발자국 저감노력' 등 친환경관련 사항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압력은 높아지고 있고, 향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관의 운영방향 중 친환경 정책 도입은 기초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친환경 전환을 위한 압력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을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문화정책과 친환경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융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없어 이에 대한 방향 마련이 시급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활동실행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개선', '저탄소 제품 구매 확대'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 '친환경 프로그램개발'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그리고 '모니터링', '보험가입' 등은 매우 저조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친환경장비 사용'과 '저탄소 제품구매확대' 등은 '공연장'이 비교적 높고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개발'이나 '친환경 모니터링', '환경 리스크에 대한 보험가입' 경우는 '도서관'이 월등히 높다. 즉 물리적 장비, 구매 등이 공연장이 시설 특성상 높으나 소프트웨어 등은 도서관이 높게 나타나 각 시설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친환경 책임이행과 관련해 43.5%가 책임 이행 의향 있다고 응답한 반면, 친환경 준비는 18%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일차적으로 의향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친환경 책임 이행을 고려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유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친환경 책임 이행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다음 단계로 책임 이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기관까지 동참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탄소 발자국 현황

먼저, 공공문화시설의 탄소발자국 모니터링 필요정도에 대해서는 100점 평균 58.7점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시설의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의 필요성 및 탄소발자국 저감 목표 등을 구체화하여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정책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문화 공급망에서 탄소저감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기관이 여전히 탄소배출이 문화시설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탄소배출이 적다가 하더라도 문화는 언제나 시대정신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앞서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시설의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는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특성에 따라 탄소배출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공연장은 가동 일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연시설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문화분야의 친환경 정책 가이드를 마련할 때, 시설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의 노후도는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기관의 노후도가 탄소배출량을 최대 33%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 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이 시급함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의 탄소저감 노력은 친환경 녹지 공간의 확대, 신재생 에너지 도입, 녹색제품으로 구매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친환경 녹지공간은 가능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탄소상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용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현재 4% 수준에서 지속해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제품의 비율도 가능한 목표 수준을 잡고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 친환경 정책 수요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 추진 시 제약이 되는 사항 중 친환경 관련 인력의 부족 및 업무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대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추가적인 비용도 친환경 정책 추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 추진 시 제약 사항은 ‘인력부족/업무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련 제도 및 가이드 미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제도 및 가이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연계하여 전문인력 활용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

친환경 실천 중요성에서 ‘전기, 물 등의 낭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쓰레기 배출 관리’ 등이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 한편 ‘적극적인 대안에너지 찾는 노력’, ‘친환경공간확대’ 및 ‘친환경 주제의 공연, 전시, 교육프로그램 확대’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인식되거나 경험된 친환경 실천 중심으로 중요성을 보이고 그 이상의 적극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서비스 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역 중 실천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환경중심의 정책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환경중심 정책이 구체성과 실천 가능성이 보다 단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문화중심의 정책인 친환경 주제의 프로그램 확대, 친환경 공간의 확대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와 성공사례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되므로 문화중심의 친환경 정책도 지속해서 구체화하고 사례를 축적하여 참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서비스 이용자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덜하리라 판단되는 자원의 절약과 관련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용 불편과 탄소배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접근 영역은 생각보다 이용자들이 친환경적 이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불편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 이동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이 개발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수요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문화정책 내에서 친환경 전환을 할 수 있는 근거인 관련 법/제도 정비해야 한다가 1순위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순위를 종합해서는 문화정책에 특화된 친환경 표준 및 가이드라인, 다음으로 친환경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화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역할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들은 문화서비스 현장에서 정책과 시민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의견들이므로 중앙정부 역할이 절실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직접적으로 문화중심의 친환경정책을 현재까지 실현하기 쉽지 않음으로 친환경 전환에서 문화분야가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제5장

정책 방향과 과제

제1절 정책 방향

1.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 관점과 정책 방향

1-1.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 관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한 친환경적 관점과 실천은 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고,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제어하여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또한 창작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행위가 전제되므로, 문화예술에 있어서 ‘친환경적 관점’이란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후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련 행위와 과정을 친환경의 관리 ‘대상’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이슈는 인간의 생활방식, 즉 광의적 의미에 문화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환경이슈의 해결과 친환경성의 확보는 ‘문화’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환경이슈를 보다 쉽게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와 연대를 촉발하는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있어 또 다른 ‘친환경적 관점’은 “환경이슈에 관한 소통과 해결, 연대의 동인(driver)으로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문화와 환경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 문화예술에 있어 친환경적 관점

환경에 있어 문화예술의 의미	친환경 관점
대상(對象)으로서 문화예술	•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후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동인(動因)으로서 문화예술	• 환경이슈에 관한 소통과 해결, 연대의 동인(driver)으로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문화와 환경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료: 저자 작성

1-2.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 정책 방향

가. 기본방향: 문화예술 분야의 적극적 환경적응 정책과 환경위험 저감 강화

환경문제에 있어 ‘저감(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관 주도 구조적인 대책에 의해 위험발생 확률을 낮추는 접근은 기후변화 등 환경 위험의 불확실성, 복잡성, 비선형성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고재경·이우평, 2015: 3)고 지적되기도 한다. 즉 단일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규제, 처벌 등과 같은 물리적 방식으로 저감 혹은 완화가 가능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삶의 방식에 의해 발생한 환경문제는 사회적 자본 형성, 수용력 확보, 경제·사회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등과 같은 ‘적응’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국제기구 혹은 주요 국제회의에서 제시한 정의(표 5-2 참조)를 요약하자면,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제반 현상들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심지어 이를 계기로 삶의 방식 전환 및 새로운 경제적 이익 획득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과 제도에 의한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반환경적 요인을 줄여나가는 ‘저감’적 정책 접근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5-2〉 기후변화 ‘적응’의 정의

구분	정의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자극과 기후자극의 효과에 대응한 자연, 인간시스템의 조절작용,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새로운 기회로 삼는 행동 또는 과정을 포괄
UNDP (유엔개발계획)	• 기후변화 현상에 수반된 결과를 완화, 대처하고 이용하는 전략 강화·개발·실행의 과정
UNFCCC (UN 기후변화협약)	•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동
UKCIP (the UK Climate Impacts Programme)	• 기후변화에 관련된 손해와 그 손해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파악하는 과정, 혹은 그 과정에서 나온 미래 기후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

자료: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https://kaccc.kei.re.kr/portal/climateChange/adapt/adapt_view.do?num=1, 검색 일자: 2021.10.19.) 자료를 저자 수정·정리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 정책 방향 또한 ‘저감’과 ‘적응’의 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문화예술은 기후환경 변화 등 환경이슈에 있어 ‘저감’과 ‘적응’의 대상이다. “문

회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적응’은 문화예술 관련 조직과 사람이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양식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시설 등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등의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완화는 당장에 문화시설에 배출하고 있는 탄소배출을 완화하거나 중립화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장훈, 2021) 문화예술은 제반 환경이슈, 기후환경변화에 덜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에 주요 시설 및 기관 운영, 창·제작 활동, 문화예술 서비스 공급 및 이용 등 전 영역에서 환경문제에 기민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가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각 영역에서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각 주체의 이해와 합의 없이 하향식으로 이행목표와 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수용력 확보를 전제로 환경이슈에 ‘적응’할 때 자연스럽게 ‘저감’의 효과 또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적응 및 완화 전략(예시)

적응전략	완화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내 녹지 공간 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료 관리체계 마련 • 실내 환경(온도, 공기)을 적절히 유지 • 문화시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국가재난네트워크 등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에너지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문화 이용시 도보/ 대중교통을 이용 • 자원의 절약, 리사이클 • 문화예술을 활용한 환경 커뮤니케이션

자료: 장훈(2021), 친환경 관점을 적용한 문화예술을 새로운 지평, 웹진 문화관광(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11

둘째, 문화예술이 가진 창의성에 환경이슈를 접목한다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환경문제에 대한 수용력과 적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이슈에 대한 ‘적응’이란 궁극적으로 생활 방식의 친환경적 변화, 사회적 자본의 형성, 나아가 경제사회 시스템을 ‘정의롭게 전환(just transition)’하는 것으로, 국민과 사회 각 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선결 조건이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시 전 세계 예술인들이 모여 환경예술축제 ‘ArtsCOP21’가 개최되고,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COP26을 앞두고 10월 런던에서 태평양예술페스티벌(Pacific Art Festival)이 열린 것과 같이 문화예술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적 실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즉 적응의 촉매로서 문화예술의 역할 부여와 관련 정책 발굴은 환경이슈 해결 ‘동인(動因)’으로서 문화예술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 기본원칙: ① 책임성 ② 합리성 ③ 공정성 ④ 창의성

2021년 10월 18일 정부와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비전하에 ① 책임성 ② 포용성 ③ 공정성 ④ 합리성 ⑤ 혁신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5-4 참조).

〈표 5-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의 원칙

원칙	내용
책임성의 원칙	• 사회구성원 전체가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
포용성의 원칙	• 미래세대와 인류 외 다른 생물종까지 배려
공정성의 원칙	•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 없이 모두의 참여를 보장
합리성의 원칙	•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실현가능성 높은 미래성 도출
혁신성의 원칙	• 과학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21.10.18.

이상의 범국가적 방침을 준용하여 문화예술분야 친환경 정책의 기본원칙을 ① 책임성, ② 합리성, ③ 공정성, ④ 창의성으로 설정한다.

첫째, 책임성은 문화예술분야 또한 환경이슈에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문화예술인은 물론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주요 시설 및 기관 또한 각자의 영역에서 친환경적 관점을 접목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합리성의 문제이다. 2장의 현황에서 살펴 보았듯이 문화예술(서비스)과 연관된 환경 관련 정보 및 통계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천목표와 실효적 정책발굴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문화기관 설문조사 결과, 각 시설들은 실천 의지는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명확한 지침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현황 분석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성의 원칙으로, 이는 포용성과도 연관된다. 문화예술분야도 개인, 기관 및 시설들이 처한 여건(규모, 예산, 인력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기준이나 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모두의 참여를 전제하되 차등적 기준의 적용 혹은 예산 등의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체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창의성으로, 이는 혁신성과 연결된다. 문화예술 분야는 고유한 창의적 속성을 환경이슈와 결합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인식·실천하고 적응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표 5-5〉 문화예술부문 친환경정책의 기본원칙

원칙	내용
책임성 (Responsibility)	• 문화예술분야 각 영역에서 친환경적 관점을 접목하여 모두가 책임성 있게 환경 문제에 대응
합리성 (Rationality)	• 합리성에 의거한 객관적 현황 분석과 실천력 있는 친환경 정책 발굴
공정성 (Equity)	• 모두의 참여를 전제하되 차등적 기준의 적용 혹은 예산 등의 지원으로 상대적 취약주체의 참여 유도
창의성 (Creativity)	• 문화예술의 창의적 속성과 환경이슈를 결합, 직관적으로 환경문제를 인식·실천 하고 적용하는데 기여

자료: 저자 작성

2.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 적 실천 영역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제도, 정책 및 사례 등을 종합하여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한 문화 예술 분야의 실천영역으로 ① 기후변화 대응 (Carbon-Free), ② 자원순환 (Re-Cycling), ③ 환경-문화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④ 환경-문화협력 (Collaboration) 등 ‘4C’를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은 문화예술 관련 행동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시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환경조성 및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것이다. 문화 시설 및 기관의 운영, 주요 이벤트와 축제 개최 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량의 관리를 위한 측정지표 및 관리 매뉴얼 개발, 제도적 환경 구축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동하여 문화예술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자원순환’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친환경적 처리, 재활용에 관한 지침 및 정책 사업이 해당하며, 덧붙여 폐기물 및 폐·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환경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으로 환경 관련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환경이슈와 결합한 문화예술교육 진흥, 그리고 그린 생활문화 확산 및 정책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협력 및 거버넌스’는 환경이슈와 문화의 결합을 위한 부처 간 그리고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의 구축, 관련하여 국내외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것이다.

〈표 5-6〉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한 문화예술 분야 실천영역 및 주요 내용(예시)

친환경적 실천 영역 및 주요 내용		
영역	내용 (예시)	
4 C	기후변화 대응 (Carbon-F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활동 및 관련사업의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한 측정 지표 및 가이드 개발 관련 제도적 여건, 추진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추진
	자원순환 (Re-Cyc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활동 및 관련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과 오염물질의 친환경적 처리, 재활용 방안 폐기물 및 폐·유휴시설의 문화적 활용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관련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환경이슈와 결합된 문화예술교육 진행 그린생활문화 확산 및 정책화
	협력 및 거버넌스 (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간,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 구축 환경 관련 문화예술 분야 국내외 협력사업 추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및 실천영역



제2절 정책 과제

1. 문화예술분야의 기후변화 및 자원순환 대응

1-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과 연동하는 목표 설정

2021년 10월 18일 정부(관계부처 합동)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보면,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0%로 소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은 변화가 없는 반면, 2030년까지 중간시점 배출목표를 당초 2018년 대비 28.5%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2022년 3월 25일 시행 예정(공포: 2021년 9월 24일)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취지³²⁾, 상향조정 중인 국제사회 동향 그리고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³³⁾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부문별 감축 계획을 보면 ① 전환(발전 등), ② 산업(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고에너지 사용 산업 중심), ③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 ④ 수송(수요관리, 친환경차 보급 등), ⑤ 농축산(저탄소농업, 가축관리 등), ⑥ 폐기물(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⑦ 수소(추출 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⑧ 흡수원(산림 조성, 연안 및 내륙습지 조성 등), ⑨ CCUS(대용량 저장소 확보 등), ⑩ 국외감축(파리평정 이행, 정부 간 협정 등)으로 나누어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비록 高온실가스 배출 영역은 아니지만, 문화 관련 시설, 축제 및 이벤트 등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국립 문화시설, 신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33) 관계부처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10.18.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 전체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선도적이고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³⁴⁾

〈 (제안) 문화예술 탄소배출 목표 〉
(국립 문화시설 및 산하 공공기관 대상) 2030년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본 연구는 2030년까지 61개의 국립 문화시설과 3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표 5-5 참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대비 '40%' 감축을,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도록 목표설정 할 것을 제안한다. 기준년도는 정부계획과 동일하게 2018년으로 하되, 관련 데이터 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후 현실 가능한 기준년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도 임직원수, 청사 규모 및 소유 형태 등에 따라 탄소배출량 측정에 큰 의미가 없는 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 후 대상 기관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국립 외 공립 문화시설은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1,884개가 있어 원칙적으로 이들 또한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일방으로 감축대상에 포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기관들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권고·유도하나 탄소배출량, 폐기물 처리 현황 등 중요한 지표는 국가승인통계인 '지역문화현황조사'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통해 수집하여 정책에 활용한다. 민간 문화시설의 경우 규모나 재정 여건, 인식 수준 등에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홍보, 재정적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7〉 국립 문화시설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국립 문화시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공연장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 수	3	47	4	7	1	6	25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20년 1월 기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검색일자: 2021.10.26.)

34) 영국은 영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 차원의 환경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문화시설 및 기관 차원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의 사례는 많으나 문화예술부문 정부기관(ministry)으로서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없다.

1-2. 탄소배출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조치

가. 친환경성 모니터링 지표 및 가이드라인 설계

① 친환경성 모니터링 지표 설계 및 활용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연구원과 같은 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요 시설별 탄소배출량 산정과 모니터링 방식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기별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한다. 탄소배출량과 더불어 녹색 경영시스템, 자원/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 방안, 녹색제품 서비스, 사회·윤리적 책임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친환경 지표'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각 기관의 이행 및 계획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의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공시 지표를 활용하여 작성된 '문화예술분야 기관 및 시설 친환경성 측정 지표'(예시)는 <표 5-8>과 같다.

<표 5-8> 문화예술분야 기관 및 시설 친환경성 측정 지표 (예시)

구분	조사항목	문화시설			공기업/ 공공기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기관개요	<input type="checkbox"/> 사업현황	●	●	●	●
	<input type="checkbox"/>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	●	●
녹색 경영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비전, 전략, 방침, 목표	●	●	●	●
	<input type="checkbox"/>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	●	●	●
자원/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input type="checkbox"/> 원부자재 사용량	-	-	-	-
	<input type="checkbox"/>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	●	●	●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사용량	●	●	●	●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	●	●
온실가스/ 환경오염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	●	●	●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	●	●	●
	<input type="checkbox"/>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input type="checkbox"/>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	●	●
	<input type="checkbox"/>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	-
	<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	●	●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	●	●	●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배출량	●	-	-	-
	<input type="checkbox"/> 토양, 소음진동, 악취 관리 현황	-	-	-	-

구분	조사항목	문화시설			공기업/ 공공기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녹색제품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녹색제품, 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	-	-	-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	-	-	-
	<input type="checkbox"/> 제3자 인증 및 Type II 인증제품 현황	-	-	-	-
	<input type="checkbox"/>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	●	●	●
	<input type="checkbox"/>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	-	-	-
	<input type="checkbox"/>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	-	-
사회·윤리적 책임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	●	●	●
	<input type="checkbox"/>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	●	●	●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 현황	●	●	●	●

자료: '환경정보공개제도'(환경부)에 의거한 환경정보 지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 8과 9에 의거,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 녹색기업 등 총 1,600여 개 기업 및 기관 대상 조사 후 정보공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env-info.kr>)

국립 문화시설 및 산하 공공기관 외 지자체 산하 공공 문화시설 및 기관의 경우 이상의 지표를 통해 일괄적으로 자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매년 실시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와 3년 주기로 조사되는 '지역문화현황조사'의 주요 지표에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녹색제품 구매 등을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 정책개발 및 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② 문화예술의 각 분야별 친환경 체크리스트 및 지침서 마련

문화예술분야는 실내행사(전시·공연), 실외행사(축제 및 이벤트), 도서관 업무 등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체크리스트와 이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기관 및 개별 사업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실내행사(전시·공연), 실외행사(축제 및 이벤트), 도서관과 관련된 친환경 체크리스트의 예시는 각각 <표 5-9>, <표 5-10>, <표 5-11>과 같다.

<표 5-9> 실내행사(전시·공연)분야 친환경 체크리스트 (예시)

분야	항목
신규자재 생산축소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재료(레그라인드 HDPE, 알루미늄 등) 사용
	<input type="checkbox"/> 건축자재 재사용 (기존 전시물 또는 주택의 해체 등)
	<input type="checkbox"/>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숲의 목재 사용

분야	항목
	<input type="checkbox"/> 생분해 가능 재료(대나무, 밀 등) 사용
	<input type="checkbox"/> 최소한의 재료로 전시품 및 무대장치 제작환경 구성
로컬자원 활용	<input type="checkbox"/> 물품 수송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100km 이내에서 조달 가능한 현지 원료를 명시
	<input type="checkbox"/> 100km 이내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 활용
	<input type="checkbox"/> 50km 이내에서 업체 및 인력을 고용
폐기물 감소	<input type="checkbox"/> 물품·상품 대량 주문
	<input type="checkbox"/> 전시 이후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유리, 마분지 등)
	<input type="checkbox"/> 구성 요소를 분해할 수 있는 구조 방법(모듈형 가벽 등)을 선택
에너지 소비율 절감	<input type="checkbox"/>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소모품 최소화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전자 및 부품 사용
	<input type="checkbox"/>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인터페이스 절감
	<input type="checkbox"/> 대체 에너지(인력으로 움직이는, 태양열, 바람) 사용
독성물질 배출 최소화	<input type="checkbox"/> 전자제품 미사용시 자동 전기 차단기 설치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페인트 및 마감재 선택, PVC 및 스티렌 사용 지양, 그래픽 패널에 소이 잉크 활용한 친환경 인쇄
	<input type="checkbox"/>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없는 제품 사용 * 메탄올의 산화로 자극성 냄새가 지닌 가연성 무기색채료로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함.
운영체계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전시 체크리스(가이드) 웹사이트에 공유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친환경 전시 설계 또는 생산 시스템 통합

자료: 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2021),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 p.38

* 미국박물관연합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가 공표한 체크리스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표 5-10〉 실외행사(축제 및 이벤트) 분야 친환경 체크리스트 (예시)

분야	항목
에너지	<input type="checkbox"/> 행사 운영 시 자연광 활용하기
	<input type="checkbox"/> 전력 사용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자연광 활용, 전원차단, 햇빚·전기난방 대신 무릎담요)
	<input type="checkbox"/> 디젤 발전차량을 대체할 에너지 찾아보기
	<input type="checkbox"/> 행사 후 사용한 전력 체크하기
	<input type="checkbox"/> 물 절약 및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준비하기 (친환경세제, 설거지통 사용, 시민사전교육)
제작물	<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한 제작이 되지 않도록 홍보물의 종류/수량/사용처 확인하기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인쇄하기 (FSC용지, 재생용지, 양면인쇄 등)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기
	<input type="checkbox"/> 행사 후 잔여 제작물의 재활용 방안 계획하기
	<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한 제작물 생산을 막기 위한 QR코드 사용하기
	<input type="checkbox"/> 옥외 홍보물의 경우 접착제 사용 최소화하기
<input type="checkbox"/> 일회용 포장재 대신 에코백과 종이가방 기부받아 활용하기	

분야	항목
폐기물	<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한 구매보다 기존에 쓰던 물품 먼저 쓰기
	<input type="checkbox"/>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 확인하기
	<input type="checkbox"/> 참가자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기 (비닐, PP, PET, PC 등)
	<input type="checkbox"/> 현장 스태프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 숙지하기
	<input type="checkbox"/> 개별 포장 물품 구매 지양하기
	<input type="checkbox"/> 무대, 가벽 등 최대한 폐기물을 줄이기
	<input type="checkbox"/> 플라스틱 병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리필 가능한 식수 공급하기
다화용	<input type="checkbox"/> 다화용기·텀블러 사용 권장하기
	<input type="checkbox"/> 참가자가 본인 용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홍보하기
	<input type="checkbox"/> 다화용기 대여 시 스테인리스 혹은 유리 소재 준비하기
노동	<input type="checkbox"/> 모든 스태프는 서로를 정당하게 대우하고 존중하기
	<input type="checkbox"/> 스태프의 휴게시간과 공간 보장하기
책임	<input type="checkbox"/>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생각하고 제작하기
	<input type="checkbox"/> 제작자들에게 '어떤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창·제작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인권	<input type="checkbox"/> 연령, 성별,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기
	<input type="checkbox"/> 연령, 성별, 장애 여부에 제한 두지 않고 창·제작자를 모집하기
	<input type="checkbox"/> 기획 단계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고려하기

자료: 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2021),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 p.39

* <에코페스트 인 서울>을 통해 환경재단에서 공표한 체크리스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성

〈실의행사 사례〉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친환경 프로젝트

-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대구시의 인가와 예산 지원 하에 (사)한국치맥산업협회가 주관하며 2020~2021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
-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음식축제인 만큼 재활용 폐기물이 다수 배출되는 관계로 '자원순환형 축제'를 지향하고 있음.
-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친환경(자원순환) 축제를 위해 ① 옥수수 전분 성분의 친환경 투명컵 사용, ② 비닐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자제, ③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클리닝 타임 진행 등을 실행하고 있음.

가. 옥수수 전분 성분의 친환경 투명 컵 사용

- 2019년 축제부터 친환경 투명컵 행사장 배포
- 플라스틱 프리(free) 프로젝트 진행
- 다화용 맥주컵 판매 (맥주 1잔 무료쿠폰 제공)

나. 관람객 자발적 환경정화 참여를 위한 클리닝타임 진행

-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클리닝퍼레이드, 무대 퍼포먼스 타임 등 축제의 프로그램화 하여 진행

다.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다각적 방안 시도

- 비닐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화용 에코백 & 종이가방 제공
- 1회성 테이블보 사용 자제를 위한 테이블 랩핑 운영

〈표 5-11〉 도서관 분야 친환경 체크리스트 (예시, 공통항목 제외)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실내환경	공기환경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규제 및 발생정도가 낮은 제품 자체 사용)
		• 자연통풍 확보 여부
	음환경	• 단위세대의 환기능능확보 여부
	빛환경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소음도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소음도 평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 일조 확보율	
	•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청결한 실내환경 조성	
	• 도서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실내환경 쾌적성	
도서관 자원	기증	• 기증에 의한 재활용(폐기도서 이용자 제공 등)
	장서관리	• 장서보존의 효율성(도서관 장서보존 최소화)
		• 자료의 적절한 폐기
		• 전자자원(전자책)의 적극적 활용
	도서관 용품	• 청소도구, 인쇄용품 등 용품관리의 친환경 확보
		• 기존보다 장시간 이용 가능한 칩 사용을 자연자원 보존
		• 녹색인증제품, 분리수거 가능 용가 등 친환경비품 사용
	자원 절약	• 자원절약시스템 도입 및 관리의 친환경성
		• 종이자원의 재활용 (재활용지 사용, 양면출력 등)
		• 도서관 가구의 재활용
• 미디어 관련 매체의 재활용		
• 도서관 소모품의 재활용		
• 도서관 자료의 재활용 (폐기도서 재활용 등)		
• 도서관 협력을 통한 자원절약		
• 재활용 시설 설치		
공간 활용	• 파티션을 활용한 도서관 공간의 유동적 이용	
• 이용자 동선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배치		
전산화	녹색콘텐츠	• OPAC 서비스 (OPAC: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
		• 콘텐츠가 풍부한 웹사이트 제공
	친환경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 서비스의 운영
		• 전자형태의 자료 제공
	자동화	• 검색시스템 등 그린 IT 솔루션
• 인쇄자료의 전자화		

자료: 노영희(2015), 녹색도서관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32권 제3호, 〈표 24〉의 내용을 저자 정리

나. 주요 국립 문화시설의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호주박물관의 예에서 보듯 국가와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은 사회적 책임경영 차원에서 환경보고서 혹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 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의 경우 환경(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 않으며, 녹색경영과 관련해서도 목표설정이 모호하고 교육 훈련 또한 안전사고에 국한하여 진행하고 있다(표 5-12 참조).

〈표 5-12〉 문화예술분야 주요 국립기관 친환경경영 현황(2019)

	녹색경영,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 심사 등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성장위원회 목표 및 계획 준용하여 수립 에너지 등 사용량, 저감 등 상세목표는 미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내 녹색경영조직체계 및 전담부서 마련 교육훈련은 안전사고에 국한(환경부문은 미추진) 	발간 안함
국립중앙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성장위원회 목표 및 계획 준용하여 설정 에너지 등 사용량, 저감 등 상세목표는 미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내 녹색경영조직체계 및 전담부서 마련 교육훈련은 안전사고에 국한(환경부문은 미추진) 	발간 안함
예술의 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및 전략 수립 안함 에너지 등 사용량, 저감 등 상세목표는 미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내 녹색경영조직체계 및 전담부서 마련 교육훈련은 안전사고에 국한(환경부문은 미추진) 	발간 안함
아시아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경영 목표 및 세부 계획 수립·추진 에너지 등 사용량, 저감 등 상세목표는 미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내 녹색경영조직체계 및 전담부서 마련 녹색경영 관련 교육실시(환경관리공단 위탁) 	발간 안함

자료: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의 공개정보(접속일자: 2021.10.23.)를 검색하여 저자 작성

이에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 문화시설은 자체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과 환경 관련 혁신 계획(예. LED 교체 등 에너지 사용저감 대책, 신재생에너지 사용 방안, 자원순환 및 녹색제품 구매, 옥상 정원 등 에너지흡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 환경(지속가능) 보고서를 주기적(2~3년)으로 발간하여 대내적으로 경영지침 및 교육 자료로, 대외적으로는 기관의 사회적책임 이행 결과보고 및 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환경’ 부문 포함

기획재정부는 2021년 2/4분기부터 ESG, 사회적 가치 등에 관한 각계의 관심과 논의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환경 부문을 비롯한 ESG 관련 항목을 추가·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수집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추가된 경영공시 항목은 ① 일·가정 양립지원 ② 안전 및 환경 ③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④ 계약정보에 혁신조달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포함되었다. 환경 부문의 세부 항목은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다(표 5-13 참조).

〈표 5-13〉 공공기관 경영공시 추가 항목 (2021년 3월 이후)

항목	세(세)항목		내용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돌봄 휴가·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개정내용을 반영,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 항목으로 분리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안전 및 환경	안전경영책임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 기관의 환경 보호 노력을 공개
	녹색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사회공헌활동	봉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하고, ‘증여’를 ‘기부’로 명칭을 변경
	기부 실적		
계약정보	수의계약	혁신조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 기관의 혁신조달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 확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목 확대한다(보도자료, 2021년 3월 4일자) 내용을 저자 정리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 경영에도 소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강조되면서 탄소배출 감축 등 친환경성 제고가 기관 경영의 핵심 영역을 부상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도 환경 분야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사회적 책임과 조직·인사 등 거버넌스 영역은 있으나 환경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폐기물 관리 및 녹색제품 구매 실적, 환경 관련 혁신노력 및 성과 등 환경 부문을 지표에 포함하여 문화예술 부분 공공기관 경영에 환경이 결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표 5-14 참조).

〈표 5-1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안(예시)

범주	기존 평가지표	평가지표 개선안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 경영비전 실행 전략 및 노력	- 경영비전 실행 전략 및 노력
	- 리더십	- 리더십
	2. 고객관리	2. 고객관리
	- 고객관리 활동	- 고객관리 활동
	- 고객만족도	- 고객만족도
	3. 사회적 가치 구현	3. 사회적 가치 구현
	- 윤리 및 인권 경영 노력과 활동	- 윤리 및 인권 경영 노력과 활동
	- 사회 책임성 제고 노력	- 사회 책임성 제고 노력
	-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	-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
	4. 조직·인사·재무 관리	4. 조직·인사·재무 관리
	- 조직·인사 관리	- 조직·인사 관리
	- 재무·예산 관리	- 재무·예산 관리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 및 복리후생
	- 총인건비 인상률	- 총인건비 인상률
	- 노사 관리	- 노사 관리
	6. 정부정책 협력	6. 환경 관리
	-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 온실가스 감축 실적
	- 정부정책협력도	- 폐기물 관리 및 녹색제품 구매실적
- 혁신노력 및 성과	- 환경 관련 혁신노력 및 성과	
	7. 정부정책 협력	
	-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 정부정책협력도	
	- 혁신노력 및 성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평가 편람, 2021.7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투자 계획 수립

탄소배출 감축과 2050년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 저감 및 대체에너지 활용, 폐기물 처리, 친환경교통 이용촉진, 흡수원(삼림·녹지) 조성 등을 위한 제반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특히 소규모 문화시설이나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등 탄소중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현재 공연시설 개선 등 이미 계획 중인 지원 사업(표 5-15 참조)을 확대·추진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산정 후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 협의를 통해 기존 정부사업 영역에 문화예술 부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5-15〉 탄소중립 공연장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명	세부 사업	내용
탄소중립 공연장 지원	에너지 저감 공연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조명 등 교체, ▲ 태양광 발전 도입 ▲ 에너지저장장치**(ES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 공연장 냉난방 기능 개선
	자류사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전자티켓 도입(일회성 종이 티켓 발행 최소화 및 티켓 발권의 효율성 강화) ▲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홍보용 전광판 확대)
	공연장 주변 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조경, 로비 내 벽면녹화(수직정원) 등 조성
	탄소중립 공연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없는 대본, 세트 및 소품 재활용, 공연관람 대중교통 이용 등 홍보 캠페인 진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 LED 조명: 일반 조명 대비 저전력·고효율, 공연장별 66~92% 사용전력 절감 효과 추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

그리고 지방의 경우 노후 정도가 심하고 에너지 효율성 등을 떨어지는 문화시설이 다수 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ling)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편성사업(시도자율편성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지방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친환경 리모델링 예산의 신규편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뉴딜의 국정목표 성취와 지역문화 환경 개선을 동시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제적 접근을 지양하고 주요 시설 및 기관이 탄소배출량을 저감한 만큼 출현 및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저감된 탄소배출량 만큼 시설 및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는 것³⁵⁾ 등이 있다.

35) 장세길 저, 문내용을 반영하여 저자 작성

마.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조치와 탄소중립의 이행은 제도적 근거를 가질 때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인증 의무화(2020년부터 1,000㎡ 이상)’와 같이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할 법령 하에서 공공시설·공공기관은 의무 이행 사항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제 혹은 강제조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별도로 넣기보다는 문화예술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시 친환경, 탄소중립 등에 관한 내용이 검토되고 정책과제로 제안되도록 조치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문화기본법」 제 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의 11항,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의 3항에 친환경 관련 사항이 들어갈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법」 등 주요 문화시설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한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과 환경교육 간 적극적인 결합이 중요하므로 이의 근거조항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포함할 수도 있다.

〈표 5-16〉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 (예시)

법률	현행	개정(안)
문화 기본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문화·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문화·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및 친환경적 관리·운영 에 관한 사항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과 친환경적 조성·관리·운영 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①~⑤ 동일 ③ 문화예술교육은 환경문제에 관한 소통과 해결, 연대의 동인으로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문화와 환경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자료: 저자 작성 (*은 장세길의 자문내용을 반영)

1-3. 자원순환과 문화예술의 결합 방안 마련

가. 문화예술 부문의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³⁶⁾

문화예술 창작 활동 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연극·영화, 미술전시, 공연예술, 축제는 물론 생활문화 활동,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소품과 장치, 각종 재료들을 일회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공연예술과 관련된 무대 장치, 미술전시에 필요한 설치물들이 있으며, 북과 장구와 같은 국악기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출판·인쇄업계에서는 팔리지 않아 폐기되는 도서와 인쇄물이 많고 이것들의 재활용(재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술부문의 자원낭비를 막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관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문화재단)가 협력하여 폐기되는 것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소를 광역별로 설치하는 한편,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창·제작 과정에서 물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자연에 해가 없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므로 친환경 예술창작 소재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연구개발(R&D)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혹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업(리)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에너지사용량 저감,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용 못지않게 환경이슈 및 탄소중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폐기물처리와 재활용 등 ‘자원순환’이라 할 수 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이슈는 재활용, 1회용품 사용저감 등의 자원순환에 관한 것으로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자원순환과 연계한 정책사업 개발이 요구된다.

국외 사례에서 언급한 미국 뉴욕시의 ‘Materials for the Arts’는 단순히 예술적 체험

36) 장세길과 공규현의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저자 작성

을 통한 자원순환을 넘어 폐기물을 예술창작재료로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자원순환(폐기물 재활용)과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업(리)사이클링을 주제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의 예는 국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의 '서울새활용플라자'와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를 들 수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비록 문화예술로 특화된 시설은 아니지만, 각종 폐기물로 다양한 실험과 창작활동이 가능한 팹랩(Fablab) 운영, 각종 교육과 전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광명 업사이클링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시설로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유통·공급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업사이클링아트 전시, 목공교실 등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표 5-17 참조). 또 다른 사례로 파주 무대공연중합아트센터는 국립 예술단체의 무대용품(무대장치, 소품, 의상 등)을 보관하고, 상호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건립 중이며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5-17〉 업(리)사이클링 관련 문화시설 사례

시설 명	개요	주요 기능
서울새활용 플라자 (http://www.seoulup.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활용(업사이클)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새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새활용을 재미있게 체험하는 교육과 전시회가 이루어지는, 새활용 문화 확산 거점 공간으로 운영 •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산·유통·소비의 가치 있는 건강한 순환이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은행) 새활용소재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 (재사용직업장)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재분류·가공하여 활용 ▷ (공꾸는 공장) 교육하고 만들고 고치는 업사이클 팹랩(Fablab) ▷ (입주시설) 새활용기업, 연구소, 협회, 디자이너, 작가들의 스튜디오 공간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http://www.gm.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선정 • 2015년 국내최초 업사이클 예술공간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개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우수사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사이클 아트 관련 상설·기획전시 개최 ▷ 목공교실 등 업사이클 관련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료: 각 시설별 홈페이지를 참고로 저자 작성

이렇듯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자원순환과 연계한 문화예술 콘텐츠나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폐자재 및 각종 용품, 악기 등을 중개 혹은 거래할 수 있는 '업(리)사이클링 주제 복합문화공간' 건

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원순환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과 연계, 업(리)사이클링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로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자원순환’ 결합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자원순환마을사업과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문화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사례를 볼 때 이들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공방운영(목공교실), 문화예술 결합형 체험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5-18〉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업사이클링 사업

대상마을	사업명	사업내용
의왕시 부곡동	살리美 목공교실	• 폐원목기구를 활용 벤치의자 제작, 자투리 목재 활용 분리수거대 제작, 원목트레이제작, 목공동호회 결성
	새살림 리폼교실	• 헌옷, 전사지 및 레이스 등을 활용하여 리폼하는 업사이클링 교실, 폐박스 놀이용품 제작,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된 그림책을 폐도서로 활용하여 팝업북으로 업사이클링
부천시 송내동	청소년 업사이클링 환경교실	• 폐자원(납은 청바지, 페트병, 테이크아웃컵) 화분만들기, 페드럼통과 목재활용 텃밭상자 제작, 자투리천을 활용한 쿠션, 머리끈 제작
고양시 선유동	마을우체국 만들기, 크린하우스 만들기	• 마을우체통 만들기(폐목 다듬기, 나무자르기, 페인트칠하기), 크린하우스 제작(크린하우스 설계, 폐목다듬기, 나무자르기, 페인트 칠하기)
양평군 평산 1리	업사이클링 교실 운영	• 외부강사 및 주민강사 이론과 실습교육, 소품, 공동작품 만들기
부천시 심곡본동	업사이클링 환경교실 운영	• 슈링클스(굽는 종이), 환경캐릭터 만들기, 재활용 활용법 교육(한지다만, 서랍함 등), 폐현수막으로 앞치마 제작
성남시 하대원동	업사이클링 강연	• 버려진 페커피컵을 이용하여 수중식물 화분 제작, 버려진 청바지 호주머니를 이용하여 나만의 액자 만들기 강연
	업사이클링 소공원 조성	• 마을 내 버려진 소공원으로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한 어린이 놀이터를 버려진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업사이클링 소공원으로 조성

자료: 이정임·정혜윤(2019),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 방안, 경기연구원, p.5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참여와 향유를 위해 생활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주요 생활문화시설은 생활

문화센터,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을 합쳐 481개에 이른다. 이러한 생활문화 사업과 ‘자원순환’의 결합을 통해 문화예술에 기반한 ‘생활 속 자원순환의 실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19〉 주요 생활문화시설 현황 (2021년 6월 기준)

기관 수	시설 구분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149	102	230	481	

자료: 노수경(2021),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39 〈표 2-15〉를 저자 수정

따라서 자원순환 등 환경이슈가 결합한 생활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전국의 생활문화시설이 시설 운영이나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지역거점’ 기능을 할 수 있게 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이슈와 결합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예로 한국문화의집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슬기로운 불편생활’³⁷⁾을 들 수 있다.

〈생활문화 연계 사례〉 한국문화의집협회 ‘슬기로운 불편생활 - Easy! 캠페인’

□ 사업배경

- 2014년 생활문화축제에서의 쓰레기 없는 축제, 개별 문화의집에서의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과 강좌 운영 등 소극적 실천사례로 환경이슈에 대응해 오던 문화의집에서는 코로나 19 라는 상황을 접하며 보다 근본적인 환경 이슈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이에 협회차원의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태도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생활문화 차원에서 실천적 환경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함 (2020-현재)
 - 자연, 사람과 공존하기 위한 불편생활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
 - 캠페인을 통한 문화의집 이용자들의 새로운 삶의 전환가치 공유
 - 문화의집의 새로운 일상의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

□ 사업 내용

- 이달의 Easy! 캠페인
 - 매월 캠페인 게시물 협회에서 제작 후 문화의집 공유
- 문화의집과 함께하는 있지! 캠페인
 - 문화의집과 협회가 함께 공동 기획하여 문화의집 이용자가 참여,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 제작

[문화의집협회가 진행하는 캠페인 예시]

(사업 명) 기후야 그만 변해 내가 변할게! (사회이슈) 환경, 자연과 관련된 현재 이슈를 선정(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진행방향)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 (참여대상) 문화의집 이용자, 슬기로운 불편생활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 등 (세부내용) (8월) 1탄-“슬기로운 불편생활이런?” (9월) 2탄-“플라스틱 제로 운동! 함께 실천해요!” (10월) 3탄-“2019 전국문화의집 축제 내용 공유, 그때는 말이야(친환경대안용품, 생각하는 손 등)” (11월) 4탄-“너림의 미학! 나의 삶의 속도 찾아보기” (12월) 5탄-“즐거운 불편을 실천하자!-업사이클링, 걷기, 이웃에게 안부묻기 등”
--

37) 권순석의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저자 작성

2. 문화예술을 통한 환경이슈 대응 및 적응 강화

2.1. 문화예술분야 주요 정책 사업에 ‘환경’ 결합

2019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내역사업은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체육, 문화 및 관광일반을 통틀어 총 1,012에 달했다. 문화예술은 325개(전체 중 32.1%)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내역사업이 가장 많은 부문이다(표 5-20 참조).

〈표 5-20〉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보조사업 현황

(단위: 개, 억 원, %)

부문	내역사업수	비중	예산현액	비중
문화예술	325	32.1	10,468	26.8
관광	306	30.2	9,011	23.1
콘텐츠	217	21.4	5,142	13.2
체육	160	15.8	14,302	36.6
문화 및 관광일반	4	0.4	103	0.3
합계	1,012	100.0	39,026	100.0

※ 주: 예산현액은 이월액 등 조정을 포함한 예산이며 국회 확정 예산편성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장훈(2020),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160 재인용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부문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인력양성,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이 상당수이긴 하나, 공간 및 시설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 환경기준 준수 및 친환경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환경이슈를 결합한 콘텐츠 개발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 포함되어있다. 예를 들어 공공미술 및 유희 공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오래된 건물에 벽화 제작이나 조형물 설치하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그 자체가 환경적 위해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거나 친환경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도시 및 지역 단위 문화공간 조성,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시설 조성 사업은 환경이슈 대응 및 저감 계획 수립, 친환경건축물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과 관련 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환경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주요 사업과 환경 결합 여부를 정리하면 〈표 5-21〉과 같다.

〈표 5-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주요 정책사업과 환경경합 여부 (예시)

	사업 명	사업내용	환경경합 여부	비고
문화정책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양성평등사업 등	×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인생나눔교실, 길위의 인문학, 인문활동가 양성 등	○	• 생태·환경 관련 전통지식 및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발굴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수어보급, 세종학당 운영 지원 등	×	-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지원	-	×	-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	×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	×	-
	전통생활문화 진흥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전통놀이문화 조성 등	○	• 생태·환경 관련 전통문화 발굴 및 보급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	-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	×	-
	개도국문화자원역량강화(ODA)	개도국 문화예술 전문가 초청 연수 등	×	-
	유네스코 협력(ODA)	-	×	-
	국제문화 정책지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등	●	• 동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환경적 요소 고려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원	-	×	-
	국민문화활동지원(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	×	-
	문화예술항유지원(통합문화이용권)	-	×	-
	한스타일 육성지원	-	×	-
문화예술 해외교류	-	×	-	
예술정책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국립예술단, 예술관련 공공기관 지원	×	-
	예술의 전당 지원	-	●○	• 환경기준 준수 및 탄소저감계획 수립 • 환경예술 관련 콘텐츠 제공
	예술의 전당 리모델링	-	●	• 환경을 고려한 리모델링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공연연습공간 조성,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	• 공연장 안전과 더불어 친환경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정동극장 등 주요 예술인프라 구축	●	• 환경기준 준수 및 탄소 저감계획을 고려한 시설 운영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전통예술 특화 창작공간 확보	●	• 환경기준 준수 및 탄소 저감계획을 고려한 공간조성 및 운영
	예술창작활동 지원	한민족문화예술 지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등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	-
	함께누리 지원	장애인예술역량강화, 공연장 조성 등	×	-

	사업 명	사업내용	환경결합 여부	비고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 등	×	-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	×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	×	-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	• 환경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미술진흥기반 구축	미술창작 및 향유 지원,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	• 환경 주제 공공미술프로젝트 기획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사회·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	• 생태·환경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ODA	-	○	-
지역문화 정책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	• 환경기준 준수 및 탄소 저감계획을 고려한 시설 개선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	×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박물관 운영활성화, 대학박물관 진흥 지원 등	○	• 박물관·미술관 친환경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
	지역문화 진흥	생활문화활성화, 문화의 달 행사 지원, 문화적 도시재생,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배치 등	●○	• 문화의 달 행사 탄소배출 및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 • 환경이슈와 생활문화프로그램 결합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	×	-
	국민문화활동지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지원	●	• 문날 행사 공모 제안서에 환경대책(폐기물, 재활용 등) 포함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근대화지원 활용 관광자원화 등	●	• 시설 조성 시 환경기준 준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	• 주요 문화시설의 환경지표 설정 및 데이터 수집
	문화시설 확충(균특)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	• 환경기준 준수 및 탄소저감 계획 수립
	문화도시 조성(균특)	-	●	• 문화도시 선정 기준에 환경 부문 포함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균특)	-	●○	• 시설 조성 시 환경기준 준수 • 환경 관련 문화콘텐츠 제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사업(아특)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등	●○	• 조성계획 및 실행계획에 환경부문을 핵심요소로 채택 • 문화전당 사업에 환경이슈 결합

자료: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각 국별 예산집행계획을 토대로 저자작성

(주) ●: 시설 건립 및 운영에 있어 환경이슈 대응 (환경기준 준수, 환경관리계획 및 이행 등)

○: 환경이슈가 결합된 문화예술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해당 사항이 적거나 없음.

2.2. 환경 주제 문화예술 사업 기획·추진

기후환경변화와 탄소중립,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훼손 등 환경이슈 주제와 관련된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추진하여 예술을 통한 환경문제를 의제화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3장에서 제시한 ‘기후시민 3.5’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환경 주제 공공예술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예술프로젝트의 효과는 대외적으로 문화예술의 창의적 속성을 활용하여 환경이슈를 직관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대내적으로 문화예술인,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환경 관련 전문가 등 서로 다른 영역의 관계자들이 환경을 매개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순환경제 모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예술캠페인’ 추진 또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의 날(4.22), 세계환경의 날(6.5), 대한민국에너지의 날(8.22) 등 환경 관련 기념일이나 별도의 환경예술주간(관계부처, 민관 협력 사업)을 지정하여 캠페인에 참여하는 민간 예술단체와 예술인, 시민들의 창·제작지원을 통해 문학, 공연·시각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환경 관련 예술작품을 발표·전시하고 환경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참여를 모색한다.

주요 국립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의 국가중추기능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여 환경이슈와 관련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각예술분야는 환경을 주제로 한 창작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박물관과 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건축·디자인·현대미술 등 다분야 예술가들의 프로젝트를 제작·지원하고 술·환경·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와 관련된 공공미술 설치 및 작품 전시, 참여형 워크숍 및 전문가,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환경 및 생태에 기반한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환경, 문화 및 콘텐츠, 기술 등 융합영역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변화 전략이 필요한데, 환경과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생태문화예술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전문 인력 발굴·양성과 창작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³⁸⁾.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생태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에코-크리에이터 양성 입문과정’을 운영하여 71명의 전문 인력을

38) 이병민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양성했으며 '생태자원+문화콘텐츠'의 장르 접점을 시도한 69건의 다양한 결과물(공연, 영상, 공예, 스토리, 코딩 등)³⁹⁾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3. 환경 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

현재 제기되고 있는 환경이슈의 근본적 해법은 국가는 물론 기업, 시민들의 행동양식 전환이라고 할 때, 각 사회주체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⁴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년 6월 18일 발표한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를 통해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의 목표 하에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표 5-22〉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목적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생태전환교육' 비전 제시
목표	•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 •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태전환교육 협력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교육주체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 등
운영방향	• (통합적 접근)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학문(교과)적 통합, 지식·태도·행동의 통합, 학교 안팎의 통합 추구 • (혁신적 접근) 생태전환교육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혁신적 재구조화 • (실천적 접근) 중장기 계획의 실행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및 조직 구성 • (구성적 접근) 중장기 계획을 연도별 목표와 과제의 로드맵 방식을 수립하되, 체계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 (협력적 접근)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생태전환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 • (세계시민적 접근)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실천교육의 생태전환교육 운영, ACE(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 프로그램 활성화

자료: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2020-20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 2020년 6월 3, 4주 내용을 저자 정리

39) <https://www.siheung.go.kr /media/bbs/view.do?bldx=133380&ptldx=82&mlid=0100000000> (검색일자: 2021.11.17.)

40) '생태전환교육'이란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2020-20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 2020년 6월 3, 4주)

생태전환교육과 문화예술의 결합은 자칫 ‘교육’이 가지는 일방 주입적이고 계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고 자유로운 창의적 경험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⁴¹⁾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1년부터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생태·환경 주제 신규 사업으로 ‘순환랩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순환랩 프로젝트의 목적은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인간을 둘러싼 생태 및 사회구조 속 순환·공존의 가치를 성찰하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운영하여, 다양한 주체들(예술가, 생태활동가, 기술 작업자 등)과 함께 일상의 삶과 밀접한 예술 활동 및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환원시킬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구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하는데 있다.

〈표 5-23〉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순환랩 프로젝트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사업명	•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순환랩 프로젝트
사업기간	• 2021년 4~12월
사업내용	• 생태-인간-사회 구조의 순환적 가치를 성찰하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 및 가족, 시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운영규모	• 5~7개 자율랩 운영
추진방식	• (교육진흥원) 사업계획 수립, 전문가 및 자율랩 기획·구성, 프로젝트 실행 총괄 • (전문가그룹) 프로젝트 방향에 따른 자율랩 기획·구성 지원 및 해석, 아카이빙 등 • (자율랩) 프로그램 실행 및 콘텐츠 기획·개발 및 운영 등 • (운영대행사) 사업 및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생태·환경 주제 신규사업 순환랩 프로젝트 추진 계획’ 내용을 저자 정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현재 시범사업 수준에서 벗어나 생태·환경 부문을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생태·환경이슈와 문화예술교육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소개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순환랩 프로젝트’와 환경전문가, 예술인, 시민사회가 함께 기획·실행하는 환경-문화 연계 리빙랩(Living Lab) 사업 확대 운영, 친환경소재·업(리)사이클링 소재를 사용한 미술교육프로그램 개발, 환경미디어교육 확대·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기관·단체, 민간 등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환경 관련 실험적인 문화교육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41) “생태·환경 이슈를 문제화하여 직접적인 교훈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상상력,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연과 인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자문회의 결과보고), 2021.3월)

3.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소통과 협력

2.1.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혹은 관련 사업은 공공영역만 하더라도 정부 및 지자체, 소속기관(국립 문화시설), 지자체 문화시설,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환경이슈'는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 또한 미비한 수준이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 전체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문화예술 분야 또한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환경이슈, 특히 탄소중립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의 수립 및 이행계획, 모니터링, 교육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광역·기초협의체), 문화시설별 협회 혹은 연합회, 민간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량 등 제반 환경 모니터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 (가칭) '탄소중립담당관'을 지정하고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실무 총괄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 국공립문화시설 및 공공기관 등 각 기관별 전담조직·인력의 지정 또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상과 같은 계획 수립과 관련 추진체계 구성은 아직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는 물론 관련 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요구된다. 한편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환경모니터링 결과와 모범사례, 주요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각 기관의 정책 수립과 사업 운영, 여론 환기 등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2022년에 시범 개통 예정인 '(가칭)지역문화정보시스템'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들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과 환경 등 분야 간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또한 필요하다.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간 정부 부처 간 협력은 물론, 환경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예. 한국환경공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간의 공동프로젝트 및 캠페인, 환경과 문화예술 분야 연구기관(한국환경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간 공동연구

및 워크숍 기획·추진 등을 모색할 수 있다.

2.2. 민관협력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공은 물론 민간 문화시설 및 주요 단체들은 환경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재정, 인력 등에서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대응방식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현장’에서 친환경적 관점을 확산하고 환경이슈의 해결책을 공유하는 ‘민관 공동 참여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기관 및 개인(예술가, 기획자 등) 컨설팅과 워크숍 등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 현장의 친환경적 실천 성과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⁴²⁾.

첫째, 공공기관이 전담하여 이를 주도할 경우 탑다운 방식의 실천으로 인해 행정업무만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인 ‘줄리의 자전거 (Julie’s Bicycle)’와 같은 비영리기관(NPO) 혹은 공공과 민간의 예술가/기획자, 비예술 분야 민간 환경 전문단체가 결합한 민관 협력 기반 문화예술분야 환경전문조직의 설립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기후 문해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교육·컨설팅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적응과 저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이슈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공연예술은 문학, 시각예술 등 타 분야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종합예술로, 협업 주체들의 환경 이해와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동의, 실천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환경이슈에 관한 체계적인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참여 컨설팅 및 교육의 대표적인 예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Accelerator Programm, 2장 참조)’를 들 수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 현장의 친환경 실천 성과와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탄소배출 감축 관련 혁신적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그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모범사례 공유 및 포상의 예로는 영국 Julie’s Bicycle이 주관하는 ‘Creative Green Awards’를 들 수 있다.

42) 박지선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모범사례 공유 및 포상 사례〉 영국 Julie's Bicycle의 Creative Green Awards

□ 개요

-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공동체의 성과를 인정하고 기리기 위해 2017년부터 영국의 환경 분야 비영리단체 Julie's Bicycle에서 주관하는 시상식.
- 수상자 혹은 기관은 Creative Green Awards와 인증서,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로고(logo)를 부여받음.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환경컨설팅을 제공받게 됨.

□ 시상내용

- (Best Creative Programming Award) 환경문제에 관한 창의적 영감을 준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래밍
- (Best Campaign Award) 창의적 기후행동을 취하도록 영감을 준 최고의 캠페인
- (Outstanding Achievement) 지속가능성에 있어 탁월한 진전을 거둔 조직
- (Best Newcomer) 올해 최초로 Creative Green Assessment를 시행하고 탁월한 헌신을 보인 조직
- (Highest Achievement for Commitment) 조직 경영 등에 있어 탁월한 헌신을 보여준 조직
- (Highest Achievement for Understanding) 이해관계자의 환경태도, 환경영향에 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에 있어 탁월한 이해를 보인 조직
- (Highest Achievement for Improvement) 에너지 저감, 폐기물 처리 등에 탁월한 개선을 보인 조직
- (Creative Green Champions) 조직 안과 밖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환경이슈에 창의적 노력을 한 개인
- (Pioneer Award)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및 솔루션 시도 등 탁월한 혁신을 보인 조직

출처: Julie's Bicycle 홈페이지 (<https://juliesbicycle.com/news/announcing-the-creative-green-awards-2020/>, 접속일자: 2021.11.25.)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제6장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환경변화,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관련 문제와 이슈는 이제 직면한 모든 분야와 연계되고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임이 분명하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친환경’이 중요성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로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문화예술에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시설 운영 등에서 친환경 관점을 도입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유네스코(UNESCO)와 같은 국제기구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국내도 국외의 주요 국가들 못지않게 이제 다양한 친환경과 문화예술을 접목하거나 친환경 이슈를 문화 예술에서 포함하는 시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대표적으로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전국민 친환경 문화예술 정책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전 국민, 담당자 모두 향후 중요한 이슈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적절한 정책과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에 비해 현실의 제약을 크게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제한 혹은 벽이 있었으며 두 번째 다양한 노력이 체계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 문화예술분야의 적극적인 환경이슈 대응과 참여

환경이슈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높으나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는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거나 또한 공공기관 혹은 정부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저항과 한계가 있다. 이는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도시, 복지, 외교, 산업 등에서도 유사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인식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교육과 소통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오히려 문화예술분야에서 할 새로운 역할이 발생한다. 기존의 문화예술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서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위한 문화예술이 가능한 역할이 있다. 즉, 문화예술의 방식을 통해 친환경 이슈를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 분야에서도 이제 시민 공감에서 필요한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의 감성적, 창의적 그리고 소통의 역할에서 친환경을 공감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의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친환경 이슈와 함께하고 나아가 노동, 산업, 복지 등의 분야와 연계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현재의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2. 환경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실효적 정책 추진

환경, 생태계 등의 이슈가 운용되는 기본 개념이나 원리는 통합적인 시스템이다. 기후 문제, 탄소발자국 등의 문제가 간단한 사업, 캠페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의 부분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친환경 노력과 사업의 문제는 세분화된 문화예술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서로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흥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외도 유사하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친환경 이슈를 문화예술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관련 정책도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친환경 이슈를 개념화하고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정책적으로 통합 기본방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종합적인 정책목표, 방향, 이후 세부 분야로서 문화시설 이용 및 관리, 국민 향유 프로그램, 창조/창작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등이 구분되며 서로 연계되고 한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현재의 다양한 실험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향후 친환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체계구성,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 제도화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향후 과제

1. 상충된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조정 필요

모든 시설 및 공간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활동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정책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향유의 확대와 문화 참여 기회의 확대를 목표로 추진해왔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문화향유 및 참여 확대의 두 가지 방향성이 상호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zero-sum)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기존 문화예술분야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되 최대한 환경을 고려한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향유를 위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규 공간을 조성하기보다 폐·유휴 공간 혹은 가용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시청사 혹은 민간소유 건물(상업시설 포함)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화예술 창작, 공연 및 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무리하게 저장하기보다는 최대한 친환경에너지를 대체하려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하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 시 집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문화예술을 넘어 여가 및 일상생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성 제고

기후위기가 삶의 방식과 인간의 행위, 즉 광의적 측면의 '문화'에서 온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과 소비 과정을 중심으로 친환경 관점과 실천을 다룬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분야를 넘어 문화, 체육, 관광(여행)은 물론 일상적 휴식에 이르는 여가활동, 나아가 일상 생활방식의 영역까지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

하여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정책 영역인 '여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단순 산업과 향유의 개념을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초점을 맞추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친환경적인 문화예술 혹은 관광프로그램(생태관광 등)을 개발하고 이를 대표적인 국민여가활동을 연계함으로써, 휴식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체적인 친환경 실행정책, 가이드라인 및 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 및 지표의 기초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이와 연관된 구체화된 연구와 정책개발의 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의 결과에서도 친환경 정책의 시급한 도입에 앞서 '문화예술'에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실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제시된 만큼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주요 시설 및 공간운영, 문화소비 등에 있어 기관, 시설, 개인(예술가, 일반인 등)별로 탄소중립 및 친환경 가이드라인과 함께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환경 관련 적정기술 확보에 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친환경을 이끄는 효과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추진

문화적 창의성 그리고 상상력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시대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동인(動因)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개발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화되기 위해서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을 동인하는 예술에 대해 정책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 관련 별도 트랙을 만들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관련 영상, 콘텐츠 작업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 공모 지원 사업을 그리고 생활문화 공모사업을 개발할 수도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과 환경교육을 결합하기 위해 문체부, 환경부는 물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협업체계 구축 또한 향후 기획·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저서·논문·자료

- 관계부처합동(2019a),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20-2040)
- 관계부처합동(2019b),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
- 관계부처합동(2020a),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 관계부처합동(2020b), 대한민국 대전환-한국판뉴딜
- 관계부처 합동(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고용노동부(2018), 2018년 재정(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18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2018.3.22.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2018),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고재경·이우평(2015),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연구, 경기연구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2020),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기획자·창작자를 위한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
- 국토교통부(2019),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020-2024)
- 김문환(201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 제6차 ESD 콜로кви엄 & 제4차 문화예술교육 콜로кви엄 ‘지속가능한 미래와 문화예술교육’ 기초발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성원(2015), 기후변화와 인권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5권 제2호, pp.129-154.
- 김세훈(2009), 녹색성장시대의 문화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원제(2010), 웰빙 엔터테인먼트로서 그린콘텐츠(Green Contents), 콘텐츠산업 정보포털 전문가 칼럼 2010.5.1., 한국콘텐츠진흥원
- 김종철(2019), ‘근대 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 우리는 왜 질문해야 하는가’, 녹색평론 통권 제168호

- 김혜인·김영옥(2018), 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 통제 언어 및 메시지 소구 방향의 영향력, 광고연구(116), pp.138-179.
- 김화임(2016), 기후변화와 인류세 시대의 문화구상, 인문과학 제60집, pp.41-66.
- 김효정(2013),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노수경(2021),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노영순(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노영희(2015), 녹색도서관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32권 제3호, pp.99-130.
- 노준석(2010), 그린콘텐츠의 개념, 범주 그리고 전략, 콘텐츠산업 정보포털 전문가 칼럼 2010.5.1., 한국콘텐츠진흥원
- 대한민국 외교부(2016), OECD 개황
- 대한민국 정부(2020),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
- 대한민국 정부(2020),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2018),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체육관광부(2008),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평가 편람
- 박세훈(2017), 해비타트Ⅲ 의제(The New Urban Agenda) 이행방안 연구, 국토교통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 박시원(2016),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16(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pp.285-322.
- 박종원(2017),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39(1), pp.101-144.
- 배윤(2009), 한국의 환경정책의 변천과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에서 「통상정책」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5호(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pp.1-12.
- 부산문화재단(2021),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19), 2019 에너지 통계연보
- 신용승 외(2016), 환경과 문화예술콘텐츠 융합을 통한 기후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2021),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
- 에너지관리공단 (2008), 기후변화 인식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 오민주·남영숙(2019), 환경친화적 소비와 관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및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35-140.
- 유호천(1996), 환경친화 주거계획, 한국생활환경학회지, 3(2), pp.1-4.
- 윤현주(2020), 삶을 위한 예술, 생태예술들의 탐험, 현대미술학 논문집 24(1), pp.31-53.
- 이승재(2009),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제간 한국관광정책 봄호 (2009.4.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86-91.
- 이승준·강대석·한순금(2020), 지속가능성 정책지원을 위한 환경용량 평가체계 및 활용 연구, 한국환경평가정책연구원
- 이정임·정혜윤(2019),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 방안, 경기연구원
- 이장훈 외(2020),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KEI 포커스 제8권 제15호(통권 69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장훈(2020),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정정호(2000), 예술의 생태학적 개입과 녹색문화만들기-환경과 문화예술, Arko 웹진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0년 4월호
- 진영효(2010), 문화기반시설 탄소배출량 산정 및 절감 목표 관리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의당(2016), 「문화예술의 정의로운 전환 공약집(20대 총선 문화예술공약)」.
- 정의당, 지방선거 문화 공약 발표(2018.5.11. 보도자료).
- 채영길(2019), 국내 환경커뮤니케이션 (Environmental Communication)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보, 97, pp.119-152.
- 추장민·명수정·김춘이(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 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 프로젝트 궁리 (2019), '예술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예술, arte 36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04.22.)
- 허민영·황미진(2020),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 연계 강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허장(1999), 한국의 환경정책의 전개, 논란, 어그러짐: 환경영향평가의 사례, 한국사회학 제33집(봄호), pp.129-155.
- 홍유철(2020), 기후변화와 코로나, 철학과 현실, pp.77-91.
- 환경부(201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
- 환경부(20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 환경부,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2015.12월,

국외 저서·논문·자료

- Americans for the Arts (2015), Arts,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 Art Council England(2019), Environmental Reports 2018-22
- ASEF (Asia-Europe foundation) (2008), Linking the Arts to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Curtis, D.J., N. Reid & I. Reeve (2014). Towards ecological sustainability: observations on the role of the arts, SAPIENS: Surveys and Perspectives Integrating Environment and Society, vol.7, n.1, pp.1-15.
- Dessein, J., Soini K., Fairclough, G. and Horlings, L.(2015), Culture in, for and as Sustainable Development: Conclusions from the COST Action IS1007 Investigating Cultural Sustainability, University of Jyväskylä.
- Duxbury, Kangas & Beukelaer(2017), Cultural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ur strategic path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23, No.2, pp.214-230.
- Sydney Opera House(2015),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olicy
- Sydney Opera House (2019), Environmental Action Plan 2020-23
- UCLG(2015), Culture 21: Agenda 21 for Culture
- UCLG(2017), Culture,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riefing
- UNESCO(2017), Culture: Urban·Future -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UNESCO(2019), Indicator 2030
- World Cities Culture Forum (2017), Culture & Climate Change
- Gibson, G. O'Faircheallaigh, C. & MacDonald, A.(2008), Integrat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to Development Planning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Workshop), Fargo, ND: IAIA.
- IAIA(2009), What is impact assessment?, Fargo, ND: IAIA.
-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09), Status report and information circular: develop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Yellowknife, Canada: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

ABSTRACT

A Study on Eco-Friendly Perspectives of Culture and Arts

Noh, Youngsun·Jang, Hoon·Kim, Kyuwon

It can be confirmed from past experiences tha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climate change can cause and spread new diseases. Therefore, no one will disagree that COVID-19 is the most necessary time for new changes and effective action in the way of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In particular, environmental experts are mentioning that COVID-19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achieving the goals of the 2015 Paris climate agreement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It suggests that it is an inevitable time to solve problems such as exhaust gas and fine dust.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climate change, stem from none other than human actions and 'way of life', that is, culture. Many experts and activists are arguing that these environmental issues can be fundamentally resolved when not only scientific measures, but also “cultural transformation” is achieved.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creations and consumption activities generate some 'carbon' and 'waste' and damage the nature and living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t from an eco-friendly perspective in the stages of creation, media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in order to put it into practice, more specific guidelines, policy programs such as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projects, an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related sectors are needed. This study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environmental issues, diagnoses the current situation, analyzes cases, and derives major action tasks to provide a framework for mutual cooperation that can spread the value of culture to the environment and at the same time permeate the value

of the environment into the cultural field. The purpose is to prepare related policy tasks. First, in response to the global issues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climate crisis,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art is established and responsibilities and roles are highlighted. Second, practice cas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issues are examin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Third, we check whether the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carbon-neutral through a survey targeting Koreans and cultural facilities, and identif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inally, guidelines and practical program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an eco-friendly perspective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are established.

The eco-friendly policy direction of culture and arts derived from this study is 'active adaptation policy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and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risk reduc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are ① Responsibility, ② rationality, ③ Equity, ④ Creativity.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4Cs' such as ① Carbon-Free ② Re-Cycling ③ Communication and ④ Collaboration as practice area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based on an eco-friendly perspective by synthesizing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policies, and cases.

First, 'Carbon-Free' is about minimizing carbon emissions when promoting cultural arts-related activities and related projects, and creating various environments and promoting policy projects to achieve this. Operation of cultural facilities and institutions, development of measurement indicators and management manuals for managing the amount of carbon that may be generated during major events and festivals,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lated policies may be included. Ultimately, it will also be an important task to set a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in the arts and culture sector in conjunction with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and to establish an implementation plan. Second, 'Re-Cycling' includes guidelines and policy projects on the eco-friendly treatment and recycling of various wastes and pollutants generated from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related projects. can Third, environmental 'Communication' is about environmental communication using

culture and art, and it can examine the activation of the creative activities of environment-related cultural artists,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combined with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spread of green living culture and policy development. Fourth, 'Collaboration' relates to the establishment of inter-ministerial and public-private communication and partnerships to combine environmental issues and culture.

Keywords

Culture & Arts, Environment, Climate Change, Carbon-Free, Re-Cycling, Environmental Communication, Collaboration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부록 : 설문지

[부록] 설문지

문화예술분야 친환경 정책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일반국민)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https://www.kcti.re.kr>)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의거, 문화예술의 발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관광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공공 문화서비스분야의 친환경 정책 도입을 위한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 문화서비스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대국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시설을 포함합니다.

본 조사는 공공 문화서비스 시설의 친환경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 분석과정에서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08월~09월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책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노영순·장훈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수행기관	(주)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전다을 연구원(02-6743-3339)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small>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small>		

B. 일반적 환경 인식

※ 지금부터는 귀하의 환경 관련 인식과 평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6. 귀하는 현재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보통이다	느끼고 있다	매우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7. 귀하의 삶에 기후변화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보통이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8. 우리의 생활에 기후변화가 언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까?

- ① 현재 영향을 받고 있음
- ②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줄 것임
- ③ 50년 이내에 영향을 줄 것임
- ④ 100년 이내 영향을 줄 것임
- ⑤ 1,000년 이내에 영향을 줄 것임
- ⑥ 영향이 없을 것임

문9. 다음은 '친환경'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환경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환경을 위해 일상적인 습관을 바꿀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환경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생활하는데 있어 친환경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문10. 본인의 일상적 친환경 실천(가까운 거리 친환경 교통수단이용, 1회용품 자제, 전기/물 절약, 친환경제품 소비, 재활용의 생활화 등)를 고려할 때 귀하는 '친환경'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친환경적인 편이다	매우 친환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0-1. (문10의 ①, ②, ③ 응답자만) 본인이 친환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개인의 친환경적 행동 등이 전체적으로 환경을 좋게 하는지 의문이 든다.
- ② 친환경적 행동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 ③ 환경에 위기가 왔는지 체감하지 못하겠다.
- ④ 친환경적 생활은 많이 불편하다.
- ⑤ 다른 사람들도 별로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⑥ 친환경적 행동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 ⑦ 친환경은 나의 삶의 질과 별로 관련이 없다.
- ⑧ 기타(구체적으로 :)

※ 지금부터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 탄소중립의 개념
-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에 맞서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문11. 귀하는 위에서 설명하는 탄소중립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들어본 적은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1-1. (문11의 ③, ④, ⑤ 응답자만) 귀하는 탄소중립 등 친환경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주로 접하십니까?

- ① 온라인 매체
- ② 지상파 TV
- ③ 유튜브
- ④ SNS(페이스북 등)
- ⑤ 온라인카페/커뮤니티
- ⑥ 신문, 잡지, 책
- ⑦ 교육(학교 교육 등)
- ⑧ 기타()

문12. 귀하는 탄소중립을 비롯한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매우 공감한다	공감한다	보통이다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C. 문화서비스 이용의 탄소발자국 현황

※ 지금부터는 **최근 2년(2019년~2020년)**동안 귀하의 공공문화서비스 이용 상태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 **공공문화서비스의 개념**

- 공공문화서비스이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문예회관), 축제(행사) 등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문13. 귀하가 이용하거나 이용 가능한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문예회관), 축제(행사))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편리하셨습니까?

매우 불편하다	불편하다	보통이다	편리하다	매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다음은 2019년 공공문화서비스 이용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문화기반시설	1-1. 방문 유무	해당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만(이용자)			
		1-2. 이용빈도	1-3. 주 이동수단	1-3-1 (자가용 응답자만) 자가용 연료	1-4. 이동 소요시간
	① 있다 ② 없다	① 매일 ② 일주일에 6회 이하 ③ 한 달에 2~3번 ④ 한 달에 1번 ⑤ 2~6개월에 1번 ⑥ 일 년에 1~2번 ⑦ 기타()	① 도보/자전거 ② 자가용(택시 포함) ③ 대중교통(버스, 전철, 기관차량 등) ④ 오토바이/전동 킥보드 ⑤ 기타() ⑥ 교통수단 비용 (온라인 이용 등)	① 휘발유 ② 경유 ③ LPG ④ 전기/수소 ⑤ 기타	응답하신 교통수단으로 평균 몇 분(편도) 소요됩니까? (교통수단 비용 제외)
1. 도서관					_____분
2. 박물관					_____분
3. 미술관					_____분
4. 공연장 (문예회관)					_____분
5. 축제(행사)					_____분

문15. 다음은 2020년 공공문화서비스 이용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문화기반시설	1-1. 방문 유무	해당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만(이용자)			
		1-2. 이용빈도	1-3. 주 이동수단	1-3-1 (자가용 응답자만) 자가용 연료	1-4. 이동 소요시간
	① 있다 ② 없다	① 매일 ② 일주일에 6회 이하 ③ 한 달에 2~3번 ④ 한 달에 1번 ⑤ 2~6개월에 1번 ⑥ 일 년에 1~2번 ⑦ 기타()	① 도보/자전거 ② 자가용(택시 포함) ③ 대중교통(버스, 전철, 기관차량 등) ④ 오토바이/전동 킥보드 ⑤ 기타() ⑥ 교통수단 비용 (온라인 이용 등)	① 휘발유 ② 경유 ③ LPG ④ 전기/수소 ⑤ 기타	응답하신 교통수단 으로 평균 몇 분(편도) 소요되니까? (교통수단 비용 제외)
1. 도서관					_____분
2. 박물관					_____분
3. 미술관					_____분
4. 공연장 (문예회관)					_____분
5. 축제(행사)					_____분

D. 친환경 문화서비스 수요

문16.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와 '환경'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화예술분야는 환경영역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예술 창작, 소비에 있어서도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국가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문화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문17. 귀하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친환경' 정책의 확대에 있어서 문화서비스분야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8. 귀하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문화서비스 이용 시 '환경' 이슈를 고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18-1. (문18의 ④, ⑤ 응답자만) 귀하가 문화서비스 이용 시 환경 이슈를 고려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 ② 그러한 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
- ③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시설을 응원하고 싶기 때문
- ④ 이왕이면 친환경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
- ⑤ 기타(구체적으로 :)

문19. 귀하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친환경'적 문화향유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해당 서비스의 가격부담
- ②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
- ③ 대안 부재
- ④ 습관을 바꾸기 어려움
- ⑤ 친환경에 대한 관심부족
- ⑥ 친환경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 ⑦ 기타(구체적으로 :)

문20. 다음은 귀하의 문화서비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문예회관), 축제(행사)) 이용 시 실천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실현할 수 없다	실현할 수 없다	보통 이다	실현할 수 있다	적극적 으로 실현할 수 있다
1	가까운 거리의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장소의 전기나 물을 절약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서비스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서비스시설에 제공하는 친환경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귀하는 친환경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비용'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여할 경우 세금을 더 부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다음은 문화서비스 기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문예회관), 축제(행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친환경' 관련 활동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문화서비스기관의 '친환경' 관련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문화서비스 기관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제도를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서비스 기관은 직원들의 친환경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친환경 정책의 중요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친환경 주제의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친환경적(녹지 등) 공간을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서비스 기관은 새로운 대안적 에너지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풍력, 태양광 등)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쓰레기 배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수질오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전기, 물 등의 낭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친환경적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자원(서비스 생활에 소요된 자원)의 재활용에 힘써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3. 귀하가 생각하기에 공공문화서비스 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문예회관), 축제(행사))에서 탄소중립을 비롯한 '친환경' 관련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분야 친환경 정책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 (국공립문화시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https://www.kcti.re.kr>)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의거, 문화예술의 발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관광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공공 문화서비스분야의 친환경 정책 도입을 위한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 문화서비스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대국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시설을 포함합니다.

본 조사는 공공 문화서비스 시설의 친환경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 분석과정에서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08월~09월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책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노영순·장훈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수행기관 (주)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전다울 연구원(02-6743-3339)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small>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small>	

A. 일반 현황

※ 본 조사에 응답한 국공립문화시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관명을 띄어쓰기 없이 기입해주시요.

기관명	
-----	--

문1.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행정구역 상 소재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문2.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행정구역 상 소재지 규모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대도시(서울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이하

문3.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도서관 ② 박물관 ③ 미술관 ④ 공연장

문4.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관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민간

문5.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 ① 기획/전략 부서 ② 시설관리 부서 ③ 기타()

B. 문화서비스 운영 방향

문6. 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양한 내·외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귀 기관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새로운 고객의 확보 ②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③ 새로운 기술의 도입
 ④ 혁신을 위한 투자 ⑤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⑥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⑦ 탄소발자국 절감 노력 ⑧ 종사자의 역량 강화 ⑨ 기타()

문7. 귀하는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운영 방침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새로운 고객의 확보 ②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③ 새로운 기술의 도입
 ④ 혁신을 위한 투자 ⑤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⑥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⑦ 탄소발자국 절감 노력 ⑧ 종사자의 역량 강화 ⑨ 기타()

C. 친환경 준비도

※ 지금부터는 각 시설별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 공공문화시설 친환경 정책

- 공공문화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고 있고, 쓰레기 배출이 많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공공문화시설의 친환경 정책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관련 문화사업 개발 등 문화시설이 친환경적 책임을 이행하는 모든 정책을 의미합니다.

문8. 다음은 문화예술과 환경부문간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화예술분야는 환경부문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예술 창작, 유통, 소비에 있어서도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국가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문화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9. 귀 기관에서는 '친환경' 대응에 대해 다음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구 분	전혀 압박감 없음	압박감 없는편	보통	압박감 느낌	매우 압박감 느낌
1 정부(자치단체포함)로 부터의 압박감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예술인으로 부터의 압박감	①	②	③	④	⑤
3 고객(이용객, 시민)으로 부터의 압박감	①	②	③	④	⑤

문10. 귀 기관의 기관장은 '친환경' 책임 이행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전혀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D. 탄소발자국 현황

문16. 다음은 귀 기관의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십시오.

구분	입력칸
1 개관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2 연면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 ²
3 건축물면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 ²
4 조경면적(가능한 경우 입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 ²
5 종사자수(총 인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17. 다음은 귀 기관의 연간 개관일수, 주당 평균 개방시간, 이용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2019년과 2020년으로 구분하여 기입해주시십시오(공간별 개방일, 개방시간 등이 다른 경우 가장 긴 것을 기준으로 기입해주시십시오).

구분	2019년	2020년
1 연 개관일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2 주당 평균 개관시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3 연 방문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 지금부터는 각 시설별 탄소발자국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 탄소발자국

- 탄소발자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발자국 모니터링과 탄소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18. 귀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탄소발자국'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E. 친환경 정책 수요

문21.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문화서비스분야에서도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문화서비스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약이 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관련 제도 및 가이드 미비 ② 친환경 정책의 모호성 ③ 시설운영과 낮은 연관성
 ④ 추가적 비용 초래 ⑤ 관련 인력의 부족 및 업무부담 ⑥ 관련 부서와의 협력 미흡
 ⑦ 친환경 정책 도입의 중요성 인식 미흡

문23. 다음은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실천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의 중요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문화서비스 기관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제도를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서비스 기관은 직원들의 친환경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친환경 정책의 중요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친환경 주제의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친환경적(녹지 등) 공간을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서비스 기관은 새로운 대안적 에너지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풍력, 태양광 등).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쓰레기 배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수질오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전기, 물 등의 낭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친환경적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문화서비스 기관에서는 자원(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자원)의 재활용에 힘써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4. 다음은 문화서비스시설이 '친환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영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화서비스 기관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 시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서비스 기관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서비스 기관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 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시민의 방문이 감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5. 다음은 문화서비스 시설 이용자가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동참할 것이다	많이 동참할 것이다.
1	가까운 거리의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1회용품의 사용 자제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장소의 전기나 물을 절약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서비스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서비스시설에 제공하는 친환경 문화프로그램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문26. 귀하는 향후 문화서비스 기관에 '친환경'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관련 법·제도 제정 및 정비
- ② 문화 분야에 특화된 표준 및 가이드 마련
- ③ 친환경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
- ④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대상 친환경에 대한 적극적 교육
- ⑤ 문화서비스 이용객의 친환경 인식 확대
- ⑥ 문화 분야 친환경 모니터링 및 인증제도 마련
- ⑦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율을 위한 협의체 마련
- ⑧ 문화부문 친환경 중장기 계획 수립
- ⑨ 기타 ()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문화예술분야 친환경 정책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국공립문화시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핸드폰 번호	답례품 지급	과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설문 종료 후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답례품 지급에만 활용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답례품 지급이 어려우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핸드폰 번호	
---------------	--	-------------------	--

집필내역

연구책임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일부, 제2장, 제3장, 제5장, 연구총괄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4장, 공동책임

연구진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장 일부, 제4장 일부, 제6장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발행인 김대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1년 12월 15일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899-7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42>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노영순·장훈·김규원(202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42>

